제 1 장

초원의 신작로로 기마병 하나가 쏜살같이 말을 몰아가고있었다. 뿌연 먼지타래가 그를 뒤쫓았다. 같은 방향으로 서풍이 그 먼지타래에 키질을 하였다. 허지만 기마병을 따라잡다니, 어림도 없지!

기마병은 산등성이에 이르러 말에서 뛰여내리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모자채양에 한쪽손을 가져다대고 주변을 살피였다. 그의 눈앞에 쓰딸린그라드의 북쪽구역 로동자촌이 펼쳐졌다.

수풀처럼 들어선 공장의 굴뚝들에서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오르는데 그 굴뚝들사이로 볼가강이 보였다. 바다와도 같이 넓디넓은 강이다. 여기서 보면 볼가강은 마치도 강안을 넘어나서 마을을 온통 물속에 잠근듯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기루였다. 거리들도 공장들에도 물이 미치지 못하였다.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한키

로는 넘을것이였다.
거리바닥에서 이리저리 말을 달리던 기마병은 뚜르게네브거리를 찾아냈다. 그 거리의 양지쪽에 책방과 가지런히 독립주택이 한채 서있었다. 그 집은 푸른지붕과 시뻘건 처마밑으로 난 사립문으로 하여 눈에 뜨이게 유별하였다. 하얀 덧창문이 달린 들창밑의 울타리안에는 애숭이 나무덤불이 푸르러가고있었다.
기마병은 바로 이 집에 볼일이 있었던것이다. 말에 박차를 가하여 달려온 기마병은 잠시후 사립문앞에 당도하였다. 손기척을 하고 잠시 기다리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것을 알자 더 멀리로, 도시로 말을 달리였다. 그 시각에 꼬스쨔가 집에 없는것이 정말 아쉬웠다. 기마병은 바로 그 애를, 꼬스쨔 뿌르긴을 찾아왔던것이다. 그는 두말할것없이 꼬스쨔더러 안장틀을 붙잡고 말에 올라타라고 했을것이고 또 그러면 멋있는 준마의 등에 앉아서 거리를 달릴수 있었을것이였다.
뒤미처 광주리를 든 할머니가 사립문쪽으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문밖에 떨어져있는 나무쪼각을 주어 광주리에 담더니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 찍힌 말발굽자리가 할머니의 주의를 끌었던것이다.
《이게 누구였을가?》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후 한숨을 짓고나서 빗장을 벗기였다.
한 반시간쯤 지나서 꼬스쨔가 사립문안에 들어섰다.
그애는 두겹깃달이 푸른 루바슈까에 회색바지를 입고 가죽장화를 신은 차림이였는데 바지가랭이는 장화목을 덮었고 장화에는 생생한 중유얼룩이 갔다. 그리고 걷어붙인 팔소매에는 어디서 우연히 묻은듯 라선으로 뱅뱅 탈린 자질구레한 쇠밥들이 달라붙어있었다. 빛이 연하고 총이 센 앞머리카락이 모자채양밑으로 삐여져 나와있었

고 코마루가 오똑한 둥그스름한 얼굴은 웬일인지 심중한 일에 골몰하는 어른들처럼 침울한 기색이였다.

사실대로 말하면 꼬스쨔는 그렇게 보이고싶어하였다. 그렇지만 언제나 사물을 바라볼 때면 경탄과 아이들다운 천진란만한 빛을 띠는 부리부리한 재빛 두눈이 그의 속심을 거역하군하는것이였다. 바로 지금도 꼬스쨔는 미간을 찌프리고 고개를 수긋한채 엄엄하고 생각이 깊은듯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건만 그 미소를 숨겨낼 재주가 없었다. 하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백양나무가 떡 막아서서 비킬 궁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웃음을 감출수 있으랴.

꼬스쨔는 그 백양나무와 인사라도 하듯이 나무가지 하나를 거머쥐고 잡아당기였다. 백양나무는 얼마간 굽어들었으나 바로 그 순간에 꼬스쨔의 손안에서 가지가 빠져달아났다.

(아니 너 어쩌면 그렇게 힘이 세졌니. 자 그럼 어디 한번 더!)

그러면서 꼬스쨔는 다시 나무가지를 거머쥐였다. 이번에는 꼬스쨔가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나무가지가 애처롭게 오직오직 소리를 내서야 꼬스쨔는 그것을 놓아주었다. 백양나무는 곧바로 허리를 펴더니 마치 실없이 장난을 한다고 꼬스쨔를 꾸짖기라도 하듯이 우듬지를 설레설레 흔드는것이였다.

열려진 창문으로 말소리가 들려왔다.

《꼬스쩬까야, 네시가 돼오는데 넌 아직도 점심을 안먹었지. 어서 들어오너라!》

《곧 들어가겠어요.》

소년은 내키지 않는듯 이렇게 대꾸하였다.

전쟁이 시작된지 어느새 일년이 된다. 예비역군관인 꼬스쨔의 아버지 뿌르긴소좌는 전쟁전에는 시군사위원

회에서 일하였다. 지금은 전선에 나가있다. 어디서 싸우고있는지는 알수 없다. 편지에 찍혀오는 주소는 3240010이라는 수자로만 표식되여있었다.

그것은 야전우편함의 번호인것이다. 그런 야전우편함의 주소가 어디인지 …

전쟁전에는 휴일이면 꼬스쨔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볼가강을 거슬러 고기잡이를 가군하였다. 매생이우에서 흔들거린다든가 강기슭에 피워놓은 우등불가에서 밤을 새는것은 정말 멋있고 재미가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강물을 들여다보느라면 도무지 눈을 뗄수가 없다. 휘영청 밝은 달이 백조처럼 수면을 둥둥 떠가고 뭇별이 반짝반짝 볼가강을 굽어보는것이 아닌가. 허지만 금시 어딘가 가까이에서 커다란 민물고기 누치란놈이 첨벙거리든가 발동선이 지나가면 달이며 별들과 더불어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말 멋이 있었다! 헌데 지금은… 지금은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는 힘이 모자라니 매생이도 못타고 정말 따분하다.

아버지한테서 남은 좋은 기념물은 두그루의 백양나무와 사과나무들이며 어린 벗나무관목들이 자라고있는 아담한 정원뿐이다. 아버지는 그 나무들을 즐겨 가꾸시였다. 지금 그 나무들이 잎사귀들을 귀맛좋게 살랑거리면서 꼬스쨔를 맞이하군하건만 아버지는 그 기분좋은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다. 꼬스쨔는 정원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을 길어나르고 관수를 하고 나무가지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고 그러다가 무슨 벌레들이라도 나타나면 지체없이 그것들을 소멸해버린다. 그리고 꼬스쨔는 모든 작업을 꼭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것이였다.…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립문을 잡아흔들어놓고 뜨겁게 단 모래가루를 울타리안에 휘뿌리였다.

백양나무는 몸부림을 치며 확확 단 먼지를 막아서면서 서늘한 잎사귀들로 꼬스짜의 목덜미를 정겹게 쓰다듬어 주는것이였다.

《야, 참. 넌 다정도 하구나!》

꼬스짜는 얼굴 바투에서 살랑거리는 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면서 중얼거리였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이 백양나무가 꼬스짜의 어깨에 닿았고 사과나무는 그보다도 더 작았는데 지금은 손을 뻗쳐도 정수리까지 닿지 못할 정도였다.

백양나무는 꼬스짜와 마주서서 이렇게 말하는듯하였다.

(그것봐. 너의 아버지가 떠나가신 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말이야.)

꼬스짜는 어머니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그가 세살적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나머지 꼬스짜는 아버지에 대한 꿈을 자주 꾸는것이였다. 둘이 함께 매생이를 타고 볼가강을 달리는가 하면 함께 고기잡이도 하고 또 둘이 함께 정원에 관수를 하는 일에 골몰하기도 하지만 깨여나기만 하면 여전히 혼자였다.

저녁을 먹고나자 꼬스짜는 생각하였다.

(래일이 내 생일인데 아버지는 집에 안계시지. 정말 아버지는 또 일년내내 집에 안돌아오실텐가? 전쟁이니까, 허지만 괜찮아. 이젠 난 어린애가 아니니까. 난 벌써 열한살이거든.)

그날저녁 꼬스짜는 자기가 어른이 다된듯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머리빗는것을 달리해야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앞머리칼을 늘어뜨리고다니는것은 좋지 않아. 뒤로 넘기는게 더 좋을거야.)

그는 머리칼을 물로 축축히 추긴 다음 모자를 꽉 눌러써서 잠을 재웠다. 그렇지만 물기가 가셔지기 바쁘게 다시 온통 《우랄산줄기》처럼 정수리로 배배 탈려올라갔다. 타래진 앞머리칼을 다시 추긴 다음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잠자리에 누웠다.
할머니는 늦도록 뻬치까에 회칠을 하고 마루를 훔치고 접시들이며 숟가락들을 닦고나서 마침내 궤짝에서 새 상보와 그림을 수놓은 길다란 수건을 끄집어냈다. 할머니는 명절을 앞두고는 언제나 그렇게 하군하였다. 꼬스쨔도 기분이 좋았다.
(내 생일두 역시 명절처럼 맞이하군하거든. 허지만 어째서 할머니는 저렇게 서글프게 한숨을 지으시는것일가?)
《할머니, 힘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앞치마로 땀흐르는 얼굴을 훔치고나서 침대모서리에 걸터앉았다.
《녀석두, 자거라. 어서 자라구.》 그리고는 후 한숨을 쉬고나서 조용히 덧붙이였다. 《네 루바슈까를 하나 사왔다. 가랭이 넓은 바지하구. 그런데 넌 어딜 그리 줄창 뛰여다니는거냐?… 그리고 아버지는 왜 또 오래동안 편지를 안하는지 원…》
《시간이 없어 그러시는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못쓰시는거지요. 아버지는 지금 련대를 지휘하고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소좌니까 련대를 맡긴거예요. 그 이하야 될수없어요.》
꼬스쨔는 얼마전에 륙군병원에서 만났던 어떤 부상당한 지휘관한테서 들은대로 이렇게 대꾸하였다.
할머니는 전등을 끄고 밖으로 나가더니 덧창문을 열었다. 잠시후 돌아들어와서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정원에서 푸르른 나무잎들의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방안이 시원해졌다. 할머니는 부엌에 잠시 서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짓고나서 문걸쇠를 절그럭거리더니 잠잠해졌다.

꼬스쨔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침대있는데까지 바래드리고나서 얼굴을 찡그리였다.

(사방으로 싸다닌다고 책망이시지. 뭐 난 싸다녀서는 안된단말인가. 참 할머니두! 할머닌 공연히 그저 내가 작년과 마찬가지인줄 아신다니까.)

꼬스쨔는 이쪽저쪽으로 몸을 뒤척이면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머리맡에 놓인 조그마한 탁자우에서 광석수신기가 콩알전구를 눈동자와 같이 번쩍거리고있었다. 그 수신기는 꼬스쨔가 어떤 기사와 함께 만든것이였다. 꼬스쨔는 오늘 그 기사의 점심밥을 날라다주고 왔는데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였다. 허지만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였다. 그래서 꼬스쨔의 수신기를 조절해줄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면 좋으련만!)

꼬스쨔는 텅 빈채로 있는 아버지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어둠속에서 아버지의 침대는 침실의 새하얀 벽과 융합되였다. 그리고 전조등을 환히 켠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릴 때면 니켈도금을 한 침대의 좌우머리가 그 불빛에 반사되면서 천정에다 뚜렷이 톱날형그림자를 그려놓군하였다. 그런 순간이면 구김살이 가지 않은 아버지의 침대는 꼬스쨔한테로 움직여오는듯하였다.

《공부를 잘해라. 어서 커라. 커서 훌륭한 기사가 되여 공장에 들어가라.》

꼬스쨔는 아버지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꼬스쨔는 아침에 첫 해발과 더불어 깨여났다. 이불을 밀어젖히고 방안을 둘러본 꼬스쨔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아버지 침대에 누가 누워있었던것이다.
(옳지, 내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오셨나보지?! 멋있는걸!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저걸 보지. 키보다 침대가 짧아서 두발을 구부리고 누웠는걸. 머리칼두 시꺼멓구. 아버지야 내 머리칼처럼 이런데.)
자리에서 일어난 꼬스쨔는 팔소매에 붉은별이 달린 군복상의에 눈길이 미치였다.
(정치위원이다. 이게 바루 찌또브정치위원이 아닌가, 아버지가 편지에 써보내신 월로쟈아저씨말이지. 깨울가? … 아니야, 깨우지 않을테야.)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할머니는 어느새 아침식사를 준비하신것이였다.
꼬스쨔는 살금살금 발을 저겨디디면서 손님의 군복상의와 바지며 혁띠가 놓여있는 걸상곁으로 다가갔다. 저절로 허리가 굽어졌다. 권총집에 들어있는 나간권총자루가 비죽이 내보였던것이다. 꼬스쨔는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량손이 저도모르게 걸상쪽으로 뻗쳐졌다. 가죽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맛이 좋았다. 꼬스쨔는 어깨띠를 어깨에다 걸머메고 권총집을 허벅다리에 척 가져다대고는 거울앞으로 다가갔다.
(야, 이제 군도만 있었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내 생일날인데!)
허지만 뚜껑을 열고 나간권총을 뽑아낼 용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만 열한살이 되지 않았는가.)
손가락들이 꺼칠꺼칠한 권총자루를 건드리자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시작하였다.
《어, 안녕하오. 생일을 맞는 친구!》 침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였다.
《작은 주인님! 그래 어딜 갔었댔나? 어제 찾아와서 사

립문을 두드렸더니 네가 없더구나. 밤에라야 너를 만날 수 있나보지…》
별안간 등골이 써늘해진 꼬스쨔는 선자리에 굳어졌다. 그러나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서둘지 않고 유유히 거울앞에서 돌아섰다.
《난 또 주무시는가 했지요.… 웬 기마병이 우리 집엘 왔더라구들 하더군요. 난 아저씨가 아닐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째서 내가 아니겠니? 보다싶이 나란말이야.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침대에서 성큼 일어서면서 정치위원이 물었다.
꼬스쨔는 묻는 말을 듣지 못하기라도 한듯이 제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난 아버진가 했어요. 깨여나서 이렇게 보고있지요.…》
《깨여나니까 나간권총이 눈에 밟히더란말이지? 뭐 괜찮아. 어서 보라구.》
꼬스쨔는 어느새 권총갑을 결상우에 도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야 두귀가 새빨개진것을 감촉하였다.
《아저씨는 울라지미르라고 하시지요?》
꼬스쨔는 무안한듯 이렇게 물었다.
《그래 울라지미르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그 월로쟈 찌또브아저씨군요?》
《아버지는 분명히 편지를 보내셨지요?》 꼬스쨔는 이렇게 물어보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잠시 더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걸 대번에 다 물어볼수야 없지. 일어나서 세수나 하시거든 그때 죄다 알아봐야지.)
《그래 옳다. 헌데 너 뭘 그리 점직해하니? 나간권총은 구경해도 괜찮다. 탄알은 뽑아냈으니까.》
꼬스쨔는 다시 권총을 집어들고 그 구조를 세심히 살펴

보았다. 들기 힘들만치 묵직해서 하마트면 손에서 떨어뜨릴번하였다. 시꺼먼 칠을 한 두툴두툴한 강철총탁은 푸른빛이 도는듯하였다.

《헌데 아저씬 어째서 피스톨이 아니구 나간권총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난 그놈이 손에 익어서 그런다. 꼬스쨔야.》

《하긴 나간이 피스톨보다 더 멋있지요.》

꼬스쨔가 뜻깊게 말하였다.

《누가 그렇다고 하던?》

《누가 그러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거지요. 난 다 알아요. 아저씨는 련대정치위원이지요. 령장에 줄이 둘이고 팔소매에 별이 있는건 련대정치위원이란 표식이거든요.》

《호, 참 용한데! 그래 학년말시험은 어떻게 되였니?》

《스물다섯을 맞았어요.》

꼬스쨔는 천연스레 대답하였다.

《스물다섯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치위원이 물었다.

꼬스쨔는 그것도 모르나요 하는 기색은 없지만 다소 뽐내는 억양으로 설명을 하는것이였다.

《그게 무엇이 모를게 있나요? 스물다섯을 다섯으로 나누면 제꺽 답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치른게 다섯과목이거든요.》

《그러니 전부 5점이란말이지. 최우등생이라…》

할머니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종시 깨웠구나. 내 그런줄 알았지. 남 좀 쉬지도 못하게시리. 통 가만 있지 못한다니까.》

할머니는 책망조로 푸념을 시작하다가 문득 꼬스쨔가 나간권총을 가지고 노는데 눈길이 미쳤다.

《아이구, 얘야! 어서 놔둬라. 꼬스쩬까야, 썩 놔두라는데두! 넌 그런 끔찍한 물건을 다루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르구말구. 울라지미르 그리고리예위치, 당신은 왜 또 그런걸 그애한테 내맡겨두시우?》
할머니는 정치위원을 탓하였다.
《얘, 꼬스쨔야, 할머니가 말리시는데 놔둬라. 그리고 세수하러나 가자.》
《어서들 가시우. 조반식사가 다 됐수다.》
정치위원은 부엌에서 세수를 하려 하지 않고 남새밭속에 있는 찬물이 치렁치렁한 우물가로 나갔다. 꼬스쨔도 그의 뒤를 따랐다. 꼬스쨔는 그 아저씨가 대뜸 맘에 들었다.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게 믿음이 가는분이였다.
(이 아저씨가 이제 지금 전선이 어디바룬가 하는걸 솔직하니 이야기해주실거야.)
식사중에 손님은 꼬스쨔한테 선물을 내놓았다. 옹근 한봉지의 건빵이였다. 할머니는 손님한테 기름에 튀긴 떡과 홍당무를 넣은 삐로그를 대접하였다. 할머니는 줄곧 많이 자시라고 권하였다.
《어서 많이 드시우. 울라지미르 그리고리예위치, 전선에서야 웬걸 삐로그를 자셔보겠소.… 거기서 우리 뻬쩬까는 어떻게나 지내는지요? 몸성히 있나요? 보나마나 배를 곯겠지요. 먹는거라고는 온통 마른게 아니면 딴딴한것들일테지. 그애는 위가 좋지 못한데요. 아이구, 애가 타서!… 꼬스쨔, 너는 아버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군하는데 난 그 질문에 그만 진절머리가 난다. 헌데 나는 우리 뾰뜨르 뻬뜨로위치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있는가 하는걸 죄다 듣고도 남았다.》
《살아가고있는게 아니라 싸우고있어요. 파시스트놈들을 족치고있단말입니다.》
꼬스쨔는 할머니의 말을 이렇게 정정하였다. 꼬스쨔의

생각에는 웬일인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배를 곯고있을게라고 말씀하는게 과장된 표현인것 같았다.

꼬스쨔는 찌또브정치위원아저씨의 말씀을 통하여 전선이 벌써 돈강가까이로 옮겨왔다는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휘하는 련대는 절대로 원쑤놈들을 쓰딸린그라드에 들여놓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다. 련대는 그만큼 드팀이 없고 강하다. 현재 긴급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는것이였다. 정치위원은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것인데 아버지한테 중요한 결정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련대로 급히 돌아가는 길이였다.

찌또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나서 꼬스쨔에게 편지를 내주었다.

(꽤나 오래 가지고있다가 내주시네. 허지만 나도 참을성이 강한걸.)

꼬스쨔는 편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보낸거다. 읽어봐라.》

정치위원이 말하였다.

《보나마나 아버지는 나더러 전선으로 오라고 하셨을거예요.》

꼬스쨔는 할머니를 곁눈질해보면서 정치위원에게 슬쩍 암시를 던졌다.

허지만 할머니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말없이 애수를 띠운채 방안의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였다.

방안은 쥐죽은듯이 조용해졌다. 꼬스쨔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편지를 두번째로 읽기 시작하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꼬스쨔야, 다시한번 일러둔다만 이번 주간에 어김없이 할머니와 함께 쓰딸린그라드에서 떠나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 너는 삐오넬이니까 모든것을 리해할테지. 전쟁

이 끝나거든 우리 다시 만나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곧 나한테 편지하여라. 이 고집쟁이야, 너를 입맞추고 포옹한다.

아버지로부터—

《아니 어째 그런가요?》
꼬스쨔가 물었다.
《전선까지 70키로메터야. 사민들은 도시에 남아있지 않게 되였단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떠나지를 않는가요?》
《한 2～3일 지나면 모두 소개하기 시작할게다.》
《좋지 않은데요.》
《그래 좋지 않지. 그렇지만 모두 지체없이 소개하면 더 좋게 될게다.》정치위원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잠시 생각한 다음 덧붙였다.《그런 명령이 내렸으니까.》
할머니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다만 가쁘게 한숨을 짓고는 곧 행주치마로 얼굴을 싸쥘뿐이였다.
창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맞은편에 마사병이 와멎었다. 정치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치위원은 혁띠를 두른 다음 가방에서 탄알을 한줌 꺼내더니 그것을 마치 호두알을 다루듯이 한알씩 갈라서 손가락들을 률동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놀리며 권총에 장탄을 하였다.
작별인사로 정치위원은 꼬스쨔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꼬스쨔야, 아버지의 편지대로 집행해야지.》
할머니는 정치위원을 사립문까지 바래주었다. 밖에 나가서도 두 사람은 잠시동안 마주서서 무엇인지 조용조용

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렇지만 꼬스쨔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채 땅바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꼬스쨔는 이제는 그까짓 말안장이나 말을 타고 달리는것 같은것은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는 말발굽밑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멀리서 타래쳐오르고있었다. 찌또브는 걸음발이 잰 자기의 말우에 앉아서 초원의 그 신작로를 달리고있었다. 그의 등뒤에서는 이번에도 먼지타래가 하늘중천에 둥실 떠있는 구름과 합접이 되면서 뒤쫓아갔다. 하늘은 씻은듯이 맑은데 시원한 바람이 마지막 구름장을 압착하려는듯이 땅우로 바투 몰아내리여 그 외로운 구름장을 이끝에서 저끝으로 쫓아버리고있었다.

(갑자기 마음이 이처럼 울적해지는것은 웬일일가?)

꼬스쨔는 먼곳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제 2 장

꼬스쨔는 정치위원 찌또브가 어째서 거기 돈강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에 대하여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요즈음 숱한 가축들이 무리로 초원 큰길에 자꾸 나타나는건 웬일일가? 암소며 양이며 송아지들을 그냥 이쪽 볼가강으로, 도시로만 몰아오는것이였다. 그러면 거기 돈강주변에는 가축을 먹일만한데가 없단말인가? 거긴 풀이 돋지 않았단말인가?

다음날 꼬스쨔는 먼곳을 살펴보다가 숱한 짐수레들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리로, 도시로, 볼가강쪽으로 밀려오는것을 발견하였다. 거리가 멀어서 똑똑히

가려볼수는 없었지만 늙은이들은 모두 침울한 표정들이였고 아낙네들은 울어서 눈들이 퉁퉁 부어있었고 어린 처녀애들과 총각애들은 겁에 질려서 어름어름 사방을 둘러보는것이였다. 그들은 짐마차우로 수리개나 초원에 사는 독수리들이 날아지나가기만해도 부들부들 떨면서 어른들한테 꼭 달라붙군하였다.

(웬일일가. 도대체 무슨 영문일가.) 꼬스쨔는 백번도 더 되풀이하였다.(어째서 사람들이 돈강에서 볼가강으로 도망을 치는것일가? 어째서 도시의 주민들은 볼가강 너머로 떠나갈 차비들을 하는것일가? 파시스트놈들이 이리로, 도시로 뚫고 들어올수 있다는건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놈들을 무서워하는것일가? 월로쟈아저씨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거기 돈강에서 우리 아버지가 싸우고있다는것이며 아버지의 련대는 강하기때문에 파시스트놈들을 이리로 들여놓지 않으리라는것을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가?)

꼬스쨔는 정치위원 찌또브가 자기의 그 멋있는 준마를 타고 다시 달려와서 아버지의 련대가 파시스트놈들을 다시 돈강 저쪽으로 격퇴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고 매일같이 기다리고있었다.

(오늘쯤은 아버지가 직접 말을 타고 달려오실지 모르지. 그러면 정말 반갑게 만나겠는걸! 아버지야 틀림없이 월로쟈아저씨보다도 더 멋있는 말을 가지고있을테니까.)

이따금 꼬스쨔는 금시 아버지가 자기한테로 달려오고있는듯이 생각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 때면 초원의 큰길우에서 말려올라가는 먼지뭉치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을 아버지와의 기쁜 상봉이 다가오는것으로 생각하군하였다. 그런 순간이면 그의 부리부리한 시꺼먼 눈알이 불꽃을 튕기였고 유난히 번쩍거렸다. 그러나 먼지뭉치가

가라앉기만 하면 금시 꼬스쨔의 눈은 흐릿하니 생기를 잃는것이였다.

(야 참. 아버지, 아버진 언제나 오시겠어요? 아버지 없이는 우린 쓰딸린그라드에서 아무데도 가지 않을테야요.)

꼬스쨔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후 한숨을 내쉬였다.

할머니는 날마다 종일토록 같은 짐을 이구석에 옮겨놓았다 저구석에 옮겨놓았다 하면서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잊어버리세요. 할머니, 소개니 아버지의 편지내용이니 월로쟈아저씨의 이야기니한걸 죄다 잊어버리세요.)

꼬스쨔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권고하였다. 꼬스쨔는 붉은군대의 힘을 믿었고 특히는 아버지인 뿌르긴소좌가 지휘하는 그 련대의 힘을 믿었다.

그러나 꼬스쨔는 파시스트놈들이 이미 돈강을 강행도하하였고 엄청난 병력을 집중하여가지고 쓰딸린그라드로 육박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 *

꼬스쨔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날저녁에 돈강과 볼가강사이에 놓여있는 언덕들이 촘촘한 초원으로 맹렬한 포사격의 굉음이 요란히 울리여퍼졌다.

가렬처절한 전투에서 기진한 제62집단군은 새로운 방어계선—쓰딸린그라드로 후퇴하였다. 적은 후퇴하는 군대를 추격하면서 도시를 뚫고들어오려고 애를 썼다.

62집단군의 지휘부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격해오는 적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진지를 차지하고 방비를 강화한 다음 다시 전투로 넘어갈 과업이 부과되였다. 그러한 진지는 바로 전호들이 이미 굴설되였고 그밖의 방어

시설들이 갖추어진 쓰딸린그라드의 린접계선이였다. 그런데 그 계선에 들어서는데 필요한 시간을 쟁취하자면 적의 앞길에 엄호부대를 배치해야 하였다. 그 엄호부대는 반드시 적들의 일체 맹렬한 타격을 감당해내고 파시스트땅크사단들의 력량을 자기한테로 집중시키며 비록 무척 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견지하여야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기본병력이 행군을 끝내고 쓰딸린그라드의 린접계선에 진지를 구축할 때까지 견지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 과업은 어느 련대나 다 수행할수 있는것은 아니였다. 끄스쨔의 아버지 뿌르긴소좌의 지휘하에 있는 근위병들이 그 적임자로 선발되였다.

땅거미가 지자 포사격의 엄호하에 뿌르긴련대는 전투에서 빠져나와 까르뽀브까철도역 세키로메터 저쪽에 가 머물렀다. 각 중대들은 무연한 초원복판에 듬성듬성 들어앉은 자질구레한 언덕들과 고지들우에 전개하였다. 바로 그날저녁에 62집단군의 기본병력은 련대의 전투대렬들을 지나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근위병사들은 퇴각하는 군대의 엄호부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단 1분을 지체할세라 자기들의 진지굴설에 달라붙었다.

*　　*

…짧디짧은 4월의 하루밤동안에 련대의 병사들은 자기네 지휘관의 요구를 집행해냈다. 전호들을 훌륭히 파놓았고 흉벽들에는 쑥이며 나리새를 묶음으로 둘러심었다. 적진에서는 맨 앞턱에까지 나와 살펴본대도 여기 까르뽀브까로 가는 길에 옹근 한 련대가 전개해있다는것을 알아내기 어려우리만치 위장을 빈틈없이 해놓았었다. 초원은 마치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또 지금도 없는듯이

그 초원 그대로였다.

련대는 진지한 훈련을 진행해왔다.

편성초시기와 전투훈련에서, 행군과 상학에서 련대지휘관인 뿌르긴소좌는 자기의 병사들을 단련시켰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하였다.

《공훈은 오직 공훈을 준비한 사람만이 세울수 있다.》

그는 중대들이 밤에도 낮에도 비속에서도 무더위밑에서도 행동할수 있게 가르치였다. 매개 병사들이 자기 무기에 정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서도 기관총을 분해하고 조립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도 실수없이 사격을 할수 있었다. 가령 강행군뒤끝에 지칠대로 지쳐서 눈이 뿌얘지고 두손이 저울추처럼 무거울때 첫방에 목표를 쏴맞혀보라면 그들은 주저없이 단방에 쏴맞히는것이다! 또는 캄캄한 밤에 라침판의 도움이 없이 별을 보고 방위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측정하라고 하면 지시한 그대로 하고야마는 그들이였다.

뿌르긴소좌는 때때로 중대들을 넓은 강가로 인솔해가지고 가서 명령을 내리군하였다. 30분동안에 저쪽에 넘어가서 이러이러한 고지를 점령할것! 그런데 가까이에는 매생이도 나루배도 없었다. 삽, 도끼, 개인천막이 더러 있을뿐이였다. 그래도 중대들은 건너가군하였다.

련대장한테서 제일 크게 혼이 난것은 포병들과 박격포수들이였다. 련대장은 밤이건 낮이건 그들을 가만 두지 않았다. 그들은 로출진지와 은페진지에서의 사격을 위한 공식과 계산에 구구표를 외우듯이 정통하였다. 그런데도 련대장은 계속 요구성을 높이였다. 지도게시판을 꺼내놓고는 한 3～4키로메터나 먼데 있는 풀숲을 가리키면서 《소멸할것!》하고 명령을 하는것이였다.

헌데 만일 누구든지 잘못하기만하면 그 사람은 휴식생각을 말아야 하는것이였다.

그는 훈련에 들어서는 준렬하고 엄격하였다. 부대편성초시기에는 괴로왔지만 그대신 지금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잘 훈련시켜준데 대해서 련대장에게 감사를 드리고들 있는것이다.

하리꼬브근방에서와 돈강의 큰 물굽이에서 이 련대한테 얻어맞은 호된 타격을 파시스트놈들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것이다. 돈강방어전에서 련대는 근위련대기를 수여받았다.

지금은 여기 쓰딸린그라드근방에서 련대의 매개 병사들이 자신을 로출시키지 않고 동지들이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호를 파고 참호와 기관총좌지를 굴설하느라고 새벽까지 애들을 썼다.

*　　*

기관총수 포민은 중대에서 이름과 부칭으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라고들 부르고있었는데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참호위장을 끝마치였다. 련대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래 어떻소?》

《병사 기관총수 포민 전투준비 끝!》

《어디 좀 보기요.》

그러면서 련대장은 날쌔게 참호안으로 뛰여들어가 기관총결에 엎드리였다. 그리고 총신을 이리저리 돌려보고나서 말하였다.

《좋소, 이리로는 파시스트놈들이 뚫고들어오지 못할게요.》

포민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곁에 서있던 키가 크고 어깨폭이 넓은 련대정치위원 찌또브가 그를 도와주었다.

《도망치지도 못할겝니다. 탄알도 넉넉하고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도 충분하니까요.》

직일병이 숨이 하늘에 닿아서 달려왔다.

《소좌동지, 감시병들이 적땅크들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구?》

《감시병들이 적땅크를 발견했습니다. 저두 직접 봤습니다. 빨리 참모부를 은페시켜야 하겠습니다. 예비병을 동원시키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적들이 공격도 하지 않는데 동무는 벌써 예비병타령이요!》

직일병은 대답할바를 몰라하면서 그냥 서있었다.

《돌아가서 모두들한테 전달하시오. 내 허락이 없이는 단 한방도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련대장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겁쟁이들은 참모부에서 전방으로 나가라고 하시오. 거기서 엄페하게 하란말이요.》

정치위원이 인상깊게 부언하였다.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 직일병은 홱 돌아섰다.

실지로 그때 적들은 개별적땅크들의 기동으로 련대의 화점들과 반땅크방어거점들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공은 하지 못하였다. 전련대가 련대장의 명령을 엄격히 지켰기때문이였다.

그때로부터 한시간후에 각 전호들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전달되였다.

《주목! 주목!》

* *

바다와 같이 낮은 지대에서는 아침안개가 흐느적거리고있었고 들판으로는 푸른 연기가 퍼져가고있었다. 안개

와 연기에 적군이 숨어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여 시꺼먼 점들이 나타났다. 흐느적거리는 물결같은 안개의 파도속에서 그 점들은 나타나는가 하면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나타나군하였다. 그것은 땅크들이였다. 그 땅크들은 안개속으로부터 기여나왔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 바람이 안개를 몰아내기만 하면 땅크들이 온 들판에 쭉 깔려있을것만 같았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포민은 잘 위장된 자기의 전호속에 엎드려서 들판을 세심히 살피고있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서리였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그의 얼굴은 함뿍 땀에 젖었는데 넓다란 이마우에는 굵은 땀방울들이 돋혀있었다. 그는 여태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한곳에 집결한것을 한번도 본일이 없었다. 적의 종대는 산개대형으로 전진하여왔다. 매개 땅크에는 자동총수들이 앉아있었다. 놈들은 파리새끼들처럼 철갑에 착 달라붙어있었다. 포민은 적의 선두땅크를 조문에 잡아넣고는 그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따라 자기의 수동기관총의 총신을 서서히 수그리였다.

(룩전대놈들이로구나.)

포민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크우에 앉아있는 파시스트놈들의 그루빠들을 쏘아보고있었다. 손가락들은 습관적으로 방아쇠를 더듬었다.

《구령이 내리기전에는 사격하지 말것!》

오른쪽으로부터 이런 전달이 들려왔다.

바로 이때 아군 원거리포가 사격을 시작하였다. 포탄들이 적땅크가 제일 촘촘히 몰켜있는 한가운데서 터졌으나 적땅크들은 진격을 계속하였다.

격파된 땅크들대신에 새로운것들이 나타났다. 땅크의 대렬이 되살아났던것이다.

《심리적인결.》

포화소리 요란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말을 하였다. 포민은 또다시 들려오는 원거리포들의 일제사격에 그만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적땅크들앞에서 포탄들이 장벽처럼 터져올랐다. 일부 땅크들은 그 장벽을 뚫고 빠져나왔다.
(그렇지, 전투가 가렬해지겠군.)
이마를 쓱쓱 문지르면서 기관총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느새 무한궤도들이 뿌리채 뽑힌 풀모숨들을 휘뿌리는것이 빤히 보였다. 그리고 그 무한궤도들은 푸르스름한 땅바닥을 계속 짓뭉개며 전진하고있었다. 포민은 선두땅크의 포신을 더욱 주시하였다. 이제는 쇠갈리는 역겨운 소리와 숨소리같은 모터소리들도 알아들을수 있게 되였다. 가벼운 바람이 모터에서 풍기는 별난 그을음냄새를 날라왔다.
참호들에서는 바스락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마치도 땅자체가 련대를 구원하자고 어머니가 어린애를 그렇게 하듯이 온 련대를 감싸주고 뒤덮어주고 하는듯하였다.
포민은 다시 오른쪽을 살펴보았다. 그의 생각에는 모두다 물러나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것 같았다. 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구령을 들었다.
《조척 200.》
이 구령은 전체에게 하는 구령이였건만 포민은 자기 한사람에게 하는 구령인듯이 생각되였다. 그는 이른새벽에 원거리목표사격을 위하여 조준하였던 조척을 옮겨놓는것을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이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등골이 오싹하였다.
(탄알을 온통 머리우로 날려보낼번했군그래.)
그는 자신을 되게 나무랐다. 그리고 붉은 신호탄이 공중에 날아오르자 곧 조척유표를 옮겨놓을수 있었다.

그순간에 직사포와 반땅크포의 일제사격이 터졌다. 참호들에서 쏘아대는 보총, 기관총의 련발사격이 번개치듯이 벙끗벙끗하였다. 전연은 온통 벙끗거리고 콩볶듯이 지끈재끈하고 쿵 쾅 우르릉 탕탕하였다. 매개 참호, 전호, 개인전호들에서 적들을 향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을 뿜어댔다. 적땅크들의 철갑에서 불덩이탄알줄기들이 콩튀듯하였다. 적땅크병들은 눈알이 핑핑 도는지 반땅크총수들쪽으로 옆구리를 돌려대기 시작하였다.

포민은 두번째 탄창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리를 지어 뒤로 꽁무니를 빼는 적의 륙전대원놈들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놈들은 포민의 기관총 조성안에 들어있었다. 련발사격을 한번 하면 적자동총수놈들은 껑충 뛰여오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킨듯이 부르르 떨기도 하면서 한꺼번에 두세놈씩 선자리에서 꼬꾸라지는것이였다. 포민은 한놈도 놓쳐보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침략자들같으니.》

그는 원쑤놈들의 시체들이 줄을 지어 널려있거나 무데기로 쌓여있어서 마치 봄철화재 뒤끝같이 시꺼매진 들판을 바라보면서 격분에 혼자 중얼거리였다.

파시스트땅크부대들과 보병부대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출발진지로 퇴각하고말았다. 도이췰란드장교놈들은 자기네가 가지고있는 무력가운데서 방어력량중 적어도 한개사단과 그의 련대들을 시급히 반공격에로 투입할것을 기대하고있는듯하였다.

기관총수 포민은 파시스트놈들이 서둘러 참호들을 파기 시작한것을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반공격에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는 이미 돌진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그러나 이 계선에서 전투를 벌린 뿌르긴소좌는 달리 리해하고있었다. 그는 기관총중대결에 있는 자기의 감시소에 서있으면서 출발진지로 격퇴당한 적의 전위부대한테로 새로운 땅크들과 보병부대가 집결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던것이다. 이를테면 적들은 자기들을 대상으로 방어전을 하고있는 엄호부대가 고작해서 한개 련대라는것을 알지 못하는듯했다. 그러니만치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초원상공에 아침해가 솟아오르자 련대의 전연은 파시스트놈들의 폭격기들이 던지는 어방없이 큰 삼각형그림자로 뒤덮이였다. 비행기들은 해솟는쪽으로부터 날아왔던것이다. 비행기대수가 얼마인지는 알길이 없었다. 점차 요란해지는 발동기소리는 대기를 진동하였다.

수백개의 폭탄이 전사들의 머리우에서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온 천지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가싶더니 대지의 표층이 온통 파뒤집히였다. 처음에 진동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폭발소리가 들리는것이 정상이건만 여기서는 폭발과 진동이 간단없는 우뢰소리같은 요란한 음향속에 융합되는것이였고 그리하여 마치 초원이 곤두서서 흔들흔들하다가 곤두박질을 하는듯하였다.

먼지와 육중한 흙덩어리들이 병사들이 들어있는 참호와 전호들을 뒤덮었다. 하늘이 온통 뒤집힌듯했다. 그래서 마치도 백주에 쓰딸린그라드초원에 밤이 되돌아온듯 아주 캄캄해졌다.

포격에 뒤이어 전연에는 대포와 박격포들의 질풍사격이 들씌워졌다. 포탄들과 박격포탄들은 련대의 온 방어선에서 쉴새없이 터지였다. 각종 포탄들은 참호들속에 떨어져서 사격진지들을 짓뭉개놓으면서 근위련대 방어계선의 방어자들에게 뜨거운 폭풍을 들씌웠다. 포격은

근 한시간동안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나 뿌르긴소좌는 포격이 계속되는 일분일분을 계산하면서 그런 포격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였다.

《매시 매분은 우리의 리득이요!》

그는 정치위원의 귀에 대고 웨쳤다.

그러나 적의 포부대는 화력을 련대의 중심에로 이동하였고 전연에는 또다시 적의 땅크들과 보병들이 나타났다.

뿌연 먼지구름속에서 포민은 거의나 손더듬으로 탄창을 갈아댔다. 이제는 그 어떤 명령이나 격려의 말을 기다릴수가 없었다. 무엇을 보기도 무슨 소리를 듣기도 어려웠던것이다. 적이 어디 있으며 익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그런데 대해서는 다만 전투에 돌입한 전사들에게만 생겨나는 륙감만이 귀띔해줄수 있었다. 포민은 전투에 참가한것이 처음이 아니였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에서는 이 순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을 내릴수가 없었다. 그는 목안이 타들어오고 열풍이 얼굴을 지지고 눈에서는 모래알들이 몽클거리고 폭발물의 역한 냄새에 숨이 컥컥 막히였다. 확확 달고 숨이 가빴다. 물통에서 몇방울 안되는 물을 마시고난 포민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점차 가라앉는 먼지를 꿰뚫고 교통호로 두 사람이 달려가는것을 알아보았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이였다. 한 사람은 갱도를 따라 왼편으로 달려갔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구나.)

포민은 이런 생각이 번개치듯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그는 기관총에 달라붙었다.

온통 들쑤시우고 흙범벅이 된듯한 전연지대를 이렇게 폭격과 포사격으로 답새긴 뒤에 적들은 반항을 기다리는

법이 없었다. 땅크들의 엄호밑에 보병들을 공격에로 내몰았다. 그렇지만 또다시 아군의 기관총의 파멸적인 화력에 부딪치였다. 그 순간 아군포들이 적땅크들을 답새겨댔다. 아군포들은 마치도 매개 포탄이 저절로 목표물을 찾아가기라도 하는듯이 아주 정확히 사격하였고 적땅크를 발견하기만하면 곧 영낙없이 까부시였다. 적보병들은 그만에야 황망히 물러가고말았다.

짧지만 격렬한 전투에서 근위병사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네 방어계선을 드팀없이 고수해내면서 다음번 공격을 격퇴할 준비를 갖추었다.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탄창들을 갈아넣고 탄알들을 재웠다. 피로가 서리고 화상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넘치였다. 그들은 자기네 사령부의 의도를 충분히 리해하고있었고 따라서 아직도 한시간 두시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적들을 이 계선에 붙들어두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엄호를 담당한 이 근위련대는 아군의 주력의 후퇴를 엄호하였을뿐아니라 적의 몇개 땅크부대와 보병부대들을 자기한테 붙들어매두고있었다. 두말할것없이 많은 성원들이 자기 련대의 운명을 예견하고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게 문제가 아니였다. 그들은 자기 군대에 대한, 조국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 긍지감에 휩싸여있었고 마지막숨이 끊어질 때까지 원쑤와 싸울 각오가 되여있었다. 헌데 별안간 불길한 소문이 전호에서 전호로 퍼져갔다. 련대에 무슨 큰 불행이 생긴듯하였다. 덮쳐드는 정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었다. 정적은 마치도 온 련대를 지지누르는듯하였다. 교환수들은 입을 다물었고 통신련락도 금지되였다.

전투가 있은 뒤에는 언제나 위생병들, 의사들, 탄약수들, 중대와 대대들의 탄약보급책임자에게는 눈코뜰새없

이 바쁜 시각이 닥쳐오군하는 후방에서도 이번에는 전에 없이 조용하였다. 거기서는 마치도 모든것이 마비된듯하였다. 거기서는 아마 위생병들이 련대지휘처에서 누구를 비판에 싸여 조심스레 날라간것을 다들 알고있고 또 직접 본 모양이였다. 그렇지만 여기 전연에서는, 기관총수 포민이 자기 전우들과 함께 엎디여있는 맨끝 전호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주위를 지배하는 정적은 가장 가렬한 격전보다도 한층 더 무서운듯하였다. 개개의 사격소리가 일제사격소리보다 더 요란히 울리였다. 극히 작은 바스락소리가 새로운 공격의 시작을 말해주는듯도 하였다. 그렇지만 공격은 없었다.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났다. 불길한 정적속에서 시간은 무한정 끌었다. 그처럼 긴장한 순간들중 어느 한 순간에 련대지휘처에서 기관총수 포민을 호출하였다.

몸에서 먼지를 털고 혁띠를 바로잡은 다음 포민은 련락병의 뒤를 따라섰다. 아직은 누가 무엇때문에 자기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였다.

《정치위원동지한테로 가십시오.》 련대지휘처입구에서 걸음을 멈춘 련락병이 말하였다.

정치위원은 맨머리바람으로 얼굴을 전연쪽으로 향한채 흉벽결에 서있었다. 적을 감시하고있는 정치위원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포민동무요?》

《접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란말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쓰딸린그라드 주민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포민은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그리고 초급학교 교원이랬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정치위원 찌또브는 캐여 묻는것이였다.
(뭣때문에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담?)
포민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위원의 등을 쳐다보며 대꾸하였다.
《지금은 전사 기관총수입니다.》
《이것 보우.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정치위원은 포민한테로 얼굴을 돌리였다.
《당신은 군사위원회로 가는 문건을 가지고 긴급히 쓰딸린그라드로 가야 하겠소.》
그리고는 그의 팔굽을 붙들고 한옆으로 데리고 갔다.
《군사위원회는 현재 아스뜨라한다리에서 약간 웃켠에 있는 지하실이요.》
《알았습니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위원은 계속하였다.
《문건을 전달하시오. 그러면 그만이요. …》 정치위원은 문득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동무는 아이들이 있소?》
포민은 정치위원의 충혈된 눈을 잠시 쳐다보고나서 힘겹게 대꾸하였다.
《아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있소. 하긴 딸이요. 우리 만일 살아남게 되면 그애들한테로 돌아가기요.》
정치위원은 포민에게 문건을 넘겨주었다.
《쓰딸린그라드로 달려가거던 또하나 이 주소로 찾아가서 련대장동지의 아들－꼬스쨔, 꼬스쨔 뿌르긴과 그애

할머니한테 이 쪽지를 전달하시오. 그들은 지체없이 볼가강을 넘어가야 하오. 헌데 지금 그게 우리한테…》

정치위원은 말을 마무리지 못하였다.

포민은 또다시 정치위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묵묵히 섰다가 이렇게 물었다.

《명령을 수행할만합니까?》

《좋소. 오를리끄에 안장을 얹고 타고 달려가시오.》

정치위원이 대답하였다.

련대장의 말인 오를리끄는 온 사단적으로 가장 우수한 준마였다. 이때까지 련대장이외에는 누구도 그 말을 타고다닌 사람이 없었다.

《오를리끄를 타고가시오.》

포민은 정치위원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여보고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채 말있는데로 갔다.

이때 련대진지상공에는 또다시 파시스트놈들의 폭격기들이 나타났다. 놈들은 삼각형으로 편대를 짓고 파상형으로 날아들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련대의 전투대렬에 폭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적들은 무슨 간교한 전술을 추구하는 모양이였다.

포민은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러자 불타는 땅크들에서 전연쪽으로 퍼져가는 연기의 시꺼먼 줄이 그에게는 상복댕기오리같이 보였다. 그런데 폭격기들의 발동기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것이였다.

(서둘러야겠는걸.)

포민은 등자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생각하였다.

오를리끄는 골짜기에서 뛰여나와 내달렸다. 포민은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곧바로 말을 달리였다. 문득 말은 조심스레 머리를 쳐들더니 마치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듯 비칠거렸다. 바로 그 순간에 전방에서 기관총이 짖어댔다.

《오를리끄 앞으로!》 포민은 소리를 질렀다.
오를리끄는 맥없이 내닫더니 그만에야 길바닥에 푹 꼬꾸라졌다. 등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땅크들이 나타났다.
놈들은 철길과 신작로를 제압하면서 반원형으로 전개하였다. 그리로부터 또 한번 기관총련발사격이 울리였다.
《개자식들! 어림도 없다.》
포민은 물도랑을 기여넘어서 사위를 둘러보고는 제일 가까운 엄페호있는데까지 기여가기 시작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포민은 정치위원이 어째서 쓰딸린그라드로 지체말고 말을 달려가라고 명령했는지 알아차렸다. 련대는 포위속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적의 력량을 자기한테 쏠리게 하였다. 근위병사들은 영예롭게 과업을 수행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은 아군의 후퇴를 엄호해냈던것이다. 이 사실을 포민은 자기 전우들에 대한 당당한 긍지감을 가지고 군사위원회앞에 말할수 있을것이였다. 동시에 포민은 불안한 심정으로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들은 곤경에 처해있는데 나는 글쪽지를 가지고 쓰딸린그라드로 말을 달려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담?)
거기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포민은 걸음을 멈추었다. 포민은 련대로 되돌아갈 작정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품속에다 손을 넣었다. 다시한번 그 문서꾸레미와 글쪽지를 들여다보고나서 그는 생각에 잠겼다. 봉투에는 정치위원의 필적으로 이렇게 씌여있었다.
《뚜르게네브거리 20번지 독립가옥 뿌르긴 꼬스쨔앞》
(그애가 어떤 앤데, 련대장의 아들—꼬스쨔 뿌르긴이란 그 소년이 …그에게도 역시 위험이 닥쳐오고있을

테지. 그 소년은 지금 아버지없이 살고있겠지. 헌데 나는 교원이란말이야. 정치위원이 그렇다는것을 상기시켜준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지…)

공중에는 구름같은 시꺼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바람이 불타고있는 쓰딸린그라드에서 그 연기를 몰아왔다.

(소년은 위험속에 있다. 도시가 불타고있다. 그러니 나는 그리로 가야 한다.)

포민은 결심을 내리였다.

제 3 장

정치위원 찌또브가 떠나간 후 한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끄스쨔에게는 뜻하지 않던 일과 슬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였다. 중요한 계획이 파탄되고말았다. 말하자면 공구제작직장이 소개하는바람에 친숙한 기사가 기대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나가버렸다. 어제 끄스쨔는 볼가강반을 거닐었는데 거기는 몹시 쓸쓸하였다. 집에 돌아온 그는 책을 마주하고 앉았었다. 할머니는 끄스쨔가 그렇게 하는걸 좋아하시였다. 책은 재미나는것이였다. 원시인에 관한것이였다. 끄스쨔는 그 책을 저녁늦도록 읽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세수도 하지 않고 또다시 책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만치 그 책은 끄스쨔를 틀어쥐였던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아마 할머니는 어제밤에 한잠도 자지 않은 모양이였다. 서성거리고 한숨을 쉬고, 그러지 않으면 방 한복판에 가서 가슴에다 량손을 포개고 우뚝 서있는것이였다. 방바닥에는 보따리들이며 트렁크들이며 광주리들이며 꾸려놓은 짐

들이 수두룩하였다. 할머니가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꼬스쨔는 별안간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만세, 할머니, 승리야요!》

할머니는 무슨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지 영문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였다.

《어디서 승리했단말이냐? 얘야, 너 뭘 가지고 그러니?》

《아 이 책에서말이예요.》

《아니, 맙시사…》

《맙시사가 아니야요. 진짜 그랬어요.》

꼬스쨔는 할머니의 말을 밀막고 사람이 어떻게 불을 발견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경사였던가 하는것을 흥분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라면 꼬스쩬까야, 난 벌써 너의 아버지한테서 들은지 오래다.… 너는 네 책들을 어디다 치우겠는지 그거나 말해라.》

할머니는 책상에서 책무지를 집어들면서 말하였다.

또다시 비관에 잠겼다. 할머니손에서 책들을 받아들고 꼬스쨔는 푸접없이 대답하였다.

《가만 놔두세요. 내가 다 치우겠어요. 그리고 이건, 스파르타크에 대한 이 책은 도서관에 돌려줘야 해요.》

《늦었다, 늦었어. 이 귀염둥아, 거긴 지금 아무두 없어. 죄 떠나가구.》

《안떠나갔어요. 거기는 그런 겁쟁이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 가서 돌려드리겠어요.》

《조반을 먹어야겠는데…》 할머니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꼬스쨔는 듣지 않았다. 《멀리 가지 말아. 점심때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자동차가 올게다. 모두다 떠나가

는데, 다 안다, 다 알아. 꼬스쩬까야, 너는 맘에 없어 그러지. 나 역시 제 집을 두고 가는게 아쉽다. 여기서, 제 고장에서 죽었으면 좋으련만. 꾸물거리지 말고 뛰여 가라. 그리구 속히 집으로 돌아오너라.》

《알았어요.》

꼬스쨔는 이렇게 대꾸했으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였다.

(아침부터 우는 소리만 하신다니까, 할머닌 잔소리하시는게 역겹지도 않으신가.그저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하니 할머니 꽁무니에 꼬리처럼 졸졸 묻어다녀야 하겠구나. 내가 뭐 새끼양이기라도 한가?)

하늘에는 쇠바줄에 달린 엄청나게 큰 오이같은 장애물기구들이 둥둥 떠있었다. 그 기구들사이로 아침운무가 흘러갔다.

(우리도 떠나야 한단말인가? 우선 당장 어디로 가야 한다? 삐오네르궁전도서관에는 아직 이르고, 공장에는 들여놓질 않을텐데…)

그러자 꼬스쨔는 문득 동물원이 생각났다. 거기에는 꼬스쨔가 일요일마다 찾아가군하는 사랑하는 비둘기 웨르군이 있었다.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일가?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러자 오래 생각할것도 없이 꼬스쨔는 동물원으로 향하였다.

텅빈 거리바닥에는 고양이들과 개들이 끊임없이 달려오고 달려가고 하였다. 그 짐승들은 아무데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고 그저 이리저리 구석구석에 대구 냄새를 맡으며 돌아가다가 알맞춤한 안식처를 찾아내지 못하고는 울타리곁으로 해서 볼가강쪽으로 가는것이였다.

*　　*

꼬스쨔가 깜짝 놀란것은 동물원대문이 활짝 열려진채 있는것이였다. 소년은 늪이 있는데로 가봤으나 거기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코끼리들도 곰들도 사자들도 다 없었다. 그것들을 우리와 함께 어디로 데려다 버린것이였다. 새우리들 역시 텅 비여있었다. 꿩, 사계, 너화들이 살고있던 구역들에서는 참새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었다. 참새들은 느릿느릿, 마치도 마지못해 그러듯이 이 우리에서 저 우리로 날아넘고 날아오고하였다.

꼬스쨔는 금시 자리를 뜨려 하다가 문득 웨르군을 발견하였다. 비둘기는 텅 빈 우리 한쪽구석에 외로이 앉아있었는데 꼬스쨔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놓고 마주나왔다.

꼬스쨔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빵부스레기를 손바닥에 뿌려놓았다. 그러자 비둘기는 좋아라고 그것을 쪼아먹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이리도 온순해졌담. 통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젠 저놈을 루바슈까속에 넣어가지고 갈가?…)

꼬스쨔는 속으로 비둘기에게 이렇게 물어보고는 비둘기한테로 손을 뻗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말없이 곁으로 지나가는 경비원의 눈과 마주치자 꼬스쨔는 당황한 나머지 선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이윽고 그는 손을 호주머니속에 감추고 딴데로 걸어갔다.

(자리를 떠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도적질하러 왔다고 생각할거란말이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돌아다보지도 않고 꼬스쨔는 서운한 감정을 안은채 동물원에서 나왔다.

(당황하다보니 물어볼걸 잊었는걸. 응 괜찮아. 다시한

번 들려서 물어봐야지.)

극히 고요하고 해빛찬란한 날씨였다.

도시의 중심이 뜻밖에도 아름답게 보였다. 고층건물들, 궁전들, 소공원들— 그 모든것이 꼬스쨔에게는 다정하고 친근하였다. 사위는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였다. 삐오네르궁전근처의 분수결에는 꽃들을 5각별모양으로 가꾸어놓았었다. 얼마나 생동한 색갈인가. 영낙없는 무지개, 눈을 뗄수 없다. 또 냄새는 얼마나 좋은가. 정말 향기로와 그냥 물러가고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이다.

한낮이 되자 비행기소리가 들려왔다. 눈부신 태양광선이 어디서 비행기들이 날고있는지 가려볼수 없게 하였다. 문득 고사포들이 콩볶듯 우짖어댔고 온 하늘이 하얀 버섯들을 휘뿌려놓은듯 포연으로 뒤덮이였다. 벙끗하더니 비행기 두대가 돌덩이처럼 곤두박질을 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비행기소리는 멎지 않았다.

어느새 소이탄들이 쏟아져내렸다. 그중 하나에서 우유거품이 든 질동이같은게 보도에 떨어지더니 박산이 났다. 그러자 대뜸 그속에서 눈이 부신 불꽃이 휘뿌려지면서 하얀 덩어리가 쉭쉭 소리를 내며 기여나오기 시작하였다. 꼬스쨔는 불을 끄려고 접어들었지만 손에 아무것도 든것이 없었다.

어느새 꼬스쨔의 눈앞에서는 집이 한채, 두채, 세채 불타기 시작하였다. 화재는 물밀듯이 꼬스쨔한테로 번져들었다. 그리하여 불이 온 거리를 휩싸자 소년은 냅다 뛰였다.

꼼뮨거리에서 그는 담벽같이 막아서는 불길에 부딪쳤다. 골목길로 꺾어드는수밖에 없었지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목조건물의 중심인지라 불길이 마치 새빨간 날개가 돋힌 새들처럼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넘나들면서 불타는 깃털들을 떨구어놓는것이였다.

(어디루 도망친다?)

꼬스쨔는 발길을 멈추었다. 경보와 폭탄의 우짖음, 비행기소리와 콩볶듯하는 고사총소리, 침몰하는 기선들에서 울리는 경보기적소리들이 뢰성같이 요란한 폭발소리에 부단히 삼켜버리였다. 폭탄이 터질적마다 땅이 진동하였다. 대지는 마치도 자기 몸에서 건물들을 떨어버리기라도 하는듯하였다. 벽들이 무너져내리고 주택들이 알몸뚱이가 되였다. 그러자 곧 눈앞에서 시커먼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불길과 뒤엉킨 시뻘건 벽돌먼지퉁구리들이 거리를 따라 구을러갔다. 도시상공에 수백대의 비행기가 날아돌고있다는것이 감촉되였다. 그러나 집들을 태우는 불길들이 합쳐지며 도시를 온통 뒤덮는바람에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가려볼수가 없었다.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불과 폭발이 요동을 치는 정황속에서 꼬스쨔는 여지없이 당황한채 이제 곧 자기를 먼지와도 같이 폭풍이 휩쓸어가지고 어덴가로 날라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앞으로 달려나가던 그는 그만 푹 쓰러지고말았다. 남자들이 옆으로 달려갔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저 그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지 않았을것이였다. 다시 일어난 꼬스쨔는 서글픈 심정으로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순간 폭풍에 마구 흔들리여 그는 어떤 벽에 가 부딪쳤다.

*　　*

꼬스쨔는 정신을 차렸으나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지금 자기가 어데 있으며 왜 이렇게 숨이 가쁘고 어째서 루바슈까가 찢어졌는지?

시꺼먼 구름같은 연기가 거리상공에 떠돌았고 도시는

화재로 소란스러웠다. 아직도 비행기들은 그냥 우르렁거렸고 폭탄들은 계속 쇠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대지는 여전히 몸부림을 치고 뒤흔들리였다.

(어째서 머리가 아플가?)

땅에서 일어나면서 꼬스쨔는 손에 책을 들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이제는 그 책들을 돌려줄데가 없었다.

이미 늦었다. 삐오네르궁전은 불길에 휩싸여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면서 꼬스쨔는 몇걸음 옮겨놓았다. 바람이 하도 센탓인지 땅이 요람으로 변했는지 어쨌든 자꾸만 흔들리였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였다. 화재에 녹은 아스팔트에 장화가 쩍쩍 달라붙었다.

자기가 사는 거리를 꼬스쨔는 저녁무렵에야 겨우 찾아냈다.

《헌데 우리 집은 어데 있담?》

불길은 주추돌을 핥고있었다. 남은것이란 뻬치까뿐인데 그것마저도 구부러들고 우무러졌다. 걸이 타버린 아버지의 침대는 엿가락처럼 되였고 니켈도금을 했던 활대는 광택이 다 사라졌다. 어린 뽀뿌라나무도 불에 타서 숯이 되였다.

사실은 사과나무를 거의 따라잡기 시작했던것인데 이렇게 된것이였다.

바깥현관앞 판석우에는 포장을 한 책들이 무데기로 쌓여있었다. 그 책들은 등포에서 겨우 책명을 읽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렇지만 꼬스쨔가 책들의 웃부분 표지를 건드리기가 바쁘게 책무지가 폭삭 주저앉아 재가 되고말았다.

《할머니!》

이 소리가 꼬스쨔의 가슴속에서 튀여나왔다.

시꺼먼 연기뭉치가 엄청나게도 크게 부풀어오르면서 울타리를 타고 구을러가더니 뜨락을 뒤덮는것이였다.

꼬스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모든것이 재로 되여 발밑에서 푹 꺼질가봐 겁이 나서 조심조심 뒤걸음질을 쳤다.
《할머니, 어디 계셔요?!》
목소리는 땅밑에서 울리듯이 웅글고 쓸쓸하게 울리였다.
연기가 흩어지자 꼬스쨔는 두루 자세히 살펴보다가 목욕탕곁에서 할머니의 바둑판무늬의 수건을 발견하였다.
그리로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거머쥐였다. 헌데 거기에 피가 묻어있지 않는가.
《할머니, 부상당했나요? 할머니, 어디로 실어갔어요?》
무엇을 할것이며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것을 막연히 생각하면서 꼬스쨔는 남새밭을 가로질러 허둥지둥 걸어갔다. 거기서 소년은 머리에 소방철갑모를 쓰고 손에 삽들을 쥐고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잠시 서성거리더니 이윽고 가버리는것이였다.
(이건 또 무엇인가?)
꼬스쨔는 방금 생겨난 흙더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줄을 지어 둘, 셋, 넷이였다. 매 흙더미에는 널쪽을 붙인 표말이 꽂혀있었다. 그중 한 표말에는 화학연필로 이렇게 씌여있었다. 《아가피야 쎄묘노브나 뿌르기나》
자기의 눈을 믿지 못하여 꼬스쨔는 다시한번 읽어봤다. 두다리가 움찔거리고 손에서 책들이 떨어졌다. 책 한권이 펼쳐졌는데 꼬스쨔가 아침에 할머니한테 이야기해드린 내용이 씌여있는 바로 그 페지였다.
꼬스쨔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것, 할머니와 영원히 작별을 하였다는것을 인정할수가 없었다. 꼬스쨔는 할머니가 금시 일어나서 상냥하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주실것만 같았다. 《다정하신 할머니, 용서하세요! 다시는 말썽을 부리지 않겠

어요, 욕을 하십시오. 나를 욕하시라요…》

울고싶어도 눈물이 나질 않았다. 눈앞에 보는 표말과 축축한 흙무지, 이제야 끄스쨔는 할머니의 따사로운 품을 잃었다는것, 자기는 외롭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두다리와 량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머리속이 잉잉거리였다. 끄스쨔는 울바자를 붙잡고 일어나서 초원으로 화재를 멀리 피하여 허둥지둥 걸어갔다. 내리덮이는 밤의 어둠은 한치 앞을 가려볼수 없을만치 캄캄하였다.

제 4 장

뜨락또르공장 로동자주택구역 저쪽 언덕의 경사면에 고사포부대가 배치되여있었다. 그 부대의 포들은 숲가장자리 말하자면 도시를 열풍에서 보호하는 수림지대에 숨겨놓았었다. 그래서 포들을 좀해서는 발견할수가 없었다.포신들은 나무들의 줄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곁에 바투 가기나 해야 나무가지들밑에 마른 나무더미나 관목숲밑에 은페되여있다는것을 가려볼수 있었다.

끄스쨔는 잠시 쉬였다가 아버지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날 작정으로 여기에 들렸었다. 끄스쨔는 어른들을 만나고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만나기만 하면 단 한가지 볼가강 저쪽으로 가야 한다, 볼가강저쪽으로 가야 한다! 는 말만 강조하기때문이였다. 아버지가 저기 초원 어딘가 돈강전선에서 싸우고있다는것을 명확히 알고있는데야 볼가강 저쪽엔 뭣하러 간단말인가.

(에라, 이 관목아래에 좀 누워있자. 그러면 머리가 핑핑 도는것도 멎겠지. 그런 다음 월로쟈아저씨가 말을 타고 달려간 큰길로 나가야지. 거기 가서 련대를 찾아가자.)

꼬스쨔는 이런 궁리를 하였다. 바로 이때 키가 껑충하고 그루지야사람들처럼 수염을 기른 웬 사람이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났다.

《어째서 그리 싸다니는거냐?》

꼬스쨔는 그에게로 눈을 들었다. 지휘관이였다.

령장에 별이 두개 있는걸 보니 중위였다.

《아저씨, 아저씨는 뭘 지휘하시나요?》

《보려마, 덤불, 덤불을 지휘한다.》

중위가 대꾸하였다.

그제서야 꼬스쨔는 엄폐부들이며 깊숙한 홈채기들이며 위장한 포들을 알아보았다.

(저것들로 사격하는걸 구경하면 재미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꼬스쨔는 제일 가까이 있는 포에로 다가갔다. 그렇지만 중위는 그를 제지하였다.

《섯. 가지고 온걸 이리 내!》

꼬스쨔는 그제서야 자기가 책을 들고왔다는것이 생각났다.

《책입니다. 보십시오.》

그러고는 책들을 자진해서 중위한테 넘겨주었다.

《좋은 책들이냐?》

처음 몇페지를 번지면서 그가 물었다.

《이건 스파르타크에 대한것이고 또 이건 사람들이 불을 얻은 법을 터득한데 대한것이예요.》

꼬스쨔가 설명을 하였다. 마음은 또다시 괴로와졌다.

그래서 울지 말자고 서둘러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전선으로 갈수 있는지 모르시나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중위는 마치 그 질문을 못듣기라도 한듯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역시 불에 대한거군.》
그리고는 책을 손에 든채 도시를 바라보았다.
꼬스쨔도 지휘관이 바라보는쪽으로 돌아섰다. 눈앞에는 불바다가 펼쳐졌다. 그 불바다는 멀리 지평선으로부터 꼬스쨔가 서있는 언덕기슭까지 늠실거리였고 발광을 하듯이 날치는것이였다. 꼬스쨔는 쓰러질것만 같았다.
그리고 화재의 소용돌이속으로 자꾸만 끌려들어가는것 같았다. 도시는 불속에 잠겨버렸다. 꼬스쨔는 눈물어린 눈으로도 로동자주택구역을 곧 찾아볼수 있었다.
《바로 저기, 뚜르게네브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타버리고 없지만 …그리고 할머니를 거기에 묻었어요.》
《이렇게 큰 사람이 울기는… 우는건 좋지 않아. 우는건 좋지 않아.》
중위는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꼬스쨔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닙니다. 전 울지 않습니다. 전 그저 그런걸요.》
《그저 그럴수 있지, 헌데 전선은, 그건 바로 여기다. 우리 있는데 남아있거라. 그리고 아버지를 찾자.》
(정말, 이 아저씨는 어떻거면 아버지를 찾을지 알고있을수 있어. 여기 있으면서 좀 지내보자. 만일 저분이 진짜 전선군인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저분은 응당 좋은 분일거야.)
《난 포탄운반하는걸 돕겠습니다.》그리고는 자기 나이를 한살 더 높여 말하고나서 자기는 철봉에서 현수를 완전히 규정대로 다섯번이나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하였다.
《장한걸… 식사를 좀 해야지?》

꼬스쨔는 잠자코 있었다.
《말이 없는걸 보니 먹고싶다는거지. 자, 통졸임을 하나 요정을 내잔말이야. 그런 다음에 일에 달라붙지. 체육을 하잔말이야. 우리 고사총수들은 체육을 무척 좋아한단다.》
중위는 롱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잇달아 말하면서 꼬스쨔를 자기의 엄페부로 데리고갔다.
바로 그때 웬 처녀 하나가 그리로 다가왔다. 그 처녀의 군모도 상의도 치마도 다 보위색이였다. 장화 역시 파르스름한게 방수포로 지은것이였다. 그래서 처녀는 온통 위장을 하느라고 엄페호주변에 뿌려던진 풀과 나무가지들과 꼭 색갈이 같았다. 군모밑에는 꼭 졸라맨 빳빳한 연갈색 머리태가 보였다. 량볼은 빨갛고 조꼬만 기미가 있었는데 배속에서 생긴 기미였다.
(아니 이건 나쟈선생님이 아닌가. 우리 분단지도원선생!)
꼬스쨔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삐오네르에 들어간 초시기부터 꼬스쨔는 나쟈를 존경해왔다. 나쟈는 항상 명랑하고 락천적이였다. 한번은 꼬스쨔가 다른 학교에서 전학해온 아이와 하마트면 다툴번하였다. 한것은 그애가 나쟈를 눈뭉치로 맞히려고 했기때문이였다. 온 겨울 꼬스쨔는 나쟈의 지도밑에 체육부에서 훈련을 하였다. 삐오네르궁전 라지오소조에 등록하도록 꼬스쨔를 도와준것도 바로 나쟈였던것이다.
(봄부터 나쟈선생은 간데온데없이 없어졌었지. 모두 말하기를 나쟈선생은 전선으로 갔을것이라고 하였지. 허지만 내 생각같아서는 여긴 아직은 전선이 아닌데.
아니야. 저건 나쟈선생이 아니야. 그 나쟈는 진짜 전선에 가있을거야. 헌데 저 처녀는 퍽 거만해서 날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는걸.)

꼬스쨔는 그 처녀한테로 가까이 가려고 하였으나 잠시 생각해보고 그것은 나쟈가 아니며 목에 있는 배속에서 생긴 기미는 그저 우연한 일치일것이라고 확고히 단정해버리고는 처녀한테 등을 돌리였다.

(나쟈는 언제나 기미를 삐오넬넥타이밑에 감추고 다녔는데 저 처녀는 우정 드러내놓고있단말이야.)

《자, 전선답게 통졸임을 요정내고보지.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자구.》

중위는 또다시 롱담을 하였다.

《좋습니다.》

꼬스쨔는 눈을 내리깔면서 동의하였다.

《중사동무.》 지휘관은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소년을 동무네 성원들한테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 책들도.》

《들었습니다.》

《나무가지들을 꺾어서 상자들을 위장하게 하시오. 허지만 우선 식사를 시키시오. 알겠소? 그는 먹고싶어한단말이요.》

처녀중사는 책들을 집어들고 꼬스쨔에게로 홱 돌아섰다.

《아이, 잘 있었어요. 꼬스쨔!》

《나쟈선생님!》

꼬스쨔는 기쁜김에 눈물을 씻으면서 이렇게 응답하고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나쟈는 말이 없었다. 이 순간 나쟈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학교를 회상하였을수도 있고 삐오네르대렬과 삐오네르에 들어온 꼬스쨔 뿌르긴의 소심스러운 첫걸음에 대하여 회상하였는지? 처녀는 입을 열기를 괴로와했다. 손밑에는 온순한 소년의 곱실곱실한 앞머리칼이 있고 눈앞에는 시뻘겋게 불타는 도시가 보였다.

《자, 어서 가자요.》
나쟈는 말했다.
나쟈가 지휘하는 1분대의 포들은 포부대지휘관의 엄폐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
《이건 내 포예요.》 나쟈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동무의 위치는 저기예요.》 나쟈는 깊은 참호를 가리켰다.
꼬스쨔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싶었다.
그러나 이때 구령소리가 들리였다.
《항공!》
고사포수들이 엄폐부에서 뛰여나와 각기 자기 위치로 달려들 갔다. 나쟈의 포있는데로 수염이 더부룩한 조준수가 달려왔다. 그는 둥글한 안장을 타고앉더니 조준경에 달라붙었다. 포신이 서서히 일어서서 딱 대기하였다. 나쟈는 옆으로 비켜서서 무슨 수자들을 큰소리로 불러주기 시작하였다. 사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꼬스쨔는 고사포들의 사격을 가까스로 쳐다볼수 있었을뿐이고 도이췰란드폭격기 《윤께르스》들이 다른쪽으로 기수를 돌리는것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나쟈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포들도 사격을 중지하였다.
《한번 더 소리를 치지요.》
꼬스쨔가 애원하다싶이 말하였다. 꼬스쨔의 생각에는 큰소리 한마디한마디가 곧 사격인듯싶었다.
《거긴 우리 구역이 아니야.》 나쟈가 대답하였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어떻게 구역으로 나눌수 있단말인가. 하늘에다야 도저히 선으로 표시를 할수 없지 않은가.)
고사포수들은 사격을 끝내고 엄폐부로 들어들 갔다.
(괴이한 일인걸. 도시에서는 비행기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하에, 방공호들에 대피하는데 여기서는 그와는 정반대거든. 내가 이거 어디엘 왔담. 야 참, 아버지를 만나봤으면 ! 지금 나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할것이 있는데.)

꼬스쨔는 골똘히 생각하였다.

조용한 시간이 닥쳐왔다.

이제야 나쟈와 이야기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쟈는 조준수와 무엇에 대해선지 이야기를 하고있었고 이쪽은 바라보지조차 않았다.

(좋아. 나무가지들밑으로 들어가서 수림지대를 가로질러간 신작로가 어디로 통하는지 살펴봐야지. 그런 다음에 의논을 해봐야지…)

*　　　*

포부대의 바로 머리우로 몇대의 비행기가 아주 낮게 떠서 날아갔다. 고사포수들이 미처 포문을 열수 없을정도였다. 그 비행기들이 땅크종대를 호송하고있었다는것을 꼬스쨔는 알지 못하였다.

고사포수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아는것이란 오직 어딘가 초원에서, 까르뽀브까철도역근처에서 가렬한 전투가 진행되고있다는것, 그 무슨 근위부대가 동쪽과 서쪽방향으로부터 쓰딸린그라드를 뚫고 들어올 시도를 하는 적의 대병력을 벌써 두주야째나 거기에 붙들어매놓고있다는것뿐이였다. 그러나 까르뽀브까역은 이미 포위당했고 아군주력의 후퇴를 엄호하는 련대는 포위속에 홀로 남아있다는것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단군참모부에서나 짐작하고있을뿐이였다.

꼬스쨔는 나쟈가 서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큰길에서 먼지가 회오리쳐오는것을 발견하였다.
《저길 좀 봐요. 저기에 뭔가 있어요.》
《보고있어요.》
나쟈가 대꾸하였다.
뒤미처 포부대에 구령이 내렸다.
《자기 위치로 !》
나쟈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꼬스쨔더러 빨리 엄폐호에 대피하라고 하였다. 헌데 부질없는 일이였다. 차라리 그런 말은 하지 않는편이 더 좋았을것이였다.
두눈이 황황 불타는 꼬스쨔는 엄페호로 갈대신에 포신에 기여오를 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랬다가 포신이 올라가면 따라올라가서 더 먼데를 보자는것이였다.
《중사동지, 저건 〈마찔드〉와 〈왈렌따이〉입니다. 산더미들이지 땅크가 아니지요.》한 병사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하였다. 《우리 땅크병들은 저것들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안에는 잠자리가 푹신푹신하지만 전투때에는 맥을 못춘다더군요. 동맹국들이 우리한테 그런 물건을 보내준거랍니다. …》
《옳아요. 〈마찔드〉예요.》
나쟈는 한숨을 쉬였다.
꼬스쨔는 나쟈한테로 다가가서 망원경을 빌리였다.
《마찔드》니, 《왈렌따이》니 하는 알지 못할 말들은 꼬스쨔를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구경하는게 재미있었던것이다.
《극장구경보다 더 좋은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선두땅크가 망원경렌즈안에 들어오자 꼬스쨔가 이런 말을 하였다. 열려있는 포탑으로 붉은기발이 어렴풋이 보였다. 포탑우에는 붉은별과 글이 씌여있었는데 꼬스쨔는 그 글을 알아볼수가 없었다.
(옳지. 저 사람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알거야.)

《주목! 각 포들 자기 위치로!》

또다시 구령이 내렸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수염많은 조준수가 성이 나서 웅얼거리였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그러지 않아도 잔뜩 피로한 조준수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드는것 같은 모양이였다. 밤낮없이 경비근무를 서기가 수월하겠는가! 쓰딸린그라드에서처럼 그렇게 힘겨운 부담을 조준수들은 여태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문득 웬 사람이 벌판으로 달려오는것을 모두가 알아보았다. 아직은 먼거리에 있는데도 명백히 알리였다.

그는 조준수들한테로 곧바로 달려오는것이였다.

어푸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덤불들과 도랑들을 마구 타고넘어 달려온 그는 그자신으로서는 천만뜻밖에도 1포와 맞다들리였다. 그러자 그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 땅크들을 가리키면서 정력적으로 손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포민이였다. 죽은 오를리끄를 큰길에 남겨둔 그는 걸어서 도시로 떠났던것이다. 밤도와 쏩호즈부락을 뚫고나온 그는 거기에 땅크들이 집결되여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땅크들인 《마찔드》와 《왈렌따이》였다. 포민은 그 땅크들을 잘 알고있었다. 《렌드-리즈》(미국의 무기대여법)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런 땅크 몇대가 하리꼬브부근전투때 동원되였던것이다. 아군땅크병들은 그 땅크들을 곧 역겨워하였다. 키만 껑충 높은게 포탄 한개만 얻어맞으면 대뜸 불타버리는것이였다.

그렇지만 어찌하여 그 땅크들이 도이췰란드놈들한테 나타났는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대번에는 알아맞

출수가 없었다. 파시스트놈들이 포탑우에다가 황급히 붉은별들을 그리는것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적들이 간교한 술책을 쓸 잡도리를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정치위원의 위임을 잊어버리지 않은 포민은 곧 놈들의 이 간계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 결심하였다.
《지휘관이 어디 있소?》 고사포사수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눈치를 보이자 포민은 그들에게 큰소리로 요구하였다.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었던가? 내가 아버지하구 아흐뚜바에 고기잡으러 갔을 때 그 집에서 묵은적이 있는 그 교원이 아닌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아흐뚜바아이들이 저 사람을 그렇게 불렀지.)
나쟈는 끄스쨔가 그 수염쟁이지휘관을 만났던 그 엄페부로 포민을 보냈다. 그는 포부대지휘관이였다. 포민은 한달음으로 그리로 달려가서 숨돌릴새없이 큰소리로 지휘관에게 이야기하였다.
《땅크들이… 익측… 사격…》
끄스쨔의 귀에는 흥분한 포민의 동이 닿지 않는 개별적인 문구들만이 들려왔다. 그는 땅크에 대고 사격할것을 요구하는것이였다.
(자기 편에 대고 누가 사격을 한단말인가? 괴상한 사람 같으니!)
땅크들은 봊나무가지들이며 어린 사과나무들을 깔아뭉개면서 줄을 지어 전진하였다. 애어린 나무가지들은 몸부림을 치며 마치 대항이라도 하듯이 강철장갑을 후려치는것이였다.
(저것 봐. 어쩌면 저리도 무자비하담. 그러다간 봊나무들을 온통 망쳐놓겠는데.)

《이놈들아, 어디루 기여가는거냐?》
꼬스쨔는 붉은기를 단 선두땅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거기까지 미치자면 아직도 무척 먼 거리였다. 허지만 그놈은 도랑을 우회하여 곧바로 포부대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각 포들!》 중위가 손을 추켜들었다. 《땅크를 목표로 사격!》
일제사격소리가 두번, 세번 거듭 울리였다. 선두땅크가 팽이처럼 선자리에서 핑그르르 돌았다. 나머지 땅크들은 전개하자 숲가장자리에 대고 기관총들로 련발사격을 시작하였다. 지금 고사포사수들은 공중구역에다 대고 사격을 하는것이 아니라 땅크를 목표로 사격하는것이였다.
사수들가운데서 누군가가 꼬스쨔를 깊은 도랑속에다 밀어넣었다. 그리하여 꼬스쨔는 우에서 벌어지는것을 더는 볼수가 없었다. 연기, 불 그리고 귀가 멍멍해지는 폭발뿐이였다. 산이 뒤집히고 모든것이 끝장이 나는듯 하였다.
한 십분 지나자 조용해졌다.
(개자식들같으니, 속임수를 써보겠다구. 그저 족쳐야해, 족쳐야!)

*　　*

뒤미처 무개차인 승용차 한대가 포부대로 달려왔다.
키가 작달막하고 민첩해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뛰여내렸다. 중위가 채양밑에 손을 올려붙이고 그에게로 달려나갔다. 꼬스쨔는 《장령동지》하는 첫마디를 들었을따름이였다.
(아니 이런 장령들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

했지.)
꼬스쨔는 모든 장령들이 다 언젠가 시군사위원회에서 만났던 그 장령처럼 키가 크고 무서운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재작년 모스크바로부터 무슨 꼬미씨야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였다. 그때에는 아버지도 화를 냈었다. 헌데 이 장령은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하고나 다 악수를 하는것이였다.
그는 제62집단군사령관 뽀자르스끼소장이였다. 정체불명의 땅크들이 접근해오는것을 장령은 아직 고사포사수들이 적비행기들의 공격을 격퇴하기전에 자기 감시소에서 발견하였었다. 그 땅크들은 뜨락또르공장구역으로 달려 오고있었다. 뽀자르스끼장령은 놈들에게 무선신호와 신호탄에 의한 경고신호로 멎으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땅크들은 멎지 않고 도리여 속도를 더 높이였다. 놈들은 뜨락또르공장 관할구역으로 뚫고들어올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꼬스쨔가 가있던 그 포병중대 고사포병들이 자체의 결심에 의하여 사격함으로써 놈들을 쫓아냈던것이다. 그것은 꼬스쨔가 옳게 리해한것처럼 장령의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장하오. 고사포병들, 장하오!》
장령은 거듭 뇌이고나서 묻는듯한 표정으로 꼬스쨔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건 누구네 아이며 왜 여기에 와있는가 하는듯하였다.
포병중대지휘관은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게 적땅크라는것을 누가 먼저 판단하였소?》
장령이 그에게 물었다.
중위는 나쟈를 바라보고, 다음에는 포병들을 쳐다보고나서 시선을 포민에게 멈추었다.
포민은 금시 꼬스쨔에게 다가선참이였다.
《이 동무입니다.》

《당신이요?》
뽀자르스끼장령이 포민에게 물었다.
포민은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끄스짜에게 알리다 말고 장령한테로 돌아서서 채양밑에 손을 붙이였다.
《그 동무입니다.》
나쟈가 확인하였다.
《동무는 누구요?》
장령이 포민에게 말을 걸었다.
《전사 기관총수 포민입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손을 내리였다.
《이름과 부칭은?》
《포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입니다.》
《장하오!》 잠시 생각한끝에 장령은 다시한번 물었다.
《포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란말이지?》
《그렇습니다.》
포민이 확인하였다.
장령은 중위한테로 돌아서더니 명령을 하였다.
《래일 표창내신서와 함께 이 동무를 나한테 보내시오.》
《이 동무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중위는 당황하여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럼 누구네 사람이요?》
《저는 찌또브련대 정치위원한테서 문건을 가지고왔습니다.》
포민은 이렇게 보고하고나서 문건꾸레미를 내보였다.
뽀자르스끼장령한테는 아군주력의 후퇴를 엄호하는 련대의 운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소식들이 이미 와있었다.
장령은 뿌르긴소좌며 찌또브정치위원과 개인적으로 친숙한 사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순간 그는 흥분하여

고사포병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포민에게 련대를 떠난지 오래 되였는가, 거기 형편은 어떤가? 캐여묻기 시작하였다.
뿌르긴이라는 친숙한 성이 귀에 들리자 끄스쨔는 포민에게 달려갔다. 그렇지만 조준수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면서 그를 붙잡았다.
《방해하지 말아. 장령은 그와 담화를 하고계신다. 규정을 알아야 하는거야.》
《동무들!》장령은 포민과의 짤막한 담화를 끝내고 모두들한테로 얼굴을 돌리였다. 《적은 우리 조국을 연유없이 남겨두기 위하여, 볼가강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심장—모스크바를 위협하기 위하여 쓰딸린그라드로 뚫고들어오려고 하고있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들은 자기의 온 예비들을 모조리 긁어모았는데 그속에는 전리품차들도 있었소. 저 차들은…》장령은 불타고있는 땅크들을 가리켰다. 《프랑스해안에서 이리로 온것입니다. 그건 〈듕께르끄〉라는겁니다. 영국과 미국군대들이 퇴각하면서 이 땅크들을 바다가에다 내버린거지요.》
《헌데 어째서 태워버리지 않았을가요?》
고사포병들중 누군가가 화가 나는듯이 웅얼거리였다.
《동무는 왜 태워버리지 않았는가고 묻고있지요?》 장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때가 되면 알게 될거요. 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한가지만은 명백하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적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그것이요. 쓰딸린그라드는 적에게 내맡길수 없습니다.… 포민동무, 본받을만한 경각성과 기지에 대한 표창으로 동무에게 금시계를 주겠소.》
장령은 말을 마치고 시계를 내주었다.
《감사합니다.》 포민이 말하였다. 허지만 얼핏 생각이

들어서 고쳐 말하였다. 《쏘베트련맹에 복무함!》
포민의 얼굴에 시계뚜껑의 금빛반사광이 번쩍 비끼였다.
(좋은 시곈걸. 어째서 나는 그게 파시스트놈들의 땅크라는걸 선참으로 알아맞추지 못했을가? 내가 놈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았던가.)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다말고 곧 자기를 다잡았다. (욕심쟁이, 질투쟁이) 웬일인지 꼬스쨔는 대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포민앞에 서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장령동지!》
모두에게 있어서 천만뜻밖이게 꼬스쨔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장령에게는 일체 격식대로 대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했는지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장령동지, 말할만 합니까?》
뽀자르스끼장령은 마치도 꼬스쨔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던듯이 질문으로 소년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너는 누구지?》
그러나 꼬스쨔는 그 질문을 못들은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아내려고 서둘렀다.
《우리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뽀자르스끼장령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빙긋이 웃으며 대꾸하였다.
《봤지!》
《정말입니까?》
《정말이구말구… 헌데 너의 그 아버지가 누구지?》
《소좌입니다.》
《그의 성은 무엇인데.》
《나와 같은 성입니다. 뿌르긴입니다.》
《뿌르긴?!》
장령은 이렇게 되뇌이고나서 포민에게로 눈길을 돌리

더니 침울한 표정을 하였다.

그 순간 포민이 꼬스쨔한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뽀자르스끼장령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였다.

《잠자코 있으시오. 모든것이 명백하오.》

순간적인 침묵이 깃들었다.

장령은 잠간 생각을 굴린뒤에 꼬스쨔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권하였다.

《차에 타거라. 같이 가자.》

《먼가요?》

《타거라, 내 어머니한테 데려다주마.》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구 새 어머니는 내가 못데려오게 했습니다.》

꼬스쨔는 뒤좌석에 앉으면서 죄스러운듯이 설명을 하였다.

《아니, 넌 참 무서운 애로구나!》 장령은 롱담을 하고는 곧 운전사에게 고개짓을 하였다. 《가기요.》

자동차는 돌아서서 도시를 향하여 달리였다.

《잘 가거라, 꼬스쨔!》

나쟈는 꼬스쨔의 책들을 손에 든채 소리를 질렀다.

꼬스쨔의 운명은 나쟈의 눈앞에서 급작스레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전변되였다. 그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나쟈가 아직 미처 판단을 내릴수 없을 정도였다. 몇순간 나쟈는 꼬스쨔가 장령한테 가서 무엇을 하게 될것인가 하는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포민한테로 눈길을 돌리자 소년의 운명은 믿을만한 사람의 손에 들었다는것, 소년은 오늘로 볼가강을 건느게 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자동차를 눈으로 바래면서 포민과 나쟈는 꼬스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결단을 내리지 못한채 나란히 서있었다.

*　　*

뽀자르스끼장령은 적의 간교한 기도에 대하여 전체 부대들에 다시한번 경고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면서 꼬스쨔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장령은 뿌르긴소좌와 그의 련대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만치 포민이 그에게 전달한 그 사실이 그의 가슴속에 꼬스쨔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이 순간 모스크바에 있는 자기 안해한테 전보를 치기로 작정하였다. 소년이— 꼬스쨔 뿌르긴이 그리로 간다는것을 알리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우선 소년과 담화를 해야 하며 그의 희망을 물어봐야 하고 친척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상담을 해봐야 할것이였다. 허지만 꼬스쨔와 이야기를 시작하는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자동차가 도시의 불탄 거리로 달리고있었고 소년은 그의 고향도시에서 벌어진 일로하여 마음이 착잡하였다.

오른쪽도 왼쪽도 모두 불과 연기의 빈틈없는 담벽이였다. 때때로 불길과 커다란 불꽃다발들이 길을 뒤덮군하였다. 꼬스쨔는 실눈을 하고 장령이 자기 운전사한테 이야기하는것을 긴장해서 듣고있었다. 헌데 장령은 운전사에게 꼬스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사방에서 툭, 딱소리, 폭음 그리고 또 발동기가 우르릉거리니 꼬스쨔의 귀에는 다만 단편적인 어구들만이 들릴뿐이였다.

《지금은 지하실에, 밤에 … 소년을 도하장으로…수송감시원에게 맡기시오.… 아니, 저 애를 개별적으로 볼가강저쪽으로 넘겨보내야 하오.…》

꼬스쨔는 항의를 들이댈 심산이였다.

(나는 볼가강너머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한테 가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머리우로 무엇인가 쉭쉭거리고 우르릉거리는것이 날아지나가는데 어찌나 급작스럽던지 꼬스쨔는 단 한마디도 미처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폭발소리가 울리였다.

제 5 장

하얀 천정에 사방 흰벽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백설같은 홑이불이 덮여있는 침대들, 옆에서 자고있는 사람의 얼굴마저 창백한게 흰 베개잇과 같은 빛이였다. 만일 자는 사람의 그 짙은 시꺼먼 눈섭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꼬스쨔는 산사람이 자기곁에 누워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것이였다. 다른쪽곁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져있었는데 그 붕대들 역시 마치 그의 머리를 온통 뒤덮고있는듯하였다. 멀리 떨어진 저쪽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신음소리를 내고있었다.
문이 열려있는데 문지방에 흰 위생복을 입은 녀인이 나타났다. 꼬스쨔는 눈이 아물거렸다. 그래서 그는 두눈을 꼭 감았다. 다음번에 깨여났을 때 꼬스쨔는 창가에 누워있다는것을 알았다.
가제로 만든 방장을 들치자 몸서리를 쳤다. 눈인가? 아니다. 그것은 눈이 아니였다. 눈송이같은 보드라운 쪼각들이 창유리앞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태양을 가리우면서 창문틀우로 내려앉는것이였다. 그것은 불타고있는 쓰딸린그라드에서 날아오는 재가루였다.
(거리바닥도 하얗구나.)

창문에서 얼굴을 돌린 꼬스쨔는 몸서리를 치면서 생각하였다.

병원안은 조용하였다. 짙은 눈섭이 시꺼먼 옆의 사람은 이미 병실안에서 걸어다니였다.

그러다가 꼬스쨔가 눈을 뜬것을 보더니 침대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넌 참 듬직한 사내애로구나. 붕대를 갈아매는데두 울지를 않거든.》

《전선에서는 울지 않아요.》

꼬스쨔가 대꾸하였다.

《옳은 말이야. 정확히 말했어. 내가 보기엔 너는 강기가 있다. 넌 타박상을 입었구 옆구리를 긁히였는데두 물고기처럼 찍소리 없단말이야. 만약 저기 쓰딸린그라드가 조용하다면 나랑 너랑은 거기서 일을 할텐데.》

《아니 우리가 쓰딸린그라드에 있지 않단말입니까?》

꼬스쨔는 벌떡 일어났다.

《누워있거라. 누워있어.》 곁의 사람이 그를 달래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후 설명을 하였다. 《지금 나나 너는 휴식중이야. 후방에서말이다. 쓰딸린그라드까지는, 이를테면 전선까지말이지. 여기서 20내지 30키로메터 떨어져있어. 알만해? 여긴 아흐뚜바병원인걸. 우리는 바로 이런데 와있단말이다.》

《아흐뚜바라구요?…》

꼬스쨔는 깜짝 놀랐다.

《그래, 그래, 아흐뚜바야. 착실한 고장이지.》

《그리 착실하지 못해요. 난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오군했어요.》

꼬스쨔는 점차적으로 자기옆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고 그가 해군륙전대인데 뜨락또르공장근방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벌써 퇴원수속을 했지. 대대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됐거든.》
그는 무슨 종이장을 내보이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아저씨네 대대는 어데 있나요?》
꼬스쨔는 물었다.
《가까이에 있지. 난 휴식중인걸. 허지만 이제 곧 다시 그리로 가게 되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다 나았단말이지요?》
《보는바와 같지. 사흘동안을 체온을 재고 털어버렸더니 오늘은 모두가 정상이야. 너는 그런짓을 하지 말아라. 터는것은 능숙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알아챈단말이다. 그러면 죄가 끝이 없지, 그담에는 넌 그런짓을 한대야 쓸데가 없어. 넌 여기서 볼장을 다 볼게란말이다.》
병실로 위생병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꼬스쨔더러 의사한테 가보라고 당부하였다.
꼬스쨔가 의무실곁에 꾸려놓은 영사실문턱을 넘어서자마자 흰 위생복을 입은 중년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안경을 이마우로 밀어올리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아는 친구처럼 꼬스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안녕한가, 꼬마군인동무!》
《안녕하십니까!》
《이제야말로 너는 진짜배기 전선군인이다.》맥박을 재면서 그리고 면바로 쳐다보면서 의사가 말하였다. 《이제 넌 산보하러 나다녀도 좋다.》
《혼자 가도 되지요?》
《물론이지, 물론이야. 너는 자립적인 사내아이가 아니냐. 그렇지만 한 둬주일동안은 엄격한 생활규정을 지키도록 하자. 튼튼해지거든 전쟁을 시작하자.… 생쥐, 큰쥐들과말이다. 그것들이 부엌에 얼마나 많이 번식했

는지. 그놈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여야 할게다. 그러니 달아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일단 이 전선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네 위치야.》

의사는 이렇게 롱담을 하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그저 우연히 왔지. 모든 전선군인들처럼말이야. 처음에는 위생지도원한테 갔었고 다음에는 군의소에 또 다음에는 대대위생소에 그리고 거기서 위생차에 실려서 우리한테로 왔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꼬스쨔는 고사포병들이 있는데서 자동차를 타고온것이 생각났다. 장령의 곁에 앉아있었고… 폭탄들이 아츠러운 소리를 질렀고, 자동차가 껑충 뛰였고 다음에는 마치 바로 귀전에서 금선이 울리는듯하였고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또다시 울리는듯하였다.

《그런데 나하구 같이 타고온 장령도 병원에 있습니까?》

《아니지. 그분은 쓰딸린그라드에 있다. 그의 참모부가 제10중학교곁이라고들 하더라. 그런 학교를 아니? 그렇지, 물론 너는 거기서 공부했지. 훌륭한 학교였지. 꼬스쨔 뿌르긴이 살던 뜨루게네브거리에서 멀지 않으니까. 너는 좋은 사내아이구 공부를 잘했지. 전과목 5점인걸.》

《그런걸 나는 선생님이 나를 전혀 모르시는줄 알았군요.》

《아니, 그런 사내아이를 내가 왜 모르겠니.》의사는 빙긋이 웃었다. 《붕대나 갈아매거든 거리로 산보를 나가거라. 그리고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

꼬스쨔가 자기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꺼먼 눈섭이 짙은 그옆의 사람은 이미 없었다. 떠나갔었다. 미처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작별이라니… 하얀 홑이불과 베개잇에서는 눈에서처럼 싸늘한 기운이 풍기

였다. 병원냄새는 모든 틈새에 다 침투한듯하였다.
(거리에 나가면 물론 훨씬 좋겠지. 거기는 공기가 맑은데. 그런데 여기는…)

* *

병실은 더없이 갑갑증이 났다. 산보에서 돌아와서 다음 산보시간까지 창문가에 앉아있기란 정말 역증이 났다.
그래서 만일 태풍같은 바람이 일지 않았던들 꼬스쨔는 아마 그날로 병실에서 도망을 쳤을것이였다. 바람은 창문틀에 앉은 재를 말끔히 쓸어버렸고 창문앞에 서있는 나무들을 잡아흔들어놓았다.
옹근 한주일동안을 바람은 덧창문을 탕탕 두드리고 양철지붕을 울리고 모래섞인 먼지를 기둥처럼 말아올리고 나무들을 쓸어눕히고 나무잎들을 무자비하게 훑어버렸다. 그리고는 나무가지들을 온통 분질러버릴 작정인듯하였다. 그런데 된바람이 잦아지기가 바쁘게 나무들은 꼿꼿이 바로 서는것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람이 거의나 잎을 다 뜯어버린 나무가지들은 마치 한층 더 탄력있게 서있는듯하였다. 그런 때면 그 나무가지들은 연약한 초록외피가 없는게 한결 더 헐한 모양이였다.
(저 나무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창가에 서있는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꼬스쨔는 이렇게 단정하였다. 바람이 부르는 느릿한 노래를 들으면서 꼬스쨔는 생각을 굴리였다. 자기는 여기 병원에서 무엇을 한단말인가? 지금은 편안한것을 즐길 때가 아닌데. 이런 냄새를 맡구, 흰 위생복이나 쳐다본단말인가? 아니다. 쓰딸린그라드로 가야 한다. 참나무는 제 설자리에 서있기때문에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굳세여졌으니까. 나무줄기에서 가지를 꺾어보지. 그러면 그 가지는 죽어버릴것이다.

그렇다. 끄스쨔에게는 쓰딸린그라드가 필요한것이다. 거기에는 그에게 알맞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라면 그는 매개 거리, 매개 집을 다 잘 알고있다. 거기에는 학교가 있고 또 거기 가면 아버지를 만날것이다. 끄스쨔가 어떤 사람이 되였는가 하는것을 그는 아버지에게 보여드릴것이며 상처를 꿰맨 자리는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을것이다.

아버지자신이 자기 아들이 이제는 진짜 전선군인이라는것을 판정하도록 하게 할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날씨가 잠풍해졌다. 끄스쨔는 이전에 구락부가 있던 울타리까지에가 아니라 강기슭에까지 산보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위생복보다는 사복을 입고다니니 훨씬 더 자유로왔다.

(누구도 자기 보고 흥이야 붕이야 하지 않는다. 구두만 아니라면 정말 누구도 병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끄스쨔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만치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였다. 환자들을 돌보는 위생지도원의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부엌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감자 씻는 일에 손을 대기도 하고 장작도 날라오고 때로는 전화당번을 서면서 병원사업에 조예가 깊은 당직일군처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하여 척척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거기서—볼가강너머에서, 쓰딸린그라드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것을 충분히 알아낼수 있었다.

(지금 바로 거기서 아군이 파시스트놈들을 족쳐대는것을 구경했으면 참 재미있겠는데, 만일 공장구역과 마마

예브언덕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기서 아군이 완강히 싸우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 아버지와 아버지네 련대는 어느 거리에서 싸우고있을가?…)

라지오로 보도되고 신문에 실리고 부상병들이 이야기하는 쓰딸린그라드방어자들의 매개 위훈을 꼬스쨔는 내심 자기 아버지가 지휘하는 그 근위련대와 결부시켜 생각하군하였다.

(아버지네 련대에서는 모두가 영웅일거야. 그렇지 않구, 어떻게 달리 될수가 있겠는가. 근위병들인데!)

꼬스쨔는 그런 생각을 한뒤에는 서글퍼지기 시작하였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에게는 답답하고 무미건조한것만 같았다. 환자들과 의사들이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 어린애로 여기면서 하는 말을 듣기란 특히 역겨웠다. 매일같이 병원으로 시를 읊고 여러가지 이야기책들을 랑독해주러 오군하는 그 아흐뚜바의 소년들마저 꼬스쨔를 어린애처럼 대하는것이였다.

(역시 보호자들로 자처하거든. 게다가 또 마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듯이 생각들 한다니까.)

언젠가 꼬스쨔는 그애들을 남새밭으로 가자고 권한 일이 있었다. 무슨 놀음을, 하다못해 숨박곡질이라도 해볼가 해서였다. 총각애들은 무엇인가 생각들을 했으나 처녀애들은 서로 눈길을 마주치더니 흔연히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놀음은 이내 흐지부지해졌다. 처녀애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일부러 놀음을 매번 꼬스쨔가 이기게끔 노는것이였다. 그러니 모두가 도와주어서 승리자로 되는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무슨 달리기를 한다해도 그애들은 우정 뒤떨어진다. 그 빨로치까—븨루찰로치까놀음만해도 그애들은 꼬스쨔를 먼저 붙들려고 애를 쓰지 않는것이였다.

그래서 또다시 꼬스짜는 울적해졌다. 그러니 또다시 아버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만일 꼬스짜와 놀음놀이를 시작하면 진지하게 얼굴에 땀이 솟고 량볼이 빨개지도록 본격적으로 노는것이였다.

어느날 꼬스짜는 남새밭에서 나오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다. 즉 거리를 따라 마을종심을 꿰질러 먼지가 자욱한 큰길로 자동차들과 견인차들, 땅크들, 사람들, 말들이 밀려가는것이였다. 그들은 쓰딸린그라드로 서둘러 가고있었다. 짙은 구름처럼 일어나는 먼지조차도 그리로 달려가는것이였다. 그러다보니 꼬스짜도 마치 그 흐름에 휩싸인듯이 그만에야 한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큰길섶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군대와 땅크, 대포들의 종대를 구경하였다.

발밑에서 변변치 못한 다리가 요란한 소리를 냈고 다음에는 새로 닦은 큰길에서 자갈들이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더니 이윽하여 눈앞에서 덤불들, 나무들이 얼씬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느새 볼가강연안의 담벽같은 참나무숲이 나타났다. 고향도시로, 쓰딸린그라드로 그처럼 훌륭하고 친숙하고 명랑한 군인들이 쓸어가는것을 걸어가면서 관찰하는것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 저 대포들, 저 땅크들! 암만 봐도 싫지 않았다. 이제 저것들이 아버지네 련대가 파시스트놈들의 상판대기를 족치는걸 도와줄테지!

꼬스짜는 군대들이 숲속으로 들어서는것도 저녁이 된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한곳에서 위생차와 마주치였다. 그안에는 붕대를 감은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흰 병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온몸으로 전률이 줄달음쳤다.

(돌아가지 않을테다.)

위생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꼬스짜는 나무잎이 수북이 깔린 숲속 오솔길로 걸어갔다. 나무잎들이 부스럭

거리는게 마치 꼬스쨔더러 걸음을 멈추고 저들의 속삭임을 들으라고 권고하는상싶었다. 그러나 일단 도시로 빠져들어갈 결심이 된바에야 어찌 꾸물거릴수 있겠는가! 저녁어스름을 타서 부르꼬브스끼농장을 우회한 꼬스쨔는 다시 도하장으로 통한 큰길에 나섰다. 우르릉거리는 폭발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다. 저기 볼가강너머에서는 뢰성이 끝없이 얄궂은 웃음을 웃어대고있는듯하였다.

새파란 술같은 참나무숲사이로 쓰딸린그라드하늘이 둥글지붕처럼 우렷이 떠올랐다. 볼가강을 끼고 연 50키로메터나 뻗어나간 거창한 도시는 여전히 불과 연기속에 잠겨있었다.

(거기서는 무엇이 저리도 타고있을가? 돌들도 불앞에 굴복을 했단말인가?)

볼가강이 보였다. 도하장에는 매개 나무들밑에, 덤불속에 그리고 강기슭에 병사들이 앉아있었다.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묵묵히 쓰딸린그라드의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탄산가스냄새가 풍기였고 목구멍이 알찌근하였다. 사람들은 마치 여기서 하는 기침소리가 적들의 귀에 들릴수 있기라도 한듯이 입에다 손을 대고 기침을 하였다. 벌써 여기서는 맞불질하는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들리였다.

《여, 젊은이, 어데 가나?》

꼬스쨔는 돌아다보았으나 그 목소리가 어느쪽에서 들려오는지 알수가 없었다.

《집에 갑니다.》

《집이 어딘데?》

《쓰딸린그라드에 있습니다.》

《그럼 바루 거기서 왔단말인가?》

(나를 잘못보고있는가?)

그리하여 성가신듯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1학년생인가 하는군요. 나를 헛갈리지 마십시오.…》
창대같이 길다란 파갑총을 든 병사가 마주나왔다. 절친 비옷의 넓다란 옷자락이 길을 떡 막았다. 병사는 우를 쳐다보고나서 웃음을 억제하면서 심문하기를 계속하였다.
《헌데 동무는 어디서 이리로 왔다고?》
(반격을 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게 굴거야.)
꼬스쨔는 생각하였다.
《젊은이, 성내지 말라구. 나두 동무가 온 거기서 왔어. 신발을 보구 알지. 다만 나는 병원에서 그런 〈실내용단화〉는 신고오지 않았어. 그건 신중하지 못해.》
꼬스쨔는 두귀와 량볼이 화끈 달아올랐다. 서두르는바람에 그것을 병원에 두고오는것을 잊었던것이다. 그게 불편한건 말할것도 없고 다 폭로된 지금도 그 신발을 신고있으니 무어라고 대꾸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이때 어둠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제르노브, 지휘관한테 가라구!》
반땅크총사수는 픽 돌아서더니 걸음을 옮기면서 말하였다.
《잠시 기다려라. 부대를 떠나보내구 오마. 이야기를 좀더 하자구.》
기슭에서 술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이 일어나서 반땅크총사수를 따라나서는 소리였다.
(단단히 채심을 해야지. 그렇지. 실내화를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당장 그래야지.)
꼬스쨔는 곧 신발을 벗어서 큼직한 우엉잎에 싸고 덩굴로 동여맨 다음 그 꾸레미를 무슨 뜨거운 숯이기나 한듯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른 계선장으로 갔다. 거기서는 쓰딸린그라드에서 도착한 쪽배들이 짐을 부리우고있었다.
꼬스쨔는 어른들속에서 열둬살 나보이는 처녀애를 발

견하였다.
《너 누구하구 같이 가니?》
《어머니하구.》
처녀가 대꾸하였다.
《먼데 가니?》
《먼데로 간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기차를 타고 폭격이 없는데로 간대.》
《옳다.》 꼬스쨔는 이렇게 긍정하고나서 처녀애더러 아흐뚜바에 가거든 병원(이전의 구락부자리)에 들려서 꾸레미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전해주지?》 꼬스쨔는 발라맞추듯이 당부하고는 대뜸 처녀의 손에 꾸레미를 쥐여주었다.
《그래, 허지만 누구한테 전달해야 하니?》
처녀가 물었다. 그러나 꼬스쨔는 어둠속에 숨어버렸다. 그는 마치 처녀의 질문을 못듣기라도 한듯이 황급히 벼랑밑으로 내려가서 쪽배들을 기다리고있는 병사들속에 끼여들었다. 꼬스쨔는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물역으로 다가갔다.
사방에다 시뻘건 불줄기를 휘뿌리는 화재는 볼가강에 반사되였고 왼쪽강안을 밝히였다. 폭발에 달과 별들도 전률하는듯하였다. 병사들은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볼 필요가 없어.》 웬일인지 꼬스쨔는 자기로서는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는것을 깨닫자 덧붙여 말하였다. 《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해.》
노젓는 소리가 삐걱삐걱하였고 첨벙첨벙 물소리가 났고 왼쪽기슭에서는 쪽배들이 한척 또 한척 련이어 떠나갔다. 그렇지만 꼬스쨔는 기슭에 그냥 서있었다.
(왜 이리 공정하질 못하담. 내가 선참으로 빨리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건너가면서 날 안태워주다니…)

잠시동안 더 쪽배들의 계선장에 서있던 꼬스쨔는 나루책임자한테 가서 자기는 쓰딸린그라드에 가야 하는데 뿌르긴소좌련대장인 아버지가 거기 있기때문이라고 직접 말하리라 결심하였다.

너북선 나루터로 올라가는 길목은 대혼잡을 이루고있었다. 사람들은 뛰여다니면서 상자들과 마대를 운반하고 무기들을 옮겨쌓고 하는데 그들중에서 누구가 상관인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말하기를 싫어하는것이였다. 《방해하지 말아, 젊은이.》 그러면 그만이였다. 그런데 금시 머리우에서 폭탄들이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폭격소리가 울렸다. 두번, 세번 길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꼬스쨔는 마치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있은듯이 너북선으로 훌쩍 뛰여올랐다. 그리고는 상자들틈에 몸을 숨기고 무슨 방수포같은것을 뒤집어썼다. 어둠속에서 꼬스쨔는 새하얀 병실에 있을 때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은것을 느끼였다.

흔들거리던 너북선은 기슭을 떠났다.

제 6 장

공장굴뚝들이 마치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포민은 자기의 눈을 못미더워하면서 굴뚝들이 진짜 흔들리는가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창문틀에 머리를 꼭 가져다댔다.

헌데 그 순간 그는 발밑에서 마루가 움씰거리는것을 감촉하였다.

(또 지뢰탄들을 떨어뜨리는구나. 한톤짜리이하는 아니

겠는걸.)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점차 요란해지는 도이췰란드 폭격기들의 둔중한 발동기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또다시 몇초가 지났다. 그러자 뽀자르스끼포부대사령관이 서쪽 감시소에 잇대여지은 이층집의 두터운 벽돌벽이 채찍을 얻어맞고 떠는 말의 몸뚱이처럼 부르르 떨기 시작하였다. 포민은 그 순간에 견고한 방공호가 있는 지하실로 내려갈수 있었고 거기서 공습이 끝날 때까지 눌러앉아있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뽀자르스끼장령이 참모부에 있는데 거기서는 감시소에서 볼수 있는 지역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아느니만치 그자리에 그냥 남아있을수 없었다.
감시원들치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도시의 이 공장구역을 포민처럼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포민은 로동자부락들과 《붉은 10월》공장과 거창한 쓰딸린그라드뜨락또르공장건물들이 확장되는것을 직접 본 사람이였다.
지하실 퇴창문으로는 이 구역 전경이 환히 보였고 그리고 포민은 깊이 생각하거나 도시의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임의의 거리며 골목들을 주어섬길수 있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뽀자르스끼장령은 포민을 자기의 서쪽 감시소의 감시원으로 임명하였던것이다. 허지만 천정과 벽에서 무너져내리는 흙먼지가 창문을 뒤덮고있는 지금 포민이 과연 무엇을 통보할수 있겠는가?
다만 훤해지는 순간에 무너져내리는 《붉은 10월》공장의 벽들이며 4층건물인 기사들의 주택 벽체가 내려앉는것이며 폭탄이 파렬하면서 뜨락또르공장 관할구역 상공에 뿌려던진 흙, 벽돌, 금속구조물들의 엄청난 분출을 볼수 있을뿐이였다.
《공장들, 공장들을 온통 파괴하는구나. 더러운놈들같

으니!》
이를 북북 갈면서 포민이 중얼거리였다.
(헌데 이런 때 별안간 땅크가 나타나면 어쩐다? 신호를 보내야 하고 사격에 대하여 문의해야 할텐데. 허지만 어디로? 이놈의 먼지, 콱 저주가 있으라! 먼지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먼지는 야밤의 어둠보다도 더 나쁘고 먼지는 무엇으로도 비쳐볼수가 없다.)
집앞 어디선가 떨어져내리는 폭탄이 우르릉거리였다.
부르르 몸부림을 하던 벽체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구석으로 밀어던졌다. 그 충격보다 몇순간 뒤떨어져서 폭발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그 굉음이 이미 기울어진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면했구나.) 포민의 의식속에서 이런 생각이 벙끗하였다.
(폭발소리가 들리니 죽음을 면했구나.)
그러리라고 예견한대로 적은 비행기의 엄호하에 공장구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땅크와 보병은 대번에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왔다.
뽀자르스끼장령에게 있어서 히틀러도당의 이런 전술은 새로운것이 아니였다. 땅크들과 보병들의 공격이 시작될 무렵 장령은 이미 기본감시소에 가있었다. 모든 화력진지에 전화와 무전을 통하여 포부대사령관의 간단한 명령이 날아갔다.
장령은 붕대를 감은 오른손에 연필을 들고 적의 공격방향을 표식하였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포병들은 재료를 준비하였다. 뒤미처 아군 포부대의 사격이 히틀러의 땅크와 보병들의 전투대렬을 답새겼다.
적의 포부대의 대응사격이 한창 치렬한 때에 기본감시소의 전망구역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완전히 덮어버리였다.

《서쪽 감시소를 부르시오!》

뽀자르스끼장령이 명령하였다.

《〈눈〉〈눈〉〈눈〉! 나는 〈기슭〉, 나는 〈기슭〉, 대답하라. 대답하라!》 포민은 호출하는 당직전화수를 거듭 불렀다. 그러나 서쪽 감시소는 침묵을 지켰다. 단절된것이였다. …

뽀자르스끼장령은 붕대감은 자기 손을 들여다보면서 별안간 쑤시는 아픔을 느끼였다. 그 아픔은 장령에게 그가 포민과 뿌르긴소좌의 아들 끄스쨔를 처음으로 만난 그 고사포부대를 회상케 하였다. 훌륭한 소년인데 그렇게 된것이 가슴아팠다.

그날 뽀자르스끼장령은 손에 붕대를 감은채 걸어서 참모부로 돌아왔던것이다. 폭풍이 자동차를 뒤집어엎었으며 그로 인하여 끄스쨔를 괴롭힌 사실에 대하여 장령은 오직 포민 한사람에게만 이야기하였다. 포민은 고사포부대에서 장령을 만난 후 곧 이리로 왔던것이다.

뽀자르스끼장령은 포민이 교육자라는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끄스쨔를 양아들로 삼는것이 어떠냐는 자기의 의사를 포민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포민은 장령의 지나친 조급한 결심을 시인하지 않았고 장령이 어린애를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쏘구역으로 달리는 모험을 한데 대하여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이 대화는 장령의 마음을 괴롭히였다. 그리하여 소년에 대한 생각은 한층 더 그를 흥분케 하였다. 중상을 입은 어린 쓰딸린그라드출신의 소년이 완전히 회복될것인가? 설상가상으로 장령은 포민의 얼굴에서 모름지기 끄스쨔를 양아들로 삼으려는 의향을 느끼지 못한것이였다.

《장령동지, 뜨락또르공장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선 지금 온통 뒤죽박죽 소동이 벌어지고있답니다.》

전화수가 송수화기를 넘겨주면서 보고하였다.

뽀자르스끼는 어깨박죽으로 송수화기를 귀에다 눌러대고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뜨락또르공장방어를 담당하고있는 포병련대지휘관의 보고를 긴장해서 듣고있었다. 그쪽에서 통보하기를 쑤하야 메체뜨까골짜기를 따라 무장한 사람들의 대집단이 뚫고들어온다는것이며 거기서 달려온 정찰병은 그 골짜기에 대한 포사격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게 대체 누구요?》 뽀자르스끼장령이 물었다. 《좋소. 알만하오. 경각성있게 행동하시오. 고사포병들의 경험을 잊지 마시오. 거기선 땅크의 한개 대대가 역시 붉은별을 그려붙이구 도시로 뚫고들어오자고 했소… 뭐라구? 그들이 도이췰란드놈들과 싸움을 벌리고있다구? 그래 그래 주의깊게 감시하시오. … 좋소… 알겠소.》

장령은 송수화기를 넘겨주고는 잠시 생각한끝에 포병예비군사단들의 집단에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 명령에는 모끄라야 메체뜨까 골짜기의 엄호에 대한 포화력의 복잡한 기동이 표시되여있었다.

*　　　*

잠시후 서쪽감시소로부터 신호가 울려왔다.

포민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전화송수화기에 대고 선이 복구되였다는것, 자기는 정황을 보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보고하시오. 우선 감시를 계속하도록 하시오.》

뽀자르스끼는 모끄라야 메체뜨까로부터의 새로운 소식을 조급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 그 구역은 장령을 각별히 흥분하게 하였다.

(그러니 나의 보고가 장령의 흥미를 끌지 못한단말이지.)

포민은 생각하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장령이 자기를 적의 후방으로, 자기의 련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감시원으로 임명한데 대한 반항심이 부풀어오르고있었다. 가만히 서서 사랑하는 도시가 거덜이 나는것을 보고있으란말인가! 바로 현재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화재의 발원지를 눈앞에 보고있는것이다. 금속가공공장이 불타고있고 《붉은10월》공장의 중심건물들이 불길에 휘말려있다. 적의 포부대가 로동자부락의 주택들에 불을 지르고있다. 저렇게 불이 일고, 타고 제10중학교도 타고있다. … 그 학교에서 포민은 여러차례 모범수업을 했었다. 모범학교였다! 그리고 그 학교의 강당들, 도서실, 사무실들은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 순간 포민에게는 도시의 파멸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처럼은 체험하고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기본감시소가 활동하고있는데 서쪽감시소가 왜 필요한가? 이런 때에 포민은 기관총앞에 엎드려서 적산병선에 대고 정확한 련발사격으로 마구 답새겨댔으면 싶었다. 비록 훨씬 더 위험은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고립무원한 목격자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쓰딸린그라드계선 방어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느끼고있었다.

지금 포민을 특히 괴롭히는것은 포위속에 남아있는 다정한 련대의 운명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까르뽀브까근방에서의 가렬처절한 전투장면이 부단히 떠오르고있었다. 바로 거기서, 그 전투에서 기관총수 포민은 적과의 조우전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싸웠던것이다.

련대정치위원 찌또브의 마지막위임을 상기하자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경험있는 교원인 자기와 의논도 없이 뿌르긴 꼬스짜소년을 고사포병들한테서 데려간 장령앞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련대의

동료들한테 련대장의 아들의 운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련대정치위원 찌또브에게 꼬스쨔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보고한단말인가? 소년을 만났고 그와 가지런히 서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았으니…

생각에 잠겨있던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뽀자르스끼의 부관이 자기곁에 온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니 여기 동무네한테서는 무슨 대학살이라도 있었던것 같군그래.》

기울어진 벽돌이며 무너져내린 천정을 바라보면서 부관이 말하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덧붙이였다.

《장령이 동무더러 가서 휴식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다가 저녁에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셨소.》

* *

…드디여 황혼이 깃들었다. 이 시각을 기다리기가 어쩌면 그리도 괴로울 정도로 지루하였던지!

단 일분이라도 헛되이 보낼세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참모부로 달려갔다. 그는 참모부와 기본감시소어간의 큰길에서 뽀자르스끼를 만나려고 서둘렀다.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민첩하고 발걸음이 경쾌한 장령이 피로한 머리를 가슴우에 푹 숙이고 조용히 걸어가고있었다. 벙끗하는 예광탄불빛에 입술이 트고 눈에 피발이 서고 먼지가 낀 그의 얼굴이 비치였다. 외투며 모자며 상한 손에 감은 더러워진 붕대며 모든것이 이 하루동안에 장령이 폭격과 포격을 한두번만 겪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내가 이분을 비난한것이 공연한짓이 아니였던가?)

감시소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상기한 포민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 어서 갑시다. 참 반갑소.》 뽀자르스끼장령은 왼손으로 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자기의 엄페부로 들어가자 뽀자르스끼장령은 쓰딸린그라드로 향한 적군종대를 표식한 화살표로 하여 알락달락해진 지도를 포민의 앞에 펴놓았다. 그 화살표들이 군데군데 다닫으고있었다. 어떤것들은 쓰딸린그라드의 중심으로 쏠리였고 또 어떤것들은 량곡창고구역으로 쏠려있었다. 《땅크》, 《보병》이라는 표식이 그려진 많은 화살은 이미 쓰딸린그라드 뜨락또르공장 로동자부락구역에도 뚫고들어갔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포민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그는 까르뽀브까로부터 모끄라야메체뜨까까지 뜨락또르공장을 향하여 우불구불한 선을 그린 굵직한 붉은 점선을 주시하고있었다. 장령은 뜨락또르공장 로동자부락 언저리에다 새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들이 여기 있지. 근위병용사들이!》

포민은 자기 련대에 대한 기쁜 마음과 긍지감을 표현할만한 말을 찾지 못하였다.

《자, 이제는 자기 련대동무들한테로 갈수 있게 됐소.》

빙긋이 웃으면서 뽀자르스끼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지정된 초소로 달려갈 차비를 하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보자 앞질러 밀막기라도 하는듯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뜻이였다.

포민은 잠간 지체한 후 앉았다.

《집단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뽀자르스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동무네 련대는 예비대로 넘어가게 되였소. 무기며 탄약과 인원을 보충해야 하오. 련대장에게 전달하시오. 그에게로 보충부대가 간다고말

이요.… 그리고 겸해서 찌또브에게, 그가 지금 련대를 지휘하고있소. 우리는 그에게 가장 우수한 포병대대를 배속시킬 작정이란다고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오늘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그대신 아주 정확하게 화력으로 그를 지원하였다는것을 이야기하시오. 어느 편인지 알지 못하고 마구 지원할수는 없었으니까. 적이 어떤 간계에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은 동무자신이 잘 알지 않소…》

장령의 말을 들으면서 포민은 마음이 울적하였다. 그에게는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뿌르긴소좌의 아들에 대하여 찌또브에게 뭐라고 말할것인가? 게다가 장령자신은 포민에게 끄스쨔에 대하여 기탄없이 이야기하게 하려고 하면서 문득 겁을 내는듯하였다. 그것은 마치 자기앞에 앉아있는것이 보통병사인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귀중품을 훔쳐서 조심성없이 호주머니에 쑤셔넣었다가 돌을 깐 마루에 떨어뜨린 피고의 죄상을 낱낱이 걷어쥐고있는 엄격한 재판관이 앉아있기라도 한듯하였다.

장령은 일어섰다.

《이것 보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끄스쨔에 대해서는 아무때건 상론하기로 하고 우선 련대로 가시오.》

*　　*

자기네 다정한 련대에 들어선 첫날밤 포민은 찌또브의 위임에 의하여 통신병소대와 함께 집단군참모부에 가서 거기서 련대로 가는 새 무전기와 전화선 몇토리를 접수하였다.

포민은 도하장에도 들리였다. 거기서 그는 자동총수 두개 중대와 저격수 한개 중대를 맞이하였다. 저격수중대에서는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진 미하일 제르노브

가 포민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반땅크총사수였다.

계선장 상공에 눈이 부시게 밝은 불—도이췰란드놈들의 야간폭격기에서 락하산으로 내리던진 로케트초롱불이 확 켜지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땅에 엎드리시오!…》 제르노브의 힘찬 음성이 울리였다.

그러고는 보총을 잡더니 두방의 명중사격으로 초롱불을 꺼버리는것이였다. 《이제는 일어들나도 일없습니다.》

중대들이 련대에 도착하자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곧 반땅크총사수 제르노브를 찌또브련대장에게 소개하였다.

《고향은 어디요?》

찌또브가 반땅크총사수에게 묻는 말이였다.

《씨비리출신입니다.》

《싸워봤소?》

《조금 싸워봤습니다.》

《얼마나?》

《쎄와스또뽈에서 한 백날하구 여기서 두주일입니다.》

《그래 건강은 어떻소?》

《아주 든든하게 고쳤습니다. 한주일이상이나 아흐뚜바병원에서 응석을 부렸으니까요.》

《응석을 부렸다.》 찌또브가 빙긋이 웃으면서 되뇌였다. 《이것 보오. 제르노브, 수일내로 우린 또 전투에 들어가야 하오. 새 보충부대의 병사들에게 우리 근위련대의 전통에 대해서, 근위련대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겠소.》 그리고는 포민한테로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동무를 도와주시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헌데 무슨 이야기부터 한다…》

찌또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민은 뿌르긴소좌가 기

관총수들을 완강성으로 교양하던 일이며 그리고 기관총수 포민의 사격구역을 검열하면서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당당하게 자신을 준비된 기관총사수로 자부할수가 있었다. 또 그렇기때문에 포민은 전투대렬이 포위속에서 빠져나온 뒤인지라 중대들의 인원이 훨씬 줄었을것을 념두에 두면서 이제야말로 자기의 위치는 기관총중대가 틀림없을것이라고 단정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포민으로서는 뜻밖인 명령이 하달되였는데 명령의 내용인즉 《기관총수 포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에게 근위중사의 칭호를 수여하는 동시에 경무소대장으로 임명한다.》는것이였다.

제 7 장

쓰딸린그라드에 돌아온 꼬스쨔는 여기가 자기의 고향도시라고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여기 도시의 중심이 시작되는 중심도하장의 계선장들주변조차 온통 몰라보게 달라졌었다. 록음이 우거진 소공원이 달린 거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높은 다층건물들 역시 하나도 남아있는것이 없었다. 모든것이 마사지고 깨여지고 불타버렸다.

륜무하는 소년소녀들을 형상한 조각상이 있는 분수가 있던 삐오네르궁전의 소공원을 꿰질러가면서 꼬스쨔는 자기가 길을 헛갈리지나 않았는가 생각하였다. 륜무조각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 깨져나가고 남은것이라고는 오직 소년 하나뿐인데 그것마저도 손은 없어지고

그대신 어깨에서 철근 하나가 삐드러져나와있었다. 궁전 자체도 기초까지 다 파괴되여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징박은 구두뒤축으로 한참 짓이겨놓은 도자기놀이감의 파편들과도 같이 산산이 흩어져있었다. 이르는곳마다 돌과 벽돌무지요, 깊숙한 폭탄구뎅이들뿐이였다. 표정들이 음침하고 과묵한 사람들을 만날적마다 꼬스쨔는 도시중심에서 무던히들 고통을 겪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거기 이야기를 한다는것은 부질없는 일이였다. 땅이 그냥 잉잉 소리를 지르고있으니 말의 뜻은 오직 입술의 움직임에 의해서나 짐작할수 있었다.

낡은 제분소근처 잔교밑에서 꼬스쨔는 담가를 든 위생병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도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꼬스쨔는 팔꿈치로 기여가는 군복차림의 사나이를 만났다. 그것은 중위였다. 그는 자기앞에 깔때기같이 생긴 깊은 폭탄구뎅이가 있는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데론가 서두르고있었다.

《아저씨, 어데로 가시는거예요? 거긴 구뎅이야요!》

중위는 고개를 들었으나 대꾸는 하지 않고 모래판에 얼굴을 처박았다. 그에게로 다가간 꼬스쨔는 그만 몸서리를 쳤다. 중위에게는 량다리가 없었고 발과 종다리대신에 피가 밴 붕대매듭들뿐이였다.

그리로 달려간 두 위생병이 중위를 붙안았으나 그는 악을 써 빠져나가며 위생병들을 밀어던졌다.

《앞으로, 정거장으로!》

《중위동지, 정거장에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있습니다.》

위생병이 부상당한 중위를 달래보려고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를 따라 앞으로, 공격!》

그는 위생병의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강기슭을 따라 공장촌, 정다운 고장을 향하여 걸어가

면서 꼬스쨔는 자기앞에서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눈앞에는 줄곧 발없는 중위의 모습이 나타났고 귀에서는 그의 말소리가 울리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 공격!》

페허들, 바리케트들이 모든 거리들과 골목들을 막아섰다. 뚜르게네브거리로 통하는 거리에 나서기 위하여 꼬스쨔는 숱한 길을 돌아야만 하였다. 걸음을 옮겨놓을적마다 그의 맨발에는 뾰족한 파편들, 가시같은 돌쪼각과 끊어진 쇠붙이들이 밟히였다.

《돌기기》골짜기에 내려선 꼬스쨔는 이리로 가면 로동자부락으로 한결 더 빨리 갈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될수록 빨리 자기네 거리로 나서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골짜기에서도 아무데로나 막 달려갈수가 없었다. 어데나 돌들, 흙덩어리들, 폭파된 다리에서 떨어져나간 철근들이 쌓여있었다.… 페허들과 좁은 틈새를 극복해가면서 꼬스쨔는 이 돌에서 저 돌로 건너뛰고 진펄에서 둔덕을 골라디디면서 달려갔다.

앞은 높은 절벽인데 그뒤에는 올림길이 있을것이고 거기서 정다운 마을까지는 손을 뻗치면 닿을 정도인것이다. 꼬스쨔는 앞을 살펴보면서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와의 상봉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의 타산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상봉은 짜장 거기서, 뚜르게네브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였다.

(빨리, 어서 빨리 앞으로!) 꼬스쨔는 자기를 몰아세웠다.

(이 돌에서 저 돌로 또 이 돌에서 저 돌로—에익, 여긴 웬 돌들이 이리도 많담! 하긴 저기 갈림길에는 더 많을거야. 하지만 괜찮아. 여기서는 기슭으로 빠져나가도록 해봐야지.)

잠시 걸음을 멈춘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디디고선 돌이 별안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움씰움씰 살아나서 일어서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꼬스쨔는 숨이 막히고 발이 가드라들었다. 그러고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수가 없었다. 아니 이제는 돌들도 살아있단말인가? 그러다가 일어선 병사의 등을, 말하자면 자기의 맨발자국이 찍힌 먼지투성이외투를 찬찬히 보고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신중치 못하게 행동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일어선 그 병사는 무슨 퉁구리처럼 몸을 웅크리고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다. 둘레에는 그런 식으로 잠이 든 병사들이 수두룩하였다. 그런걸 꼬스쨔는 그 병사들을 돌인줄로 알고 밟았던것이다.

약간 거리를 두고 자기네 동무들의 휴식을 보위하는 보초가 앉아있었다. 모래덮인 낭떠러지를 배경으로 그들의 뿌연 외투와 먼지쌓인 군모가 가까스로 눈에 띄였다. 게다가 또 그 보초는 돌로 깎아세우기라도 한듯이 꼼짝 안하고 앉아있었다. 골짜기너머에 배치된 대포들과 박격포들의 련속적인 사격으로 하여 진동하는 대지의 강력한 충격만이 보초로 하여금 이따금 우를 쳐다보게 하였다.

힘겨운 전투에서 여지없이 지쳐버린 병사들은 예비대로 넘어왔고 그리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리면서 휴식들을 하고있었다. 폭발도 사격소리도 그들을 일으킬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휘관이 명령만하면 그만이였다. 《받들어총!》 그러면 그들은 일떠서는것이였다.

꼬스쨔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남은것이라고는 골격뿐이였다. 창문들은 부서지고 지붕은 흔적도 없고 천정은 무너져내렸었다. 출입문들대신에 매캐한 냄새를 토하는 시꺼먼 아구리들뿐이였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탐욕스러운 불이란 대식가가 닁큼 삼켜버릴것만 같았다. 온 도시가 그러하듯이 학교안에서도 화재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다. 불탈수 있는 모든것이 깡그리 타버린상싶었다.

그런데 불이란놈은 여전히 폐허를 싸다니고있었다.

꼬스쨔는 학교에서 꾸물거리지 않고 뚜르게네브거리로 갔다. 그렇지만 그 거리가 어느바루였던지? 통 알아볼수가 없었다. 죽은 거리였다. 주택들도 울타리들도 없었다.

촘촘히 폐허가 들어찼을뿐이였다.…

맥이 풀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물이라도 한모금 마셨으면 좋으련만 그 물을 어디서 얻어내랴? 그러자 꼬스쨔는 자기가 병원에서 나온것이 벌써 밤낮 하루가 지났다는것을 상기하였다. 그런데 호주머니에는 빵쪼각 하나 없었고 빵껍질이나 건빵 한개도 없었다. 눈을 꼭 감자 할머니가 구운 새빨갛고 맛있고 향기로운 우유비지빵이 실물처럼 선히 보이였다.…

공장과 공장어간 어데선가 대포들이 우짖어댔다.

(이건 영낙없이 파시스트놈들을 답새기는걸게다. 멋있는걸, 얼마나 멋있으면 땅이 다 몸부림을 할가.… 좋아, 포병들한테로 가야지. 더 숨어다닐 필요가 없어. 아버지한테로 왔다고 말할테야. 그러면서 성화를 먹여야지. 만약 좋은분들이라면 먹여도 줄것이고, 아버지네 련대가 어데 있는지 알려주겠지.)

꼬스쨔는 결심하였다. 그렇지만 포병들한테로 대번에는 가낼수가 없었다. 그는 밤이 되여서야 겨우 《붉은 10월》공장 관할구역까지 당도하였다. 화재로 하여 밝은것은 사실이였지만 그러나 그런 조명에 익숙되지 않은탓에 걸음을 옮기기가 막 무서웠다. 곳곳에서 불이 맴돌이를 쳐오르면서 구름을 휩쓸고있었다. 그런 때면 시커먼 폐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듯하였다. 공장굴뚝들의 그림자들이 발밑에 떨어져내리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구뎅이처럼 어둠속으로 기여들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날밤 꼬스쨔는 무서운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어둠속

에 숨어있자니 겁이 났고 밝은 장소에 나서자니 위험하였다. 다 타버린 집에 포탄들이 떨어졌고 그러면 그리로부터 마치 화산처럼 불기둥이 치솟아올랐는데 미구하여 하늘로부터 오래동안 불꽃과 뜨거운 숯들이 떨어져내렸다. 꼬스쨔는 까딱하지 않고 서있었다. 자기한테 덮쳐든 어둠앞에서 움직이기가 무서웠고 언제면 이런 페허속에서 빠져나갈수 있겠는지 가량을 할수 없었던것이다.

아침녘에야 꼬스쨔는 자기가 반늬골짜기에 와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여기는 그리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희뜩 밝자 파시스트폭격기들이 공장상공을 빙빙 돌고있었다. 석대로 편성된 급강하비행기 한개 편대가 금시 《윤께르쓰》의 무리에서 떨어져나왔다. 놈들은 꼬스쨔의 머리우로 곧바로 내리꽂히기 위하여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파괴된 다리밑으로 달려가야만 하였다.

《어이 젊은이, 어디로 가는거야?》

등뒤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꼬스쨔는 돌아다보았다. 한 병사가 묵직한 금속연마석을 어깨우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침착하니 그것을 드다루고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반땅크총사수 제르노브였다. 꼬스쨔는 도하장에서는 그를 피하였었다.

(아니 또 맞다들건 뭐람… 이젠 병원신발을 돌려줬다는걸 이야기해야지.)

그렇지만 얄궂게도 《윤께르쓰》가 골짜기우로 쏜살같이 날아왔다. 폭파된 다리 파편무지들짬에 머리를 숨긴 꼬스쨔의 귀에는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듬직하질 못하구먼. 그렇게 온종일 엎디여있어보지. 이 폭탄들은 너한테 떨군게 아니야.》

꼬스쨔는 머리를 들었다. 《어째서 그렇겠어요. 저건 곧바로 내우로 날아내려오고있는데요.》 하고 묻는듯한 표정이였다.

《비행기가 네 머리우에 떠있는한 그 폭탄들은 무섭지 않단말이다. 그 폭탄들은 멀리 저기 물탕크뒤에 떨어질 거니까말이야. 타력에 의하여 날아지나간단말이다. 알겠니?》
《알겠습니다.》
(얼마나 침착하면 타력에 대한걸 다 기억하고있을가!)
《난 야전우편함 번호 3240010을 알아야 합니다. 아저씨는 그런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헌데 그게 네게 왜 필요하니?》
《우리 아버지가 그 부대의 대장이예요.》
《그으래, 이를테면 아버지한테 조수로 들어갈 심산이란말이지?》
제르노브는 롱말로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는 꼬스쨔의 어깨를 잡더니 훈시조로 부언하는것이였다.
《알아야 할것은 너같은 조수들은 쓸모가 적다는것이야.》
《그건 어째서 그런가요?》
《그저 그런거지.》 제르노브는 히죽이 웃었다. 《아직 어리단말이다. 알만하니?》
《알겠어요.》
《그렇다니까. 친구, 여기선 네가 할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난 접대 너를 병원으로 되돌려보낼 작정이였는데 그만 미처 손을 쓰지 못했지.》
(제길, 무던히도 못살게 구네. 허지만 어디 두고보자. 내 이제 빠져나가서 골짜기를 따라 내뺄테니까. 어디 따라잡아보라지.) 하지만 그건 그리 수월할것 같지 않았다. 어깨우에 놓인 손이 두뿌드짜리 저울추같았다.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저씬 정말 아버지네 련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래, 그렇다치자. 허지만 부대의 배치를 누구나 다

알게 돼있지 않아.》

제르노브는 일부러 심각한 어조로 대꾸하는것이였다. 그러고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어깨우에 올려놓고 골짜기를 향하여 떠나려 하였다.

(참, 사람이 어쩌면 그럴가. 말로 정이 붙게 한다니까. 저 사람은 마치도 내가 자기한테서 도망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것 같거든. 내 사정이야 길 저 사람한테 죄다 털어놔야지. 설마한들 못알아줄라구.)

그리하여 모든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저씨는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르노브는 어깨에서 연마석을 내려던지고나서 벽돌장들우에 주저앉았다.

《앉아라. 이야기를 좀 해보자.》 끄스쨔도 앉았다.

《어디 나한테 말해봐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제르노브가 물었다.

끄스쨔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응, 그렇군. 우선 중대로 가자. 요기부터 좀 하구, 그런 다음 네게 필요한 그 련대를 찾아보도록 하자. 거기서 발에다 뭐든지 신도록 해야겠다. 여기서는 맨발로 다니는것은 신중치 못한짓이야… 그렇지만 너야 착실한 젊은이가 아닌가. 두고봐야지. 아마 정찰을 위해서 쓸모가 있을수 있지.》

《그렇구말구요. 한몫 할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끄스쨔는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 순간부터 끄스쨔는 반땅크총사수를 자기의 친구로 간주하게 되였다.

(대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멋있는 일을 제기하거든. 그런 사람이였구나! 힘은 또 얼마나 세구. 저것봐.

저렇게 무거운걸 메구 가니까. 그저 슬근슬근 걸어가는데도 따라잡을수가 없단말이야.)

《뒤떨어지지 말아라.》제르노브는 소년의 앞날의 운명에 대하여 두루 생각하면서 꼬스쨔를 재촉하였다.

반땅크총사수는 이젠 꼬스쨔가 뿌르긴소좌의 아들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꼬스쨔에 대하여 찌또브는 아주 좋게 이야기하였던것이다. 말하자면 소년은 아버지를 찾아 련대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없었다. 그러니만치 이런 형편에서 그를 허투로 대할수는 없는것이였다. 보기에 소년은 령리한듯하였다.

(그애가 자신을 고아라고 느끼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애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잘 알아봐야 하구 재미있는 일에 마음이 쏠리게 한다음에 이야기하는게 좋겠지… 아니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포민이나 련대장더러 이야기하게 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우선 내가 그애한테 관심을 돌려야지.)

반땅크총사수는 곁에서 걸어가고있는 꼬스쨔를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궁리하였다. 중대의 진지에 도착하자 제르노브는 곧 자기의 배낭을 꼬스쨔앞에 헤쳐놓고 예비식료품(비상용식료품)을 꺼내놓았다. 건빵, 사탕, 쵸콜레트, 과자, 향료빵… 이때 제르노브의 친구들중 누군가가 꼬스쨔를 위하여 뜨거운 차주전자를 가져왔다.

《꼬스쨔야, 자, 먹구 마시구 해라. 그러고는 저기 가서 외투우에 누워 푹 쉬도록 해라. 이제 엄폐부를 꾸리면 그땐 침대우에서 자게 되지. 알았니?》

《예.》꼬스쨔는 겨우 말을 하였다. 뜨거운 차를 마시고 나자 그는 나른해져서 앉은 자리에서 끄덕끄덕 졸기 시작하였다. 제르노브는 어린애를 다루듯이 그의 손을 잡아 잠자리에 눕히고 자기 외투를 덮어주었다.

* *

련대장 엄페부입구에 서있는 중사들속을 비집고 들어간 제르노브는 찌또브한테로 달려갔다.

《뿌르긴입니다! 꼬스쨔 뿌르긴이 왔습니다.…》

찌또브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제르노브의 헤쳐놓은 군복깃에 시선을 멈추고 이렇게 물었다.

《제르노브동무, 동무는 어째서 격식대로 옷차림을 하지 않았소? 동무가 해군륙전대원이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단말이요. 그러니 그렇게 가슴을 헤쳐놓고 자기의 그 해군내의를 자랑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소.》

제르노브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렇지만 찌또브의 쏘는듯한 위엄있는 시선에 부딪치자 그만 주눅이 들었다. 손이 저절로 옷깃으로, 끌러놓은 단추에로 올라갔다.

《옳지, 이제는 혁띠를… 좋소. 군복상의는 단정하게 바로 입어야 하오. 바로 이렇게.》

찌또브는 띠고리바루의 혁띠밑에다 엄지손가락을 쑤셔넣고 주름을 죄다 어떻게 뒤로 밀어보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저는 작업을 하다 왔습니다.… 엄페부를 꾸리고있습니다.》

제르노브는 여전히 찌또브를 의아쩍게 여기면서 변명을 하듯이 말하였다. 제르노브의 생각에는 찌또브가 뿌르긴소좌의 영광에 찬 그 위훈들에 대하여 다 잊어버린것만 같았다. 전에는 찌또브자신이 뿌르긴소좌의 위훈들에 대하여 매일같이 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뿌르긴소좌의 아들 꼬스쨔가 련대에 온데 대하여 알고싶어 하지조차 않는 태도인듯하였다.

《엄페부를 꾸리고있다는것은 나도 알고있소.》 찌또브가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그런 차림

으로 련대장한테 달려올수 있는 권리를 주는건 아니요. 뿌르긴소좌는 그런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았소. 그는 격식을 위반하는 사람은 자기자신도 지휘관도 존경하지 않는다는것을 늘 상기시켰소. 그것은 이를테면 그런 군인에게는 우리 군대의 규률을 엄밀하게 준수하리라고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요. 그리고 그런 군인은 전투에서 곤난을 조성할수 있는것이요.》

《저는 곤난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표정을 흐리면서 제르노브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소. 두고봅시다.》 찌또브가 대답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나니 제르노브는 찌또브가 자기를 나약하고 비겁한 군인들처럼 못미덥게 보고있는듯이 생각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군복상의를 북 찢고 가슴을 드러내놓으며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이제 당장 자기는 비겁분자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해보이고싶었다. 그런데 문득 또다시 찌또브의 그 부리부리하고 령리해보이는 눈의 쏘는듯한 시선이 제르노브의 량손을 비끄러매는듯하였고 혀를 입술에 얼어붙게 하는듯하였다. 키로 보나 억센 어깨폭으로 봐서 제르노브는 찌또브에게 질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보니 반땅크총사수의 눈에는 련대장이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참을성이 있는 장수로 보이는것이였다. 제르노브는 웬일인지 저절로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이 뒤로 물러가는듯싶었다.

《자, 이젠 보고를 하시오.》 찌또브는 별안간 명령조로 넘어갔다. 《그래. 어디서 꼬스쨔 뿌르긴을 봤다구? 그 녀석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그 다박머리녀석이?…》

《옳습니다. 다박머리입니다.》 제르노브가 동의하였다. 그는 아직도 머리를 죄이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였다.

《앉으시오. 앉아서 이야기하라구.》

찌또브는 제르노브의 팔꿈치를 붙잡고 이미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하였다.

《맨발로 왔는데 발이 온통 상처투성이고 새끼승냥이처럼 굶주려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고있습니다.…》

《어디서?!》 찌또브는 펄쩍 뛰였다.

찌또브의 눈에서 불안과 흥분을 알아본 제르노브는 꼬스쨔를 만난 전후사연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아버지, 아버지를 찾고있습니다.》

반땅크총사수는 한숨을 지으면서 말을 끝맺았다.

찌또브는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도망을 쳐서 볼가강을 건너와 련대를 찾았다.… 아버지를 찾고있다. 아버지를…)

뚜르게네브거리에 터를 잡은 창문밑에 아름다운 소정원이 있는 독립가옥, 안에서 꼬스쨔와 그의 할머니가 조용히 단란하게 살던 그 독립가옥과 가구일식을 회상하자 찌또브는 다박머리에 눈이 별같은 향학열이 높은 소년이 현실에서처럼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때 그는 군복소매에 달린 정치위원표식의 별에도 말안장에도 나간권총에도 흥미를 느끼였지… 얼마나 남다른 정열을 안고 나간권총에 손을 뻗치였던가. 아버지의 편지조차 나간권총처럼 그렇게는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었지.

찌또브는 이미 뚜르게네브거리에 가본 일이 있었다. 그는 뿌르긴소좌네 그 독립가옥이 있던 자리를 가까스로 판정하였고 거기서 꼬스쨔의 할머니의 무덤을 발견하였는데 포민을 만나지 않았던들 꼬스쨔가 죽은줄로 알았을것이였다. 그러나 포민이 꼬스쨔는 볼가강을 건너갔다고 말하였다. 뽀자르스끼장령이 넘겨보냈다는것이였다.…

뿌르긴소좌의 완강하고 근기있고 지어 과감하기까지 한, 일단 마음을 먹으면 돌려세울수 없는 그 성격을 잘 아는 찌또브는 꼬스쨔의 성격도 짐작이 갔다.

(아마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까 역시 지칠줄을 모를거야. 그러니 조만간 부대에 나타날거란말이지.)

찌또브는 자기의 대원들에게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지금 련대장은 이처럼 극히 위험한 정황에서 꼬스쨔의 뜻하지 않은 출현에 놀라기보다 도리여 격분을 느끼는것이였다.

(누가 그애를 이리로 통과시켰으며 그 나루터에 있는 멍텅구리들은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그래 소년이 나루책임자를 설복할수 있었단말인가, 아니면 배사공이 볼가강 저편에서는 소년을 어쩔수 없으니 그애가 아버지와 그의 련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것인가…)

그렇지만 찌또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꼬스쨔가 제르노브에게 했다는 말을 상기하였다.

(그런데 아저씨는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오. 제르노브동무.》 반땅크총사수의 팔꿈치를 붙잡으면서 찌또브가 말하였다. 《이제 이리로 포민이 올거요. 동무는 그와 아는 사이니 그는 직업이 교원, 교육가요. 그 동무와 상론을 해야겠소.》

《헌데 그 동무와 무엇을 상론한단말입니까? 아니 뭐, 그 동무에게는 심장이 있고 우리에겐 심장대신 돌덩이가 있단말입니까.… 그리고 훌륭한 소년인데요. 령리하단말입니다. 그애의 보호를 저에게 위임해주시면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그애를 위해서 그 어떤 폭탄도 어쩌지 못할 그런 엄페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애는 우리한테 쓸모가 있을겁니다. 아주 령리한 애입니다. 저는 그를 정찰병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벌써 그런 자세를 취하고있는걸요. 도이췰란드놈들…》

《가만, 가만…》 찌또브가 그를 밀막았다. 《동무는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꼬스쨔로 하여금 여기서 남이라

고 생각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시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제르노브는 거수경례를 하였다. 마치 《저는 바로 그 애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게 할수 있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하는 표정이였다. 《돌아갈만 합니까?》

《돌아가시오.》

찌또브는 다시 명령조로 넘어갔다.

《소년이 깨나거든 친절히 대하시오. 그리고 그 애를 이리로, 참모부로 데려오도록 하시오.》

《들었습니다.》

제르노브는 다시 거수경례를 하고 나갔다.

제르노브를 뒤따라 찌또브도 엄페부에서 나왔다. 그를 기다리고있던 중사들이 얼른 정렬하였다. 그들은 련대장이 자기들에게 시가전에 대한 전술훈련을 시키리라는것을 벌써부터 알고있었다.

중사 포민은 선두대렬속에 들어섰다. 그는 전연으로 통하는 길을 다른 병사들보다 더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 *

꼬스쨔는 이미 새로 건설을 끝낸 엄페부의 잠자리우에서 잠을 깨였었다. 흙냄새, 타르묻은 톱밥, 대패밥냄새, 구운 감자냄새가 풍기였다. 일어나서 좀 먹었으면 했다. 그렇지만 아직 정형을 잘 모르는지라 꼬스쨔는 그만 쓸쓸하니 한숨을 지으면서 돌아눕고말았다. 그의 곁에는 제르노브가 누워있었다. 제르노브는 마치 기다렸던듯이 꼬스쨔가 돌아눕자 눈을 떴다. 선반우에 놓인 전선등잔이 희미하니 가물거리였다. 그렇지만 꼬스쨔는 눈에 웃음을 담은 반땅크총사수의 선량해보이는 얼굴을 곧 알아보았다.

《자거라, 자라구.》

제르노브가 거의 귀속말을 하듯이 말하였다. 그는 꼬스쨔를 그러안고 그의 등을 가볍게 다독이였다.

곁에 누워있는 병사들은 엄페부를 꾸리고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잠못잘 밤이 많으리라는것을 생각해서 푹 쉬고들 있었다. 그들은 이런 싸움판이니 자기네 련대를 오래동안 예비대로 붙들어두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누구보다도 제르노브는 그것을 더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꼬스쨔가 깨여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렇지만 문득 그에게는 꼬스쨔를 련대장한테 데리고가는것이 지금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고 어두운데, 아침이 더 좋을것 같았다.

《난 아저씨를 대뜸 알아봤어요.》

제르노브의 가슴에 꼭 달라붙으며 꼬스쨔가 실토하였다.

《용한데. 용하단말이야!》 제르노브가 대꾸하였다.

《정말 나를 정찰병으로 받아줄수 있을가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너는 당금은 서둘지 말아야 해.》

《난 서둘지 않아요.》 꼬스쨔는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어른친구한테 자기는 시내형편을 손금보듯이 잘 알고있다는것을 증명해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반땅크총사수에게 동물원의 위치를 각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말할것도 없이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도 참지 못하였다.

《참말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그놈한테 갔을 때 가지고오자니 쑥스러웠어요. 경비원이 방해를 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가지고왔을건데, 아시겠어요? 참 령리해요. 난 그놈을 웨르군이라고 불렀는데 그놈도 이 이름에 익숙해졌지요. 야, 지금 그놈이 여기 있었으면!

우린 그놈에게 우편물을 나르는 훈련을 시킬수 있을거예요. 그런 담에는…》

꼬스쨔는 남들이 다 듣게 자꾸 공상을 늘어놓았다. 허지만 곧 어린애들이나 그런 궁리를 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자기는 친구인 제르노브가 그런 이야기를 할적에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할수 있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르노브는 진짜 정찰병들은 우편비둘기들을 훈련시켜서 적의 배후작전에 리용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동물원이 어디 있으며 새우리는 어디 있고 어떻게 생긴 비둘기인데 어느쯤에 남아있었는가 하는것을 꼬치꼬치 캐여묻기 시작하였다. 꼬스쨔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종이를 한장 달래가지고 동물원의 략도를 그린 다음 웨르군이 있음직한 곳에다 십자표식을 하였다.

제르노브는 꼬스쨔의 말을 마치 무슨 무척 중대한 통보나 받듯이 신중히 들었다. 그런 호의에 마음이 흡족해진 꼬스쨔는 기분좋게 하품을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밤중에 세찰은 충격이 울리였다. 가까이에서 포탄들이 터지는 모양이였다. 그렇지만 금속각재들로 뒤덮은 엄폐부는 아주 견고하였다. 천정에서 흙이 푸실푸실 떨어질따름이였다. 꼬스쨔는 머리를 쳐들어 흔들어털고는 앉은자리에서 자기 둘레를 어루쓸어봤다. 모든 병사들이 그냥 자고들 있는데 제르노브만은 없었다.

《어디 갔을가?!》 꼬스쨔는 잠에 취한채 중얼거리고나서 제풀에 다시 잠이 들었다.

*　　*

아침에 꼬스쨔는 뜻밖에도 기쁜 일을 당하였다. 발부리에 놓인 비옷에 비둘기가 앉아있었던것이다. 그놈을

방금 제르노브가 가져왔다.

《아저씬 어디서 이걸 붙잡았나요?…》

《…참모부에서 나와 우리 정찰병들을 마중갔었지. 〈자, 우린 횡재를 해가지고 옵니다.〉이러질 않겠니. 〈아니, 횡재라는게 뭔가? 어디 보자구.〉 비둘기더란말이야! 죽은 페허속에서 산놈을 발견했다는거지. 살룩살룩 절면서 벽돌장에서 벽돌장에로 뛰여다니더라는거야…》

꼬스쨔는 들으면서 제르노브가 자기 음성이 아닌 어떤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사격을 할 때마다 목을 움츠러뜨리고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더라는거지. 그의 새끼들이 가엾더라구들 하더군. 그놈한테로 다가가도 날아가질 않더래.》

《이게 바로 웨르군이예요. 이놈은 길이 들었어요!》

꼬스쨔는 이렇게 말하고는 생각에 잠겼다.

(제르노브자기가 직접 이 비둘기를 시내에서 가져온게 아닌가?)

《비둘기가 어데 있었나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야.》

제르노브는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그는 꼬스쨔를 기쁘게 해준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럼 이놈이 이리루 날아왔단말인가요?》

《넌 아직 서툰 비둘기애호가로구나. 그래 그놈이 거기서 자기를 먹여주는데 딴데로 날아갈수 있단말인가? 동물원에서 잡아왔지.》

제르노브는 설명을 하고는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대체 뭣때문에 포민이 나를 꾸짖었을가? 마치도 그는 련대장보다도 상관인듯이 욕설로 위협을 하고 비둘기를 버리라고 명령을 하니 역시 교원은 교원이야. 정말이지, 소년한테 비둘기가 생기게 된게 뭐가 나쁘단말인가?)

《그럼 아저씨는 정찰에 나갔던가요?》
꼬스쨔가 심문하듯이 계속 따지고들었다.
《무슨! 그저 그리로 이럭저럭 가게 됐던거지.》
제르노브가 대답하였다.
《거긴 파시스트놈들이 있었는데요.…》
《있었지. 허지만 이젠 놈들을 거기서 쳐몰아냈단다.》
《아이, 건 참 잘했군요! 경기장도 해방했는가요?》
《경기장두.》
《건 정말 멋있는데요. 야 전시가 아니면 나랑 아저씨랑 축구하러 다니겠는데. 아, 우리 여기 어떤 축구팀이 있었는지 아세요. 매번 이기군했어요! 〈뜨락또르〉라는 팀인데 들은적이 있어요?》
《들었지.》
《헌데 중앙공격수는 또 어떻구요. 꼴론꼬브였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쏘군하는지 아세요? 왼발로도 바른발로도 쏘는데 마치 대포 쏘듯했는걸요. 뽈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었지요. 문지긴 또 어떻구요. 범과도 같은데 아무 뽈이나 다 잡아요! 와샤라는 사람이였어요. 아홉발자국밖에서 맨 구석으로 날아드는 뽈을 잡는다니까요. 난 선수란 선수는 죄다 잘 안답니다.》 꼬스쨔는 이야기에 열을 올렸으나 제르노브가 건성으로 듣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자 당황해하였다. 《그럼 아저씨는 축구를 하지 않나요?》
《하지.》
《좋아하셔요?》
《좋아하지.》
여전히 제르노브는 심드렁하니 대꾸하였다.
《또 뭘 좋아하시나요?》
제르노브는 공상에 잠긴듯한 표정으로 꼬스쨔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힘겹게 나무침대우에 앉더니 꼬스쨔를

자기한테로 끌어당기였다. 반땅크총사수의 넓은 가슴속에서 긴 한숨이 새여나왔다.

《모든걸 다 좋아한다. 끄스쨔야, 모든걸말이다. 사는것도 자기 집도 강기슭에 있는 봇나무숲도, 거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계시지. 흑해도, 거기서 나는 이태동안이나 해안방어에 복무했었지. 그리구 또 음악을 좋아하지. 음악을 좋아한다. 끄스쨔야…》

《그런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요?》

머리를 들지 않은채 끄스쨔가 물었다. 끄스쨔는 넓고 뜨거운 손바닥이 자기의 곱실곱실한 앞머리우에 와닿더니 조심스레 머리칼을 쓰다듬는것을 감촉하였다.

이렇게 크고 다부지게 생기고 겉보기에는 투박한 사람한테 이처럼 부드러운 손이 있으리라는것을 끄스쨔는 절대로 믿지 않았었다.

《오늘 난 기사회관에 갔었다.》 제르노브가 계속하였다. 《거기 피아노가 있더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을 털어놓고싶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밝지 않았겠니.》

《그럼 우리 오늘밤에 거기 가서 피아노를 칩시다. 래일말입니다.》

끄스쨔는 제르노브를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아니, 안돼. 끄스쨔, 지금은 음악을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건 공연한 소리예요.》

끄스쨔가 반박하였다. 소년은 중단된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는 제르노브가 벌써 자기에 대해서 련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끄스쨔가 보기에는 제르노브는 무엇인가 순조롭지 못한것을 생각하고 있는듯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좋은 우정관계가 어찌하여 끊어져야 한단말인가 하는것이였다.

《저, 이것 봐. 끄스쨔.》 제르노브는 일어서면서 말하

였다. 《참모부로 가자.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있다.》
꼬스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말없이 참모부로 갔다.

제 8 장

련대참모부는 깊숙한 두 골짜기어간에 자리잡고있었다.그 골짜기들은 공장구역의 전판도를 꿰질러 지나갔었다. 가파로운 절벽으로 병풍을 두른듯한 섬에는 전쟁전에는 공원이 록음에 뒤덮여있었다. 공원은 공장부락에 있었다. 아카시아며 정향나무며 호두나무들이 초록빛담벽처럼 들어차서 무더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뜨거운 해볕에서 보호해주고 바람이 불 때면 모래를 막아주었다.
가로수가 늘어선 큰길에는 거의 24시간내내 생활이 들끓고있었다.
여기서는 공장로동자들, 대학생들, 어린이들, 늙은이들이 휴식을 하였다. 여기서는 숨박곡질을 하기가 참 좋았다. 덤불속에 들어가 숨기만하면, 그러면 암만이고 찾아보라지! 저녁이면 공원의 사면으로부터 가로수 늘어선 큰길과 오솔길로 해서 사람들이 골짜기의 분기점으로 밀려들었다. 여기에는 그쯘하게 자란 높고 밋밋한 나무들이 서있었다. 산발을 한듯한 두그루의 백양나무밑에 꾸려놓은 로천무대에서는 배우들과 음악가들이 공연을 하였다.
전쟁이 터졌다. 그러자 공원은 뒤죽박죽이 되였다.
그리고 전선이 쓰딸린그라드의 문어구까지 가까이 다

가오자 아카시아며 정향나무의 촘촘한 관목림사이로 동굴처럼 뻗어간, 아름답게 록음진 가로수들이 늘어선 큰길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공원은 숭숭한 폭탄구뎅이와 포탄구뎅이들로 덮이고말았다.

오솔길대신에 구불구불한 참호들, 교통호들과 여러줄로 굴설한 전호들에 반나마 메워진 웅뎅이들이 생겨났다. 다만 불타버린 아카시아관목의 밑둥들이며 호두나무의 외줄기들이 여기저기 재속에 엿보일따름이였다.

전에 무대가 있던 자리에는 백양나무가 한그루 남아있었다. 보매 그 나무는 말할수 없이 굳센듯하였다. 그 나무의 둘레에는 포탄자리와 폭탄구뎅이가 숭숭하였다. 파편들에 구멍이 뚫리고 할퀴우고 박격포탄 직탄을 맞아 짜개진 그 나무는 병신처럼 보였다. 그 나무에는 단 하나 밑둥만이 굵은 가지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굵은 가지는 마치 팔꿈치까지 절단한 사람의 팔처럼 백양나무우에 뚝 뻗쳐있었다. 그 백양나무는 쓰러져도 의지할데가 없었다.그러나 그 백양나무는 원쑤의 켠으로 기울어진채 드팀없이, 경각성있게 그냥 서있었다.

그 백양나무에서 한 30~40보정도 떨어진 곳에 고사포가 배치되여있었다. 그 고사포는 포신이 나무처럼 보이게 잘 위장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백양나무한테 숱한 비난을 받았을수 있었다.

꼬스쨔는 오후에 여기에 도착하였다. 그는 장화를 신고있었다. 아침에 꼬스쨔가 제르노브를 따라 참모부에 도착하자바람으로 그에게 제복을 공급해주었던것이다. 색줄이 간 라사바지와 딴어깨달이 긴 상의는 꼬스쨔의 몸에 후렁후렁하여 어색하게 보였으나 그래도 소년은 씩씩하게, 지어 자랑차게 처신하였다. 소년은 자기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막 좋고 흐뭇한 기분이였다.

(여기는 정말 좋은 사람들뿐인데. 월로쟈아저씨도 그

렇고, 제복을 내준 사관장도 그렇고,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포민도 그렇고, 아니 모두가 다 한사람처럼 좋다니까! 그리고 제르노브는 정말 진짜배기친구야. 웨르군도 찾아냈지.)

꼬스쨔는 상의안에 비둘기가 들어있는 한쪽옆구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젠 너와 헤여지지 않을테다.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으라는데두. 여기선 살수 있어. 이제 나랑너랑 함께 정찰하러 다니자. 제르노브가 말하는걸 들었니. 진짜정찰병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적의 후방엘 드나든다는거야. 그렇지만 넌 유별나게 서둘지 말아야 한다. 익숙해져야하구 낯을 익혀야 하구 그리구 우편물 나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알아둘건 너한테는 적이 있다는것이다. 누군지알아? 뻔한 일이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포민인데 교원이란다. 교원은 누구나 다 비둘기를 반대한단다. 비둘기는 공부를 방해한다는거지. 모두 그렇게들 말하지. 그래서 포민은 제르노브를 나무라기까지 했단다. 그렇지만괜찮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좀 시끄럽게 말하다가 그만둘게야. 내버려둘거란말이다. 꼭 한가지만은 석연치 않다니까. 월로쟈아저씨는 아버지가 지휘하는 련대정치위원이였는데 어째서 아버지 있는데를 말하지 않을가? 어째서 자꾸 미루고만 있을가?)

고사포결에서 걸음을 멈춘 꼬스쨔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아버지의 운명에 대하여 누구도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는 적의 후방에 남아있다는듯이 암시를할 따름이였다. 왜 남게 되였으며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월로쟈아저씨는 다음번에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은 꼬스쨔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막 들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사령관이 찌또브를 급히 불렀기

때문이였다.

그때 바로 끄스쨔는 나쟈를 만났던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소년은 나쟈가 볼가강에서 돌아온 그 순간에 그 녀자를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쓰딸린그라드에서 싸우는동안에 나쟈는 눈에 띄게 여위였고 수척해졌다. 그의 얼굴은 몹시 축이 갔고 바람에 꺼매졌으며 코는 뾰족해졌다. 그런데 움푹 꺼진 눈만은 여전히 상냥하게 반짝이였다. 고사포병들은 여러차례 비행기들뿐아니라 적의 땅크들과 보병들을 상대로 전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나쟈는 자기는 아직도 적에 대하여 극히 적게밖에 복수하지 못한것 같은 심정이였다. 포부대가 공원으로 이동해오자 나쟈는 잠을 자지 못하였고 식욕도 잃어버렸었다. 나쟈가 아직 삐오네르시절에 자기 손으로 꽃을 심었고 어린 나무모들과 정향나무에 물을 주었으며, 그후 삐오네르부대 지도원이 되여서는 자기네 대원들과 함께 산보하러 오군하던 그 공원이 지금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였으니 나쟈는 공원의 그런 꼴이 너무나 분하고 가슴이 아팠다. 처음에는 어디건 남이 보지 않는데서 실컷 울고싶었으나 정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것이다.

나쟈는 전투가 없는 짬시간이나 밤중에 자기것과 동무들의 목달개를 빨러 볼가강에 다녀오군하였다.

《동무는 여기 온지 오래 돼요?》

나쟈는 끄스쨔에게 물었다.

《이틀전에 왔습니다.》

끄스쨔가 귀를 강구면서 대답하였다. 소년은 아직은 이 끊임없는 요란한 폭발소리와 사격소리에 익숙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건 나두 알아요. 내가 묻는것은 포부대에 온지 오래되는가말이예요?》

《방금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온걸 압니까?》

꼬스쨔는 나쟈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소년은 나쟈의 한 절반 꾸부린 팔에 걸려있는 젖은 수건을 바라보았다. 곁에다는 파란실로 선을 치고 닻과 함께 두글자 《M3》가 새겨져있었다. 나쟈는 오른 손에다는 목달개들을 쥐고있었는데 꼬스쨔는 그속에서 끝에 금빛닻을 그린 채양없는 해군모의 까만 레쁘스천댕기를 알아보았다.

《알고있어요.》 나쟈는 다소 당황해하는듯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수건들을 뒤재기면서 묻는것이였다. 《그런데 동무의 비둘기는 어디 있어요?》

《야 참, 제길, 이놈의 폭격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니까. 늘 소리를 질러야 하니.》

꼬스쨔는 서글픈 표정을 하였다. 그리고는 후렁후렁한 상의밑이 푸들거리는 자기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고나서 다시 웨르군의 몸뚱이를 붙잡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기 내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래 동무는 비둘기에 먹이를 줬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헌데 누가 비둘기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동무한테 책을 가지고갔더니 동무는 자더군요.》

《무슨 책말인가요?》

《동무 책이지요. 생각날테지요. 장령동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둬두고 간것말이예요.》

꼬스쨔는 곧 짐작이 갔다. 나쟈는 제르노브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있을것이였다. 그렇지만 어째서 제르노브는 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가?

(젠장, 이놈의 폭격은 언제나 멎으려는지! 아니 그래 여기선 줄곧 영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한단말인가?)

꼬스쨔는 화를 냈다. 소년은 나쟈와 제르노브에 대하여 무척 이야기하고싶었던것이다.

《야 참 나쟈동지, 제르노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구 축구도 좋아한답니다.》

꼬스쨔는 붉은 해병댕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르노브랑 우리는 곧 피아노 타러 가기로 했어요. 그는 피아노를 멋있게 타거든요!》

《과장하지 말아요. 꼬스쨔동무는 아직 들은적이 없지 않아요.》

나쟈는 소년의 말을 중둥무이하였다. 나쟈는 젖은 목달개들과 해군댕기를 수건들과 함께 비옷에 차곡차곡 걷어넣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다 말리울 작정인가요?》

꼬스쨔가 물었다.

《사방에서 불이 붙는데. 동문 그런걸 다 물어요.… 밤이 되면 말리우기도 하고 다림질도 하겠어요.》

꼬스쨔는 제르노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애를 썼건만 그의 음성은 포탄과 박격포탄들의 폭발소리에 삼키여버렸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마마예브 꾸르간에 대고 사격을 하고있었다.

나쟈는 묵묵히 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오래지 않아 적의 포사격의 물결이 철길뚝밑으로 구을러가면서 약간 짐짓해졌다.

《나쟈동지, 모두 제2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는데 그걸 이제 곧 시작하는가요?》

꼬스쨔가 물었다.

나쟈는 서글픈 표정으로 볼가강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였다. 그러고는 비옷을 땅에 내려놓고 꼬스쨔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요. 꼬스쨔, 나도 몰라요. 만일 동맹국들이, 미국과 영국이말이예요. 정말로 제2전선을 펴기만 하면 완전히 달리될거예요. 허지만 왜 그런지 질질 끌구있어요.》그러고는 자기자신과 꼬스쨔를 달래기라도 하듯이 부언하였다. 《약속들을 했으니… 곧 시작할지 모르지요.》
《적의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어제 동무가 련대에 도착하였다는것을 알자 모든 병사들은… 원, 다들 통 믿질 않았어요.》
말문이 막혔던 나쟈는 마치 꼬스쨔의 질문을 못알아듣기라도 한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도하장 골목길에서 발동기소리가 요란스레 울리더니 웬일인지 발밑에서 땅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나쟈는 마치 끊어졌던 대화를 잇기 위하여 그 소리를 기다리고있었던듯하였다.
《저것 봐요. 그들이 와요.》
나쟈가 말하였다.
진동하는 우르릉소리는 더 요란해졌다. 그리 깊지 않은 골짜기를 따라 곧바로 고사포부대를 향하여 급진적으로 한대 또 한대 땅크들이 전진하고있었다.
《이리로들 와요! 저건 우리의 신형땅크들이예요. 난 저 땅크들을 볼가강 저쪽에서 만났댔어요!》
꼬스쨔는 하도 좋아서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소년은 땅크들이 개활지대에 나타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다. 땅크들이 거기서, 전투정황에서 동작하는것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하늘에서는 《윤께르쓰》들이 빙빙 돌고있었다. 한대 또 한대 골짜기우로 내리꽂히기 시작하였다. 흙과 먼지

기둥들이 여기저기서 치솟았다. 폭탄 한개가 땅크들이 은페하고있는 바로 그 장소에 떨어졌다.

《거기서 피하라구요!》

꼬스쨔가 소리쳤다.

그러자 땅크 한대가 그 말을 듣기라도 한듯이 앞으로 내달리였다. 어마어마하고 위력있는 그 땅크는 경쾌하고 능란하게 고사포진지옆을 지나 달리는것이였다. 흙덩어리들, 벽이 무너져내린 벽돌무지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깔아부스러뜨리기도 하면서 땅크는 산언덕을 향하여 달리더니 다음엔 철길뚝을 따라서 꺾어돌았고 그러다가는 되돌아섰다. 파시스트놈들의 비행사들이 그를 알아본듯하였다. 폭탄이 연거퍼 앞에도 떨어지고 옆에도 떨어지는데 땅크는 마치 우정 그러듯이 놈들의 면전에서 빙빙 돌고있었다.

《다리밑에, 다리밑에 숨으십시오!》 파괴된 다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꼬스쨔는 마음속으로 땅크병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땅크는 피하지 않았다.

곧 명백해졌다. 이 땅크의 승무원은 파시스트비행사놈들의 주의를 자기한테 집중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땅크를 시위하듯이 개활지대로 내몰았던것이다. 그러자 꼬스쨔는 적비행기와 싸우는 이 땅크의 승무원을 더욱더 도와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　　*

나쟈는 마치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듯하였다. 나쟈는 공중을 찬찬히 주시하고있었던것이다. 약간 뒤로 젖힌 그의 머리는 그 무슨 계산으로 여념이 없는듯하였다. 처녀다운 좁다란 어깨가 팽팽하니 긴장되고

어깨뼈들은 예리하게 솟구쳐올랐다. 그리하여 처녀는 병사의 상의밑에다 날개를 감추고있는듯이 보였다. 한것은 마치 실지로 적을 맞받아 날아오를 차비를 하는듯이 나쟈의 두발이 탄성있게 통통 튕기였기때문이였다.

조척에서 물러나자 나쟈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쾅 사격소리가 울리였다. 나쟈가 자기 머리우에서 손가락으로 꼬스쨔가 알수 없는 무슨 손짓을 하자 탄약수들과 장탄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폐쇄기로 포탄이 미끄러져들어갔다. 나쟈는 날쌔게 방향기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어째 그런지 포신이 바람에 쑥대가 그러듯이 가볍게 이쪽저쪽으로 움직이였다.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나쟈는 마치도 포신으로 급강하하는 비행기를 때리려고 하는듯하였다.

두번째사격이 급강하하는 비행기의 기총소사와 동시에 울리였다. 마치 수십개의 채찍이 뚝을 후려치는듯하였는데 그 뚝뒤에는 포탄상자들이 놓여있었다. 다음번련발사격 탄알이 꼬스쨔곁에서 땅을 누비였다. 그것은 바로 탄약수가 포탄을 들고 꼬스쨔한테로 달려오는 순간이였다.

포에서 탄피가 튀여나와 발밑에 뒹굴었다.

《집어라!》

탄약수가 소리를 쳤으나 꼬스쨔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소년은 빈 탄피를 집어야 한다는줄로 여기고있었다. 탄피는 아직 파란 연기가 몰몰 피여올랐고 뜨거웠다.

《그걸 어떻게?》

《아 저걸 집으라구!》

탄약수는 마치 미끄러지기라도 한듯이 꼬스쨔곁에 떨어뜨린 포탄쪽으로 뻗었다.

이 순간부터 꼬스쨔는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포탄을 집어서 장탄수에게 넘겨주고는 탄약수를 지나 포탄상자 있는데로 달려갔다. 눈앞에서는 탄피들, 포탄들 그리고 정력적인 나쟈의 어깨가 얼씬거릴따름이였다. 나쟈는 포의 조준경에 빨려들어간듯하였다. 그렇지만 꼬스쨔는 자기 손의 포탄을 나쟈에게 넘겨주는 기회가 생겼다. 나쟈는 누가 주는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포탄에 맞아서 파시스트비행기에 불이 인듯하였다.

《만세! 내 포탄으로 쐈다!》

그런데 비행기를 쐈다는 이 기쁜 신호에 의하여 부상당한 탄약수가 완쾌된듯하였다. 그는 일어나더니 한쪽 발을 질질 끌면서 탄약상자가 있는데로 기여가는것이였다.

《누워있으라요. 우린 아저씨가 없어도 감당해낼수 있어요!》 꼬스쨔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날라가라. 날라가라.)

다음 포탄을 공급한 탄약수의 얼굴에는 이렇게 씌여있는듯하였다.

피로도 긴장도 느끼지 못하는 꼬스쨔는 극도로 흥분하여 포에서 탄약상자에로 달려갔다가는 다시 되돌아 달려오군하였다. 전투에 열중한 나머지 꼬스쨔는 자기도 포를 조종하고 비행기를 쏴댈 잡도리를 하였다. 소년은 그런 일을 하자면 얼마나 오래동안 많은 훈련을 쌓아야 하는가를 알지도 못하였고 짐작조차 할수 없었던것이다.

별안간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였다. 그러자 눈앞에 시꺼먼 낟가리같은것이 솟아올랐다. 뜨거운 공기를 확 끼얹으면서 폭발이 벙끗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 누군가가 꼬스쨔의 손을 힘껏 잡아당기였다.

공습은 끝이 났다. 그러자 무섭증이 났다. 웬일인지 꼬스쨔는 죄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듯이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어둠이 가셔지자

깊은 대피호안에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포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꼬스쨔의 손을 잡아당긴것은 영낙없이 포민이였을것이다. 다음으로는 나쟈를 보았고 그밖에도 몇몇 병사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속에는 제르노브가 서있었다. 꼬스쨔는 전투에서 단련된 경험있는 쓰딸린그라드방어자들앞에 있기가 거북스러웠다.
포민은 성난 눈으로 나쟈를 쳐다보았다. 나쟈는 알아차리고 중얼중얼 변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만 꼬스쨔를 미처 참모부로 보내지 못하였다는것이였다.
제르노브는 한창 폭격할 때에 이리로 달려왔었다. 꼬스쨔는 제르노브가 왜 이리로 달려왔는가 하는것을 대번에 눈치챘다.
(나쟈가 그의 수건이랑 빨아주는게 공연한 일일수 없지.)
지금 제르노브는 나쟈와 가지런히 서서 역시 여기, 대피호안을 마뜩지 않게 바라보고있는데 꼬스쨔와 포민을 번갈아 쳐다보는것이였다.
골짜기로부터 시꺼먼 땅크들이 달려나왔다. 어마어마하게 발동기들이 우르릉거리더니 땅크들은 고사포병들 옆을 지나 달려들갔다.
《이제 곧 공격으로 넘어갈거요.》
고사포병들가운데서 누군가가 말하였다.
제르노브는 뻴로뜨까군모를 벗어서 호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나쟈더러 자기의 채양없는 해군모를 달라고 하였다. 그 해군모에는 댕기가 없었다. 나쟈는 쑥스러운듯한 시선을 꼬스쨔에게 던지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 젖었는데요. 채 마르질 않았어요.》
《괜찮소. 쓰고있느라면 마르겠지요.》
전연쪽으로 가면서 제르노브가 말하였다. 나쟈는 쓸쓸

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바라보고있었다.
《바다의 넋이라니까.》
고사포병들중 누군가가 고무적으로 말하였다.
포민은 꼬스쨔의 손을 잡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련대참모부 엄페호로 갔다.
나쟈는 그들을 짜개진 백양나무 있는데까지 바래주고는 말없이 잠시 섰다가 포있는데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백양나무는 이번 폭격이 있은 뒤에는 한결 더 전연쪽으로 기울어져있는 품이 마치 활촉처럼 뾰족한 자기 우듬지로 원쑤를 위협하고있는듯하였다.

*　　　*

《뿌르긴 뾰뜨르 뻬뜨로위치에게 조국전쟁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소. 그 영구보관을 아들에게 위임하시오. 뿌르긴 꼰스딴진 뻬뜨로위치한테말이요.》
찌또브가 말하였다.
포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부탁입니다만 그 일에서는 저를 빼놔주십시오.》
《왜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반대로 나는 동무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동무는 교육가가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꼬스쨔가 지금 어데 있소?》
찌또브가 물었다.
《저의 엄페부에 있습니다.》
《좋소. 그애를 나한테 보내주시오. 가보시오.…》
포민은 물러나왔다.
꼬스쨔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찌또브는 자기 가족—안해와 일곱살짜리 딸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벨라루씨에

남아있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찌또브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국경마을은 전쟁첫날에 파시스트놈들에게 점령되였었다. 그러나 찌또브는 이제 붉은군대가 그리로 돌아갈것이며 그러면 자기는 그들을 찾아낼것이라고 믿고있었다.

(헌데 꼬스쨔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

찌또브는 군사위원회 명령서가 들어있는 봉인을 뗀 봉투를 손가락들로 더듬어 찾았다.

《…까르뽀브까 철도역 방어시 도이췰란드파시스트 강점자들과의 전투에서 발휘한 개인적인 용맹과 헌신적행동에 대하여 뿌르긴 뾰뜨르 뻬뜨로위치소좌를 조국전쟁훈장 제1급으로써 표창함. 제62집단군 사령관 중장 추이꼬브, 군사위원회 위원 사단정치위원 구로브.》

서류장을 책상우에 놓고 찌또브는 다시한번 명령서 글줄들을 눈으로 더듬었다. 다음의 말마디들에 눈길이 멎었다.

《도이췰란드파시스트강점자들과의 전투에서》

《바로 그놈들, 도이췰란드파시스트강점자들이 녀자들과 아이들을 학살하고있다.》찌또브는 남이 듣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여러번째로 안해와 딸이 현실처럼 나타났다.

《월로쟈아저씨, 들어갈만 합니까?》

문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 꼬스쨔냐. 어서 들어오너라!》

찌또브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활기있게 대꾸하였다.

꼬스쨔는 소심하게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제멋대로 자리를 뜬 탓으로 하여 호된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죄송한듯 문안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리 들어오너라. 이리 들어와. 왜 그리고 섰니?》

꼬스쨔는 이제 월로쟈아저씨와 이야기를 할적에 어떻

게 처신해야 할지 아직 신중히 궁리해보지 못하였다. 어른처럼 굴고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뿐 아직 변명할 말을 골라잡지 못하였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처음 만났을 그때 나간권총에 손을 뻗치던 그 꼬스쨔그대로라고 생각할테면 하라지.)

꼬스쨔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월로쟈아저씨, 난 또 아저씨가 욕을 하실줄 알았지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내가 호되게 처벌을 받을것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로?》

《거기, 공원이 있던데말입니다. 포부대 있는델 갔었으니까요. 거기선 나쟈가 지휘관이지요. 나쟈를 아십니까?》

《안다.》

《그런데 땅크들이 어디로 갔나요?》

《왼쪽 린접으로, 전선으로 말이다. 그런데 너는 거긴 왜 갔었니?》

《그저 구경하려고요. 한데 폭격이 시작되였어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도 역시 거기 있었지요. 나쟈는 잘못한게 없는데 그분은 나쟈를 욕하더군요.》

《아, 그래 욕을 했다.》

한시름 놓이는듯 찌또브는 한숨을 지었다.

《그리고 그 해병 제르노브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용감한지 아십니까! 전투하러 가면서 채양없는 해군모를 쓰고 갔어요. 나쟈가 그의 군모댕기를 빨아줬는데 그만 채 마르질 않았더군요. 허지만 그 아저씨는 말하기를 〈쓰고있느라면 마르겠지요.〉 하지 않겠어요. 참말 불같은 사람이야요!》

꼬스쨔는 아이들답게 단숨에 내리엮었다. 그러나 다음 말은 심중히 띠염띠염 발음하였다.

《월로쟈아저씨, 제르노브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찌또브는 꼬스쨔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봉긋한 상의자락밑에서 무엇인가가 움지락거리는것을 알아보았다. 꼬스쨔는 그것을 눈치챘다.
《아닙니다. 월로쟈아저씨, 비둘기는 여기선 쓸데없습니다. 제르노브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아, 좋아. 헌데 그 네 웨르군을 좀 보자꾸나. 그놈은 어떻게 지내니?》
《괜찮습니다.》 비둘기를 꺼내면서 꼬스쨔가 말하였다. 《하지만, 내겐 비둘기가 소용없습니다. 나쟈는 제2전선이 곧 펴질거라구 말하더군요.》
찌또브는 눈섭을 치켜올리였다.
《넌 무슨 소릴 하니!》 그리고는 꼬스쨔가 한 말에 놀란듯이 빠른 말씨로 지적하였다. 《공연한 소리, 공연한 소리. 어째서 그게 소용없다는거냐? 봐라. 그놈이 얼마나 령리한가.》
(모르겠는데.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비둘기를 놔줘야 한다고 말하고, 나쟈는 비둘기가 소용없다고 하는데 월로쟈아저씨는 〈공연한 소리, 공연한 소리〉하니… 누구말을 들어야 옳담? 만일 내가 비둘기를 놔준다면 제르노브는 뭐라고 말할가? 좋아,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꼬스쨔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웨르군은 온순히 손바닥우에 앉아서 놀라웁게도 구구거리기 시작하는것이였다.
《허, 듣니? 이건 비둘기가 네게 화를 내는것이다. 욕하는 소릴 듣니?》
꼬스쨔는 월로쟈아저씨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인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아니, 아저씨는 이번에도 아버지가 어데 있는지 말하

지 않을 작정이란 말인가? 이번에도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어 또 전화종이 따르릉 울리겠지. 아니야. 여기에는 무엇인가 상서롭지 못한게 있어.)

《월로쟈아저씨, 어째서 아저씨는 아버지를 어디에 남겨두었고 왜 아버지가 적의 후방에 남았는가 하는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도이췰란드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순간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찌또브는 걸상에 앉았다. 그는 이제 곧 자기가 이 소년에게 이야기해야 할 그문제에 대한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하여 참을수없이 가슴이 아팠다.

(작별할 때에 모든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꼬스쨔에게 이야기해야겠다. 이 소년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지?)

꼬스쨔는 찌또브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오래동안 자기한테 숨기고있던 이야기를 이제 곧 듣게 되리라고 짐작하였다.

《이것 봐 꼬스쨔, 너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좋습니다.》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또다시 긴장한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마침내 찌또브는 일어나서 꼬스쨔앞에다 조국전쟁훈장 제1급이 들어있는 갑을 내놓았다. 그런 다음 옆으로 한걸음 비켜섰는데 그의 손에는 꼬스쨔에게 낯익은 려행용지휘관가방이 들려있었다. 그 가방에는 청동접철이 달려있었다.

《이게 뭐나요?》

훈장갑을 보면서 꼬스쨔가 물었다.

《네가 영구히 보관해야 할것이다.》찌또브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도 역시 네것이다.》

꼬스쨔는 화닥닥 일어섰다. 소년은 자기가 어떻게 자물쇠를 벗기고 뚜껑을 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소년은 이 모든것을 습관적인 손동작으로 기계적으로 했다. 가방에서 무엇인가 다정하고 익숙한 냄새가 풍기였다. 우에는 아버지의 상의가 들어있었다. 소년은 《붉은군대창건 20주년》메달을 달군하던 정방형의 흔적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았다.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였다. 막 추웠다. 소년은 그 상의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꼬스쨔는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볼을 눌러댄듯한 느낌이였다. 그리고 달리는 믿지도 않았고 또 믿고싶지도 않았다.

《너의 아버지는 파시스트강점자들과의 전투에서…》

꼬스쨔는 자세를 바로하였다. 그리고 모지름을 쓰면서 찌또브의 말을 끝까지 다 듣지 않았다. 더는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월로쟈아저씨, 필요없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죄다 알고있습니다.》

찌또브는 안도의 숨을 쉬였다. 그의 앞에 서있는것은 방금 그가 생각을 굴리면서 달래던 비둘기의 임자인 그 꼬스쨔가 아니였다. 무거운 설음에 지지눌리운 꼬스쨔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꿋꿋이 견디여냈다. 두눈에서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쪼각같은 눈물방울들이 번뜩이였다. 그 눈물방울들이 금시 주르르 흘러내리리라는것을 감촉한 꼬스쨔는 주먹을 꽉 부르쥐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솔직하고 선량해보이는 찌또브의 시선과 마주치자 이렇게 물었다.

《월로쟈아저씨, 어째서 아저씨는 즉시 말씀하지 않았나요?》

찌또브는 소년을 두팔로 버쩍 들어올려 품안에 꼭 껴안았다.

《나를 용서해라. 꼬스쨔야! 나는 네가 그렇게 성장한줄을 미처 몰랐구나.》

*　　　*

《볼가강 저쪽 아흐뚜바에 제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학교바루 곁이지요. 그애가 가는 다음날로 등교하게 될것입니다.》

포민이 제기하였다.

《좋소. 나는 동의하오.》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꼬스쨔를 바라보면서 찌또브가 소곤소곤 대답하였다.

실컷 울고난 꼬스쨔는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구슬픈 표정이였고 입술과 빨개진 량볼은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는데 이마우에서는 고집스러워보이는 주름살이 모였다 펴졌다하였다. 소년은 잠에 취한듯 흐느끼면서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듯 하였다.

《월로쟈아저씨, 나를 련대에 있게 해주세요. 다문 열흘동안이라도, 아니 다문 닷새동안만이라도!》

찌또브는 군사학에 정통하였고 전투생활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적의 후방에서 련대를 지휘하였으며 수백명무장인원의 의지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면서 대담한 결심을 채택하군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전투마당에서 위엄있게 지휘하였다. 그런데 지금 잠을 자고있는 이 꼬스쨔앞에서는 거의 당황해하다싶이 하였으며 이 소년의 그런 청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거절할수가 없었고 또 그럴만한 힘을 짜낼수가 없었다. 련대장의 두귀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힘있게, 간절하게 울리였다.

《월로쟈아저씨, 나를 련대에 있게 해주세요.…》

《만일 련대장동지가 동의하신다면 곧 저 애를 건너보

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포민은 마치 잠든 꼬스쨔를 알아보지 못하는듯이 큰소리로 말하였다.
《조용조용히 말하시오.》
찌또브는 놀라운 눈길로 포민을 쳐다보면서 경고하였다. 교육가인데 어쩌면 신중성없이 어린애를 저렇게 거칠게 대한담! 포민은 련대장의 그 책망하는 눈초리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큰소리로 계속 주장하였다.
《오늘중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 애는 여기서 할노릇이 없습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우리는 인간이요. 나는 주장하고싶소. 꼬스쨔…》
《예… 왜 그러시나요?》
꼬스쨔는 눈을 뜨면서 대꾸하였다.
포민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듯이 꼬스쨔한테로 홱 얼굴을 돌리였다. 그리고 곁에 있는 련대장에게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꼬스쨔를 타일렀다.
《이봐, 꼬스쨔야. 넌 여기 있어야 소용이 없다. 오늘밤에 우린 너를 볼가강 저쪽으로 넘겨보내기로 했다. 아흐뚜바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거라.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여라. 알만하지?》
《그럼 아저씨는 어디루 갑니까?》
꼬스쨔는 찌또브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우린 네 이야기를 하는중이다. 너는 네가 갈데로 가야한다. 학교에 말이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꼬스쨔는 점도록 찌또브를 바라보고있었다. 꼬스쨔의 어린애다운 부리부리한 눈의 미심쩍어하는듯한 시선에서 찌또브는 분기를 알아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있

는듯하였다.
《월로쟈아저씨,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래, 꼬스쨔야.》
찌또브는 이렇게 말하고는 포민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것은 자기의 말동무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그의 습관적인 동작이였다.
《갑시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1중대가 정렬했는가 가봅시다. …》
그리하여 두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꼬스쨔는 어째서 그들이 끝까지 죄다 마저 말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나가면서 다시한번 경고했을따름이였다.
《오늘중으로 볼가강을 건너야 해. 꼬스쨔야, 낮에는 배가 건너다니질 않으니까 밤에야 발동선이 올게다. 차비를 해라. …》

*　　　*

엄페부의 장방형으로 생긴 조그마한 창문으로 해빛이 비쳐들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엄페부밖으로 나가는것을 점직해하는 꼬스쨔는 점도록 그 창문을 내다보고있었다. 그을음이 서린 하늘의 자그마한 한쪼각이 보였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꼬스쨔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였다.
(아, 아버지, 아버지! 저녁에 나를 또 볼가강 저쪽으로 보내겠답니다.)
그런데 시간은 빨리도 흘러갔다. 꼬스쨔는 저녁이 닥쳐온것도 알지 못하였다. 이제 와서 꼬스쨔는 월로쟈아저씨와 헤여지고싶지 않았다. 꼬스쨔에게 있어서 월로쟈아저씨는 전에부터 잘 아는 처지였고 믿고있던 유일한

사람이였다. 제르노브라도 와서 편역을 들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만 슬퍼해라. 끄스쨔야, 1중대로 가자.》

찌또브가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1중대는 골짜기안 참모부곁에 배치되여있었다. 이 중대의 명부에는 근위소좌 뿌르긴의 이름이 영원히 등록되여있었다. 허지만 끄스쨔는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어둠이 깃들자 병사들은 골짜기를 따라 정렬하였다.

《뿌르긴!》

사관장의 점검이 시작되였다. 끄스쨔는 자기의 성을 알아들었다.

《네!》 소리가 골짜기로 울려퍼졌다. 그것은 끄스쨔의 곁에서 별안간 챙챙하게 튀여나왔다. 그러자 점검때 대답할것을 위임받은 그 중사가 말하였다.

《도이췰란드강점자들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전사함.》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를 대신하여 련대장의 아들이 대답하였다.

경무소대의 엄폐부로 가면서 끄스쨔는 자기를 하다못해 단 이틀동안만이라도 련대에 있게 해주도록 찌또브를 설복해보려고 다시한번 애를 써봤다.

《아니야. 끄스쨔, 안돼.》

찌또브는 대답하였다.

찌또브가 왜 안되는가 하는것을 끄스쨔한테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을 따라잡은 련락군관의 발걸음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련대장동지, 사령관동지께서 전화로 당신을 급히 찾으십니다.…》

찌또브는 친구에게 하듯이 끄스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련락군관을 따라 빨리 걸어갔다.

경무소대 엄페부에서는 포민이 끄스쨔를 맞이하였다.

쌀쌀하게 쓸데없는 말은 생략하고 작별의 인사말로 맞이하였다. 그는 제꺽 꼬스쨔앞에 있는 탁자우에다 그의 아버지의 가방과 배낭을 올려놓았다. 배낭안에는 사탕, 통졸임, 물고뿌, 내의, 비누, 치솔들과 비둘기에게 먹일 모밀쌀이 들어있었다.

(아니 원 아저씨두.) 꼬스쨔는 포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나를 볼가강너머로 보낼것을 궁리해내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소중해져서 모밀쌀까지 장만했는데. 이상야릇한데!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있는것을 죄다 알아맞추고있으면서 처리하는건 반대로 하는게 아닌가? 거기에서야 비둘기가 내게 무슨 소용이람. 정찰하러두 안다니는데.)

배낭곁에는 책무지(교과서들)와 공책들이 옹근 한타스나 놓여있었다. 교과서들과 공책들은 포민이 파괴된 학교에서 가져온것이였다.

꼬스쨔는 문법과 문제집을 마지 못해 손에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고나서 식물교과서를 펼치였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과목이였다. 다음에는 지리교과서였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공부할수 있을겁니다.》

포민은 그가 학교에 가면 기분이 좋아할것 같이 생각되였다. 눈앞에는 현실에서처럼 교실이 떠올랐다. 벽에는 지도가 걸려있고 책상들우에는 교과서며 공책들이 놓여있었다. 수백개 아이들의 눈이 선생과의 상봉의 기쁨으로 하여 반짝이고있었다.…

《몇시에 발동선이 오게 됩니까?》

자기의 정연한 생각을 휘젓듯이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물었다.

《늦어진답니다. 열두시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병사들중 한사람이 보고하였다.

《알았습니다.》

(발동선이 아주 안왔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나를 다들

잘 알고있고 좋게 평가들 하고있는데 에이, 련대에 남아 있을만한 무슨 수를 궁리해냈으면 좋겠는데!)

책을 들여다보면서 끄스쨔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악감을 먹은듯이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였다. 남포등불이 춤을 추다가 아주 꺼지고말았다. 련락병이 숨을 헐떡거리며 엄폐부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련대장동지, 경보입니다!》

《취여총!》

경무소대는 참모부로 달려들갔다.

제 9 장

여기 쓰딸린그라드지역에서는 볼가강이 구붓하니 반원을 그리고있다. 이 반원의 바깥측면은 도시의 구역들, 로동자구역들, 공장들과 교회부락들로 이루어진 촘촘한 사슬로 테를 두르고있었다.

지금은 북쪽으로부터 공장구역을 지나고 도시중심을 지나 베께또브까와 더 멀리 남쪽으로는 볼가강과 나란히 쓰딸린그라드의 불타는 강이 흐르고있었다. 낮에는 그것이 그닥 눈에 띄지 않으나 밤이면 마치 볼가강도 불타고 있는듯이 보인다. 그리고 그 광란하는 불이 저편으로 자볼지예 참나무숲에 금시 건너 달릴것만 같았다. 어떻게 이런 변이 일어날수 있는가 하는것을 상상도 못하는 포민은 짜장 저 볼가강이 아군의 후퇴의 마지막계선으로 되여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볼가강을 바라

보았다. 때를 같이하여 파시스트자동총수의 대집단이 공장들사이로 해서 도하장쪽으로 바질바질 덮쳐들고있다는 소식이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불안에 싸이게 하였다.

미구해서 새로운 더 놀라운 소식에 의하여 그것이 확인되였다. 어둠을 리용하여 땅크들과 보병들이 도하장으로 진격해오고있었던것이다. 도하장들에서는 예광탄이 자주 터져올랐고 기관총들이 짖어댔고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리고 기슭에서는 불기둥들이 치솟았다. 그 불기둥들은 물에 반사되였다. 그리하여 포민은 볼가강구역에서 부상당한 상처가 눈앞에 보이는듯하였다.

《아 볼가강, 볼가강이여!》

포민은 한숨을 지었다. 볼가강의 투들투들한 수면우에는 탄도를 그리는 반디불같은 탄알들이 날실을 늘여놓는듯하였다. 원쑤놈들은 기총화력으로 볼가강에 무차별사격을 하고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쪽배들도 나루배들도 이리로 우리네 계선장으로 올수 없는것이다.…

여기 폐허우에 우뚝 솟아있는 자그마한 언덕우에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습관에 따라 감시를 하고있었다. 경보에 의하여 출동한 그의 소대는 골짜기언덕을 방어하고있었는데 만일 적자동총수들이 련대참모부와 탄약고를 뚫고들어올것을 예견하여 전투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중사동지, 련대장동지가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리로 달려온 련락병이 보고하였다.

《알았소.… 그런데 거기 있는 꼬스짜는 기분이 어떤것 같소?》

포민은 한창 사격을 받고있는 볼가강구역을 계속 감시

하면서 물었다.
《그애는 초소에 있는 병사와도 같이 규률을 잘 알고있습니다. 앉으라고 명령을 하면 앉아있는 식입니다. 온순하고 분별있는 애입니다. 모르는것이 없습니다.…》
《알았소, 가보시오.》
포민은 련락병의 말을 중둥무이했다.

*　　*

꼬스쨔는 경무소대 엄페부에 앉아있으면서 아무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기야 사방에서 기관총들이 콩볶듯 사격을 해대는데 그애가 어데로 갈수 있겠는가. 꼬스쨔는 련락병을 통하여 도하장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만치 볼가강을 건는다는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이제는 영낙없이 나를 1중대에 등록해주겠지. 점검을 할적마다 아버지대신에 답변을 할테다.)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꼬스쨔는 만일 적이 도하장을 차지하여 련대가 아군주력과 련락이 끊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모두에게 어떤 참화가 들씌워질것인가 하는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있을수 있는 바로 그 가장 곤난한 사태가 벌어졌다.

*　　*

가렬처절한 전투가 여러 주야 계속되였다. 적은 저지되였으나 도하장에서 격퇴하지는 못하였다. 련대는 포위속에 남았다.
그 당시에 꼬스쨔는 포민한테서 무슨 중대한 위임이 있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물론 전투적인것이였다. 소년은

그칠줄 모르는 충격이며 폭발들에 익숙해가고있었다. 포민을 만날적마다 자기는 즉 꼬스쨔는 겁쟁이가 아니고 무슨 과업이나 다 수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암시하군하였다.

(첫 전투에선 실지로 본때를 보일테야.)

그렇지만 참말 이상야릇하게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마치 꼬스쨔의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한것만 같았다.

한번은 포민이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너도 임무를 받게 될게다.》

꼬스쨔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임무를 준비하고있는지 상상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안달아하기 시작하였다.

《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아저씨, 임무는 중요한것일가요?》

《매우 중요한것이지. 지금같은 조건에서는 어려운것이기도 하지.》

《그럼 누가 또 나와 같이 가게 됩니까?》

《우리 련대에는 지금은 너 한사람뿐이다.》 그러다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꼬스쨔가 듣고싶어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교과서며 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고 다음에는 사람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는 지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자 꼬스쨔는 별안간 자기가 엄폐부안에 앉아있는것이 아니라 교실에 앉아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 대해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아주 신중히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지어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단한 공력을 들여야 성공할수 있을만치 가장 어려운것, 그것은 곧 지식이라는것이였다.

《그러기에 만일 네가 곤난앞에서 물러설것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비난하는 어조로 지적하였다.

끄스쨔는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굉장한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있는지 아니. 끄스쨔야! 네가 전문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척 선생님앞에 서서 답변을 한다치자. 명백하고 정확한 답변을 한단말이다. 선생님은 기뻐서 희끗희끗한 눈섭을 치켜올리고 벙실벙실 웃으며 말씀하실테지. 〈여, 끄스쨔 뿌르긴, 참 장하오!〉 그리고는 네손을 힘있게 잡아줄거란말이다. 〈축하하오. 우리의 미래의…〉 그렇지. 가령 〈 주임농산기사!〉… 이러실테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끄스쨔는 그의 말을 밀막았다. 《난 아직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걸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말하는거다.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후에 가서 완전히 결정하자면 지금부터 거기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거야. 평화시기가 닥쳐오면 이것저것 생각하고있을 겨를이 없을테니까. 지금 준비해야 하는거야. 그렇지 않다가는 늦어질거란 말이야.》

끄스쨔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곁에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데 어떻게 책을 들여다보고 앉아있을수 있으랴!

어느날 혼자 남아있게 된 끄스쨔는 역시 전연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을 구경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참모부에 들려보았다. 참모부 엄폐호에는 아무도 없었다. 교환대곁에 당직전화수가 혼자 앉아있을뿐이였다.

(좀 더 멀리 가봐야지.)

도하장과 골짜기들에서는 전투가 한창이였다. 그쪽에서 자동총들의 잦은 련발사격소리, 수류탄폭발소리들이

들려왔다. 끄스쨔는 걸음을 다우쳤다. 문득 그의 앞에 처녀가 나타났다. 처녀는 큼직한 목수건을 둘둘 감고있었는데 그 량끝이 땅에 끌리였다.
끄스쨔를 보자 처녀애는 한옆으로, 자갈무지있는데로 픽 돌아섰다.
《섯!》 끄스쨔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처녀는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으로 잦아들었는지 온데간데 없었다. 자갈무지뒤에는 집도 도랑도 방공호도 없었다. 화재는 땅을 빤빤히 쓸어버렸었다. 끄스쨔는 두루 찾아본 끝에 무슨 륵골같은것 우에다가 씌운 나무지붕을 발견하였다.
(땅굴이로구나.)
끄스쨔는 이렇게 짐작하였다.
《여기 누가 있소?》
끄스쨔는 아직은 내려갈 용단을 내리지 못한채 명령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소리지르지 말아. 어머니가 주무신다.》
대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길, 너나 호통을 빼지 말아라!》
끄스쨔는 이 말을 나직한 음성으로 하려 했지만 큰소리가 별안간 튀여나갔다.
《난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려오너라. 우리 집은 위험하지 않다.》
끄스쨔는 자신의 조잡한 행동으로 하여 기분이 나빴다.
(이런데서 이 단추같은 애가 어떻게 살고있을가?)
끄스쨔는 두리번두리번 살펴보고나서 용기를 내여 층계에 발을 내리디디였다.
《넌 뭘 그리 두리번거리는거냐. 무서워할건 없어.》
처녀애가 말하였다. 어둠속에 있는 처녀애는 눈이 잘 보였으나 끄스쨔에게는 시꺼먼 구멍같이만 보였다.

《그런데 너네는 식구가 많으니?》
꼬스쨔는 어느새 화해하듯이 물었다.
《앉아라. 그러면 보인다.》
어둠속에서 처녀가 무슨 광주리같은것을 꼬스쨔의 발앞에 옮겨놓았다. 그러자 꼬스쨔는 아직 자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어림짐작으로 앉았다.
《앞을 못보는 사람은 곤난하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어느새 익숙해졌어. 내가 하는걸 죄다 아신단다. 가령 내가 감자를 씻으면 어머니는 껍질을 지내 두텁게 깎아내는것을 감촉하시고 말씀하시지. 〈좀 얇게 깎아라!〉. 어머닌 눈에 가스가 뱄어. 폭탄터질 때 그런 지독한 연기가 났거든.…》
《그럼 너도 뱄니?》
《아니, 난 다 봐. 이제 너도 앉아서 두루 살펴보면 죄다 보일게다.》
꼬스쨔는 주철단지옆에 앉아있는 처녀애를 가려보게 되였는데 처녀의 등뒤에는 침대비슷하게 만들어놓은 합판문짝들이 놓여있었고 녀인 하나가 그 문짝침대를 한절반 차지하고 누워자고있었다. 오른쪽구석에는 불에 탄 트렁크 두개가 놓여있었고 왼쪽에는 재봉침대가리가 보였다. 벽에 기대여 벽돌장들을 쌓아놓고 그우에다는 ㄴ자형의 녹쓴 연통을 세워놓았었다.
《이건 우리가 뻬치까를 만든거야.》 처녀가 알려주었다.
《감자를 삶으려고.》
《헌데 빵은 어디서 구하니?》
《구할데가 어디 있나 뭐? 빵없이 살아. 참, 너 뭘 좀 먹구싶니?》
문득 생각이 난듯 처녀는 곧 어머니의 《침대》밑에서 남비를 꺼냈다.
남비안에는 조그마한 찐 호박쪽이 담겨있었다. 처녀는

그것을 두등분하여 한쪽은 남비에 도로 넣어두고 남은 반쪽을 꼬스쨔에게 주었다.
《맛있어.》
꼬스쨔는 배가 불렀지만 거절하지 않고 맛을 보았다. 정말이지 호박은 맛이 있었다. 다 먹고 얇다란 껍질이 조금 손에 남았을 때 꼬스쨔는 처녀가 부러워하는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내가 저애 몫을 먹었구나.)
꼬스쨔는 얼굴을 붉히면서 생각하였다.
《그런데 너넨 왜 소개를 하지 않았니?》
애써 부끄러운 생각을 억제하면서 꼬스쨔가 물었다.
《어디로말이냐?》
《다들 소개해가는데야 뻔하지 뭐. 볼가강 저쪽으로말이다.》
자기는 모르는게 없다는듯한 어조로 꼬스쨔가 알려주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다싶이 우린 그게 어떻게 벌어지고있는건지 모르고있어.》
《안다 모른다 할게 있니. 너넨 여기서 할노릇이 없는데.》
《네 이름이 뭐가?》
처녀애가 상냥하니 물었다.
《꼰스딴찐 뿌르긴.》
꼬스쨔는 활기를 띠고 대꾸하였다.
《네 이름은 뭐냐?》
《리자.》
꼬스쨔는 속으로 웃었다.
《리자 뽀들리자(리자－아첨쟁이)》 학교에서 한 처녀애를 그렇게 놀려주군 했던것이다. 그런 울보 처녀애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애는 그런 애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되물어봤다.

《리자?》
《응, 리자야.》
처녀애가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말하였다.
《지금은 소개해갈데가 없어. 도하장은 도이췰란드놈들이 점령했거든. 우리가 두번이나 격퇴했지만 현재는 그놈들이 다시 들어왔단다.》
《넌 어디서 그런걸 다 알았니?》
꼬스쨔가 물었다.
《다 알아. 너야 엄페호안에 들어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못보지만 난 우리 군대 있는델 갔었다. 헌데 너 그런 말하면 안돼. 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구있어. 말하지 않지?》
꼬스쨔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대꾸할바를 알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자기 집에서 떠나면 안된다는거야. 우리 어머니는 여기의 구석구석을 다 잘 알고, 어디 무엇이 있는지 죄다 기억하고있단다. 밤에 밖에 나갈 때면 흙무지같은것도 어느게 어느것인지 발로 다 알아보신단다. 그저께는 전에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엘 가셨는데 마치 눈뜬 사람처럼 말씀하시였어. 〈벽돌이 온통 타버렸구나. 그래두 집자리는 전과 같이 온전한걸. 바루 여기다 우린 집을 지어야겠다. 저기 저 구석 널마루밑에서 트렁크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겠니. 내가 냉과리들을 뚜졌지. 마루는 군데군데 탔을뿐이더구나. 바로 이 트렁크 두개를 거기서 가져왔단다. 그담엔 어머니가 제손으로 재봉침을 찾아냈는데 다 마사졌어. 그렇지만 어머니는 수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어. 전쟁이 끝나면 나한테 바느질하는걸 배워준다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명수였으니까.》

《아버지는 어데 계시니?》

꼬스짜가 물었다.

《공장에다 묻었단다. 전사자묘에다말이야.》

처녀는 꼬스짜한테 좀 물어보리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하였다. 그러나 꼬스짜는 어느새 계단에 올라서있었다.

《어머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어!》

리자가 꼬스짜를 뒤쫓아가면서 말하였다.

꼬스짜는 참모부 엄폐부결에서조차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 엄폐부로 달려갔다.

심심해하던 비둘기가 구구구구 명랑한 소리로 소년을 맞이하였다. 비둘기는 저쪽구석에서 날아나오더니 꼬스짜의 어깨우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꼬스짜가 보기에는 웨르군도 꼬스짜의 의향에 찬성하는것 같았다. 말하자면 있는 식료품을 죄다 걷어가지고 지금 당장 리자네 땅굴로 가지고 가자는것이였다. 비둘기가 말을 할줄 모르는것이 아쉬웠다. 비둘기가 말을 들을수 있다면 꼬스짜는 비둘기에게 자기가 금시 보고온것을 이야기해줬으련만…

* *

《헌데 넌 우리가 여기 산다는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니?》

꼬스짜한테서 배낭을 받으면서 리자가 물었다.

《난 고자쟁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넌 이 식료품을 누구한테서 가져왔니?》

리자의 어머니가 물었다. 리자의 어머니는 지금 병사외투를 어루만지면서 뻬치까곁에 앉아있었다.

《누구한테서라니요. 이건 내 예비품인데요 뭐.》
꼬스쨔는 리자어머니한테 대답하고는 곧 이렇게 물었다.
《집에 누가 또 있나요? 이건 누구의 외투가요?》
《지금은 물을 절약해야 한다. 리자야, 절약해야 해.》
녀인은 마치도 꼬스쨔의 질문을 못듣기라도 한듯이 말하였다.
리자는 꼬스쨔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싸모와르가 어떤가 좀 봐라.》
《어데 있니?》
《여기.》
리자는 이렇게 대꾸하고나서 꼬스쨔를 계단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제서야 꼬스쨔는 계단밑에 큼직한 싸모와르가 있는것을 알아보았다. 리자는 날쌔게 계단밑으로 기여들어가더니 싸모와르를 열었다. 거기에는 물이 가득 차있었다. 뚜껑 여닫는소리가 쩔그렁하자 리자의 어머니는 주의를 주었다.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어.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한주일은 넉넉해요. 그땐 또 눈이 올텐데요.》
리자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작별을 하면서 꼬스쨔는 리자에게 양초를 내주었다.
《아니, 그런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라구? 소용없다. … 》
리자의 어머니는 사양하였다.
다음으로 꼬스쨔는 리자에게 학습장을 주면서 자기 있는 엄페부로 오라고 초청하였다.
《우리 엄페부로 오너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좋

은 사람이야, 교원인데.》
《교원》이란 말이 리자를 무등 기쁘게 했다.
《그 사람이 어떠냐?》
《와서 보란말이야.》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내겐 또 다른 친구도 있어. 제르노브라는 반땅크총사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지. 오너라.》
엄페부에 돌아온 꼬스쨔는 침대에 올라가서 비옷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쓰고 리자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또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볼가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저렇게 남았으니 그들이 여북 곤난하랴싶었다. 하긴 잘한 일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뒤미처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병사들이 엄페부안으로 들어왔다.
꼬스쨔는 자는척하였다. 들어온 병사들의 억제하는듯한 한숨소리로 미루어보아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리라는것을 꼬스쨔는 알아차렸다. 그들의 침대는 비여있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점도록 엄페호안을 왔다갔다하다가 책상앞에 가앉았는데 전사자들의 부모,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양이였다.
다음에는 동무들의 무기를 검열하고 누군가의 자동총을 수리해주는것이였다. 그런 다음 탄알을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
(아마 소대는 또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는가보지.)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제 10 장

볼가강 저쪽에는 첫눈이 내렸다. 자볼지예의 참나무숲과 들판을 하얀 장막으로 뒤덮었다. 허나 여기 쓰딸린그라드에서는 폭탄에 파뒤집히운 땅이 겨울옷차림도 못한채 여전히 벌거숭이대로였다.

쓰딸린그라드페허의 상공에는 아직도 뜨거운 공기가 서리여있었다. 공장부락에서는 불탄 냄새가 그냥 풍기였다. 그 불탄 냄새로 하여 자질구레한 눈송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전에 다 녹아버리는것이였다. 오직 《골로드늬》섬에서만은 바람이 마치도 몰래 그런다는듯이 이리로, 골짜기안으로 눈싸락을 몇웅큼씩 뿌려던지군하였다.

그 흰 반점들이 꼬스쨔한테로 날아왔다. 소년은 다시 전연으로 나가는 소대를 뒤따라 엄페부에서 나왔던것이다.

문턱을 넘어서자 발밑에서 보잘것없는 눈무지가 기분좋게 뿌드득거리였다. 포실포실한 눈을 한웅큼 잘 손에 쥐여서 그것을 딴딴한 공처럼 꽁꽁 뭉쳐들고는 어디에건 던져봤으면싶었다.

(그렇지만 어디에다 또 누구에게?)

꼬스쨔는 눈덩이를 떨어뜨리고나서 이렇게 자문하였다. 조그마한 눈뭉치는 흰꽃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

(어째서, 어째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며 월로쟈아저씨는 내가 전연에 드나드는걸 허락치 않는담? 내가 련대에 남아있는이상 그렇게 줄창 앉아만 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앉아있거라, 공부를 해라.》라고만 하니, 이

것이 무슨 쓸데가 있단말인가? 뭐 나는 손발이 마비되길 했나 어쨌나? 에이 참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같으면 달리 처리하련만. 아버지같으면 틀림없이 나를 정찰에 내보내든가 대포로 파시스트놈들을 답새기는것을 가르쳐주셨을텐데! 아니야, 아버지가 전사하신이상 내가 할 일을 응당 내 자신이 결정해야 해. 이제 한 이틀만 더 지내보구는 정식으로 임무를 달라고 요구할테야. 옳지 않아. 다들 승낙해야지. 난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란말이야! 만일 승낙하지 않는다면 제르노브한테 갈테야. 제르노브는 진짜 내 친구니까 대번에 내 말을 알아줄거야.)

꼬스쨔는 자신을 달래면서 다시 엄페부로 돌아왔다.

저녁에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마치 꼬스쨔가 생각하고있는것을 죄다 알기라도 하는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1 대대의 무전수가 전사하였다. 무전기가 못쓰게 되였는데 련대적으로 소대에 통신수가 특무상사 단 한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마저 부상을 당한데다가 스물네시간동안을 꼬바기 련대무전기앞에서 당직을 서고있단말이다. 그러니 아마 대대의 무전기는 무의미하게 그냥 서있게 될것 같다.》

포민은 그에 대하여 병사들과의 담화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꼬스쨔는 자기의 희망을 말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조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방조한단말이냐?》

《나는 라지오소조에 다녔는데요. 수신기를 만들기까지 했답니다. 그 수신기를 월로쟈아저씨두 보셨어요. 월로쟈아저씨더러 내가 무전기 다루는걸 허락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고쳐놓겠습니다.》

《허락하게 하는거야 문제없지만 무전기는 수신기와는 다르다.》
포민이 지적하였다.
《그건 나두 알아요. 그렇지만 라지오소조에서는 우리들한테 회로도 보는법을 배워주었어요. 그리고 책임자선생님이 모든 무전장치는 다 같은 원리라고 했어요.》
포민은 꼬스쨔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럴수 없어. 허지만 1대대의 무전기를 제대로 작용하게 해놓을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화통신은 자꾸만 끊어져서 미처 끊어진 자리를 찾아내지도 못하는데 또 포사격을 해대니…》
꼬스쨔는 더는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이젠 무전수가 될수 있겠구나.)
《허락하시면 난 1대대로 달려가겠어요, 가보면 그 자리에서 무전기를 고쳐놓을수 있을지 알아요.》
《안된다. 허락할수 없어. 련대장동지는 네가 전연에 드나드는걸 금지하였다.》
포민이 꼬스쨔에게 엄격히 타일렀다.
《참,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난 제 손으로 수신기를 조립했구 회로도를 볼줄 안다구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허락하시지요?》
《안돼, 허락할수 없어.》
포민이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허락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애더러 가보라고 하시지요. 혹시 고칠수 있을런지 알겠습니까.》
병사들 가운데서 한사람이 제기하였다.
포민은 잠시 생각한끝에 동의하였다.
《좋아, 허지만 무전기를 이리로 날라오게 해야겠다.》
이윽고 꼬스쨔는 심중한 태도로 긴장해서 대대무전기의 뚜껑을 검토하였다. 뚜껑에는 회로도가 그려져있었다.

(옳지. 이건 보급선이구, 이건 작열진공관, 송화기, 저항, 헌데 이게 뭔가? 아하, 알았다. 이건 건반으로 통하는 전철선. 헌데 이 금속판들은 모르겠는데.— 뭣때문에 여긴 또 도체가 넷씩이나 있나. 축받이인가? 참 복잡한 물건인데. 허지만 매일반이야. 련결시켜봐야지.)

꼬스쨔는 속으로 궁리하였다. 병사들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쌌다. 꼬스쨔의 손은 주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꼬스쨔는 결코 서둘지 않았다. 소년은 모든것을 서둘지 않고 심중히 처리하는것을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던것이다. 그런데 이 무전기에는 마치 악의를 품은듯이 똑똑히 알수 없는것들이 수두룩하였다. 그리하여 소년은 부지불식간에 흥분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것이 명백하고 다 알만한것처럼 처신하기에 애를 썼다.

《야, 저것 봐. 저것 봐. 번쩍번쩍한다!》

병사들중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탄성이 튀여나왔다.

그는 수신주파지역의 눈금을 밝히는 콩알전구가 번쩍하는것을 알아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 콩알전구는 곧 어슴푸레해지더니 아주 꺼지고말았다.

《정말 뭔가 알아냈나보지. 야, 대단한데 꼬스쨔!》

다른 병사가 고무해주었다.

이 탄성을 듣자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도 그냥 앉아 배기지 못하였다. 그는 책상있는데로 다가가서 홍조를 띤 꼬스쨔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소란을 피우지 말고 누워들 자시오. 래일은 또 지뢰를 부설하러 나가야 하오.》

병사들이 미처 자리에 눕기도전에 경보를 울리여 그들을 일으켜세웠다.

온밤과 낮을 꼬스쨔는 무전기앞에 앉아있었으나 새빨간 콩알전구가 번쩍하는것 이외에는 아무 소득도 없

었다. 소년은 비둘기에게 먹이주는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서글픈듯 구구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둘기 생각을 하였다.

소대에 돌아오자 꼬스짜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에게 련대참모부 통신소대 사관장한테 갔다오게 해달라고 하였다.

《축전지가 상했어요. 새걸 갈아대야 하겠습니다.》

《좀 쉬여라. 꼬스쨔야, 자구 깨나면 그땐 맑은 정신으로 더 빨리 원인을 찾아낼수 있을게다.》

포민은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러나 꼬스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집요하게 졸라서 자기 뜻을 이루고야말았다. 그렇지만 새 축전지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패에 당황한 꼬스짜는 통신소대 사관장한테 조언을 받으러 갔다.

《아니 너 무전수가 되고싶어서 그러니?》

사관장이 물었다.

《그래요.》

꼬스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넌 참 좋은걸 지향하고있구나.》사관장이 고무해주었다. 《그렇지만 훌륭한 통신병이 되자면 물리와 전기를 잘 알아야 하고 무선공학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구서야 될수 없지. 출발이 상서롭지 못한걸. 허지만 괜찮아. 이제 곧 소대장이 바로잡아줄거다. 그 사람이야 이 일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니까. 3년동안이나 무선공학을 공부했거든. 그런것쯤은 제꺽 고쳐놓을거란말이야. 헌데 우선 이 소책자를 좀 읽어봐라. 뭐든지 잘 모를게 있거든 물으러 와. 도와줄테니.》

쑥스러운 생각도 들고 당황하기도 한 꼬스짜는 밤중에야 자기의 엄페부로 돌아왔다. 피로한 병사들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세상모르고 자고들 있었다. 혹

시 누군가 자지 않는 사람이 있을수 있었지만 꼬스쨔는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될수록 병사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소년은 자리에 누워 자려고 하였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등잔불을 밝히고 사관장이 준 소책자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당장 자기 힘으로 풀수 없는 많은 복잡한 수수께끼들을 내포하고있는 무전기의 금속이며 알려지지 않은 숱한 공식과 도식들이 그려져있는 책장들을 조용히 들여다볼수가 없었다.

(월로쟈아저씨나 나쟈, 제르노브들이 이렇다는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좋으련만…)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　　　*

련일 계속되는 화재로 하여 쓰딸린그라드땅이 얼마나 타들었던지 포탄이나 폭탄이 떨어질적마다 그 무슨 도자기를 두드리는것 같은 소리가 날 지경이였다. 때로 병사들은 엄페부에서 달려나와 지상에 있는것을 더 좋아하였는데 그것은 땅의 그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어떤 매캐한 불탄 냄새가 공기를 진동시켰고 지나치게 팽팽한 금선의 묶음같이 울리였다. 쇠갈기는 소리, 짜당거리는 소리, 박산이 나는 소리, 휘파람소리… 도시의 거리들과 상공에서 벌어지고있는 전투의 끊임없는 굉음으로 하여, 지뢰들의 폭발로 하여, 각종 구경포들의 사격으로 하여, 기관총과 자동총들의 사격으로 하여, 화재의 소음으로 하여 쓰딸린그라드의 상공으로는 각종 음향의 폭풍이 질주하고있었다.

그 음향들은 인간의 청각에는 간단없는 느린 호곡소리

와 울부짖음처럼 들리는것이였다. 그 음향들은 지하실에서도 전호속에서도 엄페부안에서도 안들을래야 안들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쓰딸린그라드 방위자들은 점차적으로 그 음향에 익숙해졌고 특별히 귀를 강구지 않아도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터득하였다. 참 이상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런 끊임없는 전변속에서 이야기뿐만아니라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이 하는 신문독보도 가려들을수 있고 지어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도 다 가려들을수가 있었다. 어디건 지하실에 모여들어서는 노래들을 부르는데 옛 로씨야의 곡조가 느린 노래, 유쾌한 노래, 서정적인 노래들을 부르는가 하면 현대의 전투적인 노래, 훈련곡, 행진곡들을 불러대기도 하였다. 그런게 바로 쏘베트사람들의 기질인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재난통에도 락심하지 않으며 락천적으로 지낼수 있는것이다.

반땅크포사수 미하일 제르노브는 초시기에는 미심쩍어하는 눈길로 어리둥절해서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있었으나 점차 그의 음악적인 넋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음악이 그를 끌어당기였다. 그러자 그는 참지 못하고 문화회관으로 달려갔다. 거기 즉 지하실에는 무너져서 내리드리운 천정밑에 연주용 피아노가 있었다. 그 놀라운 《씌우개》에 뒤덮인 피아노는 무릎을 꿇고있는 동작이 굼뜬 네발가진 동물을 련상시키는것이였다.

제르노브는 피아노앞에서 주춤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마치 피아노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이 좁은 방안이 흔들리고 천정이 완전히 무너져내릴가봐 두려워하는듯한 표정이였다.

지하실 창문으로 공장마을 건물들의 잔해가 타는 불빛이 비쳐들었다. 제르노브는 그 불빛이 비치는데로 나서서 손으로 수북한 먼지를 털고 라크칠을 한 피아노뚜껑

을 조심히 열었다. 번쩍거리는 피아노는 그쯘한 이발같은 건반을 드러내놓았다.
《이건 참 멋있는데. 우린 또다시 만났군그래.》
제르노브는 자동총을 피아노의 한쪽구석에 기대세우면서 중얼거리였다. 번들거리는 시꺼먼 얼굴에 귀얄같은 수염이 더부룩한 낯익은 큼직한 얼굴이 비치였다.
《야 ,이 꼴 좀봐! 세관게두 자랐네. 뭐 괜찮아. 음악회도 아니니까.》
그러자 대뜸 자기의 어린 시절이며 학교 그리고 군함의 갑판과 아득히 넓은 흑해가 생각났다.
(그때로부터 만 이태가 지났을뿐인데 퍽그나 오래된것같군. 전쟁의 나날은 무척 긴것 같은가보지.)
제르노브의 눈앞에는 대학생이던 자기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그는 해군에서 제대된 후 곧 음악대학에 입학했었다.
《동무에게는 재능이 있소. 젊은이, 직심히 공부하시오.》
교수는 제르노브에게 이런 말을 한두번만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다. 별안간 전쟁이 터졌던것이다. 그리하여 제르노브는 다시 함대에 서게 되였고 또 얼마만에는 쓰딸린그라드부근으로 왔다.
(괜찮아.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음악대학에 가야지!)
그 순간 그는 또 정다운 씨비리의 봇나무수림과 밀림속 오솔길을 회상하였다. 강물흐르는 소리, 원시림 설레이는 소리가 현실처럼 귀에 쟁쟁하였다.… 손이 호주머니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실탄을 집어냈다. 뾰족한 탄알끝이 피아노우에 쌓인 수북한 먼지우로 조심조심 가볍게 스쳐지나갔다. 제르노브는 다섯줄의 평행선을 아주 면밀하게 그어나갔다. 그우로 꼬리 긴 올챙이같은 음악부호들이 뛰놀듯이 그려졌다.…

동녘에 노을이 불타자 지하실에서 힘있는 화음이 울려 나왔다.

그때 꼬스쨔는 엄폐부에서 밖으로 나왔다. 피아노소리를 듣자 소년은 대번에 제르노브가 타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여기서는 음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더니 자기는 피아노를 타는군그래.)

꼬스쨔는 속으로 이렇게 질책하면서 현장에서 그를 붙들리라고 마음먹었다. 소년은 얼른 전호속으로 뛰여들어 피아노소리에 의하여 방향을 잡으면서 문화회관쪽으로 갔다.

(친구를 만나봐야지. 그는 웬일인지 좀해서 오지 않거든.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무슨 일로 그를 기분상하게 했나보지. 좋은 사람들인데 피차에 투덜거리면서 어성버성한 나한테는 숨긴단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들을 화해시킬수 있을가? 게다가 또 될수록 자세히 물어보기도 해야겠는데. 말하자면 진짜 정찰병들이 통신전달을 위해서 비둘기를 어떻게 리용하고있는가? 만일 무전기수리가 실패로 돌아가면 정찰나갈 준비를 해야 할게 아닌가.)

꼬스쨔는 이런 궁리를 하였다.

음악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와지기도 하였다. 꼬스쨔는 귀를 강구고 그 자리에 굳어져있었다. 소년은 음악이 그처럼 힘있는것인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음악이 그처럼 마음을 격동시키는 훌륭한 책처럼 읽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꼬스쨔에게는 씨비리에 대한 제르노브의 이야기도 회상되였다. 피아노소리는 마치 제르노브가 이야기한 모든것을 눈으로보다 귀로 들을수 있도록 꼬스쨔를 도와주는듯하였다.

… 밀림속 벽지에서 숲에 사는 새들의 혼성합창이 들려

오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 거센 흐름에 밀려가는 돌들이 구으는 은근한 소리가 가락맞게 은은히 울리고있다.
어딘가 아주 가까이에서는 꾀꼴새들이 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른다. 그러자 별안간 숲이 설레이는 소리가 커지더니 다시 화음 그리고 무엇이 터지고 깨지는듯, 신음소리를 내는듯하였다. … 전쟁이다! 전쟁이다!
팽팽하니 켕겨진 피아노줄의 변조를 들으면서 꼬스쨔는 씨비리초원과 숲속으로 뻗은 먼길을 선히 그려보았다. 사람들이 전선으로 나간다. 발뒤축을 탁탁 구르고 발밑에는 땅이 쿵쿵 울린다. 새로운 전투적인 노래들이 울려온다.

일어나라 거창한 나라여
결사전에 일떠서라…

음악의 힘에 짓눌린듯한 꼬스쨔는 움직이는것을 두려워하는듯 까딱 장승처럼 서있었다. 피아노는 일선군인들의 거창하고도 간고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래, 웨르군은 어떠냐?》
꼬스쨔가 지하실에 들어서자 제르노브가 물었다.
《살아있어요. 나는 벌써 그놈에게 우편을 나르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좋아, 포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수 있어.》 제르노브가 경고하였다.
《어째서요?》
꼬스쨔는 이렇게 묻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시상공에서 적비행기들이 우르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좋다. 후에 하자. 뛰여가거라. 빨리 자기 엄페부로 달려가라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을 치게 돼.》

제르노브가 말하였다. 교통호로 해서 경무소대 엄폐부까지 끄스쨔를 데려다 주고나서 제르노브는 한달음으로 전연으로 나갔다. 그런데 끄스쨔도 이날은 엄폐부안에 앉아있을 잡도리가 아니였다. 고사포수들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가서 나쟈를 만나야지. 우린 또 비행기를 쏴떨굴수 있을거야.)

*　　　*

《항공!… 항공!…》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항공, 항공, 항공!》

감시원들이 빈 포탄깍지를 두드려대면서 경고하였다.

끄스쨔는 그에는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머리를 들자 곧 다시 주저앉았다. 전호우로 석대씩으로 편성된 적의 습격기편대가 지나갔다. 둘, 셋, 네개편대였다.…

습격기들은 처음에는 폭탄을 떨구더니 다음에는 기관총과 대포들로 련발사격을 시작하는것이였다. 비행기편대는 몇차례씩 빙빙 선회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편대가 대들었다.…

이때까지 적은 포위된 련대의 저항을 지상부대의 힘으로는 좌절시키지 못하였다. 그러자 파시스트 통수부는 이 구역에다 수백대의 습격기를 투입하였다. 이것은 히틀러의 공중비적다운 횡포한짓이였다.

끄스쨔는 반나절이나 깊은 전호속에 앉아있었다. 그칠줄 모르는 폭발소리, 충격, 울부짖는 싸이렌소리로 하여 소년은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였다.

격파된 적비행기 두대가 련대의 구역에 떨어졌다. 한대는 끄스쨔가 앉아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공장건물의

벽에다 대가리를 처박았다. 비행사는 락하산으로 뛰여내렸는데 전연 저쪽에 착륙하였다.

(이건 분명히 나쟈가 쏜거야.) 꼬스쨔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쟈는 용감하니까. 그런데 난 어째서 미처 나쟈를 돕지 못했담? 우린 더 많이 쏴떨구었을건데… 언제면 동맹국들이 제2전선을 펼텐가? 언제면 그들이 비행기며 폭탄을 만들고있는 도이췰란드놈의 공장들을 짓부셔버릴 작정인가? 왜 그들은 질질 끌기만 하는지?)

꼬스쨔는 병사들과 지휘관들한테서 매일같이 들어오던 말을 속으로 되뇌이였다.

해넘어가기전에 련대에 대한 돌격과 폭격이 멎었다. 꼬스쨔는 전호에서 기여나와 격추된 비행기가 있는데로 갔다.

(이놈의 비행기는 지난봄에 도시중심에 서있던 그《윤께르쓰》와는 전혀 다른걸. 그놈은 길다란게 덤불색과 풀색으로 칠을 했던데 이놈은 짧은게 모래색이거든.)

어찌하여 도이췰란드놈들은 그런 비행기들을 이리로 몰아왔을가? 이 비행기는 쓰딸린그라드전선으로 급작스레 이동시킨 《씨칠리야》분함대에서 날아온것이라는것을 꼬스쨔는 알지 못하였고 또 알수도 없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은 미처 도색을 고쳐할 여유가 없었던것이다. 꼬스쨔가 만일 도이췰란드말을 알았더라면 격추된 비행기의 조종실에서 뜯어낸 알루미니움판대기에 씌여있는 글을 대번에 읽었을것이였다.

(좋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한테 보여드려야지. 그이는 읽을수 있을테니까.)

그 알루미니움판대기를 호주머니에 쑤셔넣으면서 꼬스쨔는 결심을 하였다.

련대참모부로 가는 길에 꼬스쨔는 짜개진 백양나무어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뭉청 잘리운 우듬지가 사람의

머리처럼 밑둥만 남은 큰 가지에 걸려있었다. 백양나무는 한층 더 기울어졌건만 여전히 드팀없이 서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누가 누워있군그래.… 영낙없이 부상병일테지.)
끄스쨔는 누워있는 사람한테로 바투 다가가자 그만 몸서리를 쳤다.
투들투들한 백양나무밑둥을 그러안고 발로 뿌리를 버디딘채 웬일인지 머리를 거북스레 뒤로 젖힌 자세로 나쟈가 누워있었다. 희고 여윈 목에 있는 새까만 반점(기미)이 유별나게 눈에 띄였다.
《나쟈! 나쟈!》
끄스쨔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소년은 싫든좋든 매일 보지 않으면 안되였던 전사자들과 부상병들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전쟁인데 희생이 없을수 없다.》
어른들은 소년에게 이런 말을 여러번 하였다. 그렇지만 끄스쨔는 백양나무곁에서 목격한 그 광경을 참을수가 없었다.
나쟈의 죽음은 소년을 격동시켰다.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쥔 소년은 일어섰다. 그리고 까딱 움직이지 않고 먼데를 바라보았다. 소년은 마치 거기 그 먼데서 나쟈를 학살한 도이췰란드놈을 발견하기라도 한듯하였다. 손이 저절로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갔다. 호주머니에는 알루미니움판대기가 들어있었다. 얼음쪼각같은 그 쇠판이 허벅다리를 지지는듯하였다. 끄스쨔는 증오에 찬 눈길로 격추된 비행기를 노려보았다.
《바로 저놈이 나쟈를 죽였지!》
끄스쨔는 고사포수들이 자기 곁에 와선것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덤을 파러온 사람들이였다. 삽날들이 튕기는 소리를 내면서 탈대로 탄 땅에 박히였다. 밤자

갈처럼 구워진 흙덩이들을 큼직큼직하게 파서 무져놓으며 고사포수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들을 하였다. 끄스쨔는 뜨직뜨직하는 비애에 찬 말마디들을 들었을뿐이였다.

《나쟈는 파편에 맞아 가슴에 부상을 입었지.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글쎄 거기서 도망을 쳤단말이요. 그런데 그만 그 날개가 싯누런 추격기가 나쟈의 등에다 대고 련발사격을 했다니까.》

《아침에는 음악을 듣고 좋아도 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갔으니… 가엾기도 하지. 좋은 처녀였는데.》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비애와 분기가 울리였다.

고사포수들의 등에다 눈을 준채 끄스쨔는 나쟈가 전투에 돌입한것을 상상해보았다.

《내가 좀 돕겠습니다.》 끄스쨔는 삽을 빌리려고 하였다.

《나쟈는 우리 학교 지도원이였습니다.》

고사포수들은 한결 더 맹렬히 삽질을 하였다.

《련대장동지한테 가봐라. 그분은 병원에 계신다.》

그들중 한사람이 허리도 펴지 않은채 말하였다. 끄스쨔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그들이 나쟈에 대한 마지막의무를 다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을뿐이였다. 끄스쨔는 감히 그들의 눈을 쳐다볼수가 없었다. 쳐다보기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쏟아질것만 같았기때문이였다.

제 11 장

(그러니 나더러 탄알밑에 어깨를 내대라고 부추긴셈이지! 그리고 발에는 모름지기 큼직한 파편이 솟구쳤구. 나쁜짓은 꾸며내지 말아야 하는거야. 손과 발에는 붕대

가 감겨있으니.) 찌또브는 가슴을 꽉 조이는 붕대를 들여다보면서 한탄하였다. (허지만 일없어. 우리는 한두알의 탄알이나 너절한 파편따위로 해서 휴식중에 《차렷》하고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할만한 그런 나약자들이 아니니까.)

《무전수!》

《예.》

무선소대 사관장이 대답하였다. 찌또브는 자기가 부상당하자 곧 그를 자기가 있는 위생중대 엄폐부로 불러왔던것이다.

《무전기가 어데 있소?》

《여기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고있소?》

《우리를 찾고있습니다. 정황을 묻습니다.》

《동무는 뭐라고 대답했소?》

《당신이 나더러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무전수가 상기시키였다.

《옳소. 그렇지 않으면 동무는 전세계에다 소문을 퍼뜨리게 될게요. 지휘관이 부상당했다는걸말이요. 그러면 적은 좋은 정보를 잡아쥐게 되지.》

《저도 그렇게 리해했습니다.》 사관장이 동의하였다.

《자, 그럼 이제는 전달하시오. 〈견지하고있다. 적의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전달했소? 이제는 지도를 놓고 포병사령관 뽀자르스끼장령에게 이 수자들을 전달하시오.》

《그분은 방금 문의해왔습니다. 어디다 대고 사격하라는가구요.》 사관장이 잠간 송화기에서 입을 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당신의 기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자들, 수자들을 전달하시오.》

련대장이 요구하였다.
찌또브는 부하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면서도 정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깨의 상처의 아픔이 그를 성가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거치른 대답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그런데다가 전연의 사태는 금시 라지오로 집단군참모부에 전달된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조성되였다. 이때까지 적의 항공은 공중비적들로부터 련대를 엄호하던 고사포부대의 거의 전체 성원을 앗아갔다. 매우 엄중한 손실은 련대에 배속된 반땅크대대의 포병들을 잃은것이였다. 그리고 또 전연을 지키는 중대들에서도 손실이 컸다. 전투에서 단련된 많은 근위병들이 대오에서 떨어져나갔다.
그렇지만 찌또브는 련대가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기 부하들에게 훨씬 더 간고한 시련도 능히 이겨낼수 있다는 신심을 백방으로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련대장은 쓰딸린그라드에서의 곤난한 정황을 적의 대병력이 아군수비대가 포위되여있는 전연에 쏠릴수록 다른 구역들에서 도시를 방어하고있는 부대들이 한결 더 수월해지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치미는 상처의 아픔으로 하여 이를 꽉 사려문 찌또브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것이 어떻게 결판이 나려는가? 다시 일어설수 없단말인가? 기운을 내야 한다. 기운을 내야 해. 허나 우선 좀 누워있어야 할가보군.…)
가까이에서 지도를 다루는 바스락소리가 났다.
《엉? 뭐요?》 눈을 뜨면서 찌또브가 물었다.
《집단군참모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우리 부대가 견지하라고 합니다.》
사관장이 지도에 그려진 표식을 가리키면서 전달하였

다. 그 표식은 집단군참모부의 작전에 의하여 그려진것이였다.
《그렇소. 좋소. 알았소. 우리 부대가 관건적인 진지—마마예브 꾸르간, 〈붉은 10월〉구역과 중심부의 측면을 굳건히 견지하고있소.… 포부대들과 독립중대의 지휘관들은 곧 나한테로 오게 하시오.》
찌또브는 명령하였다.
사관장은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환자는 안정해야 한다는 시비인듯하였다.
《부르시오. 부르란말이요!》 찌또브는 이렇게 반복하고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반땅크사수 제르노브도 부르시오. 그 동무를 반땅크구분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야겠소.》
잠시후 호출을 받은 지휘관들이 한사람한사람 찌또브한테로 왔다. 제르노브만이 오지 않았다.
그 시각에 제르노브는 나쟈의 무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그는 채양없는 해군모를 한손에 쥐고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자를 딴딴한 덩어리처럼 꼬깃꼬깃 꾸기였다. 마치도 이 시각부터 그 채양없는 모자(용감한 붉은 해병의 사랑하는 머리장식)가 필요없이 된듯하였다. 이리로 달려왔던 련락병이 위생중대에서 부른다고 전달하자 제르노브는 흙냄새도 싱그러운 봉분우에다 자기의 채양없는 모자를 올려놓더니 전혀 딴방향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그는 허리도 굽히지 않고 맨머리바람으로 전연쪽으로 걸어갔다. 련락병이 보기에는 반땅크총사수는 울고있는것 같았다.
《저런 돌덩이같은 사람이 저리도 물렁물렁해지다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보면 어쩔수가 없는가보지.》

*　　*

지하병원의 일반복도와 련대장의 특별병실을 갈라놓은 휘장앞에서 걸음을 멈춘 꼬스쨔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찌또브가 누군가와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우익에서는 형편이 어떻소?》

《견지하고있습니다. 련대장동지!》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

《쎌레즈네브에게 탄약을 공급하였소?》

《벌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빵은?》

찌또브가 다시 물었다.

《예, 예, 그것두 보냈습니다.》

《그 익측을 잘 도와줘야겠소. 그들은 우리와 거의 련락이 끊어졌단말이요.》

마침내 찌또브는 흰 휘장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의사에게 물었다.

《누가 왔습니까?》

《꼬스쨔입니다.》

의사가 대답하였다.

《그애를 나한테 오게 해주십시오.》

꼬스쨔는 어느새 문안에 들어서있었다. 방에서 나오는 1대대장을 지나보내자 꼬스쨔는 찌또브한테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자 의사가 통으로 소년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 군의동무, 그 젊은이를 들여놓지 않자는거요? 그애가 우리 부대의 못하는 일이 없는 기술자라는걸 모른단말입니까?》

찌또브가 말하였다.

꼬스쨔는 쓱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월로쟈아저씨가 무전기수리에 대한걸 알고있는게 아닌가?! 분명히 사관장아저씨가 그걸 찌또브아저씨한테 말했나보지. 옳지 않은데! 허지만 일없어.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핀잔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거야. 그런데 부상을 당했으니 가엾지. 내가 죄다 이야기했어야 할건데. 영낙없이 공장담벽에다 대가리를 들이박은 그놈의 비행사가 아저씨에게 부상을 입혔을거야. 어쩌면 아저씨가 그렇게 되였담?!)

꼬스쨔는 가슴이 아프도록 애석한 생각이 들었다.

찌또브를 보자 소년은 당황해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말하였다.

《월로쟈아저씨, 당신을 볼가강너머로 보내려고들 하더군요.》

《볼가강너머로가 아니라 볼가강으로지.》 찌또브는 롱담을 하였다. 《그렇지만 난 안가련다. 우선 히틀러도당을 몰아내고봐야겠다. 놈들을 몰아내면 그땐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멀지 않았지요?》

꼬스쨔는 기뻐하였다.

《뭐가 멀지 않았단말이냐?》

《제2전선말입니다. 아니 아저씨는 모르시는가요?》

《나라구 어떻게 모든걸 다 알겠니?》

《모두 알고있던데요.》

그러면서 꼬스쨔는 제2전선에 대하여 자기에게 짐작되는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거기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꼬스쨔는 자기는 부상당한 월로쟈아저씨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소년은 나쟈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렇지만 짜개진 백양나무밑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꼬스쨔의 말을 들으면서 찌또브는 무엇인가 다른 일을

생각하고있는듯하였다.

《월로쟈아저씨, 아저씨는 도이췰란드말을 아시지요?》

꼬스쨔는 호주머니에서 알루미니움판대기를 꺼내면서 수집은듯이 물었다.

《응? 뭐라구? 어디 좀 보자.》 찌또브는 알루미니움판대기를 쭉 훑어보고나서 대답하였다. 《〈씨칠리야〉분합대라, 이건 제2전선에서 날아온것이다.》

《아니예요. 이건 도이췰란드놈 비행기에서 뜯어온건데요.》

꼬스쨔는 부정하였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 비행기들은 히틀러놈이 아프리카에 상륙한 영국군과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만든것이란다. 그렇지만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거기는 잠잠하단다. 동맹국들이라는게 공격을 하지 않고있지. 쓰딸린그라드가 함락되기를 기다리고들 있는거야.》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우정 이 비행기들을 이리로 보낸셈이군요.》

꼬스쨔가 알아맞추었다.

《결국 그런게지.》

《그게 무슨놈의 동맹국들입니까? 〈마찔드〉와 〈왈렌따이〉는 듐께르끄에 남겨두고 이제는 이 비행기들을 이리로 보내다니.… 어째서 그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나요?》

《그건 그자들에게 물어봐야 할게다.》

《그렇다면 제2전선은 어떻게 되나요?》

《펴게 되겠지. 다만 틀림없이 우리한테 그것이 소용없이 될 때라야 펼것이다.》

찌또브는 기침을 깇기 시작하였다. 곧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찌또브를 자리에 앉히고나서 두손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잡으면서 고개짓으로 꼬스쨔더러 나가달라고 부탁하였다.

*　　*

연막을 친것 같은 하늘이 련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상공에 낮추 드리워있었다. 무너져내린 건물의 벽들마저 시커먼 구름속에 떠도는 이랑을 지을 정도였다. 대지는 불탄 냄새와 폭발물들의 악취로 숨쉬고있었다. 여기저기 폭탄구뎅이들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여올랐고 그 둘레에서는 엄폐부와 전호들의 웃설미가 타는 불길이 번쩍거리였다.

어깨죽지속에 고개를 움츠린 꼬스쨔는 오늘 자기가 볼수 있었던 모든 일을 서글픈 심정으로 회상하면서 경무소대 엄폐부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무엇을 해야 한다? 월로쟈아저씨며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와 온 련대를 어떻게 무엇으로써 돕는다? 내가 할만한 일을 찾아낼수 없단말인가? 아니야. 다만 그분들은 내 말을 제대로 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한다니까. 그게 분하단말이야. 참 지금 여기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렇지만 아버지는 안계신다.… 좋아. 뭣인가 내스스로 궁리해내야지. 아버지없이 홀로 남은 사람이 나뿐이 아니야. 옳지. 리자한테 들려봐야겠군. 리자와 둘이서 무엇이건 생각해내야지!)

꼬스쨔는 리자네가 살고있는 땅굴속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그러나 이런 어둠속에서 어떻게 그 땅굴을 찾아낸담! 그것들은 영낙없이 막혀있을텐데. 곁에까지 갈수 있어도 룡마루가 없는 지붕인데 알아볼수 있겠는가. 둘레는 온통 평평한 곳이니…

별안간 꼬스쨔앞에 땅속에서 솟아나듯이 웬 사람이 불쑥 솟아났다. 그는 외투를 여미면서 경무소대 엄폐부로 재빨리 걸어가는것이였다.

(저 사람은 리자네 집에서 나온 사람일거야. 리자의 어

머니가 누군가의 외투를 안고있었지. 헌데 그게 누구일가? 아니 이거 내가 왜 멍청하니 바라보고만 있담! 그의 뒤를 따라갔어야 하는건데. 그러면 대번에 경무소대에서 누가 땅굴에 드나드는가 하는걸 알아낼게 아니야.)

경무소대의 엄페부에서는 끄스쨔를 침묵으로 맞이하였다. 외출을 하면서 누구한테도 미리 알리지 않고 나가서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하러 갔었는가 하는것을 누구도 묻지 않았다. 아마 이날 저녁에는 그럴 경황이 없었던 모양이였다.

저녁식사를 가져왔다. 모두 서로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말없이 식탁에 마주앉았다. 끄스쨔는 우정 식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소년은 리자의 어머니가 안고있던 외투가 누구의것인지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허지만 어떻게 알아볼것인가. 외투들은 죄다 재빛이고 꼭같은 단추들이고 고리들과 허리띠가 달려있는데 외투깃밑에 어떤 표식이 달려있었던지 그걸 유심히 봐두지 않은것이 실책이였다. 그런데 또 병사들중에서 어느 누구도 끄스쨔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소년은 눈을 보고 판단하는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저 련락병은 접시우에 고개를 숙이고있긴 하지만 눈은 이쪽을 훔쳐보고있단말이야. 알만해. 눈여겨 살피고있거든. 괜찮아. 좋은 병산데. 저 사람은 내가 무전기를 수리할적에 나를 지지해줬으니까 이제 한번 더 땅굴에 가서 결정적으로 알아봐야지.)

포민이 들어왔다.

《잘 있었니, 끄스쨔!》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그는 색연필갑을 끄스쨔에게 내주면서 상냥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건 련대장동지가 너한테 보낸거다. 〈그림을 그리게 주시오.〉 하면서.》

《고맙습니다.》 끄스쨔는 감사의 정을 담아 포민을 쳐

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르노브는 어디 갔을가? 아침에 약속하기를 이리로 오겠노라고 했는데. 난 제르노브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지금 화해시켰으면 좋겠는데. 제르노브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나, 원.)

제 12 장

10월말경에 추이꼬브장령의 제62집단군은 세개의 개별적인 수비대들로 구성되여있었다. 그 하나는 북쪽변두리에 배치되였고 다른 하나는 공장구역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주력)는 도시중심에 배치되여있었다. 히틀러의 장령들은 승리를 축하할 차비들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놈들이 예상할수 없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포위된 수비대들은 개별적인 전사들이 그러했듯이 주택을 방어하면서도 층계를 하나 내주는가 마는가 하는 전투적 과업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하였고 또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여기 쓰딸린그라드에서는 보통병사들이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계획에 대하여 히틀러의 많은 장령들이 부러워할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리해하고있었다.

제62집단군의 주력과 차단된 찌또브의 련대는 자기의 계선을 계속 고수하고있었다. 포위된 련대에는 탄약과 식료품에 대한 엄격한 절약제도가 확립되였다.

물러서는것은 곧 조국을 배반하는것을 의미한다. 포위된 련대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그렇게 단정하였다. 쓰딸린그라드땅의 극히 조그마한 한쪼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조국의 떼여낼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여

있었다.

이무렵 쓰딸린그라드방어자들의 불굴의 완강성에 부딪친 적은 공격을 중지하였다. 전선은 고착되였고 잠정적인 평온이 깃들었다.

*　　　*

포민은 꼬스쨔와의 사업을 위하여 이 평온을 리용하는것을 늦잡지 않았다.

《이봐 꼬스쨔, 일에 착수하기로 하자.》

련대장한테서 돌아오면서 포민이 말하였다.

《어떤 일말인가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지친듯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꼬스쨔가 물었다.

《바로 이런 일을말이다.》

몇분이 지나갔다. 그러자 꼬스쨔는 자기앞에 중사 포민이 서있는것이 아니라 진짜 교실에서처럼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서있는것만 같았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엄페부라는것을 잊은듯하였다. 선생님의 눈은 웬일인지 유별나게 빛나기 시작하였고 목소리는 싱그럽게 힘차게 울리였다.

그리고 꼬스쨔자신도 마치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것을 잊은듯하였다. 이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야말로 얼마나 격정적인 사람인가! 만약 전시환경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밤낮없이 공부를 할것이다. 숙제는 무엇이건 가장 어려운것을 내줄것이고 그리고는 다정히 웃으면서 말할것이다.

《풀어봐. 풀어봐. 이보다 더 어려운것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하면서 풀기 시작할것이다. 그것도 마치 임의의 숙제가 그의 참가밑에 작성되기라도

한듯이 간단하고도 빠르게 풀고있다. 잘 기억해들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그리도 수월히 풀릴가! 허지만 자기가 풀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하였다.

《어렵지. 허지만 곤난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수 없단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상기시켰다. 《그것은 네가 비둘기를 가지고 노는것과는 다르지. 무엇이나 어렵게 얻은것, 싸워서 얻은게 소중하고 잊혀지지 않는 법이란다. 어데서나 또 어떤 조건에서나 공부할수 있고 또 해야 해. 지금같은 때에도말이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참말이지 얼마나 많은 기사들, 농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요구되겠니?…》

이따금 참모부나 전연에서 포민을 부르군하였다. 꼬스쨔를 두고가면서 포민은 그가 독자적으로 풀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복잡한 숙제들을 내주군하였고 어쩌다가 일하는 짬짬에 물어보군하였다.

《그만하면 됐니, 더 하겠니?》

꼬스쨔는 얼굴을 찡그리였으나 역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더 내주세요.》

《좋다. 그만하자. 누구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는 이 문제들을 못풀게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것이였다.

《풀겠습니다.》

숙제풀이에 달라붙으면서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때로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내동댕이치지만 잠시 궁리하고는 다시 교과서를 집어들군하였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는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꼬스쨔는 진정 아버지, 할머니, 학교 동무들을 회상하

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럴 때면 얼마전의 생활화폭들, 말하자면 뻬오네르부대의 떠들썩한 유쾌한 모임들이며 산보와 원족, 체육경기장면들이 마치 영사막에서처럼 눈앞에 얼씬거리는것이였다. 그런 순간이면 그의 앞에는 또다시 나쟈가 나타나군하였다.

나쟈를 회상할 때이면 꼬스쨔는 부지불식간에 반땅크총사수 제르노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가?

그렇지만 금시 제르노브에 대한 소식이 왔다. 나쟈가 전사한 후 그는 어디론가 떠나갔다가 이제야 돌아왔으나 누구와도 영 말을 하지 않았다. 침울하고 악에 받친듯한 그는 진종일 자기의 반땅크총을 붙안고 홍장앞에 엎드려 있었다. 마침내 제르노브가 꼬스쨔를 찾아왔다. 장대한 체구에 수염을 밀지 않아 더부룩하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여있었다.

《이건 네것이다.》

그는 꼬스쨔에게 책 두권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난 이 책들이 아저씨한테 있다는걸 알고있었어요.》 책을 받으면서 꼬스쨔가 말하였다.

《나쟈가 주었지요?》

《그래.》

제르노브가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짓고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꼬스쨔는 나쟈의 죽음을 제르노브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슴아파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아저씨는 이 책들을 읽으셨는가요?》

책장을 뒤적이면서 꼬스쨔가 물었다.

《〈스파르타크〉는 좋은 책이더라. 그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옳아요.》 꼬스쨔가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건 불에 대한건데 아마 필요없을거예요.》

《아니, 어째서?》

제르노브는 놀라는 표정이였다.

《불은 흉악한것이예요.》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는데 불을 리용하는 놈들이 우리의 적이다. 나는 이 철학이 네게는 배우기 어려우리라는것을 잘 안다. 허지만 병사들은 리해할게다.》

꼬스쨔는 제르노브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병사들은 리해할수 있는데 나는 왜 리해할수 없을가?…)

이즈음 적의 포부대는 포위된 수비대에 대한 사격을 완전히 중지하고있었다.

그리고 단지 가끔 정찰기들이 페허의 상공을 떠돌뿐이였다. 참호들과 엄페부들에서는 일상적인 전호생활이 흘러갔다.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방어진지를 한층 더 완성하였고 무기를 수리하였으며 외투와 신발을 꿰맸고 쏘베트 최고사령부의 종합보도를 읽고 토의하였으며 병사다운 우스개소리들로 즐기였다.

꼬스쨔는 제르노브의 권고대로 하였고 《스파르타크》에 대한 책을 랑독하였다. 처음에 꼬스쨔는 그것이 쓸데없고 부질없는 놀음같이만 생각되였다. 그러나 첫날저녁에 벌써 병사들이 자기의 랑독을 주의깊이 듣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바투 다가들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매개 말마디, 매 글줄을 놓치지 않고 똑똑히 알아들으려는 잡도리들이였다. 그들은 마치도 피곤같은것은 잊어버린듯이 꼬스쨔의 입을 바라보면서 스파르타크가 승리를 거둘적마다 쾌재를 부르군 하는것이였다. 꼬스쨔 자신도 책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을, 근위련대의 병사들이며 지휘관들과 무의식중에 대비해볼 정도로 내용에 심취되였다.

꼬스쨔의 생각에는 제르노브야말로 스파르타크처럼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인것 같았다. 꼬스쨔는 일부 장들을 암송해가지고 엄페부안에 조명이 없을 때면 병사들에게 그것을 랑독해주군하였다. 꼬스쨔는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지지를 받았을뿐아니라 련대장의 감사를 받을만한 대단한 일을 했던것이다.

련대장은 꼬스쨔에게 다음과 같은 글쪽지를 보내여 왔다.

《꼬스쨔, 참으로 기쁘다. 도와줘서 고맙다.》

바로 그날 리자가 경무소대 엄페부에 왔었다. 이제는 리자가 세타를 입었고 발에는 군대장화를 신고있었다. (누가 리자를 위하여 선심을 썼을가? 전날밤 땅굴근방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가? 다름아닌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일것이다.)

포민은 대뜸 리자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 이것은 꼬스쨔로 하여금 자기가 알아맞췄다는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하였다.

리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꼬스쨔가 자기 호주머니에다 배급주는 빵과 사탕 몇쪼각을 넣어주는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날부터 리자는 아침이면 꼭꼭 여기에 왔다가는 행복에 겹고 기쁨에 차서 돌아가군 하였다. 리자는 학교를 그리워하였고 선생님을 만날적마다 무등 기뻐하였다. 리자는 옹근 한학급이 될만한 아이들을 모집하겠노라고까지 말하였다. 꼬스쨔는 리자의 그 말을 심드렁하니 대하였다. 꼬스쨔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성이 없는 노릇이였다. 꼬스쨔의 생각에는 자기와 우연히 남게 된 리자를 제외하고는 포위된 수비대안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것 같았다. 이런데는 전투에서 단련된 사

람과 반드시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들만이 살수 있을것이였다.

이따금 꼬스쨔는 자기를 소대에 받아주도록 포민을 설복해보려고 애를 쓰군하였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였다. 포민은 확고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였다. 사실인즉 요즘 그는 비둘기로 하여 꼬스쨔를 꾸짖는 일이 없었고 제르노브와는 기분좋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너의 위치는 여기 엄폐부안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련대장의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그이를 존경한다면말이다.》

포민은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이 말에 꼬스쨔는 가슴이 아팠다.

*　　　*

예상외의 변동의 날이 닥쳐왔다.

포민은 다섯사람밖에 남지 않은 자기 소대와 함께 과업을 받고 떠나갔다. 문제는 모든 무전기들이 쓸모없이 된데 있었다. 집단군참모부와의 련락이 끊어졌던것이다. 제62집단군 주력까지 뚫고들어가서 련계를 맺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만일 정황이 허락한다면 련대로 돌아와야 하는것이였다.

도시중심에로 가자면 오직 두가지 방법이 있을뿐이였다. 첫째는 련대를 집단군주력에서 갈라놓은 적의 종심을 뚫고가는것이며, 둘째로는 볼가강을 건느는것인데 볼가강은 끊임없는 사격밑에 놓여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위험천만하였다. 그러나 련대의 운명은 위험성을 고려할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꼬스쨔는 며칠동안 포민과 헤여져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 작별은 영원한 리별이 될수도 있는것이였다.
(내가 무전기를 수리할수 없는게 참 유감스럽구나!)
꼬스쨔는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이번에는 자신의 당증과 병사들의 공청원명부같은것은 참모부에 가져가고 그밖의 일체 문건들과 집주소는 꼬스쨔에게 남겨두었다. 꼬스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무언중에 알아차렸다. 그러니만치 어째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출발직전에 포민은 훈장이며 시계와 함께 자기의 상의를 꼬스쨔한테 맡기였다.
《만일 저녁이 되여도 돌아오지 않거든 통신소대 사관장, 무전수말이다. 그한테 가서 같이 지내든가 아니면 그 동무를 이리로 불러오도록 하여라. 의좋게 지내야 한다.》
작별을 하면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이렇게 말하였다.

* *

(어째서 사관장을 불러와야 하는가? 아직도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고있는가보지. 에이, 단단히 질서를 세워야지, 마루를 훔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는 숙제풀이에 달라붙어야지. 그러느라면 시간이 흘러가겠지.)
꼬스쨔는 소대를 바래우고나서 자신에 대하여 궁리하였다.
한시간이 지났다. 엄폐부안은 정말 깨끗해졌고 자기식대로 기분이 좋게 되였다. 병사들의 사품들은 시렁우에 차곡차곡 정돈되였고 마루는 말끔히 닦아져있었다. 꼬스쨔는 훈장이 달리고 시계가 들어있는 포민의 상의는 따로 개여놓았다.
(표창이니 선물이니 하는거야 잘 보관해야지.)

또 한시간이 지났다. 책상우에는 공책과 책들이 펼쳐졌으나 꼬스쨔는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다. 한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를 느끼지 않았기때문이기도 했고 또 수업을 할 날자가 막연하기때문이기도 하였다. 하루나 이틀이 걸릴수도 있고 또 한주일이 걸릴수도 있으니 소대가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지 않은가.

세시간만에 책상우에다 비둘기를 올려놓은 꼬스쨔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다. 엄폐부안은 텅 빈게 쓸쓸하였고 왜 그런지 마치 소나무로 된 받침목이 내려앉아서 구부정하니 휘여든것 같은데 그 받침목에 있는 굵은 가지의 절단면이 부릅뜬 눈을 방불케 하면서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송진이 번쩍거리는게 마치도 따분해서 울고있는것만 같았다. 비둘기마저도 줄곧 목을 쑥 뽑고 머리를 문쪽으로 돌린채 기다리고있는듯하였다. … 그렇지만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도 소대의 병사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꼬스쨔는 애가 타기 시작하였다. 그는 고독감을 느끼였다. 시간은 심술을 부리듯이 느리게 흘렀다.

애수를 쫓아버리느라고 꼬스쨔는 비둘기를 상대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아니 너 쓸쓸해하는구나? 놀러 나가자니? 그래 가자. 그런데 어델 간다? 아니야, 넌 우선 뭘 좀 먹어야 해. …》

비둘기가 쌀알을 쪼아먹는동안에 꼬스쨔는 준비를 하였다. 그는 아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똑똑한 결심이 없었다. 그러나 엄폐부밖에 나서자 하수도뚜껑문이 그를 유혹하였다. 여러번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이것 봐. 웨르군, 우리 정찰하러 가자.》

만일 이 순간 누구든지 꼬스쨔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그의 눈에 시꺼먼 동자들이 툭 불거진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 아마 최후로 소년다운 장난기와 신중치 못한 어린애다운 결단성이 그에게 키질을 하는듯하였다.

양수탑과 수압탑은 깨여져있었다. 하수도와 배수관들에는 물이 한방울도 없었다. 끄스쨔는 주요간선들중의 한 간선으로 들어갔다. 그리로는 엎디여서야 움직일수 있었고 어떤데는 기여서나 다닐수 있었다.

《이게 바로 출격이라는게야!》

끄스쨔는 쾌재를 불렀다. 소년은 관속으로 전진하였다.

그의 생각에는 속도가 꽤 빠른것 같았다.

제 13 장

이른아침 밝기전에 리자는 땅굴에서 나왔다. 리자는 자기가 한 약속을 실천하여야 하였다. 옹근 한학급이 될만한 아이들을 모아오는것말이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로 하여금 내가 허튼소리를 했다고 생각지 않게 해야지.)

리자는 속으로 다짐을 하였다.

리자는 첫 차례로 학교동무인 기라를 찾아갔다. 기라는 우괄노이거리에서 살고있었다. 기라네 아버지는 전선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첫 폭격때 돌아가셨고 기라자신은 미처 후퇴를 하지 못하고 맏언니와 함께 도시에 남아있었다. 리자는 기라를 전 주일에 만났던 그 지하실에서 찾아냈다.

《까쨔는 어데 있니?》 리자가 물었다.

《그 애는 박격포병들한테 간호원으로 갔는데 다시는 못올거야.》

기라가 대답하였다.

《아니 왜?》

《그 애는 죽었어.》

《그럼 넌 나와 같이 가겠니?》

리자가 물었다.

《어디로 말이냐?》

리자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며 끄스쨔에 대해서와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있는데 대해서 기라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처녀들은 둘이서 뻬쨔한테로 갔다. 기라는 뻬쨔를 《집시뻬까》라고 불렀다.

《어째서 넌 그 애를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니?》

리자가 기라를 나무랬다.

《내가 별명으로 부르는게 아니야. 그 애를 그렇게들 부른단다. 그 애의 계모는 나쁜 사람이였어. 그래서 그 애는 여름이면 이모네 집에 가서 살고 봄에는 누나한테서 지내고 겨울에만 집에서 살았단다. 1년내내 떠돌아다녔거든. 바로 그래서 그 애를 그렇게 〈집시〉라고들 부르게 되였지. 허지만 그 애는 좋은 애야. 그런데 지금은 혼자 남았단다. 촌에서 달려나와보니 여기는 아무도 없더라나.》

기라가 설명을 보탰다.

뻬쨔 역시 우골노이거리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마마예브 꾸르간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그는 《바리까드》공장의 본채 사무소 지하실로 이사를 갔다. 사무소는 두번 직탄을 맞아서 방공호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그렇지만 뻬쨔에게는 자기 통로가 있었다. 그는 지하실창문으로 해서 철근사닥다리를 타고 그리로 빠져들어가군 하였다.

기라는 뻬쨔한테 가는 길을 잘 알고있었다. 뻬쨔는 기

라한테 남모르게 이야기해주면서 자기한테 놀러오라고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기라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제는 리자와 둘이여서 무섭지 않았다.

지하실창문으로 다가가서 어둑시근한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두 처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먼저 기여들어갈것인가?

서둘러야 했다. 어느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병사들이 처녀들을 알아볼수 있고 그러면 그들을 참모부로 보낼것이다.

《그 앤 바로 여기서 산다.》기라는 구멍을 고개짓으로 가리키고 리자를 가볍게 떠밀면서 말하였다. 《내 선참으로 기여들어갈게 너 뒤지지 말아라.》

빼쨔가 날마다 오르내리는 층계를 발로 더듬어갔다.

리자는 미끄러져서 어딘지 밑으로 허궁 떨어졌다.

《앗!》 리자의 입에서 비명이 튀여나왔다.

리자는 탁자곁에 떨어졌다. 그러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벽에다 몸을 꼭 붙였다. 쿵 소리를 듣고 빼쨔는 벌떡 일어섰다.

《거 누구야?》

《나야.》

리자를 뒤따라내려가면서 기라가 대꾸하였다.

《후, 계집애두!》 빼쨔가 욕지거리를 하였다. 《이리루 일어서서 손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만다.》

《난 벌써 떨어졌다얘.》

리자가 일어서면서 솔직히 말하였다.

《아프니?》

빼쨔가 물었다.

《아니.》리자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너 있는데는 이렇게 캄캄하니?》

《이제 곧 불을 켤테야.》빼쨔가 성냥을 득 그으면서 대

답하였다. 《어째서 왔니?》
리자와 기라는 잠자코 있었다. 처녀들은 우선 좀 두루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꺼낼 작정이였다.
뻬쨔는 지하사무실을 차지하고있었다. 그 사무실은 폭격시에 공장지배인이 일을 보던 방이였다.
《야, 너의 집은 참 좋구나. 뻬쨔야!》
전화며 푹신푹신한 장의자를 둘러보고나서 기라가 말하였다.
《특별한게 아니야.》 뻬쨔가 숨김없이 말하였다.
《전화는 먹을것을 주질 않아. 헌데 나는 먹구싶단말이다. 어제 어떤 병사한테 청을 했더니 나를 참모부로 보내질 않겠니. 간신히 도망을 쳤지. 여기 있으면 누구도 나를 찾아내지 못해. 내게 동무가 있었는데 꼬스쨔라구. 너 그 애를 알지. 기라야, 꼬스쨔 장꼬브말이다.…》
《알아.》 기라는 황급히 일어섰다. 《우리 맞은편에서 살았단다.》
《그 애가 어디 가서 빵과 통졸임을 구해오군했는데 이젠 그 애가 없어.》
처녀애들은 마주 쳐다보았다.
《죽었니?》
《죽기나 했으면! 학살당했어. 비행기한테말이다. 내 손으로 그 애를 묻어주고싶었지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구락부벽밑에서 죽었는데 낮에 그만 벽이 무너져내려서 묻혀버렸지.》
리자는 곧이곧대로 이야기하기로 맘먹었다.
《이봐, 뻬쨔. 얘, 이렇게 하자. 자, 이 빵과 사탕을 먹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는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러다가 도시가 해방되면 곧 진짜 학교엘 가잔말이다. 찬성이지?》
《그런데 거긴 너희와 함께 누가 있니?》

뻬쨔가 물었다.
《우리들이지.》
기라가 당당히 대답하였다.
《계집애들뿐이란말이가? 흥, 너희라! 울보들말이지. 안갈테다.》
《아니야, 뻬쨔야. 넌 공연한 이야길 하는구나.》 리자가 반박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우리들을 지도하고있단다. 우리한텐 사내애두 있어. 꼬스쨔말이야.》
《무슨 꼬스쨔말이냐? 그앤 학살됐는데.》
《아니야. 그건 다른 꼬스쨔야. 그 애한테는 비둘기가 있어. 참 좋은 애란다. 용감하구. 난 그 애가 맘에 들어.》
《다 좋은 사람들이야.》
기라가 활기있게 대꾸하였다. 사실인즉 아직 포민이나 꼬스쨔의 얼굴을 모르는것이였으나 기라로서는 그렇게 지지해나서야만 하였다.
《꼭같이 말하는구나.》 뻬쨔는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리자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꼬스쨔는 큰 애가? 만약 지분거리기 시작하면 감당해낼수 있을가?》
리자는 싸움질같은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배급을 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장담하고나서 죄다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뻬쨔는 빵을 두쪼각으로 끊어서 한쪽은 사탕을 찍어서 부적부적 깨물면서 먹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쪼각은 서랍속에 감추었다. 그런 다음 잠시 생각하더니 빵을 호주머니에 쑤셔넣었다.
《또 누구를 더 부르겠니?》
뻬쨔가 리자에게 물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죄다 부르련다. 옹근 한학급을 모아

야 해.》

《응, 그럼 좀 생각해봐야겠다.》

*　　　*

삐쨔는 리자와 기라를 자기만 아는 비밀통로를 거쳐서 주조직장까지 데리고갔다. 그들은 어딘지 공장건물들의 페허, 지하실, 관들, 굴들로 해서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걸어갔다. 삐쨔에게는 자기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리로는 삐쨔외에는 다니지 않았다. 삐쨔는 또 한 사내아이가 있는데를 가리켜주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애한테 가지 않았다. 그는 그 소년의 별명 《불길 와냐》를 대주었을뿐이였다.

《주근깨가 많은 빨간머리애야.》

삐쨔가 설명을 보탰다.

와냐는 이전에는 교예단가까이에서 살았다. 그는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출연을 즐겨 구경하였다. 반드시 글리질 시치꼬브나 두로브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공상하였다. 허지만 쓰딸린그라드에서 전투가 시작되였던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폭격때 뜨락또르공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와냐는 자기가 갈데를 알지 못하였다. 준비를 하는동안에 그만 갈길이 끊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얼마전에 그는 자기의 거리를 떠났다. 그리로 파시스트 땅크들이 밀려들었던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바리까드》공장에 거처하고있었다.

와냐는 리자와 기라를 전혀 다르게 맞이하였다. 와냐는 그들이 자기의 계선으로 몰래 다가오는것을 알아차리자 쇠줄을 채찍삼아 준비해서 그것을 등뒤에 감추고 있었다.

여차하면 그것을 휘휘 휘두르면서 냅다 뛰여 자기 집으

로 도망칠 순간을 대기하고있는것이였다. 와냐는 성이 독같이 올라있었다. 뻬쨔는 이미 한번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와냐한테 가지 않았던것이다.

대체로 와냐는 아이들과 섭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파시스트놈들을 복수할 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어쩌다가 한번 자기를 기관총수로 받아달라고 지휘관한테 청을 드린적이 있었다. 지휘관은 받겠다고 동의해놓고는 병사를 시켜서 그를 대대참모부로 보냈던것이다. 와냐는 거기서 도망을 치고말았다.

여기 《바리까드》공장에서 그는 파시스트놈들을 잡기 위하여 그 무슨 함정을 마련해놓았다는것이였다. 거기 대해서 와냐는 뻬쨔한테 이야기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뻬쨔가 그것을 훔쳐보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그를 자기있는데서 쫓아냈던것이다.

《방해했단 봐라. 뒤통수를 후려갈길테다.》

기라와 리자가 온것으로 하여 자기의 모든 계획이 파탄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와냐는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혼을 내워서 쫓아버릴 작정이였다.

리자와 기라는 어느새 와냐가 숨어있는 벽장결에 이르렀다. 이제 모퉁이를 꺾어돌면 그만이였다.

와냐는 채찍으로 철판을 후려칠 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렇지만 리자는 그의 성난 얼굴을 알아보자 대담하게 그를 맞받아 걸어나갔다.

《와냐야, 잘 있었니!》

리자는 이 한마디를 와냐가 저도 모르게 《잘 있었니.》하고 대꾸를 할만치 아주 불시에 말하였다. 채찍이 손에서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자 와냐는 성난 어조로 말하였다.

《정탐하러 왔지?》
《아니, 뭐라구? 와냐!》
리자는 펄쩍 뛰였다.
기라는 말을 꺼내는것을 두려워하였다.
리자는 다만 와냐의 성난 얼굴을 빤히 쳐다볼뿐 그가 금시 자기한테나 기라한테 덤벼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썩 사라져라. 성했을때 말이다.》
리자는 자기들과 함께 가도록 와냐를 설복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안갈테다. 너희들한테 가서 난 할 일이 없어.》
저녁에 리자와 기라는 참모부로 왔다. 뻬쨔도 어느새 거기에 와있었다.
바로 그날저녁에 이전 공장합숙자리의 지하실에서 어떤 병사가 처녀애 하나를 데려왔다.
그 애는 병들고 굶주려있었다. 그 처녀애를 위생중대로 보냈다.
리자는 기쁜 마음으로 엄페부로 달려갔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에게 새로운 애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포민도 꼬스쨔도 보이지 않았다.

제 14 장

기관총화력에 짓눌리운 포민은 볼가강기슭에서 두개의 큰 돌틈에 엎드려있었다. 은폐호에 남은 그의 소대병사들은 탄알들이 그 돌들에 맞아 불꽃을 튕기는것을 빤히

보고있었다. 포민이 약간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땅바닥에 눌러붙고말것이였다.

이미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 포민은 이 위험한 길을 떠나면서 전소대가 이런 포화를 헤치고 빠져나가는것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였었다. 파멸이 있을뿐이다. 그러니만치 혼자라야 한다.

《지체말고 련대로 돌아들 가시오.》 포민은 자기의 소대병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동무들은 거기서 더 필요하오. 련대장동지한테 임무는 수행될것이라고 보고하시오.… 꼬스쨔를 잘 돌보시오. 될수록 비둘기를 작작 가지고 놀게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시오. 하긴 동무들이 그 비둘기를 제르노브에게 돌려주면 더 좋으련만…》

《알았습니다.》

포민이 상부를 위하여 남겨둔 소대병사들중 한사람이 대답하였다.

허지만 어느새 벌써 한밤중이 되였다. 흉장에 몸을 바싹 붙인채 병사들은 눈을 떼지 않고 포민을 주시하였다. 벙끗거리는 신호탄들이 삽시에 강기슭을 로출시키고 볼가강의 일부를 혹은 계선장을 혹은 포민이 엎드려있는 돌들을 어둠속에서 드러내군하였다. 포민은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있었다. 제때에 달려나갈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있는듯도 하고 정말로 총탄에 의하여 눌러붙기를 기다리고있는듯도 하였다.

볼가강으로는 《엷은 얼음》인 가을철의 류빙이 떠내려갔다. 큰 얼음덩어리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겹겹이 쌓였다. 수면은 얼룩이 져서 스산해보였다. 얼음장들사이에 끼운 떼목들과 매생이들, 나루배들과 짐배들이 깨여진 널판자들, 건초단들, 삭정이들, 통나무들—이 모든 거창한 재빛 잡동사니들이 강흐름을 타고 억제할수 없이 아래로 움직이고있었다. 마치 볼가강이 기슭의 흐름을

거슬러 치달리는듯하였다. 바스라지는듯한 물소리는 무거운 한숨소리를 련상시켰다.

그렇다. 간고한 시기가 닥쳐왔다. 볼가강은 벌써 몇주일전에 쓰딸린그라드를 볼쇼이땅에서 떼여냈는데 이것은 포민이 포위된 수비대와의 련계를 맺기 위하여 뚫고들어간 집단군 주력부대가 찌또브의 련대와 마찬가지로 기아공급에로 넘어가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병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앞으로 내달릴 차비들이였다. 포민을 구출하여 련대로 돌려보내자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명령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였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일어서면 전투경비의 비밀초소가 로출될것이였다.

《엎드려있소.… 우리의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엎드려있소!》후 한숨을 지으며 사관장이 말하였다. 《무엇을 해야 한담?》

그는 강물이 얼음에 뒤덮인 통나무 두대를 포민이 있는데로 밀어보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통나무그루들은 기슭에 가 부딪쳤다. 뒤미처 마치 흐름에 떠박질리운듯이 밀려나더니 멀리로 둥둥 떠나갔다. 찬찬히 보아야만 지금 그 통나무들이 좀 유별나게 떠가는것을 가려볼수가 있었다. 누군가가 될수록 빨리 기슭의 후미에 가숨으리라는 생각밑에 그 통나무를 조종하고있는게 틀림없었다. 도이췰란드기관총수놈들이 그것을 알아보았는지 어쨌는지는 알수 없으나 긴 련발사격이 물우에 비발치듯하고 벙끗벙끗하는 불줄기가 통나무 바루 곁에 쏟아지자 포민은 그만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개새끼들!》

포민을 주시하던 병사들중 한 병사의 가슴속에서 튀여나온 말이였다.

그 순간부터 병사들은 볼가강도 바라볼수 없었고 피차

얼굴을 쳐다볼수도 없었다. 그들은 포민이 총탄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

그렇지만 포민은 자기의 갈길을 계속 가고있었다.
타르처럼 꺼분꺼분한 검은 남색 강물이 그를 꽉 움켜잡은듯하였다. 숨을 쉴만한 근력도 모자라는것 같았다. 물은 손발을 죄였다. 포민은 얼음장을 붙들고있기가 매우 힘겨웠다. 때때로 심장이 멎고 가슴이 얼어들었으나 의식만은 얼어들지 않았다.
(끝까지 가내야지. 끝까지 가내야지.)
포민은 속다짐하였다.
한시간후에 그는 이미 집단군참모부에 가있었다. 사령관은 그를 곧 만나주었다.
찌또브련대가 적과의 싸움을 계속하고있다는 말을 듣자 장령은 벌떡 일어섰다.
《살아들 있단말이지?!》
《그렇습니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알만하오.》
포민은 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령관은 어버이답게 그를 포옹하였다. 그리고 《장하오. 장하오.》 거듭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옆에 있는 병실로 갔다.
《포병동무들에게 동무네 계선이 어딘지 이야기해주오. 그런 다음엔 푹 쉬오. 몸을 녹여야지.… 그리고 몸이 녹거든 나한테 들리시오. 동무가 되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봐야겠소. 얼음장들의 흐름을 거슬러서야 떠나지 못할게 아니요.》
몸이 녹자 포민은 자기 부대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것이 생각났다.

*　　*

포민네 소대가 과업을 받고 떠나간 바로 그 시각에 찌또브련대장은 정찰병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과업을 제시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의 배후로 뚫고들어가서 파시스트놈들이 얼마만한 병력을 동원하여 어느 방향으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있는가를 확인하라는것이였다. 찌또브련대장은 적들은 강이 완전히 얼어붙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예측하고있었다.

저녁이 되였으나 포민한테서는 아무런 신호도 오르지 않았다. 련대장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요사이 집단군참모부와의 련계는 그에게 있어서 공기와도 같이 필요불가결한것이였다. 그는 감시병들에게 요구하기를 포민네 소대가 간 방향에서 발견하는 모든것에 대하여 한시간에 한번씩 보고하라고 하였다. 수화기는 머리맡에 놓여있었다. 련대장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있었건만 《볼가강으로 살얼음이 떠내려간다.》는 소식이외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통신병들과 감시병들은 련대장에게 다른 소식을 알릴것이 없었다. 밤이고 캄캄하였다. 가장 믿음직하고 용감한 반땅크총사수 제르노브를 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주력부대와 련락이 끊어졌소. 포민이 그리로 떠나갔소. 만일 래일 아침 포민한테서 신호가 없으면 그땐…》

《알았습니다. 저는 방금이라도 그리로 갈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제르노브는 별로 생각하는바도 없이 또박또박 말하였다.

《흥분하지 마오. 위험한 길이니만치 잘 생각하고 준비

하시오.》
렴대장은 미리 경고하였다.
간단한 담화끝에 찌또브는 제르노브더러 포민네 엄폐호에 들려서 꼬스쨔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만약 그 애가 심심해하거든 내가 이리로 오란다고 일러주시오. 전화직일을 서란다고.》
제르노브는 물러갔다.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나도 꼬스쨔는 오지 않았다.
《련대장동지.》수화기에서 들려왔다. 《신호를 접수했습니다. 세개의 푸른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가닿았구먼! 장하오! 회답신호를 하시오.》
찌또브련대장이 명령하였다.
이 소식은 번개처럼 온 련대에 퍼졌다. 그러나 날이 밝을무렵인 바로 그 시각에 파시스트놈들은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였다. 포위된 전기간에 련대가 이겨낸 모든 공격중에서 가장 가렬한 공격이였다. 히틀러도당은 포위된 수비대를 제62집단군 주력부대가 지원하기전에 소멸해치우려고 서둘러대는것이였다.

*　　*

《거기 있는 동무들은 모두 이리로 오시오!》
찌또브의 명령이였다.
위생병들과 통신병들, 서기들, 간호원들 할것없이 모두가 과업을 받았다. 찌또브는 의사와 자기들을 호위하는 두 병사를 아이들한테로 보냈다.
《그 애들을 가장 믿음직한 은페호에 숨기시오. 아이들을 구원해야 하오!》
혼자 남은 찌또브는 문득 련대방어의 중심에 서있는 중

대들은 적의 대병력의 제압밑에 이때까지의 진지를 버렸을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진지에서는 미처 강화할새도 없이 공장쪽으로 물러가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점차 가까와오는 맞불질과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그에게 그렇게 귀띔해주는것이였다. 드디여 엄페부로 뛰여오는 아군병사들의 발구름소리가 들리였다. 그들은 지휘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리로 달려온것이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결사전에서 자기 지휘관을 가슴으로 엄호할줄 모르며 지휘관이 맨나중에 전사하도록 할줄 모르는 사람은 병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 엄페호근처에서 싸우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도 좌우익측으로부터 적의 반격을 받을수 있으니까.)

련대장은 귀를 강구면서 정세를 판단하였다. 련대장은 여기에 하루만 누워있은것이 아니다. 그러니만치 천정의 약간한 진동에 의하여서도 탁상등의 불이 흔들거리는데 의해서도 어느 구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지 알아맞출만큼 모든 음향에 익숙되여있었다. 그는 엄페부의 사면벽을 꿰뚫고 전투마당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것을 보고있는듯하였다.

《우익, 우익!》

그는 전화통에다 대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대꾸를 하지 않았다. 련락이 끊어졌던것이다.

력량상 몇배 우세한 적은 여러 구역에서 련대의 방어를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저기에서 도이췰란드기관총수들이 방어종심에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전호의 서쪽을 차지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약화될대로 약화된 대대의 병력을 그리로 쏠리게 하였다. 앞으로 한 둬시간만 더 지나면 그때는 한두사람인게 아니라 전련대가 파멸을 당

하게 될것만 같았다. 여기서는 누구도 포로로 투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포위된 수비대의 매개 방어자들은 앞가슴호주머니에다 탄알 한알씩을 《자기를 위하여》따로 남겨두었다.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편이 훨씬 낫다!》는것이였다. 찌또브는 자기의 병사들이 필요한 순간에는 진정 그렇게 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는 달리 결심해야 하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제손으로 죽는것은 아직 이르다. 《자기를 위하여》남겨둔 탄알로 적을 쏘는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포위된 수비대가 살아있다는것을 아군주력부대에서 알고있지 않는가. 즉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수하고 또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상을 어떻게 하면 병사들에게 전달할수 있으며 침대에 붙들려있는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모범을 보여줄수 있겠는가?

문이 여닫기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르노브가 천천히 걸어들어왔다. 반땅크총사수의 이마에는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가 어디에 있었으며 적과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몰랐고 또 제르노브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꼬스쨔는 가버렸습니다. …》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이렇게 보고하였다.

《혼자겠지… 물론.》

찌또브가 엄격히 지적하였다.

《찾아봤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제르노브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대답하였다.

(간혹 가다가 꼬스쨔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괴로운 심정에서 벗어나게 할 작정으로 내가 그때 가져다준 그 비둘기가, 통신전달을 위하여 비둘기를 리용하고있는 정찰병에 대한 몇마디 이야기가 꼬스쨔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단말인가?)

《정황을 보고하시오.》
련대장이 요구하였다.
제르노브는 가까스로 머리를 쳐들었다.
《곤난합니다. …》
《한걸음도 물러서서는 안되오!》 찌또브련대장은 힘있게 명령하였다. 《담가를 가져오시오. …》
련대장의 목소리에서 제르노브는 절망이나 당황해하는 음조를 느끼지 못하였다. 반대로 련대장의 음성에서는 승리할 때까지 원쑤와 싸우리라는 확신성과 불요불굴의 의지가 풍기였다. 이 확신성은 느닷없이 그에게, 제르노브에게 감염되였다. 그리하여 이리로 돌아올적에는 적과의 최후접전을 생각했고 그 접전에서는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은 마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듯 이렇게 대답하였다.
《명령만 하시면…》 잠시후 찌또브는 전투대형들속에 가있었다. 그를 제르노브가 이 전호에서 저 전호로 옮겨갔다. 이번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련대장이 어찌하여 전투에 뛰여들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았다. 그들이 나타나는데서는 질서가 정연해지군하였다. 찌또브는 당황함을 결정적으로 일소하고 대렬에서 떨어져나간 지휘관들 대신에 새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구분대를 지휘할대신에 자신이 기관총앞에 엎드려있거나 저먼저 공격에로 내달리는 지휘관들은 직책에서 해임시키였다.
《대담성과 용감성을 발휘하기는 전투를 지휘하는것보다 수월한 법이요.》
련대장은 그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파시스트놈들이 뚫고들어오자고 각별히 아득바득하는 공장울타리안에서 찌또브는 남은 대포와 박격포들을 한데 집중시키고 순환방어를 조직하였다.
몇시간을 계속하여 대부대들로 산병선을 겹겹이 펴면

서 련대를 이쪽저쪽으로 공격케 하였다. 수비대들은 호상 고립된 몇개의 부대로 되고 말았다. 찌또브는 그중 한 부대에 남아있었다. 련대장을 무엇보다도 흥분시킨것은 파시스트놈들이 공장구역을 꿰질러간 골짜기를 차지하는데 성공한것이였다. 거기 골짜기에는 박격포중대들의 화력진지가 집중되여있었다. 박격포병들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밑에 반공격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박격포병들을 제압한 파시스트놈들은 자기네 병력을 다른 구역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의 전술은 단순한것이였다. 놈들은 포위된 수비대를 각개격파하자는것이였다.

찌또브련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구역의 차례가 되였다.

적은 여기에다 각종 포와 박격포로 작렬한 금속을 한두톤만 쏟아붓지 않았다. 기관총들은 타다남은 관목들의 그루터기를 낫으로 베듯이 잘라버렸다. 그 관목들은 한때 공장울타리를 장식하던것이다. 박격포탄들은 흙무지와 키를 겨루었고 포탄들은 파괴된 벽들의 잔해들을 파헤치였다. 공장울타리 상공에는 벽돌먼지와 범벅이 된 피빛처럼 시꺼먼 연기구름이 수시로 비끼였다. 파편들에 더워진 땅은 매캐한 먼지와 폭발물에 의하여 연기를 피워올리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공장방어자들의 저항을 중지하게 할것만 같았다. 그러나 일정한 대상에 그처럼 사격을 집중함으로써 파시스트놈들은 공격방향을 로출시키군 하였다. 찌또브는 공격하는 파시스트놈들을 좌우익측으로부터 준비된 화력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하였다.

그리하여 공격에 나선 적의 산병선들은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파시스트놈들은 바투 접근하여 참호전을 벌리는데 성공한 순간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때면 날창들과 칼들, 삽들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콩볶듯하는 기관총사격소리도 수류탄폭발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고함소리, 울부짖음, 대기를 째면서 번뜩이는 삽날들과 날창들이 참호로 쏜살같이 넘나들었다. 전투는 몇시간씩 계속되였다. 참호들, 전호들, 교통호들은 파시스트놈들의 시체로 꽉찼다. 수비대의 방어자들가운데서도 손실은 있었다. 그러나 그들가운데 자비를 비는 부상병들은 없었다. 총을 잡을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순간까지 싸웠다.

저녁무렵이 되자 공장구역방어자들의 머리우로 볼가강저편에 배치된 《까츄샤》—위력한 분사추진식포의 포탄들이 요란한 소음과 함께 날아가서 포위된 수비대를 반대하여 집결한 파시스트놈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감사의 정을 안고 포민중사를 생각하였다.

《죽는것은 결코 늦지 않다.》 찌또브련대장은 자기네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삶을 사랑한다.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우리는 오직 살고 또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처럼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입들을 맞추는것이였다. 실로 몇시간전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더 살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었다. 아무리 간고하다고 해도 생활이란 정말 소중하고 정다운것이다.

*　　　*

꼬스쨔는 자기의 멋진 정찰이 원쑤격멸에서 큰 역할을 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훌륭한 하수도관

들이며 틈바구니로는 어느 어른정찰병도 기여다녀본적이 없지 않은가.

꼬스짜는 무슨 무데기들이며 습기니 어둠이니 하는 숱한 장애물들을 극복하였다. 때때로 그는 방향을 잃어서 자기가 어디로 기여가고있는지 알지 못한적도 있었다. 땅밑이나 관속에서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똑똑히 알수가 없는것이다. 꼬스짜는 하수도뚜껑문안에서 전진을 멈추고 차디찬 벽에다 몸을 바싹 붙인 다음 귀를 강구었다. 하수도관속으로는 요란한 웅웅소리가 울려퍼졌고 탄성있는 폭풍이 불어들었다. 그런 음향에 의하여 꼬스짜는 자기가 어딘가 파시스트놈들의 전연가까이에 와있다는것을 짐작하였다. 그러니만치 로출되지 말아야 하는것이였다. 놈들의 예비병력을 알아내기 위하여서는 적의 방어종심깊이 기여들어가야만 했다.

꼬스짜는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하수도관속을 오래오래 기여갔다. 그 관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직은 알지조차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때때로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팔굽밑과 무릎아래로는 자질구레한 돌들이 자꾸만 마치였다. 그 잔돌들이 바지를 뚫고 살가죽에 박히는통에 무릎을 내짚을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가만히 누워서 좀 쉬여가지고 다시 전진해야만 하였다. 세멘트부스레기들이 깔려있는것으로 보아 꼬스쨔는 지금 폭탄이 각별히 많이 떨어진데를 기여가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여기가 어딜가? 온 쓰딸린그라드땅을 11월초에 이미 온통 찢어발기다싶이하고 파뒤집다싶이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불탄냄새와 폭발물냄새가 이렇게 풍기지 않는가. 꼬스쨔는 눈을 뜨지 않았다. 부질없는 일이였다. 어차피 캄캄하니까. 꼬스쨔는 앞을 못보는 리자의 어머니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는것을 한층 더 똑똑히 상상할수 있었다. 모든 일을 손더듬으로

할테니말이다. 문득 방싯이 열린 눈시울사이로 광선이 들이비치기 시작하였다. 어슴푸레한 흰빛이 째듯이 비치는가 하면 희미해지기도 하였다. 꼬스쨔는 바삐 서둘렀다. 웅뎅이안에 있으면서 그는 불빛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치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리하여 기쁜김에 눈을 뜨고 소리를 질렀다.

《아아!》

마치도 누군가가 두개의 못을 그의 각막에다 힘껏 들이박는듯하였다. 아프고 캄캄하였다. 머리를 땅에다 꼭 붙인 꼬스쨔는 점도록 까딱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있었다.

(말들을 탄갱속에서 끌어낼적에는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눈을 싸맨다고 했지.)

꼬스쨔는 돈바쓰의 늙은 탄부에 대하여 쓴 책에서 읽은것을 회상하였다.

더 앞으로 기여가는것은 무의미할듯싶었다.

꼬스쨔는 틈바구니로 기여나와 깊숙한 폭탄구뎅이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폭탄구뎅이에 내버린 두개의 생생한 기관단총탄피와 한개의 카빙총탄피 그리고 조그마한 담배꽁초들이 꼬스쨔를 기쁘게 하였다. 그것들을 집어든 꼬스쨔는 거기 찍혀있는 로씨야것이 아닌 글자들을 가려보았다.

(아니, 이거 내가 어디에 와있담!)

아닌게아니라 폭탄구뎅이 언저리에 기여올라온 꼬스쨔는 파시스트놈들의 보병부대의 큰 집단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서 그는 한참동안이나 감시할수 있었다. 그러다가 파시스트놈들이 자기쪽을 살피고있다는것을 깨닫자 지체없이 폭탄구뎅이밑으로 구을러내려가 하수도관의 비좁은 틈바구니안으로 들어가서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어디 찾아낼수 있으면 찾아내보라지! 하는 식이였다.

꼬스쨔는 같은 식으로 몇번 되풀이하였다.

(저 파시스트놈들을 족쳐야 한다! 정찰보고와 함께 비둘기를 날려보내야 할 때가 왔다.… 월로쟈아저씨가 보고를 읽고 지도에다 표식을 할테지. 그러면 우리편 대포들이 곧 놈들을 족쳐대기 시작하겠지.)

그렇지만 보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많은 집들, 자질구레한 골짜기들, 전호들, 엄페부들, 교통호들을 죄다 그려야 할텐데. 그렇지만 그런것들이 얼마나 많기에… 종이가 모자랄텐데, 그리구 또 그런 보고는 비둘기가 날라가지 못할텐데. 어떻게 한다?

꼬스쨔는 생각을 굴리였다. 그는 진짜 정찰병들은 지도를 통채로 운반하는데 비둘기를 리용하고있지 않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다. 비둘기는 군용지도의 좌표들이나 기록하고 간단한 지형표식과 암호수자들이나 적어넣을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종이쪽지나 날라가는것이다.

꼬스쨔는 역시 자기가 본것은 비록 짤막짤막하게라도 죄다 적어넣기로 결심하였다.

《월로쟈아저씨, 여기 파시스트놈들이 욱실거립니다. 놈들은 아마 아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있는가봅니다. 그런데 저기 또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무데기로 밀려오고있습니다. 아, 저놈들을 전멸시켰으면! 대포건 박격포건 있는대로 다 동원하여 이쪽으로 답새겨대십시오!》

이 글줄들을 써놓고난 꼬스쨔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종이장우에는 겨우 파시스트놈들의 몇개 그루빠만이 들어갈수 있었다. 나머지것들은 어데다 그린다? 놈들이 저기 얼마나 많다구…

종이장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놓고 꼬스쨔는 연필과 종이에 대고 화풀이를 하였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을 도무지 뜻대로 적을수도 그릴수도 없었다. 그의 생

각에는 이 모든것에 대해서는 구두로나 이야기할수 있을 것 같았다.

(젠장, 어떻게 하면 좋담. 파시스트놈들은 다 가버릴텐데! 비둘기와 함께 이 글쪽지만이라도 보내야지. 비둘기는 이 글쪽지를 제꺽 날라다줄거야. 그런담에는 내가 직접 가서 죄다 시시콜콜이 이야기해야지. 서둘러야겠는걸…)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하도 지쳐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지만 꼬스쨔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소년은 하수도관속을 기여서 아군진지쪽으로 되돌아왔다.

어둠속에서 무슨 간막이벽같은데 부딪치고 하다가 갱도안에 굴러떨어져서야 비로소 처음에 통과한 그 하수도관이 아닌 다른데로 기여가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길을 잘못 들었던것이다.…

꼬스쨔는 아침녘에야 겨우 하수도관 뚜껑문을 찾아내서 밖으로 기여나왔다. 거기서 꼬스쨔는 자기 련대의 박격포 화력진지에 부딪치였다.

(이젠 난 제 집에 왔다. 여기서는 자기편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거람? 박격포들은 온통 여기저기 되는대로 던져져있고 판석들은 모두 뒤집힌데다가 산사람이라고는 한명도 없다! 도랑속에 몸을 숨긴 꼬스쨔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박격포들이 있는데로 파시스트 두놈이 다가오는것을 발견하였다. 놈들은 어째선지 기관단총들을 땅에다 겨누고 사격을 하는것이였다. 그런 사격이 한번 있은 후 놈들앞에는 한사람이 일어나서 버티고서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후려갈기지는 못하였다. 한놈의 파시스트가 그의 가슴에다 대고 련발사격을 하였다.

(짐승같은놈들, 저놈들은 부상당한 박격포수들을 쏴죽이고있구나!)

어딘가 저기 그리 멀지 않은곳, 공장울타리안에서는 그침없이 기관총들과 기관단총들소리가 뚜루룩거리였다. 수류탄터지는 소리도 들리였고 이따금 고함소리도 들려왔다.

(지금 아군은 어디 있을가?)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파시스트놈들앞에서 일어섰던 박격포수한테로 기여갔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가?)

《아저씨, 아저씨, 들으세요? 나야요. 꼬스쨔야요. 겁낼것 없어요.》 꼬스쨔는 누워있는 박격포수에게 속삭이였다. 박격포수의 입술이 알릴락말락 떨리였다. 그는 마치 무슨 말을 하고싶어하는듯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겁을 내는듯하였다. 아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였다.

두루 살펴보고난 꼬스쨔는 그제서야 박격포들옆에는 하나같이 전사한 병사들이 누워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지금 꼬스쨔는 단 한문의 박격포라도 조종해서 파시스트놈들을 배후에서 갈겨대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낼수가 있어야지?

이 박격포에서 저 박격포로 기여다니면서 꼬스쨔는 누워있는 박격포수들가운데서 단 한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비록 중상은 입었더라도 박격포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하는것을 말해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박격포탄상자결에서 느닷없이 웅글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달려간 꼬스쨔는 낯익은 사관장을 발견하였다. 꼬스쨔가 련대에 도착한 첫날 자기한테 군대상의며 바지와 군모를 공급해준 그 사관장이였다.

《사관장동지, 사관장동지, 나야요. 꼬스쨔야요. …》

사관장은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나왔다. 그도 역시 무슨 말을 하고싶은 모양이였

으나 거쉰 신음소리만 나올뿐이였다.
《잠자코 계셔요. 잠자코 계셔요.》 끄스쨔가 그에게 속삭이였다. 《아저씨는 파시스트놈들을 답새길수 있도록 박격포를 정비하는걸 손짓으로 가리켜만 주시면 돼요. 놈들은 아군을 공격해오고있어요.》
사관장은 일어났으나 미처 조준을 하지 못한채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그제서야 끄스쨔는 사관장의 잔등에서 검붉은 얼룩을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무르익은 벗이 주렁진 벗나무가지우에 누워있는상싶었다. 그리하여 열매들을 온통 짓뭉개여 내의를 시뻘겋게 만들어놓은듯하였다. 그것은 탄알이 뚫고나간 자리들이였다. 그 탄알자국들로부터는 내의를 꿰뚫고 피와 함께 공기가 쏟아져나왔다.
《예,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조준을 하는가요?》
사관장은 다시한번 머리를 쳐들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거쉰 소리가 튀여나왔다.
《조척 3. 오른켠으로 05 …》
허지만 그다음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끄스쨔는 리해할수 없었다.
그런 다음 사관장은 눈짓으로 끄스쨔를 자기곁으로 바투 오라고 하였다.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는 끄스쨔의 얼굴에 대고 속삭이였다. 《여기서 피해라. 이제 곧 놈들이 올게다. 어서 피해라…》
《까츄샤》포의 일제사격이 공기를 뒤흔들었다. 다시한번 일제사격이 터졌다. 그러자 전사한 박격포수들곁으로 파시스트놈들이 달려들 갔다. 놈들은 마치 죽은 박격포수들이 무섭기라도 한듯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피해 달아났다.
끄스쨔는 숨져가는 사관장에게 바싹 달라붙으면서 자신을 가엾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느끼였다. 만일 자기가

박격포를 조준할줄만 알았다면, 만일 자기가 조준장치의 눈금에 의한 복잡한 계산을 할수만 있었다면, 만일 자기가 비밀목표로 사격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박격포에서 물러서지 않고 달아나는 파시스트놈들에게 마지막 박격포탄까지 갈겨댈수 있을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놈들을 복수할수 있을것이였다!

제 15 장

볼가강의 높은 기슭밑에 굴설된 갱도의 한 특별병실에 집단군 포부대의 사령관 뽀자르스끼장령의 참모부가 자리잡고있었다. 포민은 그리로 갔었다. 그를 위하여 벌써 침대가 마련되여있었다. 그의 침대는 뽀자르스끼장령의 부관의 침대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참모부 군의소에서 눈같이 흰 홑이불이며 요, 베개를 날라왔다.

포근하고 아늑하고 깨끗하였다. 포민이 여러번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그 차디찬 참호에 비하면 여기는 천당이였다. 푹 쉬였으면 좋을상싶었다. 그래서 포민은 베개에 잠시 기대기만 하면 피곤이 그를 옹근 일주야동안 눌러붙일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이 지났건만 침대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어찌 그럴수가 있으랴… 포민은 휴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초조하여 별실에서 별실로 왔다갔다 하였다. (여기서는 모든 군관들이 포민을 잘 아는터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다.

《뽀자르스끼장령은 어데 계시오?》

《감시소에 나가셨소.》
군관들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헌데 그 감시소가 지금 어데 있소?》
포민이 따져물었다.
《우리야 모르지요… 거기는 가지 못하게 되여있으니까. 위장을 했단말이요. 만일 적이 그 감시소마저 알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소! 동무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겠지요? 우리는 장령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생각은 없소.》
참모부군관들이 포민을 설복하였다. 물론 그들은 감시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있었다.
마침내 장령이 참모부로 돌아왔다.
그는 곧 포민더러 포위된 수비대의 경계를 가리켜달라고 당부하였다.
《련대를 떠나기전에 아군전연은 바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포민은 탁상에서 연필을 집어들고 지도우에 무슨 그림같은것을 그렸는데 그것은 고르롭지 못한 큼직한 이발들이 달린 환톱같은것을 련상시켰다. 원형방어진지였다. 이 톱날같은 원형의 경계안에 《바리까드》공장, 로동자촌의 일부와 공장들어간의 공원이 들어있었다.
《우선 어디로 사격을 들이대야 하겠소?》
뽀자르스끼장령이 물었다.
포민은 자기 손으로 지도우에 그려놓은 이발들사이의 중간지대를 가리켰다.
뽀자르스끼장령은 생각에 잠겼다. 이 중간지대를 자볼지예의 화력으로 어떻게 답새길것인가? 어려운 과업이였다. 자칫하면 자기편을 때릴수 있었다.
《바로 여기를 답새기십시오. 여기, 여기를…》

포민은 뾰족한 연필끝으로 이발들사이사이에 점들을 찍어가면서 계속하였다.

《이 점은 직사포로만 때릴수 있지. 자볼지예포부대의 곡사화력으로는 안되오.》뽀자르스끼장령은 생각에 잠긴채 말하였다. 《포탄은 비둘기가 아니니까 종대의 둘레로 날아가지 못하고 또 되돌아오지도 못하지.》

《비둘기》라는 말이 나오자 포민은 바짝 정신을 차렸다. 허지만 장령은 계속하였다.

《직사화력은 딴문제이고 목표를 발견했으면 대포를 겨누고 실수없이 족치시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포탄이 없습니다.》

포민은 아직도 장령이 뭣때문에 비둘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는지 리해하지 못한채 이렇게 말하였다. 제르노브가 끄스쨔한테 가져다준 비둘기와 관련한 래력이 장령에게도 알려졌단말인가?

《알고있소.》 뽀자르스끼장령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하였다. 《만일 지금 동무네한테 직사화력을 세개 대대쯤 주면, 그러면 동무들은 이 톱으루다 그저.》장령은 포민이 그린 그림을 가리켰다.

《에익, 숱한 파시스트놈들을 톱밥으로 만들어놓을텐데… 좌우간 좀 생각해봅시다. 허지만 지금은 가쉬시오. 그리구 맑은 정신으로 나의 협조자들과 함께 좀 더 정확히 타산해보도록 합시다.》

《될수록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민이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좋소.》 뽀자르스끼장령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하였다.《가서 푹 쉬시오. 〈아동정신〉의 총사령관이며 전략가어른.》

*　　*

포위된 수비대의 상공에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 솟구치고 공장구역으로부터 둔중한 전투의 소음이 들려오자 포민은 갱도의 별실에서 몸부림을 쳤다.

《빨리, 빨리!》

그는 참모군관들을 몰아쳤다. 그들은 포민의 방조밑에 포위된 수비대의 경계선을 확인하고있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볼가강너머에 대기하고있는 포부대들의 지휘관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들 있었다.

참모군관들은 서둘렀다. 그렇지만 포민이 보기에는 그들은 참을수없이 굼뜬 인간들같았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어느 누구보다도 찌또브련대의 형편을 잘 알고있었고 그러니만치 폭발소리 하나하나, 들려오는 음향 하나하나에서 자기의 정다운 련대가 얼마나 곤난하고 얼마나 간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것을 깨닫군하였다.

때때로 그는 참모부에서 빠져나가 볼가강기슭에 뛰여올라가서는 그 자리에 못박히군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거기 자기의 전우들속에 가있었다. 그런 순간들이면 그의 앞에는 꼬스쨔와 리자가 떠오르군하는것이였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만치 그는 이런 위험한 순간에 교원인 자기가 그들의 곁에 있지 못하는것을 의식하는것이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아는 능숙한 손길이 제지시켜야만하는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며 격정을 잘 아는 포민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앞에 지닌 자기들의 의무를 누구나가 다 옳게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플 정도로 유감스러웠다. 그제르노브만해도 꼬스쨔를 사랑하면서 이런 정황에서 어린 아이한테 비둘기가 뭣때문에 필요하겠는가 하는것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걸 그 애한테 가져다주지 않았는가. 물론 제르노브로서는 소년에 대한 련민의 정에서 그랬다는거야 리해가 되지, 하지만… 그래서야 안되지. 그리고 뽀자르스끼장령이나 찌또브련대장도 다 자란 사람들로 구성된 련대나 사단은 지휘할수 있지만 꼬스쨔나 리자와 같은 어린이들의 소대를 지도하고 그들과 통하는 언어를 대번에는 찾아낼수 없지. 경험을 쌓아야 해, 경험을…

꼬스쨔의 신변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것을 순간적으로 상상한 포민은 금시 그리로, 포위된 수비대에로 달려갈 결심을 하였다. 꼬스쨔와 리자를 위험에서 구출하자는것이였다.

위험속에서 사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는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며 그들의 파멸, 그들의 고통, 피를 상상한다는것은 얼마나 참기 어려운 일인가!… 이 한가지 생각으로 하여 포민은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이였다.

공장구역으로부터 들려오는 음향을 들으면서 포민은 거기 포위된 수비대에서는 가렬처절한 류혈적인 격투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꼭 그리로 가야 합니다! 사령관동지에게 보고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머물러있을수 없다구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포민은 참모군관에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두주야만에야 비로소 밤중에 집단군사령관이 포민을 불렀다.

《그래 몸이 좀 녹았소?》

사령관은 벽을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물었다. 그의 침울한 얼굴에는 뜬눈으로 여러밤을 지새웠다는것이 력연히 나타났다.

《련대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옳은 말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찌또브한테로 뚫고 들어가야 하오. 무전기를 가지고 가시오. 모두에게 이야기하시오. 조국은 우리한테 막대한 지원을 보냈다고.》 사령관은 이 말을 하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 《지탱해야 하오. 식료품과 탄약은 락하산으로 투하할것이요. 비행기의 암호는 황색과 붉은색신호탄. 이걸 죄다 기억해두시오. 자세한 지시는 련계가 지어지는 즉시로 전달하겠소. 무전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오. 꼭 가지고 가시오.》

뾰자르스끼장령이 부언하였다. 포민은 첫번말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알았습니다.》

포민이 대답하였다.

《헌데 여기, 이리로 뚫고나가야 할게요.》 사령관은 도시의 지도가 펼쳐져있는 탁상에로 포민을 데리고갔다. 《여기 이 하수도관으로 말이요. 여기는 밀폐되여있으니까 로천으로 뛰여넘어야 할거요. 위험할수 있소. 그렇지만 전쟁이란 위험성이 없을수 없으니까. 그럼 부디 잘 가시오.》

포민은 무전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활기있게 돌아서서 나갔다. 어두운 밤이 그를 숨겨주었다.

*　　*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적이 강점한 로동자마을의 공장지대를 희미한 빛을 따라 하수도관속으로 지나갔다.

아침녘에 포민은 포위된 수비대의 경계선부근에 당도하였는데 련대의 전연계선이 지금은 전에 있던 그 자리로 통과하지 않았었다. 련대는 공장담벽 바로 곁에서 방어하고있었던것이다. 끄스쨔를 남겨둔 경무소대엄페부

는 중립지대에 남아있었다. 그런 세세한 형편을 잘 모르는 포민은 뚜껑문으로 통하는 하수도관속을 경무소대엄페부쪽으로 기여갔다. 헌데 별안간 무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마주 기여오고있었다.

《누구야?》

대꾸대신 자동총격발기소리가 짤깍하였다.

놀랄만치 날쌘 동작으로 포민은 권총을 거머쥐였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몸으로 덮으면서 묘준사격을 할 태세를 취하였다.

팽팽하니 긴장된 몇초가 흘렀다.… 사위는 고요했다. 짙은 어둠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포민은 벙끗하기를 경각성있게 기다렸다. 권총은 손안에 꽉 쥐여져있었다.

또다시 몇초가 지났다. 숨을 죽인 포민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사람인게 아니라 두사람이로구나.)

포민은 생각하였다. 한층 더 주의를 집중하였다. 량쪽관자노리에서 피가 뛰기 시작하였다.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그렇다. 무전기를 파괴해버려야 한다. 왼쪽손이 수류탄에로 뻗치였다. 어둠속에서 포민은 이발로 고리를 뽑았다.

(자, 덤빌테면 덤벼라.) 포민은 속으로 도전하였다. (나는 각오가 되여있다!)

《거 포민동무가 아니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에다 펄펄 끓는 물남비를 뒤집어씌우는것 같았다. 자기 귀를 의심하던 포민은 이마에서 땀방울이 구을러내리는것을 감촉하였다. 그것은 련대정찰소대장의 목소리였다.

《동무는 누구와 같이 있소? 혼자요?》

《동무넨 몇사람이요?》
포민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혼자라면 더 바투 기여오시오.》
정찰병이 조용히 제기하였다.
《그렇다고 속여넘길 생각일랑 마시오.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소.》
다른 정찰병이 경고하였다. 포민은 정찰병들이 자기를 완전히 믿지 않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자신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무전기는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수류탄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마주 기여갔다.
손전지의 깜박거리는 파란 불빛이 짯짯한 수염으로 뒤덮인 정찰병의 얼굴을 비치였다.
《동무넨 두사람이요?》
포민이 물어보았다.《두고보기요. 더 될수도 있소.》
한사람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정찰병의 익숙한 기지와 경각성이 포민으로 하여금 자기편 사람들과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동무는 왜 면도를 하지 않소?》
포민은 정찰병을 비난하였다.
정찰소대장은 그것이 롱담으로 한 말이라고 리해하고 이렇게 대꾸하였다.
《시간이 없구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그러고는 전지를 끄고 말을 이었다. 《수염은 별로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바루에 있소?》
포민이 물었다.
《중립지대요.》
《어디라구요?》
포민이 되물었다.
《적과 우리 련대의 어간이란말이요.》

정찰병이 확인하였다.

《알만하오.… 견지해야 하오.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우리한테 대대적인 원조가 온다오.…》

그것은 기쁜 소식이였다! 정찰병 한사람이 어두운것도 가리지 않고 포민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그의 머리를 붙잡고 입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만하오!》 포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수류탄이 터지겠소.…》'

정찰병은 포민의 음성에서 불안을 느꼈던지 얼른 물러났다. 그리고 숨을 돌리고나서 롱담을 하였다.

《기다려줄거요. 튀지 않을거란말이요. 지금은 그래선 안되니까.》

《그리고 나한테 열렬히 키스를 하면 절대로 튀지 않을거요.》

다음 정찰병이 발을 달았다.

하수도관속이 마치도 포근해지고 넓어진듯하였다.

포민은 수류탄의 나사를 조이고 신관을 뽑을수 있도록 불을 켜달라고 청하였다.

그 일이 다 끝나자 그는 어둠속으로 되돌아 기여갔다가 잠시후 짐을 가지고 돌아왔다.

정찰병들은 그제서야 포민이 무전기를 가지고온다는것을 알아채였다.

《서두르시오. 서두르시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련대장동지가 기뻐할거요. 이제야 다시 살게 되였소!》

그리고는 기쁜 심정으로 포민에게 길을 양보하면서 정찰병들은 서로 어기기 위하여 제일 가까운 갱도까지 뒤걸음질을 하였다.

포민은 련대장에게 과업을 수행한데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고나서 꼬스쨔에 대하여 물었다.

찌또브련대장은 점도록 아무말없이 붕대로 꼰 노끈을

끄았다풀었다 하더니 포민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그의 흥분상태를 눈치채지 못한듯이 피기없는 큼직한 손바닥을 포민의 무릎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가버렸소.…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았소.》

* *

제르노브는 중립지대에 침투하였고 그런 다음 경무소대의 엄페호로 새여들어갔다.

이 며칠동안에 엄페호는 박격포탄과 포탄들의 폭발로 하여 여러번 뒤흔들린 모양이였다. 문짝들은 열려젖혀졌고 일부 지주목들은 이지러졌고 끄스쨔의 공책들이 놓여있던 책상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끄스쨔의 선반우에 쌓여있는 교과서무지를 전지불로 비친 제르노브는 포민교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말하기를 끄스쨔같은 나이의 어린애들의 가장 큰 위훈은 로씨야어며 산수며 력사며 그밖의 학과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아이들은 전선으로 부를것이 아니라 학교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어려운 전투공훈에로 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지불빛이 공책들우에서 멎었다. 그러자 제르노브는 먼지 쌓인 책상우에서 새들의 발자국흔적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비둘기의 발자취였다.

비둘기는 끄스쨔가 남겨놓은 쌀알을 다 쪼아먹고는 자기 구석에 들어가있었다. 제르노브는 비둘기를 잡아들었다. 비둘기발에는 끄스쨔가 폭탄구뎅이안에서 쓴 글쪽지가 달려있었다.

그림들과 무슨 명칭들, 부호들이 적혀있었다. 그것들에 의하여 단 한가지만은 알수 있었다. 즉 끄스쨔는 실지로 전연밖으로 뚫고들어가 적병력의 대집단을 발견한

것이였다. 그러나 어데 어느 방향인가 하는것은 수수께끼였다!

(야, 네가 꼬스쨔가? 너 꼬스쨔지! 내가 너한테서 비둘기를 빼앗는게 늦었구나.)

제르노브는 괴로운 심정으로 자인하였다.

꼬스쨔에 대한, 그의 운명과 많은 아이들, 전쟁이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부모들을 빼앗아간 많은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괴로운 생각이 반땅크총사수의 심장을 아프게 옥죄이였다.

련대로 돌아오면서 제르노브는 마치 중립지대(아군과 적과의 중간)에 있다는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듯하였으며 마침내 사격을 당하였다. 어딘가 곁에서 지뢰가 튀였다. 폭풍이 제르노브를 도랑속에 처박았다.

위생중대에서 제르노브는 의식을 회복하자 장화와 모자가 벗겨져 달아났다는것을 느끼였다.

《가만! 조심하시오!》

그는 위생병에게 소리를 질렀다.

《가슴에도 상처를 입었나봅니다.》

한 위생병이 옷깃을 헤집으면서 말하자 다른 위생병이 칼로 상의와 내의를 찢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난데없이 심장곁 상의밑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위생병들은 의사를 부르면서 옆으로 물러들 섰다.

《비둘기! 그리고 글쪽지다.》

《련대장동지한테 전해주시오.》

반땅크총사수가 부탁하였다.

찌또브는 지체없이 글쪽지를 읽었다. 그는 제르노브가 한것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종이쪽지를 여러차례 살펴보고 뒤져보고 하였다. 그렇지만 적에 대한 꼬스쨔의 정보는 행차뒤의 나발인것이였다. 그리고 또 그 정보를 가지

고는 어떤 결심도 채택할수 없을것이였다. 보고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여있었다.

제 16 장

포민이 가지고온 무전기는 곧 찌또브련대장의 엄폐호에 설치되였다. 이제는 집단군참모부와 무전련락을 가짐으로써 련대장은 포위된 수비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사령관동지한테 민활하게 보고하게 되였다.

통신련락은 협동작전의 기초인것이다. 집단군참모부의 첫 무전신호에 의하여 포위된 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것을 다 하였다. 특히 포병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찌또브련대장의 요구에 재빨리 호응하였다. 파시스트놈들은 포위된 수비대를 다시한번 공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볼가강 저쪽에 배치된 우리 포부대의 드센 불의 장막에 부딪쳐 퇴각한 뒤에는 잠잠해졌다. 이 순간부터 포위된 수비대에는 상대적인 정적이 깃들었다.

사령관은 포위된 수비대를 당분간 자볼지예포병중대의 화력만으로 지원했다. 도시의 중심에서 마마예브 꾸르간과 볼가강기슭을 방어하는 집단군의 주력은 찌또브련대보다 못하지 않게 곤난을 겪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만으로도 련대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온 수비대를 기쁘게 한것은 무전을 통하여 수일내로 밤에 비행기들이 식료품과 탄약들을 가져다주게 된다는데 대한 전선후방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한것이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련대에 퍼졌다. 이 소식은 리자에게도 날아갔다.

지나간 나날에 리자는 적지 않게 괴로운 시각을 체험하였다. 어머니는 페염을 앓았다. 어머니는 위생중대에서 치료를 받고있었으므로 리자는 동무들과 같이 어디에 가 숨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한것은 종전의 땅굴로는 파시스트놈들이 다가오고있기때문이였다. 그럴 때에 땅굴로 달려온 군의와 병사들이 리자며 기라와 뻬쨔를 구원해주었다. 찌또브련대장이 군의와 병사들을 보내였던것이다. 그들을 참모부로 데려갔다. 그렇지만 거기도 위험하였다. 찌또브련대장은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은페호를 찾아보라고 명령하였다. 곧 그런 장소가 발견되였다. 그것은 공장변전소였다. 변전소는 사면벽이 모두 견고한 콩크리트벽이고 천정도 강철로 된 튼튼한 건물이였다. 변전소의 담벽이 사격을 막아주고있었다.

아이들가운데서는 리자가 제일 맏이였다. 련대에 기쁜 소식이 날아든 그 시각에 리자는 련대장동지를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면서 위생중대에 있었다.

리자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언제면 돌아오는가 알아보아야 하였고 찌또브련대장에게 자기는 부상병을 간호할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리자의 눈앞에 포민이 불쑥 나타났다. 포민은 련대장의 방에서 나오는 길이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리자는 환성을 올리였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동안 선생님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좋아, 장하다, 리자.》

포민은 이렇게 말하면서 리자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다.

리자는 저으기 놀랐다. 한것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자기가 아이들을 모아들인것이며 그 아이들이 경상을 입은 한 군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변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영낙없이 련대

장이 그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것이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리자와 그의 동무들이 어째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곁에 있을 형편이 못되였다. 신호수들의 초소들을 지체없이 배치해야 하였고 정찰병들을 찾아봐야 하였다.

《내 곧 너희들이 있는 변전소로 가겠다. 그렇게 전달해다오!》

그는 리자를 위생중대의 이웃엄페부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엄페부에는 리자의 어머니가 누워있었던것이다.

여기 위생중대의 큰 엄페부에서 리자는 키가 장승같고 다부진 제르노브를 만났다. 제르노브는 전신에 붕대를 감았으나 제발로 걷고있었다. 침대들사이를 서성거리면서 어느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 리자는 끄스쨔의 동무인 제르노브를 잘 알고있었다. 허지만 이 억세고 대담한 해병이 그렇게 애틋해할수 있으리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는 말없이 리자한테로 다가왔다.

점도록 리자를 쳐다보는 품이 마치도 리자에게서 끄스쨔를 알아보기라도 한듯하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헌데 끄스쨔가… 끄스쨔가 돌아왔니?》

리자는 고개를 떨어뜨리였다. 엄페부안이 온통 잠잠해졌다. 제르노브는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저쪽구석에 놓인 자기 침대로 갔다. 리자는 그에게 자기들이 구원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르노브는 얼굴을 돌리였다.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했던 시각들에 대하여 마치 지난 나날이 간고한 시련의 나날인것이 아니라 무슨 애들의 장난이기라도 한듯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야

기하는 처녀애의 말을 듣기가 괴로왔던것이다.
《아이들이란… 아이들이란 이렇다니까…》 제르노브는 심장속에 아픔을 안고 조용히 이렇게 부르짖었다.

*　　*

《놈들이 다시 올게다… 피해라. 어서 그리로 가란말이다.》
박격포수는 손으로 경사진 언덕을 가리키면서 거듭 뇌이였다. 그 경사진 언덕으로는 깊은 참호가 구불구불 뻗어갔다.
《아저씨, 지금 아군이 어디 있나요? 아저씨, 난 꼬스쨔예요. 말씀 좀 해줘요. 아군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박격포수는 얼굴을 땅바닥에 구겨박고 더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쭉 뻗친 손은 굳어진듯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십자길에서 도표를 그리고있는듯하였다.
꼬스쨔는 박격포수의 그 마지막 손짓에 순종하였다. 소년은 구불구불한 참호가 어디로 통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언덕우에 올라서자 그것이 박격포수들의 화력진지와 서쪽으로부터의 파시스트놈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저격중대의 전호와의 사이에 있는 교통호라는 것을 알았다. 발밑에는 마사진 자동총들과 방독면들, 거덜이 난 외투들, 피가 묻은 삽들이며 붕대들이 너저분하였다.… 여기서는 가렬한 접전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군은 지금 어디 있을가?
흉장우에 뛰여오른 꼬스쨔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오른편과 왼편은 연기에 휩싸인 푸른빛속에 공장들이 몽롱하게 보이였고, 곧바로는 로동자마을이 낯익은 곳들이였다. 저기 저 골짜기 굽인돌이 저쪽에서부터는 뜨루게네브거리이다.

그것은 정말 아주 잘 아는곳들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전에는 여기서 저기 저 언덕들이며 지어 뜨락또르공장 마을마저도 보이질 않았을가? 하긴 주위에는 많은 주택들과 여러가지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모두 다 땅바닥과 수평이 되였다.

귀전에서 탄알이 쌩하더니 뒤미처 몰방으로 쉭쉭 날아왔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뜨거운 탄알들은 머리우로 지나갔고 일부 탄알들은 흉장에 부딪쳐 풀썩풀썩 먼지를 일으켰고 다음에는 흉장을 따라 뻗어있는 강철레루를 집요하게 두드렸다. 꼬스쨔는 그 레루뒤에 얼른 몸을 숨기였고 다음에는 참호밑으로 굴러내려갔다.

시작된 맞불질은 몇분동안 계속되였다. 한켠에서는 잦은 기관총련발사격이 울려왔고 다른켠에서는 세찬 보총사격이 터져왔다. 꼬스쨔는 진퇴량난이였다. 머리를 들지 못한채 그는 귀를 강구었다. 로출되기만 하면 량편에서 마구 누벼댈것이다. 그러니 참호를 따라 전진해야 하였다. 그렇지만 참호가 어디로 통하는지, 자기편으론가 아니면 파시스트놈들의 쪽으로인가?

박격포수는 이 방향으로 곧바로 앞으로 가라고 가리켰다. 꼬스쨔는 줄곧 눈앞에 떠오르는 박격포수의 손길에 의하여 방향을 잡으면서 어떤데서는 기여가고 또 어떤데서는 뛰여서 공장마을쪽으로 전진하였다.

(여기에 아군도 보이지 않고 파시스트놈들도 보이지 않는걸보니 이 참호가 지금은 어느편의것도 아닌가보지.)

파괴된 건물앞에서 걸음을 멈춘 꼬스쨔는 두루 이런 생각을 하였다. 교통호가 여기서는 두갈래로 갈라졌었다. 그 하나는 오른쪽으로 꺾어돌았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지하실창문쪽으로 뻗어갔었다.

《옳지, 이건 우리 학교로구나. 아니 박격포수아저씨, 나를 어디로 보내줬어요!》 지하실을 살펴보면서 꼬스쨔

는 중얼거리였다. 《여기야말로 정말 잘 아는곳이지요. 만약 파시스트놈들이 오면 숨을데를 제꺽 찾아낼수 있어요.》

(여긴 학교목수의 작업장이였지. 그 목수, 그 령감은 지금 어디 있을가? 그 령감님은 열쇠를 하나 달라고 해도 투덜거리긴 해두 눈을 슬쩍 딴데로 돌리면서《자 옛다. 어서 저리 가거라. 방해하지 말구.》하군 했지. 그리고 이건 학교 공책들과 교과서보관창고로구나. 지금은 여기가 탄약창고로 쓰이나보지. 이건 지뢰와 탄약을 넣기 위한 상자들인가본데. 그렇지만 지뢰 하나, 탄약통 하나 없구나. 또 여기서는 박격포수들이 식사를 준비한게 아니야? 무슨 음식냄새가 풍기는데. 야, 어쩌다가 빵껍질이나 하나 얻었으면. 아니 하다못해 시들어버린 올감자라도 한알 있으면 우리 련대까지 한결 헐하게 갈수 있으련만. 웬일인지 다리가 다 후들거린단말이야.…)

그렇지만 빵껍질도 시들어버린 올감자도 꼬스쨔는 찾아낼수가 없었다. 그대신 그는 물리연구실에 있던 기구들무지에 부딪쳤다. 거기에는 공구들과 전기줄, 자작 만든 라지오수신기들, 코일을 감는 기대들, 코일, 용접기구, 나사못틀개들, 장치들, 집게들과 지어 도안들과 설명도들이 들어있는 소책자들까지 있었는데 꼬스쨔는 라지오소조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했던것이다. 이런것들을 모두 누군가가 모아서 한쪽구석에다 차근차근 쌓아놓았었다. 그러나 매개 부분품들과 도구들이 온통 먼지와 그을음에 뒤덮여있었고 일부 책자들과 도면퉁구리들은 가장자리가 불에 타버렸었다. 거기에 불이 달렸던 모양이였다. 멋모르고 손을 대면 죄다 산산이 흩어질것 같았다.

꼬스쨔는 먼지와 그을음을 훅훅 불면서 부속품을 하나하나 조심히 주어드느라니 피로도 굶주림도 잊어버렸고

다리가 후들거리던것도 멎었다.

(야, 이제는 빈손으로 련대에 돌아가지 않게 되였고 하던 일을 끝까지 해낼수 있게 되였구나. 이제야 무전기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겠지. 물론 무전기가 앞으로도 변덕을 부리기야 하겠지. 그렇지만 주되는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테야. 억지로라도, 어차피 억지로라도 그놈이 작용하도록 할테다! 아버지는 완강한분이 아니였던가. 바로 그러니까 련대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도 완강하다고 말들을 할거란말이야. 《장하다. 장하다.》고들 말할테지. 하던 일을 종내 끝까지 해냈다구 말이야.)

끄스쨔는 열중하여 책들과 도면들을 고르면서 이런 궁리를 하였다.

*　　*

정찰병들은 서둘렀다. 그러나 한 엄페부에서 다른 엄페부로 더 빨리 옮겨가자면 네발로 일어서든가 팔굽을 괴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적의 수십개의 눈들이 이 구간을 주시하고있었던것이다. 돌멩이 하나가 구을든가 눈에 뜨일가 말가 하는 흙무지가 움직이기만 해도 모든것이 끝장이 난다. 파시스트놈들이 기관총과 자동총들로 섬멸적인 사격을 시작할것이다. 그런것이 하나의 전쟁법칙이였다. 말하자면 중립지대를 주시하느라면 거기서 돌들이 굴어나는수가 있다. 정찰병들은 흙무지와 한덩어리가 되여야 하고 죽은 돌로 변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진은 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정찰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것은 중립지대를 극복하는것이다. 정찰소대장은 다른 길은 없기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택했던것이다.

《누군가의 머리》가 보였다는 (정찰병감시원이 그런 보고를 했었다.) 참호까지는 몇메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몇메터가 각별히 어려운데였다.

폭탄구뎅이 하나, 도랑 하나 없는 평평한 평지였다. 중립지대 참호의 흙무지우에 누군가의 머리가 보였다는 말을 듣고 정찰소대장은 대번에 짐작이 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끄스쨔라고 련대장에게 보고할수는 없었다. 정찰병들에게는 자기의 정보를 짐작으로 꾸미는것은 관례로 되여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규정을 엄격히 지키였다. 한눈으로는 보고 다른 눈으로는 검열하고 그런 다음에 보고해야 한다 하는 식이였다. 어쨌든 끄스쨔는 더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찰소대장은 행동하기로 결심하였다. 끄스쨔의 운명은 포민이나 찌또브 그리고 련대의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찰소대장을 불안에 싸이게 하였다.

이 정찰소대장은 포민이 하수도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정찰소대장이였다. 그때 그는 끄스쨔에 대하여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하수도관속의 어디에선가 그를 찾아낼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적의 후방에 가 싸다녔고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오면서도 그는 끄스쨔를 아니, 그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하였다. 죽은것으로 간주할수밖에 없었다. 찌또브에게 그렇게 보고할 작정이였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다르다. 포민과 세명의 정찰병에게 적감시병들의 주목을 다른 구역으로 쏠리게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였던것이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그런 위임을 마지못해 접수하였다. 그는 이리로, 중립지대의 참호로 달려나왔으나 소대장은 포민을 데리고가는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포민의 신경은 그런 일에 훈련되지 못하였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교원이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소대장은 이렇게 자기 협조자들과 함께 중립지대의 참호에서 몇메터 상거한데 와있는것이다. 펀펀한 평지, 폭탄구뎅이 하나 도랑 하나 없다. 이런데서는 지면과 융합되여야 하고 가려볼수 없게 펀펀해야 하며 경사지에 심은 풀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고 짓이기운 초원이 꺼칠꺼칠한 속으로 눈에 띄지 않게 얽혀들어가듯이 한센치한센치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전진해야 하는것이다. 이따금 그것을 바라보면 눈에는 전혀 띄지 않지만 그래도 전진하는것이다.

정찰병들은 앞으로 둬시간 더 지나면 황혼이 깃들것이고 그러면 파시스트놈들이 중립지대의 참호로 자기네 정탐군들을 파견하리라는것을 예측하고있었다. 끄스쨔는 놈들의 손에 붙잡힐수 있다. 그러면 적은 련대장이 부상당한것을 알게 될것이다. 끄스쨔는 련대장의 정신상태를 아는것이 적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말할것이다. 포위된 수비대는 식료품이 극히 적다는것도 역시 적에게 알려질것이다. 끄스쨔는 물론 그것이 군사비밀이라고 생각지 않을것이다. 빵이나 감자가 포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끄스쨔는 자신의 진술의 결과를 생각지 못하면서 포위된 수비대의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적에게는 행동이 수월하게 만들것이다. 그렇게 되면 놈들은 자기네 병력의 일부를 떼내여 다른 구역에 투입할수 있을것이다. 결국 포위된 수비대의 사태뿐아니라 쓰딸린그라드방어의 다른 구역들의 사태까지 복잡하게 만들게 될것이다.

끄스쨔는 이것을 리해할것인가? 만일 리해한다면 침묵을 지킬것이다. 그러면 그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을것이다. 끄스쨔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정찰병들은 뿌르긴소좌의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련대

에 도착한 초시기부터 그들에게 완강성, 강의성, 불굴의 의지를 길러주는 한편 정찰수완을 가르친것은 바로 그 뿌르긴소좌였던것이다. 가끔 정찰복을 입고는 덤불속으로, 풀베기가 끝난 초원으로 기여가서는 새둥지있는데로 다가가는데 새들이 뭐라고 지저귀건 그와 꼭같이 지저귀는것이였다. 그런 다음에는 정찰병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명령하는데 만일 무슨 새든지 놀라서 푸드득 날아가기만 하면 휴식할 생각을 말아야 하는것이였다. 그때 소좌는 아직 경험이 없는 정찰병들을 데리고 그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자기들의 교원이며 교양자인 소좌를 감사의 정을 안고 회상하면서 정찰병들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는 의례히 침묵을 지킬것이다. 그는 련대를 배반하지 않을것이다. 그렇지만 파시스트놈들은 그에게서 완력으로 진술을 뽑아내려고 할것이다. 그런짓은 소년을 한층 더 격분케 할것이다. 그러니 그는 결정적으로 침묵을 지킬것이다.

시달릴대로 시달린 파시스트놈들이 으르렁대면서 새로운 진술을 요구하는 꼴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정찰병들은 금시 끄스쨔를 구원하러 달려갈 태세였다. 그러나 인내성, 인내성이 필요했다.

정찰소대장의 손이 참호가장자리까지 가닿았다. 손가락들로 가장자리를 움켜잡은 그는 천천히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가는 역시 눈에 띄지 않게 참호바닥으로 기여내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부소대장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엷은 눈이 덮인 참호밑바닥에서 정찰병들은 끄스쨔의 손바닥자국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끄스쨔는 기관총사격을 피하면서 네발걸음으로 기여갔던것이다. 그 흔적은 정찰병들이 끄스쨔가 간 방향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였다.

*　　　*

제르노브는 밤중에 전연에서 부상당한 포민이 들어온 것을 아침에야 알았다. 위생병들도 의사도 포민중사가 어째서 어디서 부상을 당했는지 누구 하나 똑똑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정찰병들이 그를 날라다놓고는 또 다시 떠나갔다고들 말하였다.

제르노브는 그와 같은 시각에 위생중대에서 도망쳐나갔던것이다. 정찰병들의 엄페호입구에서 직일병이 그를 제지시켰다.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직일병은 자동총으로 앞을 막았다.

《무슨 일이요? 자기 사람을 못알아보는거요?》

제르노브는 격분하여 물었다.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소대장동지가 누구도 들여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데 있소? 동무네 소대장말이요?》

《나갔습니다.》

《그럼 정찰병들은?》

《역시 소대장동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동무는 누구를 보위하고있소?》

《엄폐부를 보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왜 그리 검질기게 구는거요! 들여놓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으니 돌아가야 한단말이요!》

그러고는 직일병은 자동총을 가슴에 올려잡더니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허 참, 이 정찰병들은 능청스러운 친구들인걸!》 제르노브는 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다들 잠이 들었다고 솔직히 말하시오. 그리고 동무는 그들의 꿈을

지키고있지요?》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동무한테 보고할 생각은 없소. 돌아가시오. 좀더 있다가 다시 오시오.》
제르노브는 강다짐으로 통과하려고 했으나 직일병은 단호히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지휘관에게 보고하시오. 정찰병들이 잠을 자고있을 때 병사들은 밤을 새우고있다고말이요.》
제르노브는 다시한번 꾀를 써볼 심산으로 정찰병들이 무사태평하다는것을 비웃는 어조로 슬쩍 건드리였다.
《동무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구먼.》
등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이 휴식을 하고있을 때 정찰병들은 밤을 지새우고있다고 해야지!》
제르노브는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정찰소대장이 서있었다. 그는 련대장한테서 돌아나오는 길이였다.
《젠장!》제르노브는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후》하고 요란스레 숨을 내쉬였다. 허나 소대장은 상냥하게 손가락을 쳐들었다.
《조용하시오. 떠들지 마오.》 그러고는 자기 눈길을 엄페부의 출입문에 멈추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자고있소. …》
《그 애가요?》
《들여다보라구.》
출입문에 낸 정방형 창구멍으로 자작 만든 등잔의 가물거리는 불빛이 얼른거리였다. 제르노브가 창문을 들여다보는 순간 조그마한 불이 다 탄 심지에서 한쪽으로 쏠리더니 꺼져버렸다.
정찰소대장은 제르노브를 놀라게 할 작정이였으나 엄페부안에서 누군가가 불을 끈것을 알아차린 제르노브는 저절로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아니 자지 않습니까?》

《그렇소. 내버려두시오!》 성가신듯 하면서도 귀속말로 이렇게 제르노브에게 당부하고는 엄폐부에서 뛰여나갔다. 출입문에 난 창구멍으로 어두운 정찰병엄페부안에 비쳐든 광선줄기속에서 통채로 불에 탄 종이말이가 얼른거리였다. 탁자우에 놓인 불꺼진 등잔곁에 꼬스쨔의 손이 보였다. 다시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하여 손더듬으로 성냥을 찾는 그는 엄페부안에 제르노브가 들어온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듯 하였다.

《꼬스쨔, 아니 네가?》

제르노브는 흥분으로 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나예요. 안녕하십니까.》

꼬스쨔는 침착하니 대꾸하였다.

꼬스쨔가 정찰병들과 함께 이 엄페부에 온것은 고작하여 세시간전이였다. 정찰병들은 파괴된 학교지하실에서 꼬스쨔를 찾아냈던것이다.

지치고 굶주리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있는 꼬스쨔는 놀라웁게도 하루 더 거기에 있을 작정이였다.

꼬스쨔는 몰라보게 되여있었다. 얼굴이며 두손은 검댕이칠을 했었다. 모자와 바지는 재북데기를 뒤집어썼고 상의속이며 호주머니속에는 그 무슨 종이말이가 가득하였다.

정찰병들은 그가 무엇을 찾아헤맸고 무엇을 찾아냈는지 알수가 없었다.

《말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저 만났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만이예요.》

꼬스쨔가 정찰병들에게 당부하는것은 이 한가지뿐이였다. 소년은 그러면서 만일 정찰병들이 자기를 배반하면 도망을 치리라는것을 암시하는듯 하였다. 정찰병들

은 꼬스쨔의 비밀을 알지 못한채 침묵을 지킬것을 약속하였다.

여기 엄페부에 와서 꼬스쨔는 만문한 건빵을 먹었고 사탕을 넣은 차를 반사발이나 마시였다. 소년은 더 먹고싶어했지만 련대정찰병들은 더 주지 않았다. 피로와 잠이 곧 소년을 쓰러뜨리였다.

꼬스쨔는 생시에 있었던 일을 꿈에서 보았다.

잠이 깨자 그는 대뜸 자기 몸을 어루만져보았다. 품속이며 호주머니며 상의밑에 감춰둔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정찰병들이 장한데. 약속을 지켰거든.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다니까. 이제 곧 일에 착수할수 있을가?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뜨뜻한데…)

꼬스쨔는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생각하였다.

자작 만든 등잔의 가물거리는 불이며 일하기 편리한 방이며 그 방에 놓인 뚜르게네브거리의 꼬스쨔네 집에 있던것과 꼭같은 탁자며 정찰병들이 공장사무실에서 날라온 푹신한 안락의자며가 다 꼬스쨔를 손짓하여 부르는듯하였다.

이제부터는 꼬스쨔에게 있어서 매분매초가 귀중하였다. 탁자에 붙어앉은 꼬스쨔는 몹시 낯익는 종이말이를 열심히 한장한장 펼쳐보고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곧 마치 심술을 부리듯이 등잔불이 꺼졌다.

(젠장, 느렁뱅이같으니. 종이장을 되는대로 번지다니!)

성냥을 찾으면서 꼬스쨔는 화를 냈다. 그러는 때에 제르노브가 들어왔던것이다.

꼬스쨔는 지금 제르노브앞에서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자기가 해내리라고 결심한 일을 제르노브한테 당분간은 이야기할수 없지 않은가.

(우선 일을 해놓고 그때 가서 이야기도 하고 보여드리

기도 해야지.)

꼬스쨔는 제르노브의 품에 안긴채 단호히 결심하였다. 제르노브는 꼬스쨔를 자기의 혈육처럼 입을 맞추고 꽉 껴안아주었다.

제 17 장

10월혁명 25돐 명절전날 저녁 한밤중에 포위된 수비대의 상공에서 비행기의 동음이 울려왔다. 그 당시 《강냉이이삭》이라고 불리우던 누구나 다 잘 아는 《ПО-2》비행기였다. 비행기는 응답신호를 기다리면서 약속된 항로를 따라 련대상공을 선회하였다. 그렇지만 첫 누런 신호탄이 오르자마자 적의 진지들이 요동을 쳐댔다. 기관총들이 콩볶듯 하고 고사총들이 짖어댔고 어둠을 헤가른 탐조등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탄도를 그리는 탄알과 포탄들이 불꽃튀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비행기를 잡으려고 애들을 썼다. 그러나 비행기는 어디론가 피해버렸다. 둔중한 동음은 잦아들었다.

《개자식들같으니, 통과시키지 않았단말이지.》

느닷없이 위생중대 엄페부의 바로 꼭대기우에서 빨리 지치는 스키 지나가는 소리를 련상시키는 스르릉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에서 마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둘째, 셋째마대가 떨어졌다.… 발동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는 급선회를 하더니 높이 날아올랐다. 이 용감한 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포화의 장막을 뚫고 볼쇼이땅에서 식료품을 날라다준 그에게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

다! 다시한번 선회하고나서 비행기는 볼가강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적고사포병들은 또다시 덤벼들었으나 행차뒤의 나발이였다.

잠시후 포위된 수비대의 상공에는 새로운 비행기가 나타났고 조금후에는 또 다른 비행기가 나타났다. 그 비행기들 역시 물품들을 투하하였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만 유감스러운것은 온 련대가 휩싸여있는 이 환희를 단 한사람의 비행사도 들을수도 볼수도 없는 그것이였다.

《고맙소, 매들! 고맙습니다, 조국이여!》

만일 이 순간에 끄스쨔에게 비행장으로 달려가서 대담무쌍한 그 비행사들에게 련대의 감사와 인사를 전달하라고 위임한다면 포화도 물도 련대와 볼쇼이땅을 갈라놓은 그 어떤 다른 위험성도 끄스쨔를 붙잡아둘수는 없을것이다. 흥분된 심장은 쿵쿵 높뛰였다.

《가거라! 가라구!》

심장은 마치도 끄스쨔를 새로운 자의적인 행동에로 끄드기는듯 하였다.

《아니다. 가지 말아. 신중히 생각하여라.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리성은 랭정하게 반박하였다.

마치 자기자신과 싸우기라도 하듯이 끄스쨔는 자신의 이번 정찰행군에 대하여 저도 모르게 회상하였다. 그는 전신이 와들와들 떨리였다.

《너 꽁꽁 얼었구나.》 위생병이 알아차렸다. 《이불속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비행기들이 볼쇼이땅으로부터 어떤 선물들을 가져다주었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도 듣고싶지만 누워있으라는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엄페부로 돌아가면서 끄스쨔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명절전날밤은 정말 재미있었다. 끄스쨔는 련대

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신열이 높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그를 격리실에 눕혀두었다. 허지만 곁방에서 떠들썩한 소리들이 다 들려왔기때문에 꼬스쨔는 그 활기띤 광경을 똑똑히 상상할수가 있었다.

거기, 말하자면 간막이벽 저쪽에는 련대장이 누워있었다. 련대장한테로는 연신 참모군관들, 련락병들, 감시병들이나 중대의 보총사수들이 보고를 가지고 달려오군 하였다. 전화의 공명기는 갑속에 갇힌 5월의 딱정벌레처럼 불안스레 웅웅거리였다.

《그렇다… 고맙소. 당신네 대대에 사령관동지로부터의 인사를 전하시오. 탄알은 선차적으로 기관총수에게 보내주시오.》

《전체 동무들을 축하하오. 쓰딸린동지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네 거리에도 명절은 올것이요!〉라고 하셨소.》

(월료자아저씨는 흥분하셨나보지.)

꼬스쨔는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찌또브련대장의 파랗게 질린 큰 얼굴을 보고있는것만 같았다.

전화종이 울리고난 뒤이면 그의 얼굴에는 매양 깊숙한 주름살들이 펴지고 여기, 쓰딸린그라드에서 희여진 눈섭들이 곤두서군하는것이였다.

(내가 정찰나갔다가 돌아올수 있은게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영원히 남아있을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내가 그리로 갔었던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필시 나한테 무척 화를 내셨을거야. 제멋대로 놀아나고 규률을 지키지 않았으니. 아니야, 아니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거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수 있을가. 생각은 이렇게 하구 실천은 달리 한단말인가? 자기를 다잡아야 한다.)

어떤것은 모르는탓에 저질러진것이고 또 어떤것은 순전히 어리석은탓에 생긴 실패와 과오라고 회상하면서 꼬

스쨔는 자기자신을 질책하였다.
(어서 빨리 열이 내려야겠는데. 일어나서 일에 달라붙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도 일을 할수 있지 않을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꼬스쨔는 마다라스밑에 손을 밀어넣고 귀를 강구었다. 련대장이 누워있는 옆방에서는 중요한 담화가 진행되고있었다. 담화를 하고있는것이 다행이였다. 꼬스쨔가 도면들을 다루는것이 알리지 않을테니까. 보다싶이 종이장들이 얼마나 말랐는지 버스럭거리였다. 다만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한테 무전기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봐야할것이였다.… 이젠 꼬스쨔는 원인을 발견할수 있을것이였다. 모든 소책자들을 다시 읽어보고 도면을 검토하면 발견할것이다. 아이참, 이 무선공학이란 얼마나 복잡한지! 꼬스쨔는 무전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였다. 그렇지만 물어보는것도 이제는 유식하게 물어보게 될것이였다. 말하자면 꼬스쨔가 실지로 일에 착수하리라는것을 믿게 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량도체의 저항에 대한 계산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도와줄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담에 하고 우선 꼬스쨔는 도해들을 료해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독서에 열중하였다.
《아니, 어딜 갔댔소! 그건 버릇없는 처사요. 방종한 행동이요!》
옆방에 들어온 의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의사선생님.》 찌또브가 그에게 물었다.
의사는 후 하고 숨을 돌리였다.
《붕대를 고쳐감아야겠는데 그는 나가버렸단말이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중사동무는 웃고있군요!… 열이 39도에 가까운데. 헌데 저 사람은 웃고있단말입니다. 격리

실에다 가둬둘테요. 그리들 아시오.》
《명절대목이여서 열이 껑충 뛰여올랐지요. 허지만 래일이면 떨어집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음성이 들려왔다.
《헌데 봉합이 터지면 그땐 어떻게 하구요?》
《뭐요. 그가 좀 걸어다니게 되면 그땐 곧 공격에로 나가야지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꼬스쨔는 빙긋이 웃었다. 그는 선생님의 그런 답변이 맘에 들었던것이다.
《옳아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옳은 말씀이예요. 나역시 기분이 좋은걸. 래일이면 일어날수 있을거야요.》
《그럼 그한테 이야길 좀 하시오! 엄격한 생활규칙에 대해서 말이요. 그이상 다른 아무 이야기도 필요없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응당 누구나 다 나에게 복종해야 하는것이요!》
의사는 성이 나서 내리엮었다.
《좋습니다. 의사선생, 중사 포민은 당신의 명령을 어김없이 집행할것입니다. 우리는 그 애를 타이르겠습니다. 그의 침대를 이리로, 격리실로 옮겨오십시오.》
찌또브련대장이 조언을 주었다.
(야, 좋은데.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나있는데로 옮겨오면 곧 그에게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해야지.)
꼬스쨔는 책들과 도면들을 마다라스밑에다 감추면서 생각하였다. 책들과 도면들을 감춘것은 의사가 이 방에 들릴수 있고 그러면 죄다 회수하거나 소란을 피울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의사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무슨 와냐니 뻬쨔니 또 그리고 꼬스쨔는 이름도 잘 알아들을수 없으나 웬 처

녀애들의 건강에 대해서 련대장에게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당신을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귀중한 식료품들을 죄다 그 애들한테 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러는 위생중대에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건강도 역시 보장해야 할게 아닙니까.》
《아니요. 의사선생, 아니요. 우리는 래일 받읍시다.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아니, 변전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것일가?) 꼬스쨔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정말 그곳에 애들이 살고있단말인가? 그 애들은 거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있을가?)
아침에 꼬스쨔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기침을 참아가면서 숨을 내쉴적마다 자기한테서 얼굴을 돌리는것을 감촉하였다. 딱히 말할수 없으나 무슨 다정한, 친숙한 냄새가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듯 하였다.
(아, 바로 그이로구나! 다정하신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잘 잤니, 꼬스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안녕하십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꼬스쨔는 답례하였다. 꼬스쨔는 어느새 그의 목을 그러안고 꽉 죄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행복에 겨워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용서하십시오!》
《너를 축하한다. 꼬스쨔야, 명절을 축하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
흥분을 억제하면서 포민이 대답하였다.

*　　*

이튿날 열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꼬스쨔는 변전소로 갔다.

쇠테두리를 댄 출입문은 삐걱소리를 냈다. 꼬스쨔는 조심스레 문턱을 넘어서자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변전소안에는 자기또래의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리자가 그를 맞이하였다. 리자는 선참으로 기라라고 부르는 몸이 갱핏하고 눈이 조그마한 처녀애한테 꼬스쨔를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는 열한살쯤 되여보이는 머리칼이 새까만 다박머리 총각애를 뻬쨔에게 소개하였다.

(참말로 좋은 애들이구나.) 꼬스쨔는 그 애들을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전쟁과도 포위와도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제 곧 모두 좋게 될것이다.)

이 갱핏하고 눈이 조그만 기라조차도 우리편이 멀지 않아 주력과 합쳐질것이며 그러면 볼가강까지 기여나왔던 파시스트들은 포로가 될것이고 그러면 놈들을 새로운 학교건설에 동원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젠 여기는 좋게 됐어. 파시스트놈들은 완전히 잠잠해졌거든.》 뻬쨔가 점잖게 말하였다.

새로운 친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난 꼬스쨔는 도람통으로 만든 난로가 놓여있는 배전반뒤로 갔다. 그 난로는 《현관》과 기숙사사이를 간막이하고있었다. 난로에서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있었다. 시뻘겋고 누렇고 시퍼런 불길들이 난로문결에서 아양을 떨고 난로벽들을 간지럽히는듯 하였다. 그러는품이 마치 난로로 하여금 웃을것을 강요하는것 같았다. 난로에서는 포근하고도 가정부엌에서 풍기는것 같은 기분좋은 냄새가 풍

기였다. 그렇기때문에 변전소안은 건조하고 뜨뜻하고 안온하였다.

《우리네 여기는 언제나 그렇단다.》 리자가 자랑을 하였다. 《저녁이면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우리한테 몸을 녹이러 오군 해. 집에서처럼 옷도 말리고 휴식들도 한단다.》

(바로 이 불과 불을 발견한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 해.)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였으나 입밖에 내여 말을 하지 않았다. 난로곁에는 불갈구리를 손에 든 빨간머리에 얼굴이 동그스름한 사내애가 서있었다. 그는 꼬스쨔와 인사할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와냐였다. 뻬쨔와 기라 몰래 파시스트놈들을 잡기 위한 함정을 만들던 바로 그 와냐였다.

그 함정은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리자가 초청했던것을 생각하고 자진해서 변전소로 왔던것이다.

《당직이냐?》 꼬스쨔가 그에게 물었다.

《응, 그래.》 와냐가 대답하였다. 《특별근무야.》

《아니란다. 그 애는 처벌기간이 끝난거야.》리자가 주석을 달았다. 《어제말이다.…》

《그만둬, 이제 내가 다 설명할테다.》 얼굴이 둥근 소년이 밀막았다. 《여기는 추워지는수가 있어. 어차피 누구든지 불갈구리를 들고 서있어야 하지. 그렇지만 나도 공부를 하고있어.》 그는 무슨 선을 거미줄같이 그어놓은 난로옆구리를 가리켰다.

《저것보지. 숙제를 풀고있구나!》

깜짝 놀란 꼬스쨔는 전쟁전에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가고 물어보고싶었으나 바로 그때 얼굴이 둥근 소년이 불갈구리로 난로를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놀란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자기 위치로!》 그리고는 꼬스쨔한테 설명을 하였다.
《이젠 휴식시간이 끝났단다.》
벽에는 추시계가 걸려있었고 당직은 질서를 주의깊게 감독해야 하였다.
《그래 너는 무엇을 하고있니?》
꼬스쨔가 리자에게 물었다.
《공부를 하지. 숙제도 풀고 책도 읽고. 저걸 보지. 시간표까지 있어.》
꼬스쨔는 시간표를 쳐다보고 빙긋이 웃었다.
(학습이 아니라 장난이로구나. 이건 죄다 그게 아니야. 에이 참, 일에 착수해야지… 좋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당부한이상 집단을 사랑해야지.)
책상앞에 붙어앉은 꼬스쨔는 아이들이 어떤 숙제를 풀고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두고 기라를 도와주고 그다음에는 뻬쨔를 도와주었다. 이윽하여 그는 제 정신이 아니다싶이 되여 아이들에게 모든것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애들은 즐거워서 눈들을 반짝이였고 꼬스쨔자신도 다시 책상앞에 앉게 된것이 기뻤다.
《동무들은 모두 가르쳐주고 대주고 또 자체로 알아내야 합니다.》 꼬스쨔는 롱삼아 중얼거렸다. 지금 꼬스쨔는 자기의 동무들속에 있는것이 기뻤다.

제 18 장

변전소에서 생활하면서 꼬스쨔는 남모르게 자기 일에 달라붙었다. 그렇지만 같은또래들이 종종 그를 방해하였다. 특히 그 침울하고 말수가 적은 와냐가 자주 방해

하였다. 그는 일찌기 일어나서 난로옆에 앉아있기를 좋아하였다.
(아니 이런, 무던히도 난로에 달라붙는군.)
꼬스쨔는 그에 대하여 비양조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꼬스쨔는 처음 얼마동안은 와냐가 페허들로 싸다니면서 머리칼 밑뿌리까지 꽁꽁 얼었던것이 아직도 채 녹지 못하고있는것만 같았다.
후에 가서야 꼬스쨔는 와냐가 난로옆에 앉아있으면서 역시 무엇인가 생각하고있으며 지어 중얼중얼 혼자말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였다.
《와냐는 몽유병환자지. 그렇지?》
《몰라, 그 앤 매일아침 저 모양인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는 저렇게 앉아있군 하지. 물어봐야 잠자코 있는걸. 〈저리 비켜.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를 후려갈길테다.〉 이러군 한단말야.》
뻬쨔가 소곤소곤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둘이 함께 물어보자.》
와냐는 마치 꼬스쨔가 자기한테 와서 무엇을 하고있느냐고 묻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하였다.
《이제 곧 죄다 보여주마. 앉아서 들여다보라구.》 그는 꼬스쨔를 초청하였다. 《너두 할수 있겠지만 방해하진 말아다오.》 여기서 그는 뻬쨔에게 앞질러 다짐을 하였다.
난로앞에는 모래가 담긴 상자가 하나 놓여있었다. 와냐는 그 상자안을 정돈하였다. 와냐는 냉과리들을 수북이 모아놓고 재를 상자뚜껑에 기대여 쌓아놓고나서는 나무쪼각으로 모래를 고르롭게 펴면서 무엇인가 무척 중요한것을 꼬스쨔에게 설명할 차비를 하는듯하였다.
되도록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리자와 기라가 일어서는것을 보지 못하였다. 처녀애들은 조용히 세수들을 하고는 남비들을 가지고 아침식사를 가지러

위생중대의 부엌으로 갔다. 그 임무를 처녀애들은 사내애들한테 맡기지 않았다. 모두가 차례차례 부엌에 갔다오도록 하기 위하여 당번조직을 하려고 뻬쨔가 몇번 애를 써봤지만 무가내였다. 리자가 단호히 반대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순종하는수밖에 없었다. 리자는 제일 맏이였고 련대장이 친히 그런 직책에 리자를 임명했던것이다.

와냐는 무엇인지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며 가파로운 경사면이 있는 자드락 비슷한것을 만들어놓았다. 꼬스쨔는 대뜸 눈치를 챘다.

(돋을새김지도를 만들고있구나. 어디 좀 더 두구 보자.) 그는 잠자코 있었다.

《이건 볼가강이야.》와냐는 오불꼬불한 도랑을 가리키였다. 그 도랑은 난로뚜껑 바로 밑에 굴설되여있었고 그 일대는 좁은 물길과 자질구레한 모래섬들이 있는 평탄한 지대를 표시하여 재를 펴놓았다.

《거참 흐린 날씨에 물을 보는것 같은데.》뻬쨔의 입에서 튀여나온 말이였다. 《뿌얀게 눈이 아물아물하거든.》

《난로는 자볼지예를 표시한거지. 거기에는 우랄과 우리의 모든 도시들이 있구.》와냐는 뻬쨔의 말을 못들은척하고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건 쓰딸린그라드구.》 와냐는 손가락으로 상자 전면에 뻗어가다싶이한 도시의 경계선을 밋밋한 모래언덕우에 그려놓았다. 그런 다음 보드라운 벽돌부스레기를 한웅큼 집어서 도시와 그 주변의 페허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 볼가강변의 이 평야에는 크라스노아르메이스끄, 베께또브까, 싸렙따, 곡물창고, 우리 있는데로 치우쳐서는 다르 고라, 여기도 역시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흰주택들이 늘어선 완전한 거리들이지. 그것들을 우리는 이 석회로 표시하잔말이야. 중앙은 목탄으로 표시하구.

여긴 온통 불에 탔거든. 마마예브 꾸르간은 여기 이 조약돌로 표시하자. 더 앞은 공장구역이지. 여긴 〈붉은 10월〉이구. 지금 우리들은 여기 살고있지. 우리 옆에는 뜨락또르공장이야.》

《하하… 이젠 난 네가 보여주자고 하는걸 죄다 알만하다. 저것 보지. 정말 한마디한마디를 죄다 그대로 외우고있네.》

삐쨔가 불시에 끼여들었다.

《닥쳐라.》

와냐가 성이 나서 그를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못을 하나 집어들더니 짜리짜가 통과한 중심에 있는 깊고 구불구불한 이랑들을 모래에다 그리기 시작하였고 다음에는 돌기이골짜기를 그려놓았다.

이젠 꼬스쨔의 눈앞에는 단순한 모래상자가 놓여있는것이 아니라 낯익은 거리들과 골짜기들이며 광장들이 있는 완전한 도시가 보였다.

《방어선은 바로 이렇게 지나갔지.》

와냐는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못은 어딘가 도시의 서쪽교외의 모래속에 박히였다.

《그런게 아니야. 방어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였어.…》

삐쨔가 이렇게 반박하다가 별안간 말을 뚝 끊었다. 와냐는 정말로 입을 다물어야 할만치 적의에 차서 그를 쏘아보는것이였다.

《뒤통수를 얻어맞고싶으냐!》

와냐는 이렇게 을러메더니 가엾게도 녹쓴 못을 가지고 톱날형이며 동그라미 등 면밀하게 그려진 모든것을 죄다 망그러뜨리였다.

《잠간만.》 꼬스쨔가 와냐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우리네 뚜르게네브거리에 뜨락또르공장이며 학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더 보자…》

《바루 여기지.》

와냐가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였다.
《여기라는게 알린다.》
꼬스쨔는 생각에 잠긴채 고르롭지 못한 모래판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그리구 여기가 바로 우리네 우골라야거리지.》
뻬쨔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역시 생각에 잠기였다.
《이것봐. 이제는 자기네 거리들에 대해서 생각들 하라구. 모든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거야.》 와냐가 그들을 나무랐다. 《더 해보자.》 그러더니 다시 못을 가지고 볼가강에서 우선 뜨락또르공장을 잘라내고 다음에는 로동자마을을 절반으로 자르면서 모래에 골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붉은 10월》을 절반으로 자르기에 앞서 급한 곡선을 그렸는데 그 량끝은 거의나 볼가강에 이르렀다.
《이건 우리의 포위된 수비대다.》
《붉은 10월》공장에서부터 전선은 마마예브 꾸르간을 표시하는 조약돌들속으로 잦아들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짜리짜하구로 내려갔다.
와냐는 초원 어디엔가 크라스노야르마을 저쪽에다 점을 쿡 찍더니 이마살을 찌프리는것이였다. 무엇인가를 회상하면서 그는 전혀 자기 말이 아닌 말로 결론을 내리였다.
《보다싶이 쓰딸린그라드는 몇쪼각으로 잘리였다. 그렇지만 항복은 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62집단군은 파시스트놈들을 볼가강기슭에서, 마마예브 꾸르간과 공장구역의 거리들에서 제압하고있다.》
《야, 멋있게 이야기하는데.》
꼬스쨔는 공감이 가는듯 심중하고 홍조를 띤 와냐의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다.
《지금 전선은 저… 저 뭐라던가, 말을 잊어버렸군. 력사교과서에 뭐라고 씌여있더라?》

《〈고정되였다〉고 했지.》
꼬스쨔가 귀띔을 해주었다.
《응 그렇지. 전선은 고정되였어.》
《중위동지는 〈고착되였다〉고 했다.》
뻬쨔가 시정하였다.
《내 생각을 말한거다.》
와냐는 꼬스쨔한테서 눈을 돌리면서 푸접없이 뻬쨔에게 대꾸하였다.
(알만해. 이를테면 저 애는 누군가의 말을 되받아넘긴거야.)
꼬스쨔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흥미를 가지고 모래상자를 들여다보고있었다.
《전선이 고착되였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네 생각엔 전선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거란말이냐?》
《서둘지 말어. 넌 아직 우리의 새로운 전술을 모르니까.》 와냐가 대꾸하였다. 《이것봐, 파시스트놈들은 이제는 우리의 전연과 지어 우리의 포위된 수비대에두 폭탄 던지는걸 그만뒀단말이야.》
《폭탄이 모자라니까 그러는거겠지.》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아니야.》 와냐는 반박하였다. 《놈들은 여기다 던지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와냐는 모다구대가리로 볼가강을 표시하는 재를 뚜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진짜 물기둥과 깨여진 얼음장들이 솟구쳐오르는것 같았다. 그런 다음 폭탄의 폭발을 묘사하느라고 난로의 쇠밀판을 몇번 두드리는것이였다. 《놈들에게는 아직 폭탄이 있단말이야. 그리구 여기엔 비밀이 없어. 우리의 참호들이 파시스트놈들의 참호에서 아주 가까운델 통과하고있거든. 비행기들이 우리 전연에다 폭탄을 떨굴수 없는데 그건 폭탄파편들이 제놈들에게도 미치겠기때문이야. 그래서 놈

들은 할수없이 물러가든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거지. 그렇지만 그러는동안에 우리편은 무엇인가 생각해낸단말이야. 알만해?》

《야 참, 교묘한데!》 뻬쨔가 환성을 올리였다. 《그런데 어째서 포부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니?》 끄스쨔가 물었다.

《우리의 포부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거야 너도 잘 알지 않니. 가장 중요한 포들은 볼가강 건너편에 있어. 그 포들은 파시스트놈들을 맘대로 답새기고있지. 바로 여기서말이다.》 와냐는 난로를 가리켰다.

이때 기라가 문을 쾅 여닫으면서 들어왔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서 불꽃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침이군!》 와냐는 그가 들어온것이 못내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 들어온 기라는 남비를 내려놓고나서 마뜩지 않게 아이들의 발밑을 바라보았다.

《어린애들처럼 또 어지럽혔구나.》 그러고는 비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하였다.

애들은 순순히 기라앞에서 물러섰다.

《장하다. 와냐! 네 일은 정말 멋있게 됐다.》

끄스쨔가 칭찬을 하였다.

《옹근 한주일동안 외웠어. 이건 중위동지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었어. 허지만 포부대에 대한건 내가 생각해낸거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란다.》

와냐가 솔직히 고백하였다.

《어쨌든 훌륭하다야.》 끄스쨔가 되뇌이였다.

《넌 정말 아주 훌륭하게 했다.》

뻬쨔가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자 와냐는 화해하듯이 뻬쨔를 쳐다보았다.

*　　*

남비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였다. 그래서 애들은 기라가 방을 다 쓸 때를 기다릴수가 없었다.

《기라야, 내 좀 도와줄가?》

삐쨔가 자진해나섰다.

《서둘지 말어. 아직 리자가 오지 않았다.》

기라가 대꾸하였다. 그러니 남비에서 눈을 돌리고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리자가 하얀 가제천에 싼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차가 나오겠지?》

《아니, 얘들아, 오늘은 차가 없다. 차관이 소독기로 쓰이고있다.》 리자가 대답하였다.

《뭣에 쓰인다구?》 삐쨔가 물었다.

《소독기로, 왜 그 갖가지 미생물로 된 균을 죽이는거말이야.》

리자가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어째서 필요하니?》

《삐쨔, 넌 마치 모르는것 같구나. 어째서라니…》

흰 보따리를 턱으로 가리키면서 리자가 그를 나무랐다.

《알겠다. 설명은 안해두 돼.》

와냐를 세면대로 부르면서 삐쨔가 동의하였다.

아침식사가 끝나자 리자는 책상에 깨끗한 가제를 씌우고 그우에 헝클어진 붕대를 옹근 한더미나 쌓아놓았다. 그 붕대들은 충분히 끓인것이고 끓는물에 씻고 또 씻은것이였다. 그 붕대들을 토리를 지어서 위생중대에 다시 보내주어야 하는것이다. 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리자가 이야기도 해주고 실지로 보여도 주었다. 그것은 주로 꼬스쨔와 관련되여있었다. 꼬스쨔는 이런

일을 처음으로 대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그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뜸 붕대에 마음이 쏠리였다.
《가만.》 리자가 그를 제지하였다. 《우선 손을 씻고 그담에 위생검열을 하고 그런 다음에…》
꼬스쨔와 와냐는 세번 리자앞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매번 리자는 무엇인가 찾아내군하였다. 손톱밑에서 조그마한 진흙반점을 찾아내든가, 거스름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재티를 찾아내는것이였다.
《어디, 너희네 그 소독기는 그렇게 잘 씻지 않지?》 와냐는 버럭 화를 냈다.
《우선 물로 깨깨 씻은 다음에라야 소독기를 주겠단말이야.》 리자는 단호히 자기 고집을 세웠다.
붕대를 감을 때가 되기전에 꼬스쨔와 와냐는 조급성으로 하여 눈들이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뻬쨔는 해본 경험이 있기에 일에 착수할 권리를 아주 수월하게 얻었다.
꼬스쨔는 첫 붕대는 리자의 도움을 받아 토리지었다. 사실인즉 그 붕대토리는 리자가 만든것이였으나 그것을 꼬스쨔앞에다 놓았다. 꼬스쨔가 두번째 붕대를 집어들었을 때 기라와 뻬쨔앞에는 어느새 세토리, 와냐앞에는 두토리가 놓여있었고 리자앞에는 한토리도 없었다. 그렇지만 리자는 곧 기라와 뻬쨔를 따라잡았다. 무데기로 쌓인 붕대의 량이 점점 불어났다. 꼬스쨔와 와냐는 얼마간 뒤떨어졌으나 익숙해지자 정열적으로 달라붙었다.
경쟁이 한창 고조되였을 때 드센 충격과 폭발소리들이 울리였다. 도이췰란드놈들의 대구경박격포들이 포위된 수비대의 방어진지종심을 차례차례 더듬었다. 몇개의 박격포탄이 바로 변전소곁에서 폭발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그런 진동에는 익숙되여있었기에 작업을 계속하였다.
뻬쨔만은 머리를 어깨틈에 움츠리고 잠시 등신처럼 앉아있었다.

《이제 우린 너를 따라잡을테다.》 와냐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놈들은 우리한테서 뭐가 요구돼서 그런담! 불질을 하고 또 불질을 하니.》
뻬쨔는 적진에 대고 무섭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윽하여 처녀애들이 사내애들을 훨씬 따라앞섰다는것이 완연해졌다. 와냐는 분한 마음으로 줄어가는 붕대무지를 쳐다보았다. 보매 그는 처녀애들에게 몹시 뒤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였다.
《훔쳐가지 말아.》
그는 얼마간의 붕대를 예비로 끌어다놓고나서 리자에게 말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내돋았고 꼬스쨔도 분명히 처녀애들편이 앞섰다는것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좋아. 붕대를 더 가져오너라. 다시 시작하자.》
리자와 기라가 붕대토리들을 세기 시작하자 뻬쨔는 자기 동무들을 변호하여 이렇게 요구하였다.
《얘, 넌 어쩌면! 그럼 공부는 언제 하구?》 기라가 그를 제지하였다.
《옳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공책들을 검열받으려 자기한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
리자가 기라를 지지해나섰다.

*　　*

처녀애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와냐는 공부가 끝난 뒤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걸. 승리자들이 이제 또 자기들, 처녀애들이 사내애들보다 전선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들하겠지.)
와냐는 무엇으로든지 동무들앞에, 알렉싼드르 이와노

위치앞에 그리고 련대장앞에 솜씨를 보이고싶었다. 그는 다시 침울해졌고 과묵해졌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와냐는 변전소에서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여서야 돌아왔다. 허지만 엄숙한 표정이였다.

《너 어디 갔댔니?》 리자가 그에게 물었다.

《포부대에.》

《너 거긴 왜 갔댔니?》

《이제 저녁이 되면 다 알게 돼, 왜 갔댔는지.》

와냐는 의미심장하게 암시하였다.

뒤미처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간밤에 비행기들이 탄창들을 포함한 약간의 짐을 떨구었다. 그것들을 곧 포부대에 나누어주었다.저녁이 되자 변전소로 얼마간의 기관단총 탄대와 뻬뻬샤기관단총들의 탄창을 날라왔다. 처음에는 탄창장진이 병기기술자의 감시하에 진행되였다. 와냐는 탄창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아서 빨리 기술자에게 신임을 받아 일을 하였다.

《될수록 고르롭게, 될수록 고르롭게 장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알겠지. 장진에 많은것이 달려있단말이야. 완전히 막혀버리거나 고장이 생기면 그땐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것 같으니!》

그는 자기또래들에게 열중하여 설명을 하였다.

《와냐야, 넌 어디서 그런 세밀한걸 다 알게 되였니?》

꼬스쨔는 부러운 눈으로 그의 민첩한 손들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다 알지.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

《그럼 기관총수였니?》

《되고싶었지만 받아주질 않았어. 그저 늘 협조만 했지. 그러다가 전투에 나갈 날이 와서 나를 보냈지. 그래서 볼가강을 넘어왔어.》

《그래 어떻게 되였니?》

《뜻대로 안됐어! 다 틀어지고말았지… 리자, 리자, 너무 그렇게 꽉 쥐지 말아. 옳지, 그렇게 허분히 그리고 고르롭게 하는건 내가 하겠다.》

자동총들의 탄창을 장진할 때는 와냐 한사람만이 용수철을 감을만한 힘이 자랐다. 70발의 탄알을 열려진 탄창의 라선확에다 밀어넣는것은 그리 수월한 일같지 않았다.

그러나 와냐는 실지 경험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서는 탄알들이 해바라기속에 있는 씨처럼 하나하나 줄을 지어 일어서는것이였다. 작업이 끝나갈무렵에 그는 리자와 기라보다 두배나 더 하였고 꼬스쨔와 뻬쨔보다도 훨씬 앞섰다.

다음날에도 뻬쨔와 꼬스쨔, 기라, 리자들은 탄알장진작업을 독자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저희들끼리 경쟁을 하였으나 와냐는 경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작업의 질을 돌보았고 매 동무들의 용수철감는 일을 협조하였다.

(훌륭해, 와냐, 장하다! 그렇지만 나두 곧 너한테 내 솜씨를 보여줄테야. 이제 두고보면 놀랄게다. 내가 하고있는 일은 탄알장진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것이여서 완력만으로는 해내질 못할게다.)

꼬스쨔는 와냐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꼬스쨔는 규정에 따라 탄알을 장진하려고 애썼다.

애들은 자기들이 탄창들과 탄대들에 가득가득 채운 탄알들로 적의 당면한 공격을 격퇴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랴.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자기들이 정말로 그리고 성과적으로 쓰딸린그라드를 위하여 싸우고있는상싶었다. 와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였다.

제 19 장

하수도관으로는 련락병들과 집단군참모부 파견원들이 점점 더 자주 다니게 되였다. 포민이 개척한 땅밑 오솔길은 다니기 어렵고 위험하였지만 그 오솔길이 유일한 통로였다. 포위된 수비대로 통하는 다른 길은 없었다. 관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길을 비킬수가 없었다. 그래서 과업의 중요성여부에 따라서 누구든 한사람이 먼저 앞으로 전진해야 했고 다른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웃뚜껑있는데까지 뒤걸음질로 기여가야만 하는것이였다. 그런 일로 하여 짤막한 맞불질이 한두번만 벌어지지 않았었다. 통신병들이 특히 그런 상봉을 많이 체험하였다.

야전우편함 32410 호의 거점은 다시 살아났다.

혈육들과 친지들한테서 오는 편지와 엽서들! 얼마나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은 편지를 읽기전에 고향집의 향기를 맡기라도 하는듯이 우선 봉투를 입술에 가져다대는것이였다.

포민은 떨면서 편지를 읽었다. 역시 교원인 안해가 자기네 학급의 성과들을 온 나라의 생활에서의 대사변과도 같이 알려왔었다. 그 녀교원의 편지는 아주 정당하였다. 포민은 일부 글줄들은 몇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내여 거듭 읽었다.

제르노브도 삼각봉투편지를 받았다. 현재 그는 아침마다 붕대를 갈아대러 오군하였는데 거기서 직접 편지를 받았던것이다. 열두살짜리 남동생 뜨리샤가 산수, 지리, 로어에서 5점을 맞았다는것을 써보냈고 집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왔다. 가을걷이형편, 곡물납부정형과 암송아

지에 대한 소식이였는데 자기는 여름내 그 송아지로 뜨락또르작업반에 물을 날랐다는것이였다.

《래년 여름에는 련결수로 일할 작정입니다.》

뜨리샤는 이렇게 써보냈었다.

제르노브는 이런 문구들을 혼자 조용히 읽을수가 없었다. 그는 변전소로 달려왔다. 여기서는 모두 그를 잘 알고있었고 또 사랑하였다. 제르노브는 편지를 기발처럼 휘두르면서 말하였다.

《장하다. 얘들아, 장하다! 읽어들 봐라!》

그런 다음 처음으로 맞다들리는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흔들어댔다. 리자가 편지를 받아들고 소리내여 내리읽자 제르노브는 불시에 이런 제의를 하였다.

《얘들아, 우리 노래를 부르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말이다.》

그가 어떤 노래를 두고 말하는것인지 모두들 잘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곧 《와랴가》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동무들 갑판우로, 모두다 자기 위치로!
마지막 사열이 시작되였다
우리네 자랑찬 《와랴가》 원쑤앞에 굴하지 않으리
누구도 자비를 바라지 않는다

제르노브는 피아노를 치는것보다는 노래가 서툴었다. 그렇지만 그는 애들이 만사를 잊어버릴만치 흥미있게 지휘를 하였다. 그는 노래가 끝나자 다시 동생한테서 온 편지를 읽을것을 제의하였다.

제르노브는 집소식을 애들처럼 기뻐하면서 모두가 자기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랐다.

찌또브련대장만은 편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우편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고장에 있었다. 즉 그들은 적강점지대에 남아있었던것이다.
찌또브는 자기 개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내색을 하지 말자고 애를 쓰고있었다. 우편물송달시간이면 그는 서기를 불러놓고 련대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부모들과 안해들에게 보낼 해답편지를 불러주군하였다.
변전소에서 생활하는 애들한테도 련대의 기통수는 편지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 수비대의 어린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고정된 주소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편지를 기대할만한 사람도 없었다. 부모들은 여기, 쓰딸린그라드에서 사망하였고 먼 친척들과 친지들은 이런 불바다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있을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였다. 리자나 기라, 뻬쨔, 와냐들도 누구한테서 편지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아할것이였다. 그러나 누구한테서 편지가 오겠는가?
꼬스쨔는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편지를 보내올만한 사람이 없었다. 요즈음 꼬스쨔의 앞에는 더욱더 빈번히 아버지의 영상이 떠올랐다. 꼬스쨔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자기를 전사한 뿌르긴소좌의 아들로서 끝없이 사랑하며 큰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
(아마 아버지는 련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놓았나보지. 다들 그토록 오래오래 기억하고있으니말이야. 련대에서 전사한 사람이 오죽이나 많다구. 그런데도 모두 아버지를 잊지 않고있거든. 그러니 나도 그런 련대를 위하여 앞으로 내가 련대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해도 오래도록 다들 나를 기억하고있을만한 일을 해야 할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나서 꼬스쨔는 자기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라붙었다. 요사이 꼬스쨔는 통신소대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였다. 그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 소대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얼마 안있어 또다시 무전기를 수리하는 일을 맡을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야말로 꼬스쨔에게 있어서는 가장 열광적인 시기가 닥쳐온것이였다. 그는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든 뒤에 무전기를 변전소로 날라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 이것저것 물어들 볼거구 또 방해할거란말이야.)

꼬스쨔는 작업장소를 벌써 낮에 외딴 구석에다 마련해놓았는데 그 구석을 침대로 바리케트를 쌓듯하고 책상과 의자들로 둘러막아놓았다. 무전기를 거기다 감추고나서 꼬스쨔는 뻬쨔곁에 가 누웠다. 그렇지만 잠이 오질 않았다. 머리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으랴. 무전기술공학에 관한 책들을 옹근 한무데기나 읽었고 파괴된 학교지하실에서 찾아낸 도면들과 도해들을 열번도 더 검토한것은 실로 헛된 일이 아니였다. 그 도면들과 도해들은 지난해에 라지오소조에서 기사의 지도밑에 만든것이였으나 이제 와서 꼬스쨔가 보니 그속에는 잘못된 점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는 꼬스쨔와 그의 또래들이 소조에서 그저 되도록 빨리 해치울 생각만 했고 때로는 장난삼아 일을 했기때문이였다.

(괴짜들이였지. 우린 그때는 정말 괴짜들이였다니까. 그때 바로 지금처럼 진지하게 했어야 할건데. 그랬으면야 전번처럼 그런 창피는 안당했을거란말이야.)

무전기수리에 착수한것과 전소대의 면전에서 실패한것을 돌이켜 생각한 꼬스쨔는 걱정스러워서 더는 그대로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그의 생각에는 이제야 비로소 그 수치스러운 오점을 씻을수 있는 기회가 온것만 같았다.

그러니 머리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으면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겠는가?

물론 잠들수 없었다.

《끄스쨔, 너 어디 있니?》
한밤중에 잠에서 깬 삐쨔는 자기곁에 끄스쨔가 없는것을 감촉하자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삐쨔는 벌써 아침인가 생각하였다. 그런데 왼편구석에 등잔불이 켜있는것을 발견하자 고양이처럼 조용히 일어나서 끄스쨔한테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뭘하고있는지 좀 훔쳐봐야지. 저 애의 비밀을 죄다 발가놓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나도 아무런 비밀도 숨기지 않을테야.)
분해된 무전기며 숱한 여러가지 코일들이며 구리쇠줄들, 나사못들, 수나사들, 반짝거리는 콩알전구들, 쇠줄들, 은종이(금속박편)들.
끄스쨔가 열심히 들여다보고있는 도면들을 보자 삐쨔는 감히 말 한마디도 꺼낼수가 없어서 그저 자기 동무가 하고있는것을 말없이 점도록 지켜보고있었다.

*　　　*

끄스쨔는 자기 일에 아주 열중하였다. 처음에는 와냐가, 다음에는 리자와 기라가 자기한테로 다가오는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너 자지 않았니?》
리자가 그에게 물었다.
《어? 뭐라구? 그래, 그래… 중심코일과 4천회토리가 못쓰게 되였어. 그리고 축전지가 뚫어졌다.》
《아니 뭐 뚫어졌다구? 적탄에, 정말 개자식들같으니.》영문도 모르면서 삐쨔가 분해하였다.
끄스쨔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앞에 있는 동무들을 알아보았다.
《아니야. 삐쨔, 탄알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전류로

해서, 알겠니. 전기의 불꽃이 절연용법랑질을 뚫은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류가 그리로 흐르지 않아.》
꼬스쨔는 뻬쨔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럼 당장 수리하자꾸나.》
와냐가 대뜸 제기했다.
꼬스쨔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게 아니야, 와냐. 전같으면 나두 그렇게 말했을게다. 허지만 지금은… 이건 무선공학이니까. 맨손으로 지식이 없이는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다.)
《너희들, 나를 좀 도와주렴.》 느닷없이 꼬스쨔는 동무들에게 제의하였다.
《도와주겠다.》
와냐가 대답하였다.
《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완력으로 달라붙진 말아야 해.》 꼬스쨔가 경고하였다. 《우선 이 코일을 고쳐감자. 여기에 4천회토리가 있다. 그담엔 접촉들을 검열해보고, 그런식으로 순서대로 무전기를 제대로 조립하자.》
아이들은 꼬스쨔의 말을 미덥게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작업에 달라붙었다.
이러저러한 부분품에 손을 대기전에 아이들은 장들을 뒤지고 읽고 도면들을 대조해보았다. 그런 다음에야 부분품들을 제 자리에 맞추기도 하고 수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작업은 굼뜨게 진척되였으나 재미가 있었다. 많은, 무척 많은 흥미있고 새로운것을 뻬쨔와 와냐는 시시각각으로 알아냈다. 통신소대에서 이리로 온 상급무전수가 까다로운 문제들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무전기를 살릴수 있다는 기대가 실현될수 있을것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수비대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공장 석유저장고의 폭발로 하여 시작된것이였

다. 그 석유저장고는 공장구역의 높은 지대를 통과하는 철길굽이에 있었는데 파시스트놈들이 그것을 폭파하였던것이다.

수천톤의 불타는 석유와 중유가 포위된 수비대의 관내로 흘러퍼지면서 참호들과 전호들, 교통호들을 불로 짓뭉개였다. 부글부글 끓는 용액이 참모부와 위생중대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엄페부가 배치된 골짜기로 돌진하여왔다. 석유는 모든 틈새들과 도랑들로 스며들면서 볼가강으로 흘러들었다. 대지가 불타고 돌들이 쩡쩡 갈라지고 폐허들이 무너져내렸다. 화재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화재였다. 포위된 수비대는 불바다속에 잠겨버렸다. 석유가 다 타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서 영웅적인 투쟁은 끝장이 날것만 같았다. 만일 누구든지 옆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거기에 즉 이런 화재의 심연속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서 싸우고있으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못할것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포위된 수비대에 있어서 간고한 시간들이였고 분초들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포도 당황도 없었다. 쓰딸린그라드의 불바다속에서 단련된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그 화재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의 투쟁에 달라붙었다. 화염속에 뛰여들어 불타는 엄페부에서 부상병들과 환자들을 날라내왔고 흙을 뿌리여 불을 끄고 다시 전투로 넘어갔다.

아이들이 생활하고있는 변전소까지는 불이 미치지 않았다. 공장울타리앞에서 화재를 진압했던것이다. 그때 꼬스쨔와 와냐, 뻬쨔, 리자, 기라들은 삽과 모래를 담은 바께쯔들을 들고 자기들이 거처하는 변전소앞에 지키고 서 있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어른들이 불과 싸우는것을 보자 아이들은 포민의 지도밑에 자기들의 학교인 동시에 정다운 집인 그 변전소를 그

렇게 고수하기로 하였던것이다.
《꼬스쨔야, 어디 말 좀 해봐라. 무선전파가 불속을 통과할수 있니?》
난데없이 뻬쨔가 이렇게 물었다. 마치 화재가 그냥 꺼지지 않으면 그런 정황으로부터의 출로라도 탐색하려는듯 하였다.
《통과하고말고.》 꼬스쨔가 대꾸하였다. 《불을 통과할뿐아니라 바다밑에서 물속으로도 무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단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수리를 해라. 여긴 우리들이 지키고있을게.》
와냐가 제기하였다.

*　　　*

하루낮 하루밤을 화재는 숨을 죽이지 않았다. 어떤데서는 영웅적인 수비대의 병사들이 불을 껐고 또 어떤데서는 남아있는 전호들과 참호들이 석유를 온통 빨아들여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불이 저절로 꺼졌다.
중요한것은 공장울타리와 련대의 기본방어진지를 지켜내는데 성공한것이였다. 찌또브련대장은 그런 화재가 있은 뒤에는 파시스트놈들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리라는것을 예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밤중으로 사령관동지와 무전결속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보고하고나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련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참으로 그는 공장연유공급소에 묻어둔 석유탕크를 파내도록 명령하였다.
《불은 불로 맞섭시다.》
련대장은 자기의 전투원들에게 말하였다.
아침녘에 온 공장광장이 석유와 휘발유로 흘러넘쳤다.

찌또브련대장이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그때는 이 지대가 확 타올라야 할것이였다.

누구나가 다 련대장의 계획을 리해할수는 없었다. 그렇다. 이런 큰 화재뒤에 또다시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는것은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불필요한 희생을 동반하는 위험한 모험이였다. 그렇지만 찌또브련대장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우리는 이미 불속에서 살며 싸울수 있게 훈련되였소. 허나 파시스트놈들은 그렇질 못하오. 놈들이 그런 징벌을 이겨낼수 있는가 어디 두고봅시다.》

찌또브련대장은 가장 미덥고 대담한 전투원들(그중에는 제르노브도 끼여있었다.)로 조직된 병사그루빠를 지휘하면서 설명을 하였다.

아침에는 포위된 수비대상공에 전례없는 정적이 비껴있었다. 처음에 끄스쨔는 자기가 귀머거리가 된상싶었다. 그는 찌또브련대장에게 련대에는 오늘부터 무전기가 두대 있다는것을 보고하러 달려갈 작정으로 변전소에서 나왔다.

끄스쨔는 무전기를 조립해가지고 이미 첫 신호들을 잡았던것이다. 사실인즉 송신기는 아직 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수신은 정상적으로 되였다. 이제는 다만 군단참모부의 무전기가 어떤 통신으로 파장을 보장하고있는가를 알아내야 하는것뿐이였다. 그래야 통신망에 가담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할가? 사격소리도 폭발소리도 없으니.)

끄스쨔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의 눈앞에는 공장담벽이 마주서있었다. 공장담벽은 시꺼먼 돌로 된 절벽과도 같이 서있었다. 폐허들은 점점 커지는 엄청난 구멍같이 보였다. 하늘에서는 아직도 계속 검댕이가 송이송이 떨어

져내리였다. 사위는 시꺼멓고 고요하였다.
꼬스쨔의 뒤를 따라 리자가 나왔고 나머지 아이들이 리자의 뒤를 따랐다. 말없이 서로 꼭 붙어서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애들은 어째서 이런 정적이 깃들었는지 통 리해할수가 없었다. 지어 원쑤놈들이 있는 그쪽에도 역시 조용하였다. 파시스트놈들은 가만히 숨어서 포위된 수비대의 죽은듯한 정적에 귀를 강구고있을것이였다.
그렇다. 정말 그랬다. 파시스트놈들은 그런 화재뒤이니 포위된 수비대는 완전히 파멸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놈들은 더는 저항에 부딪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전진하였다.
산병선뒤에 또 산병선, 종대뒤에 또 종대로 파시스트놈들은 전에 공원이였던 곳으로 해서 공장광장으로 진격해왔다. 선두에서는 땅크들이 기여왔다. 열대가 넘는것 같았다. 땅크들은 거뭇거뭇한 관목들이며 결단이 난 나무들과 그루터기들이 보이는 공지로 해서 기여왔다.
꼬스쨔가 구경을 하려고 자갈무지우에 올라섰을 때는 땅크들이 나쟈가 묻혀있는 바로 그 백양나무앞에 와있었다.
《흉악한놈들같으니…》
꼬스쨔의 가슴에서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땅크들뒤에서는 청회색외투를 입고 팔에 《백골》사단의 완장을 낀 보병들이 진격해오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땅크들은 발동기를 푸르렁거리고 무한궤도를 절그럭거리면서 기관총사격으로 매개 구뎅이, 매개 흙무지들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참호들우에서는 련발사격탄알이 쌩쌩 휘파람소리를 질렀다.
《우리들을 쏜다!》
꼬스쨔가 은페호로 아이들을 밀어보내면서 웨쳤다.

다시 몇초가 더 지났다. 땅크들은 전진을 멈추더니 보병을 기다려가지고 곧장 광장으로 진격해왔다.

꼬스쨔가 엎드려있던 바로 그 무지에서 별안간 누군가가 벌떡 일어서더니 땅크를 맞받아 달려나갔다. 그는 어깨에다 무슨 장대같은것을 메고 교통호를 따라 날쌔게 달려갔다. 그는 제르노브였다. 지금 반땅크총사수는 보지 않던 무기를 가지고있었다. 즉 한끝에 석유와 휘발유가 함뿍 밴 큼직한 걸레쪼박이 달린 쇠장대였다.

자기의 전호까지 달려간 제르노브는 흙벽에 착 달라붙었다. 그에게는 이미 장갑철판의 우글쭈글한 이음새며 시창들과 거미줄같은 십자형이며 《해골》표식들이 빤히 보였다. 그는 석유가 질벅히 밴 흙이 무한궤도들에 뒤발리고 땅크들의 무게에 눌리운 일부 웅뎅이들에서 석유가 사방으로 휘뿌려지고 장갑철판에 끼얹어지고 시창들을 후려치는것이 만족스러웠다.

파시스트놈들은 쓰딸린그라드 방어자들에게 저들이 마련해준 불의 장검이 자기들한테로 돌려졌다는것을 알기나하는지? 놈들은 저들의 발밑에서 성스러운 땅이 불타오르리라는것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는지?

제르노브는 전호에서 뛰여나오더니 장대를 추켜들었다. 장대에서는 홰불이 붉은기폭처럼 활활 타올랐다.

땅도 불탔다!

적땅크들은 기관총으로 제르노브를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반땅크총사수는 무너지듯이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곧 다시 일어났는데 전신이 불에 싸여있었다.

그는 한옆으로 비칭거리더니 다음에는 곧바로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여기서도 땅이 불타올랐다.

《저건 대체 뭐야? 광장으로 불덩어리가 구을러가는것을 보지.》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금시 땅크를 맞받아 달려나갔다. 땅크의 앞길을 막아서는듯하였다.
땅크가 한대, 두대, 석대 불타기 시작하였다.… 그밖의 땅크들은 무한궤도로 땅에 엎드려있는 자기네 보병을 깔아뭉개면서 뒤걸음질을 하였다.
그러나 땅은 불타고 또 불탔다!
불과 연기속으로 불덩어리가 언덕으로 구을러올라가서 그 자리에 멈춰선것이 빤히 보이였다. 그리고 멈추어서자 꼬스쨔에게는 그것이 사람이라는것이 똑똑히 알리였다. 그는 손을 쳐들었다. 합접이 된 불길들이 그의 둘레에서 너울거리였다. 그 불길들은 마치 도시의 방어자들을 투쟁에로 호소하는듯하였다. 그리고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있었던듯하였다.
우렁찬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가렬처절한 전투에서 적들을 포위된 수비대의 경계선밖으로 격퇴한 후 몇시간이 지나서 제르노브를 참모부로 옮겨왔다.
영웅을 추모하는 간단한 집회가 소집되였다. 집회는 찌또브련대장이 사회하였다.
련대장은 제르노브의 이름으로 된 당증을 손에 들고 말하였다.
《제르노브동무, 우리는 이 소중한 문건을 동무한테 미처 수여하지 못했지만 동무는 공산당원으로 전사하였소. 동무의 위훈은 불타는 홰불과도 같이 항상 우리 조국의 애국자들의 심장을 불태울것이요! 미하일 제르노브동무에게 길이 영광이 있으라!》
련대의 병사들은 머리들을 숙이였다. 조포가 울리였다. 꼬스쨔는 찌또브련대장의 곁에 서있었다. 그런데 제르노브가 치던 피아노가 금시 울려올것만 같았다. 허나 피아

노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

불이 달린 땅크들은 뜨거운 불로 하여 경련을 일으킨듯 그냥 타고있었다.

제 20 장

포위된 수비대와의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간고한 생활을 체험한 파시스트놈들은 성스러운 계선의 방어자들의 불패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옹근 한주일동안 놈들은 지어 이 구역에 대하여 사격조차 하지 못했다.

변전소에서는 아이들이 비교적 평온하게 생활하였다. 리자의 어머니가 아이들한테로 왔다. 어머니는 위생중대에 있다가 온것이였다. 그의 시력은 회복될 가망이 없었다. 아이들이 하는 일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같이 대하였고 때로는 자기 딸에게 더 많이 또 더 엄하게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대번에 모든 아이들이, 뻬쨔도 와냐도 기라도 리자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였다.

끄스쨔는 오래전부터 그와 아는 사이였으므로 진정한 존경심을 안고 그를 대하였다. 끄스쨔는 이처럼 선량하고 영특한 녀인이 눈을 못보는것을 몹시 가엾게 생각하였다.

어쩌다가 뻬쨔가 이런 말을 입밖에 낸 일이 있었다.

소경인데 별 시시나한걸 다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이였다. 끄스쨔는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바짝 끌어당겨서 그가 입을 다물도록 말없이 대구 흔들어댔다. 그 순간부터 모든 애들은 다 끄스쨔가 리자의 어머니가 장님이라는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한층 더 자주 변전소에 왔다. 그는 꼬스쨔가 《라지오소조》를 조직하는것을 열렬히 찬성하였고 지지하였다. 아이들은 라지오진공관이며 변압기, 수신기, 마이크 등의 구조와 친숙해지면서 물리, 화학의 법칙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였고 전기적현상과 무선공학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아이들이 정력을, 그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고있는것을 인식하는데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과학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에 대한 흥미있는 담화를 진행하였다. 말하자면 뽀뽀브에 대하여, 쥬꼬브스끼에 대하여, 야블로치꼬브에 대하여, 쏘피야 꼬왈레브스까야에 대하여…

그런 담화들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실례로 뻬쨔는 쥬꼬브스끼와 같은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하였고 와냐는 야블로치꼬브와 같은 사람이 되고싶다고 했으며 리자와 기라는 쏘피야 꼬왈레브스까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싶노라고 하였다. 모두들 꼬스쨔를 기계기사, 발명가라고 불렀고 꼬스쨔의 이마가 라지오발명가 뽀뽀브의 이마와 같다고들 말하였다.

(그렇지만 이건 모두 앞날의 일이지.) 그들은 저마끔 속으로 이렇게 궁리하였다.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꼬스쨔야, 우리 이 무전기를 제대로 조립해서 련대장동지한테 가져가자.》 와냐가 이런 제의를 하였다. 《가지고 가서 말하잔말이야. 이젠 련대장동지가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련대에 받아주실거다.》

《옳아, 나두 갈테다.》

뻬쨔가 그를 지지해나섰다.

《허지만 이 무전기는 수신밖에 못하지 않니. 송신기는

우리들이 고칠수 없는걸.》
꼬스쨔가 반박하였다.
《이걸 여기선 무전수 혼자서 고치지 못해.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거야.》
꼬스쨔를 두둔하듯이 뻬쨔가 하는 말이였다.
《말하자면 이건 우리의 우점이야.》 와냐가 이렇게 결론을 짓다싶이 말하고는 열렬히 고집하였다. 《자, 가자. 넌 비겁분자가 아니지.》
꼬스쨔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하였다.
《다만 너희들이 먼저 청을 드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직방으로 그러진 말구. 그렇지. 우선 대포에 대해서 말하구 그런 다음에 무전기수리에 대해서도 말해야지.》
《좋아. 내가 선참으로 시작할테다.》
뻬쨔가 자진해나섰다. 마치 뻬쨔는 와냐가 자기를 그축에 받아주지 않을가봐 두려워하는듯하였다.
가까스로 밤을 새운 와냐, 뻬쨔, 꼬스쨔들은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처녀애들 모르게 련대장한테로 떠나갔다.

* *

《그런즉 너희들중 누가 포병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는거냐?》
아이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찌또브련대장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거기 대해서 직방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우리가 포부대에 드나들어도 되는가 하는것을 묻는것입니다.》
뻬쨔가 말하였다.
《우리들이라는건 누구들을 말하는거냐?》

《저 꼬스쨔하구 뻬쨔하구 또 나하구말입니다.》
와냐는 조급히 설명하였다.
꼬스쨔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거기서 너희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포탄이 없단말이다. 거기 사람들도 다른 일들을 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재미가 덜하지.》
련대장이 말하였다.
《혹시 꼬스쨔는 또 전연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을 구경해볼 생각이 있는게 아니냐? 그렇지만 탄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판이다. 그리구 너희들의 친구는 없다.》
꼬스쨔는 그 암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가요?》
그때 간막이 저쪽에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꼬스쨔, 꼬스쨔, 솔직히 이야기해라. 어째서 왔느냐 말이다.》
그 말에 꼬스쨔는 그만 당황하였다. 허지만 련대장은 마치 그런 지원을 기다렸던듯이 포민을 명랑한 어조로 불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난 동무가 잠이 들었나 했지.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구! 여기서 나를 공격하고있소. 돌격으로 점령하려는가보오.》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포민이 들어서면서 말하였다.
(아니, 이거 이제는 이분들이 둘이 달라붙어서 나를 조롱할 작정인가보지. 그 정찰인지 뭔지때문에.)
우거지상이 되여가지고 꼬스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를테면 너희들은 포부대에 드나들기로 결심했단말이지. 또 그담엔 뭐냐?》
중단되였던 이야기로 되돌아오면서 련대장이 물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난 그저 그렇게 말했을뿐입니다.》
뻬쨔는 무전기를 들여다보면서 점직한듯 이렇게 변명하였다. 이렇게 무전기가 다 수리되였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무전수라는것을 알아야 한다는것이며 포부대에 대해서 말한것은 허두를 떼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댄것이라는것이였다.
《저 애는 솔직하지 못하기때문에 그저 그렇게 말한것입니다.》
포민이 끼여들었다.
《아마 그렇다는게 옳은가 보오.》 찌또브련대장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가령 너 와냐는 무엇이 되고싶으냐? 조준수냐, 포지휘관이냐?》
귀맛좋은 질문은 와냐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느닷없이 자기 내심의 소원을 털어놓았다.
《포지휘관이 되고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련대장앞에 무릎으로 일어섰다.
포지휘관이 되였으면 하는 와냐의 소원은 그처럼 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청을 드릴 차비였다.
끄스쨔는 와냐가 가엾게 생각되였다.
(참,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되게 하였다니까.)
찌또브련대장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고 와냐가 금시 울음을 터뜨리리라는것을 감촉하자 소년의 발작을 막아주기로 결심들을 한듯하였다.
두사람은 우선 적은 반드시 격파되리라는것을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쏘베트인민에게는 있다, 군대도 있고 또 기술기재도 있고 그밖의 많은것이 다 있다는것이였다. 다음으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참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기술기재들의 능숙한 리용

에 대하여 말하고나서 념원 하나만으로는 적을 잡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꼬스쨔는 들으면서 어째서 그들— 찌또브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그처럼 상세히 설명을 하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와냐를 포병으로 받아줄 작정인가?

《이게 바로 포의 평면측정기다.》찌또브련대장이 말하였다. 《이건 계산자이구. 또 래일은 내가 라침판을 보여줄테다. 포병들은 모든것을 자기의 다섯손가락처럼 잘 알아야 하는것이다.》

와냐는 알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있는 하얀 접이자를 손에 들고 정방형이 수두룩한 평면측정기며 타원형으로 된 선들어간에 그려놓은 공식들과 계산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솔직히 말하였다.

《이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각섭이라는게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지적하였다.

《그러니 내가 포병으로는 적당치 않으리라는 말씀인가요?》

와냐가 훌쩍거리면서 물었다.

《왜 적당치 않겠니.》 찌또브련대장이 그를 달래였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여 이야기하였다.《너희들은 참 근기있고 령리한 아이들이다. 공부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그런 포병들이 나올것이다.》

《병사저격수라도 좋으니 우리들을 련대에 있게 해주십시오.》

찌또브련대장의 마지막마디의 암시적인 말뜻을 리해한 뻬쨔는 절망적으로 애원하였다.

담화는 한시간이상 끌었다. 애석하게도 뻬쨔와 와냐들은 보병저격수가 되는것도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수긍하지 않을수 없었다. 보병도 전술을 잘 알아야 하며 자동무기에 정통해야 하고 사격의 법칙들을 해득해야 하며 참을성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단련되여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별안간 천정에서 모래가 와르르 쏟아져내렸다. 에나멜칠을 한 조그마한 물통안에서 금속주사기가 짤랑짤랑 소리를 내면서 파들파들 떨기 시작하였다. 마치 이 순간에 수백대의 자동차와 짐수레들이 엄폐부로 달려간듯하였다.

포사격이 우뢰가 울듯이 우르릉거리면서 쓰딸린그라드의 외진 초원에서 울려왔다.

*　　　*

꼬스쨔가 선참으로 거리로 뛰여나갔다.

(처녀애들을 깨워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채 내처 자구말겠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점차 커지는 집중된 우르릉소리에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야 참 멋있겐 타는구나!)

그 순간 와냐와 뻬쨔가 그의 뒤로 뛰쳐나왔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겨울하늘에 무지개가 비끼였다! 좀 더 낮추 뜬 검은 구름— 은하수들이 반짝거리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맹렬히 구을러가는듯하였다. 동쪽하늘에는 노을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노을은 자볼지예포부대의 일제사격의 시뻘건 불빛과 합류되였다. 그런탓에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아이들은 머리를 추켜든채 서있었다.

길다란 불꼬리를 단 살별의 무리같이 《까츄샤》포의 포탄들이 아이들의 머리우로 날아갔다. 포탄들은 곡선을

그리면서 그리고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그리로 공장마을변두리 저쪽으로, 마마예브 꾸르간너머로 줄달음쳤다. 그리고 저기 남쪽은 다르고라너머에서, 곡물창고 저쪽에서 그리고 또 여기 북쪽은 스빠르따꼬브스끼너머와 오를로브까아근에서 요란한 폭음이 터졌다. 처음에는 확 터져오르는 불기둥만 보이더니 다음에는 그 불기둥이 촘촘히 일떠서는 불의 담벽들과 합쳐졌다. 그리고 자볼지예의 참나무숲에서는 매초마다 일제사격하는《까츄샤》포의 새라새 불줄기들이 연방 뻗어나갔다. 그 불줄기들은 칼집에서 뽑은 예리한 장검과도 같이 아침안개를 쩍쩍 갈라놓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예비부대가 일에 착수한것이였다.

로케트포탄들의 요란한 소음은 제르노브가 이야기해준 숲의 폭풍을 꼬스쨔에게 련상시키였다.… 쇠소리가 울리고 공기가 진동하고 우르릉대고 땅을 들었다놓고 하늘이 흔들리는듯하였다. 그리고 포중대들의 폭음과 머리우로 날아지나가는 포탄들의 긴 부조화음의 휘파람소리는 마치 피아노의 팽팽하니 켕긴 현들의 음향과도 같이 제르노브의 음악의 거센 화음을 꼬스쨔의 기억속에 되살리는것이였다. 제르노브는 그 음악에서 폭풍에 쓰러지는 밀림의 아름드리나무의 중압을 표현하였었다.

(바로 이건… 바로 이건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다.)

꼬스쨔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쓰딸린그라드를 둘러싼 불의 반원형으로부터는 뜨스한 공기의 파도가 흘러왔다. 그 공기의 파도가 아주 흐뭇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이제는 대지가 더러운 파시스트놈들을 자기의 얼굴에서 털어버리는 그런 불의 분출을 기뻐하는듯하였다.

그 순간 꼬스쨔는 아버지를 회상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눈앞이 흐려지고 목안이 꽉 죄여들어 침이 넘어가지 않

았다. 그리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어디론가 튀여나간듯하였다. 지금 만약 어디건 혼자 있게 되면 끄스쨔는 실컷 울었을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광경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눈물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끄스쨔는 자기곁에 서있는 찌또브련대장을 슬그머니 훔쳐보았다. 그러자 이런 눈물은 조금도 부끄러워할게 없다고 생각한 그는 련대장한테로 얼굴을 돌리였다. 련대장도 끄스쨔가 왜 우는지 리해할것이다.

(뿌르긴소좌가 오늘까지 살아있지 못한것이 정말 유감스럽구나! 그는 붉은군대가 자기의 위력으로 적을 덮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하고있었고 믿고있었다. 《앞으로!》, 이 말은 그가 즐겨쓰던 말이다.)

찌또브련대장은 끄스쨔를 바라보면서 뿌르긴소좌를 회상하였다. 끄스쨔는 아이답지 않게 코마루우에 주름살들이 잘었고 량볼로는 주먹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도 끄스쨔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태를 앞질러 내다보면서 쌍지팽이를 내던지고 앞으로 내달릴 차비인듯하였다. 전사한 끄스쨔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쟈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할 작정인듯하였다! 붉은군대는 오늘부터 우리의 땅에서 파시스트강점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리라는것을 그는 확신하고있었다.

《이제 곧, 얘들아, 이제 곧 학교에 가게 될게다!》

포민이 말하였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로 다가가서 어머니심정으로 그들을 포옹하였다.

하늘에는 파도뒤에 또 파도가 밀려오듯이 뚜뽈레브의 신형고속도폭격기들이 날아지나갔다. 그들의 둘레에서는 야끄블레브와 라워치낀의 민첩한 추격기들이 빙빙 맴을 돌고있었다. 그러자 뻬뜨랴꼬브의 쌍발기인 급강하비행기의 편대들이 구름을 헤가르며 나타났다. 그 편

대들의 뒤를 따라 엄청난 구름떼같은 폭격기들이 달려나왔다. 그런데 금시 습격기들의 한 대부대가 요란한 동음과 함께 하늘을 메웠다. 《아홉번째 파도(가장 드세고 위협한 파도)》였다. 무서운 《하늘의 땅크들》(병사들은 일류쉰이 고안한 습격기를 그렇게 불렀다.)이 고도를 낮게 잡았다. 그 비행기들은 날개를 흔들어 쓰딸린그라드방어자들을 축복하였다. 답례로 모자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함성이 터져올랐다. 그렇지만 꼬스쨔도 뻬쨔도 와냐도 말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단지 입술들의 움직임과 희색이 만면한 얼굴들을 보고 쓰딸린그라드사람들이 쏘베트항공의 어방없는 위력을 축복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였다.

대렬명부에 뿌르긴소좌의 이름이 영구히 등록되여있는 1중대에서 련락병이 달려왔다. 그는 버릇대로 두어깨사이에 목을 움츠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전호안에 뛰여들었다. 그러나 자기앞에 허리를 쭉 펴고 서있는 찌또브련대장과 포민중사며 참모군관들을 보자 겁에 질린듯도 하고 점직해하는듯도 한 표정을 하였다. 꼬스쨔는 이 련락병을 련대에 온 첫날부터 잘 알고있었다. 꼬스쨔가 보기에는 그는 체소한데다가 목이 다발고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같았다. 그런데 그런 이 련락병이 금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버쩍 쳐들자 영영 딴사람이 된듯하였다. 그는 마치도 어깨가 늘어나고 드세고 어엿한 병사로 성장한듯하였다. 그러면 꼬스쨔의 눈앞에서 바로 이 순간에 비로소 그가 그렇게 성장하였겠는가! 그의 둘레에서는 누구나가 다 지금은 머리들을 버쩍 들고 꼬스쨔의 아버지가 남아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듯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에게서 진정 장수힘을 느끼는듯하였다.

추격기의 첫 편대에 뒤이어 둘째, 셋째, 넷째 편대…

다섯째 편대가 나타났다!
《100대씩 네개 편대다!》
와냐가 큰소리로 말하였다.
와냐는 허공에다 손으로 4자와 0 두개를 그리고 손가락을 네개 펼쳐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새로운 편대들이 또 나타났다. 그래서 와냐는 부득불 량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열손가락으로 계산하는수밖에 없었다.
《스물, 서른…》
그 순간 포위된 수비대상공으로는 《야끄브》석대가 날개를 흔들면서 날아지나갔다. 그러자 그아래 섰던 사람들은 다정하게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다. 와냐는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화를 내면서 손바닥에다 침을 뱉아가지고 열렬히 박수를 쳤다.
마침내 아이들은 흩어져서 처녀애들을 데려내오기 위해서 변전소로 달려내려들 갔다. 그러나 처녀애들도 어느새 거기에 와있었다. 그 애들의 곁에 리자의 어머니도 서있었다. 리자의 어머니는 해빛으로 하여 눈을 쪼프리듯이 전에없이 자주 눈시울을 슴뻑거렸다. 공중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을 다 알아보는듯하였다. 녀인은 비행기가 몇대이며 어떤 비행기들인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다. 그대신 몸으로 느끼였고 머리로 알았으며 날개돋친 조국 방위자들이 날아오는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녀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다. 꼬스쨔는 이 순간 앞못보는 리자의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녀인이 기도를 드리듯이 소곤소곤 말하는것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나의 조국! 감사합니다. 쓰딸린동지!》
그러자 꼬스쨔의 머리에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쓰딸린동지한테 편지를 써야지. 이오씨프 위싸리오노위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인민들에게 쓰딸린

그라드사람들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행기들에 대한, 그들이 파시스트놈들을 족쳐대는데 대한 저의 감사의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별안간 그분이 《이애 꼬스쨔야, 너는 전선에서 무엇을 하고있냐?》 하고 물으시지나 않을가? 그이한테 뭐라고 답변을 드릴가? 문득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수 있지. 《어째서 학교에 가지 않니, 왜 아버지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거냐?》 아니, 그럴수 없어.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하지만 만일 물으시면 죄다 털어놓고 말씀드려야지. 하나도 감추지 말고 다 고백할테야. 그리고 내가 하리라고 결심한걸 편지로 써보낼테야.)

《얘, 꼬스쨔.》 와냐가 그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가서 우리가 할 일을 좀 생각해보자.…》

제 21 장

아직 날밝기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마마예브 꾸르간의 경사가 느린 언덕으로 강하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깊은 폭탄구뎅이와 적들의 포사격자리들을 덮어버리면서 불어지나갔다. 마치 산언덕의 불에 탄 경사면들을 자연이 손수 랭각시키고 치료하기 시작한듯하였다. 중요한 군사지점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도시우에 솟아있는 이 고지에다가 얼마나 많은 강철과 무쇠, 연덩이들을 쏟아부었던가! 적들이 이 산언덕꼭대기에 기여올라 여기서 자기의 포부대들의 사격을 지휘하던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쓰딸린그라드에 있어서 간고한 시기였다.

현재 여기에는 북쪽경사면에 전투초시기처럼 뽀자르스끼장령이 자기의 감시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파시스트놈들이 아직 틀고앉아서 숙명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짖어대고있는 뜨락또르공장이며 초원의 신작로들이 빤히 보였다. 초원의 신작로들로는 아직도 적의 모터찌클병들이 문건들과 쏘련군대의 거듭되는 새라새 타격에 대한 보고들을 가지고 뛰여다니였다.

누구누구 해도 뽀자르스끼장령은 어째서 적의 련락병들이 그렇게 초원으로 뛰여다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말하자면 쓰딸린그라드전선의 좌우익측에서 시작된 붉은군대의 공격은 성과적으로 계속되고있는것이였다. 그리고 오늘래일간에 히틀러도당의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거창한 포위철환속에 들게 될 형편이였다. 그리고 여기 쓰딸린그라드의 장벽앞에서는 영웅적인 볼가강안방어자들이 적의 방어진을 짓뭉개면서 구역들과 거리들 그리고 전지역을 돌격전으로 차지하고있었다.

찌또브련대가 방어하고있던 포위된 수비대의 봉쇄는 어제 비로소 돌파되였는데 오늘은 벌써 마마예브 꾸르간과 린접한 고지들의 공격이 시작되였다.

뽀자르스끼장령은 이발저발 갈아디디면서 망원실체경의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손가락들을 호호 불어가면서 발견된 적의 목표물들을 지도에 표식하였다. 고지들의 포부대공격이 시작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추웠다. 가시같은 눈을 몰아오는 칼바람이 참호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리로 해서 감시초소안에도 스며들었다. 뽀자르스끼장령의 발밑에서는 어느새 눈이 뿌드득거리였다. 곁에 서있는 전화수들과 무전수는 이따금 몸을 부르르 떨군했다.

《추위들을 몹시 타는가보지?》

뽀자르스끼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신 마음은 뜨뜻합니다.》
한 전화수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다치고 저기 저놈들은 어떻겠습니까?》 적들이 있는쪽을 가리키면서 무전수가 덧붙여 말하였다.
《놈들이 입고있는 외투라는건 형편이 없습니다. 어제 한놈 붙잡아왔는데 글쎄 말뚝처럼 몸을 굽히질 못했습니다.…》
뽀자르스끼는 다시 망원경에 달라붙었다. 그의 눈앞에는 고지의 중턱이 놓여있었다. 거기서는 바람이 회오리치면서 눈을 몰아가는 품이 여기 마마예브 꾸르간의 언덕받이보다도 한결 더 세찬것 같았다. 하얀 띠모양인 땅바닥으로 기여다니는 눈보라가 파도처럼 공장철뚝을 넘어 구을러가서 장애물들을 떨어버리는것이였다.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공격을 준비하고있는지 잘 아는 장령의 로련한 눈만이 지뢰원에서 통로를 내고있는 공병들이 눈보라를 능숙하고도 꾀바르게 리용하고있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흰덧옷들을 걸치고있었다. 지어 그들은 지뢰탐지기마저도 하얀 붕대로 감았었다. 그리고 저기 페허들너머 뚝가까이에는 흰 반외투를 입은 돌격조원들이 공격을 준비하고있었다.…
그 순간 장령은 심장가까이 앞가슴에 달린 따뜻한 호주머니에 간수해둔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전달하시오.… 주목!》
손바닥에 시계를 올려놓은채 장령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였다. 그 명령신호대로 포병들은 만단의 사격준비를 갖추고 포앞에들 서있었다.
초침이 공격개시를 앞두고 마지막바퀴를 돌아가고있는 동안 장령은 다시한번 고지를 살펴보았고 그다음에는 공격계선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명령을 계속 기다리고있는 전화수들과 무전

수들은 문득 장령의 거동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망원실체경앞에 굳어진듯 장령은 숨을 죽인채 긴장해서 찌또브네 근위련대의 돌격조들이 행동을 개시하게 되여있는 방향을 주시하고있었다. 거기서는 누군가가 전화수들이 발견한 그대로 위장약속을 위반하고 돌격조들의 위치를 로출시키면서 지뢰원을 향하여 개활지대를 무슨 흑점처럼 움직여가고있었다. 장령은 시계가 들어있는 손바닥을 꽉 부르쥐였다. 그리고 마치 시간을 정지시키려고 애를 쓰기라도 하는듯이 그것을 그냥 줌안에 부르쥐고있었다. 망원경에 댄 그의 눈에는 시커먼 외투를 입고 손에 수류탄을 든채 달려가는 소년의 형상이 빤히 보였다.

《저 애가 어디로 달려가는거요?! 멈춰세우시오!…》

장령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는 자기가 공격을 준비하고있는 련대에 있는것이 아니라 집단군감시소에 있다는것을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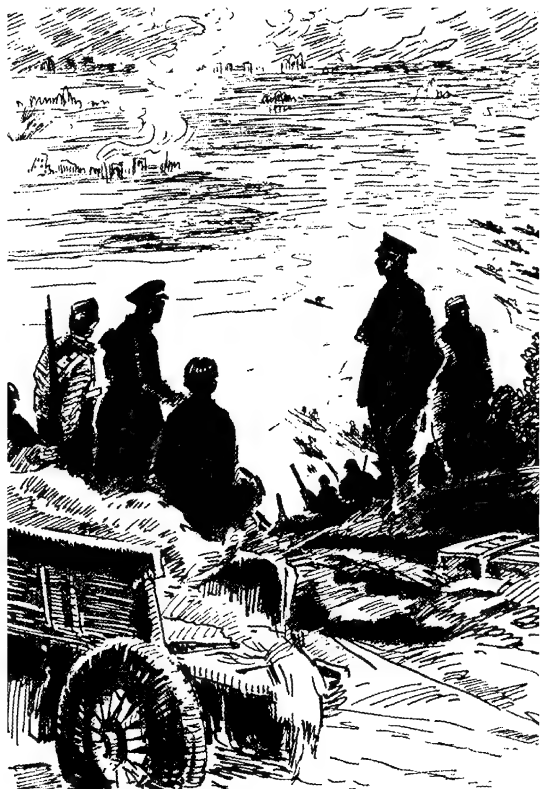
다시 1분이 지났다. 달려가던 소년은 땅바닥에 엎드린채 폭탄구뎅이안으로 기여들어갔다. 망원실체경에서 허리를 편 장령은 《사격》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무전으로 찌또브를 불렀다.

《당신은 뭘 보고있소!… 당신은 어린애를 어디로 내보냈소?… 멍청이같으니!》

이윽고 장령은 송수화기를 무전수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사려문 이를 풀지 않은채 말하였다.

《사격!》

*　　　*

직사포와 자볼지예 포중대의 첫 일제사격은 적의 지뢰들이 촘촘히 매설된 고지기슭에 명중하였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깊은 폭탄구뎅이안에는 한 소년이 앉아있었다. 포탄들은 쇠소리를 지르면서 어딘가 폭탄구뎅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 그 폭탄구뎅이밑에는 다 아는바와 같이 와냐가 엎디여있었다.

와냐는 자기를 충분히 준비된 병사인듯이 생각하면서 공격준비 포사격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폭탄구뎅이안에 숨어있었다. 그랬다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파시스트놈들의 참호로 달려가자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즐겨 말하듯이 《파시스트놈들을 수류탄으로 요정내기》위해서였다. 아군이 공격에로 넘어간이상 그는 이 변전소에 앉아서 시시한 일에 골몰하고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전히 그들을 후방으로 보낼 작정들이였다.

(후방에서 내가 무엇을 한단말인가? 이제 곧 전리품자동총을 가지구 도망가는 파시스트놈들을 족쳐대기 시작할테다. 방어를 하던 때에는 난 싸우기 어려웠지. 이젠 련대장동지가 자기 눈으로 내가 쓸모가 있다는것을 보게 해야지. 보시구는 말씀하시겠지. 《공연히 젊은이를 거절했군. 역시 그 애를 포지휘관으로 임명해야겠는걸.》바로 이게 문제로 될거란말이야!)

와냐는 폭탄구뎅이속에 착 엎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는 우리 군대가 공격에로 넘어가기 전날밤 찌또브련대장의 엄폐부에서 있은 담화후 와냐는 역시 자기나름으로 행동하리라고 결심하였었다. 와냐는 잘 아는 기관총수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공격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물어보는 한편 수류탄을 한개 손에 넣었다. 그리고 얼마후 또 한개 구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또 하나는 꼬스쨔에게 주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아침 일찌기 꼬스쨔를 깨워서 그에게 수류탄을 보였다.《이건 네것이고 이건 내거야.》와냐가 꼬스쨔에게 말하였다. 《난 이걸 씌우개채로 루바슈까속에 집어넣었지. 너 가지고싶으면 가져라. 그렇지만 이걸 멀리서 던지고는 곧 엎드려야 한다. 그래야지 파편들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멀리까지 날아온다.》

꼬스쨔는 수류탄을 손에 받아들었다. 그걸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불같았다. 수류탄은 손바닥우에 얌전하게 놓여있었다. 기회만 마련되면 그걸 멀리로 던질수 있는 것이다.

《어디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내기해보자.》

꼬스쨔는 와냐에게 제기하였다.

《아니 너 이건 전투용이야. 그리고 누가 보기라도 하면 이것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변이 생길지도 몰라.》

와냐가 말하였다.

《알겠다. 그러니 넌 이 수류탄들을 훔쳤단말이지?》

《그래, 그렇기로서니… 너의 그 월로쟈아저씨가한테 가서 일러바쳐라.》

《난 네가 생각하고있는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꼬스쨔가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물었다. 《그런데 넌 이것들을 뭣하러 가져왔니?》

와냐는 꼬스쨔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가서 소곤소곤 솔직한 심정을 말하였다.

《오늘 우리 군대가 공격을 한다. 알겠니? 그러니 우리 둘이서 가잔말이야. 젠장, 파시스트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자꾸나! 난 삐쨔는 안데리고가겠다. 그애는 약골인데다가 겁쟁이거든, 어때?》

꼬스쨔는 잠시 망설이다가 느닷없이 물었다.

《그런데 련대장동지와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승낙하셨니? 승낙하신다면 가자.》

이 질문은 와냐를 당황케 하였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대꾸하였다.

《다들 가는데 물어볼거나 있니.》

《아니야. 승낙이 없이는 난 가지 않을테야. 물어보자꾸나. 그런 다음 둘이 함께 가자.》

꼬스쨔가 제의하였다.

와냐는 화를 내면서 손을 홱 내젓고는 가버렸다.

《와냐야, 서라.》

꼬스쨔가 그를 만류하였다.

《왜 그러니?》

《와냐, 가지 말아!》

꼬스쨔는 동무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지만 와냐는 실쭉해서 그것을 뿌리쳤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새 공격계선에 있는 폭탄구뎅이안에 엎드려있었다. 와냐가 그리로 뛰여든것은 련대돌격조들이 공병들의 뒤를 따라 전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주목이 전투마당을 감시하는 지휘관들처럼 고지우로 당장 공격을 하게 되여있는 적의 보루로 쏠렸던 바로 그 순간이였다.

와냐의 타산대로 하면 적의 전연에 대한 공격준비포사격은 반시간이상 계속될것이고 그다음 포병들은 사격방향을 적의 종심으로 돌릴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보병들은 맹렬한 포사격에 뒤지지 않고 적의 참호를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할것이였다. 와냐는 이 모든것을 기관총중대에서, 즉 자기의 친구들한테서 엿들었던것이다. 그렇지만 폭탄구뎅이가까이에 떨어진 포탄들이 폭발한지 5분도 채 안지났는데 멎어버렸고 와냐가 판단한것처럼 맹사격은 멀리로 옮겨갔다.

《에잇, 제기랄!》 와냐는 바삐 서둘렀다. 《그러니 모두 하품이나 실컷 할수 있겠군그래.》 그리고는 폭탄구뎅이

에서 뛰쳐나와 앞으로 내달리였다. 그의 손에는 수류탄이 두개 들려있었다. 그는 목표건 사람들이건 앞을 보지도 않고(벌판 상공에는 어느새 눈보라가 회오리치고있었다.) 지뢰가 매설되여있는 구역으로 달려갔다.

*　　*

포민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변전소로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이리로 달려온것은 애들이 모두 제 자리에 있고, 장령은 분명히 꿈을 꾼것이며 공연히 흥분하였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포민이 그처럼 흥분한것은 아이들이 깜짝 놀랄만치 뜻밖의 현상인것이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리자가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때 리자와 뻬쨔가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를 면바로 쳐다보면서 아이들은 어째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알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은 락천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보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지금은 그의 얼굴에 어두운 반점들이 내돋았고 얼굴이 발작적으로 이그러졌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끄스쨔, 와냐는 어디 갔니?》

무전기앞에 서있던 끄스쨔는 눈을 들지 못한채 죄스러운듯 대답하였다.

《공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그렇다는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리자가 그에게 대들었다.

《그런 책임이… 없으니까 그랬지.》
《왜 책임이 없어?》
포민이 물었다.
《그애는 나를 찾았지만… 나는…》
《와냐를 일러바치는게 두려워서 그랬지?》
리자가 성이 나서 끼여들었다.
《와냐가 나간게 뭐가 어쨌다는거야? 갔으면 이제 오겠지. 꼬스쨔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구그래?》
뻬쨔가 두둔해나섰다.
《꼬스쨔는 자기 동무를 배반할수 없는 사람이야. 그 동무에게 비밀이 있다고 해도말이야.》
《너두 그렇다는거지!》
리자가 뻬쨔에게 대들면서 말하였다.
《야, 넌 좀 가만있거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정말 그럴수 있을가요? 그 애한테…》
뻬쨔는 말을 하다 말았다.
포민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홱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애들은 꽉 닫긴 문을 바라보면서 점도록 말없이 서있었다.
저녁무렵에 아이들은 와냐를 위생중대로 실어왔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반보병지뢰에 걸렸던것이다. 공격준비포사격이 잠시 멎었을 때 공병들이 와냐를 뒤쫓아 달려갔으나 미처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하였다. 와냐를 따라잡은 병사 역시 지뢰에 부딪쳐 전사하였다.
아이들은 와냐를 보러 위생중대로 갔다.
그는 아직 목숨이 붙어있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전신이 만신창이 되여있었다.
《와냐, 와냐…》

꼬스쨔는 숨져가는 동무의 침대곁에 서서 눈물이 글썽해서 거듭 불렀다.

*　　*

…얼마후에 쓰딸린그라드와 돈강전선의 군대가 깔라치지역에서 합류되였고 쓰딸린그라드에 덤벼들었던 히틀러도당의 엄청난 군대가 포위속에 들었다는것이 알려졌다.

이무렵에 찌또브련대는 새로운 과업, 포위된 도이췰란드 파시스트군대를 격멸하기 위한 대공격을 준비하고있었다. 이 시기 찌또브련대장과 뽀자르스끼장령에게는 긴급하고도 방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꼬스쨔며 뻬쨔, 리자, 기라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봉을 조직하였다.

《무엇보다도…》 뽀자르스끼장령은 롱담을 꺼냈다. 《아동정신의 총사령관이며 전략가의 말은 순종해야겠지?》 그러고는 곧 포민을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발언을, 교원동무, 동무가 해야 하겠소.》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까? 양자로 삼는데 대해서 말입니까?》 포민은 한결 반롱조로 말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애들은 다시 고아로 될수 있을것입니다.…》

뽀자르스끼장령과 찌또브련대장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자 포민은 곧 정색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애들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있고

애육원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게 될것입니다.…》

이 시각에 변전소에서 아이들은 쓰딸린동지앞으로 편지를 쓰고있었다.

오래 걸려서 많은것을 썼지만 편지는 간단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쓰딸린동지, 지금 우리들은 쓰딸린그라드가 곧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쓰딸린그라드를 위한 전투에서 희생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는 우리들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류랑아들도 아니고 고아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공부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멀지 않아 우리의 부모님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기계기사로, 건설자로, 농업기사로, 교원으로 될것을 당신께 약속합니다. 우리들은 당신께서 바쁘시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간단히 쓰고 서명을 합니다.

꼬스쨔 뿌르긴, 리자 뻬스꼬와, 기라 쏴라후지노바, 뻬쨔 쵸르노브. 1942년 11월 26일 쓰딸린그라드 〈바리까드〉마을.》

*　　*

…불탄 대지우에는 새로운 정원들이 생겨났다.

그 정원들에서 풍만한 열매를 거두는것은 금년이 첫해가 아니다. 한때 연과 금속의 회오리가 광란하던 곳에서 지금은 평화스러운 생활이 영위되고있었다. 자볼지예구역의 복구된 공원상공에는 비둘기들이 날아돌고있었다. 낮추 날아내린 비둘기들은 가로수 늘어선 큰길우로 쏜살같이 날아지나갔다. 그리고 관목우듬지들에 날개를 스칠

듯말듯하면서 공원변두리에 자리잡은 큰 건물에로 날아갔다. 거기서 비둘기들은 허공에 부채를 그리면서 땅에 내려앉았다.

학교정원앞 화단가까이에 놓여있는 장의자에서는 포민이 휴식을 하고있었다. 비둘기들은 의젓하게 화단들사이로 날아지나서 점점 더 장의자있는데로 바투 다가왔다. 비둘기들은 가슴에 석줄로 주런이 달린 훈장에 붙은 금속판들이 번쩍거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을 면바로 쳐다보면서 결정적으로 대담해졌다. 비둘기들은 그와 친숙해졌었다. 끝에 시꺼먼 고무두겁을 씌운 쌍지팽이조차도 그것들을 당황하게 하지 못하였다.

열려진 교원실창문으로 처녀가 흰 웃옷을 입고 삐오네르넥타이를 맨 얼굴을 내밀었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전보가 왔습니다!》

처녀가 말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그만 의족을 잊어버려 하마트면 넘어질번하였다. 그렇지만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익숙한 동작으로 쌍지팽이에로 손을 뻗치였다. 그런데 심술을 부리듯이 쌍지팽이는 손에 잡히질 않았다. 서두르는 일이 늘 그렇게 되기가 일쑤인것이다. 쌍지팽이는 장의자로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졌다. 한옆으로 뛰여나간 비둘기들은 쫑긋 귀를 세우는듯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처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처녀는 어느새 교원실에서 나와 회오리바람처럼 꽃밭사이로 달려오더니 숨을 헐떡거리면서 전보를 내주었다.

《싸라또브에서 왔군.》

그것은 리자한테 온것이였다. 전쟁때 쓰딸린그라드땅굴속에서 살던 바로 그 어린 리자였다.

10년제학교를 마친 후 리자는 공청중앙위원회직속 양성소에 파견되였는데 벌써 4년째나 쓰딸린그라드격전시의 영웅들의 기념비옆에 건설된 학교에서 상급삐오네르지도원으로 일하고있다.

리자는 종종 꼬스쨔를 회상하였다. 그를 만나보고싶어하였고 지난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첫 상봉을 회상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보고싶었던것이다. 리자는 종종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에게 꼬스쨔에 대하여 물어보군하였다. 그러나 꼬스쨔는 금년에는 편지를 드물게 하였다. 졸업론문때문에 무척 바쁜탓일수 있고 잊어버리기 시작한때문일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리자는 자기자신을 위해서보다 차라리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를 위하여 분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속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리자는 한옆으로 물러섰다. 전보를 읽고나서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말하기를 좀 기다리자는것이였다. 새까맣고 민첩한 눈을 가진 그의 정력적인 얼굴에는 긴장이 굳어졌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펼치였다.

《오는군!》 그는 기쁜듯이 소리를 질렀다. 《꼬스쩬까가 온단말이요! 아 고맙소. 잊지 않고 오는군!》

그런데 비둘기들은 마치 주인의 기쁜 심정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이 기쁨에 넘쳐 뭐라고 구구거리더니 학교의 정원상공으로 날아올랐다.

리자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팔을 부축하였다. 처녀는 전보를 얼핏 볼수 있었다. 거기에는 다해서 두마디의 말이 적혀있었다. 《간다. 꼬스쨔》 그러나 이 두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꼬스쨔는 이 시각에 기선갑판우에 서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가없이 넓은 자볼지예초원이 펼쳐졌다. 초원에는 아직도 사나운 열풍의 흔적이 력연하였다. 그것은 꼬스쨔의 가슴속에 대격전을 준비하고있는 군사지휘관이 느낄수 있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농촌경리기계화대학의 학생으로 있으면서 그는 자볼지예구역으로 실습을 다니였고 그때 자기의 일생을 건조한 열풍과의 투쟁에 바치기로 결심했었다. 이 일을 하자면 완강성과 근기가 공기와도 같이 필요한것이였다. 그런데 꼬스쨔는 그런 자질이 자기의 동료들보다 현저하게 뛰여났다.

졸업증을 타자 꼬스쨔는 기계기사로 이 초원의 자동차, 뜨락또르정류소에 가서 일하라는 파견장을 받았다. 꼬스쨔는 여전히 정원과 나무들을 사랑하였다. 그 애정은 어렸을적부터 아버지가 길러준것이였다. 그리하여 꼬스쨔는 자기의 기억속에 아버지의 밝은 영상을 고이 간직하고있으면서 가물이 심한 초원의 조건에서 나무들의 생활법칙과 성장의 법칙들을 연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학실험포전에서 자란 미래의 참나무묘목을 얼마간 가지고왔었다. 더러는 자기의 선생이며 아버지인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 포민에게 선물로 드리고 더러는 일터에 가져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즐겨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가지고왔던것이다.

기선은 정시에 부두에 도착하였다.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기선 사닥다리에서 꼬스쨔를 맞이하였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얼싸안고 오래도록 서로 포옹하고있었다. 손님들가운데서 어느 한사람도 감히 그들을 재촉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들 하였다.

꼬스쨔는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의 손을 추켜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은채 기슭으로 걸어나갔다.
《아니 너 꼬스쩬까! 내 스스로 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꼬스쨔는 힘주어 말하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뒤에 처녀가 따라오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리자였다.
《응, 다들 만났구만.》 그들(리자와 꼬스쨔)이 주춤거리면서 걸음을 멈춘것을 보자 포민이 말하였다.
몇시간후 꼬스쨔와 리자 그리고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는 학교정원으로 산보를 나갔다. 거기서는 삐오네르들과 남학생들이 어느새 땅을 뚜지고 꼬스쨔가 가져온 나무모들을 심고있었다. 마치 아이들을 고무하듯이 학교정원에 설치해놓은 라지오확성기에서는 명쾌한 음악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음악의 중간휴식때 느닷없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구야?》
꼬스쨔가 물었다.
《못알아보겠니?… 이건 기라 솨라후지노바야. 그애는 예술전문학교를 마치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일하고있어.》 리자가 설명하였다.
《아흐뚜빈건설구의 쓰따하노브운동참가자인 굴착기운전공 뾰뜨르 쵸르노브동무는 로씨야해병들의 옛노래―〈와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기라가 공포하였다. 그러자 온 정원에, 아니 온 도시에 전투적인 노래가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노래는 꼬스쨔와 리자에게 무척 많은것을 련상시켰다.
꼬스쨔는 잠시 다부지고 건강한 쓰따하노브운동참가자 뾰뜨르 쵸르노브의 히죽비죽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꼬스쨔는 한때 그를 《집시―뻬까》라고 불렀던것이다. 뻬쨔는 굴착기의 공간앞에 앉아서 자기의 요청에 의하여

연주되는 노래를 미소를 띠고 듣고있을것이다.
《뻬쨔는 일을 잘하고있다. 얼마전에 나한테 놀러왔댔어.》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말하였다. 《건설대학에서 통신으로 공부하지. 이제 곧 기사가 될거다.》
《뻬쨔는 존경할만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리자가 덧붙였다.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자기는 기라를 사랑한다는거야. 하지만 그 애한테 그렇다는걸 솔직히 말하기가 두렵다는거지뭐…》
《용기가 생길게요. 그러면 말하겠지.》
꼬스쨔가 결론을 내리듯이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도 얼굴이 빨개져서 점직해하는듯하였다.
리자가 이렇게 물었다.
《꼬스쨔, 너 휴가를 받으면 우리한테 오겠니?》
꼬스쨔는 리자를 면바로 쳐다보고는 가볍게 한숨을 짓더니 이렇게 대꾸하였다.
《오구말구.》
《그렇다면 아주 좋아.》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가 강조하였다.
그 이튿날 그들은 셋이서 쓰딸린그라드격전의 그 잊을수 없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쓰딸린그라드격전의 잊을수 없는 그날 열렬한 반땅크총사수 미하일 제르노브가 올라갔던 그 언덕우에서 근위기발앞에서 근위병들이 하듯이 꼬스쨔는 발길을 멈추고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그대의 위훈은 활활 타는 홰불처럼 항상 우리 조국의 애국자들의 심장을 밝게 비쳐주고 불타게 할것이다. 그대 미하일 제르노브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으라.》
꼬스쨔는 영웅의 무덤앞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한 찌또브의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였다.

만일 이 장소에 뽀자르스끼장령과 찌또브련대장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른이 된 꼬스쨔 뿌르긴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깊이 생각할것도 없이 꼬스쨔를 쏘련군대의 사랑하는 련대에 받아주었을것이다.

1951～1954년 모스크바에서